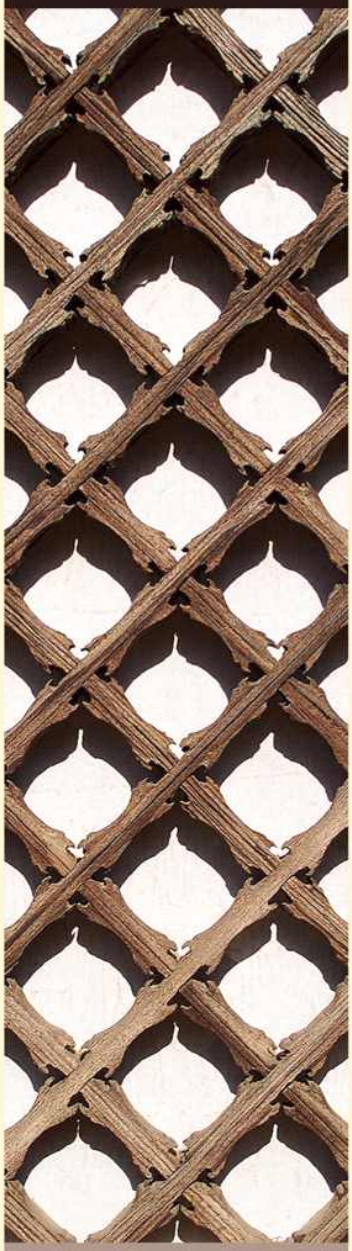
韓國書院學報

제 2 호



韓國書院學會
2013. 12

차례

기획논문_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 이수환/ 7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 옥영정/29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 방향 …… 이해준/55

일반논문_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 임근실/ 89
道東書院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 이병훈/127
道東書院 祭享儀禮의 特徵 …… 崔順權/185
남원 노봉서원 건립과 운영 …… 강지혜/205
淸末 서원 교학과 운영의 正體 …… 이영란/237
-湖南省 嶽麓書院을 중심으로-

서평_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 이해준/263

휘보 275

The Journal of Korean Seowon Studies No.2

NO. 2 December, 2013

Contents

Articles

Present Situation and Subject of Summarization of Seowon Records ····· Lee, su hwan / 7

Measures of Preservation,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Seowon Materials ····· Ok, young jung / 29

The Respective Direction of the Compilation of Promotional and Educational Materials of Swowon ····· Lee, hae jun / 55

柳雲龍の『吳山志』編纂意図 ····· 林勤實 / 89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t Dodong Seowon ····· Lee, byoung hoon / 127

The characteristic of Dodong Seowon memorial rites ····· Choi, soon guen / 18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o-bong seowon ····· Kang, ji hye / 205

清末书院教学以及运营本质－以湖南省岳麓书院为中心－ ····· 李映兰 / 237

Book review

Chung, soon woo,『Social history of Seowon』····· Lee, hae jun / 263

기획논문

서원 기록 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_이수환
서원 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_옥영정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 방향 _이해준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이수환*

Ⅰ. 머리말
Ⅱ. 서원자료의 전승 상태
Ⅲ. 서원자료의 정리 현황
Ⅳ. 맺는말 －향후 정리의 과제와 추진 방안－

Ⅰ.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 교화의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사족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라는 데서 이와 관련된 성리학 관련 서책 및 서원운영과 관련된 필사원본류와 고문서 등 많은 기록자료를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관련 자료들은 대원군의 전면적인 서원훼철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

대원군 실각 이후 많은 서원이 복설되기는 하였지만 관계자료는 서원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院任案・入院錄 및 창건과 관련된 일부 자료만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거나 또한 복설되지 못한 경우에는 중요자료 1~2건 만이

* 이 글은 2012년 4월 18일 한국서원학회에서 주관한 제2차 서원전문가 워크숍(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민족문화논총』 52집(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12)에 게재한 것을 다시 전게한 것이다.
**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

후손들에 의해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원군때 훼철되지 않았던 서원은 여타의 서원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지만, 이들 서원도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근대화의 과정 등 외부적 영향과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의 도난 내지 소실이 많아 서원에 따라 차이가 많다.[1)]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유교문화를 대표할 만한 일부 서원에서는 오늘날까지 다양한 문화재 및 역사기록물들을 철저히 보존·관리해 왔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을 중심으로 기록자료의 전승상태와 정리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본고에서 기록자료의 대상은 서원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필사원본류와 고문서뿐만 아니라 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서책과 책판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Ⅱ. 서원자료의 전승상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紹修·藍溪·玉山·陶山·屛山·道東·遯巖·武城·筆巖書院 등에는 여타의 서원에 비해 많은 문헌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 9개 서원은 조선후기 각 지역의 首院으로써 가장 비중이 크고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서 볼 때 많은 서책과 책판 및 서원운영과 관련한 기록자료를 남겼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이 서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자료는 서원별로 편차가 크다. 옥산·도산·병산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원은 자료의 망실과 산질이 심한 상태이다.

먼저 기 발간된 보고서와 서원지 등을 중심으로 각 서원에 현전하는 자료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

---

1)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2001.
2) 이들 9개 서원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제

<표 1> 각 서원별 소장 자료 현황

지역	서원	주향	건립	사액	현전 자료의 수량	정리 현황
경북 영주	紹修書院	安珦	1543	1550	1. 전적 : 周易傳義大全, 朱子大全, 闡義昭鑑 등 30종 145책 2. 고문서 : 謄錄, 竹溪誌, 雲院雜錄, 雜錄, 院任錄, 入院錄, 居齋錄, 尋院錄, 田畓案, 完議 등 110점 3. 책판 : 竹溪誌, 追遠錄, 家禮諺解, 六先生遺稿 등 4종 428장	소수박물관, 국편, 국학진흥원, 규장각, 계명대도서관 등에 분산소장.『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국편, 1999)에 일부 등재,『紹修書院誌』(영남문헌연구소편, 2007)에 전편 수록.『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紹修書院所藏資料報告書』(紹修書院, 1998)
경북 경주	玉山書院	李彦迪	1572	1574	1. 전적 : 三國史記(보물525호), 內賜本, 이언적 手澤本 등 943종 3,977책 2. 고문서 : 院任・院生案, 土地・奴婢案, 尋院錄, 都錄, 通文, 所志 등 약 1, 156점. 3. 책판 : 晦齋先生文集 등 19종 1, 123장.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독락당 어서각, 무첨당 등에 분산소장. 『玉山書院誌』(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3)에 선별수록,『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4)에 전적, 고문서, 현판, 기타 유물 목록 일괄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경북 안동	陶山書院	李滉	1574	1575	1. 전적 : 퇴계 手澤本, 內賜本, 易東書院 藏書 포함 1,026종 4,605책 2. 고문서 : 完文, 尋院錄, 院任案, 土地・奴婢案, 通文 등 2, 128점 3. 책판 : 退溪先生文集 등 57종 4,014점	한국국학진흥원 기탁(유교넷으로 서비스) 『陶山書院古文書』(1)・(2)(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4・1997)로 편간. 『陶山書院古典籍』(국학진흥원, 2006)에 모든 자료의 수량 및 목록 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경북 안동	屛山書院	柳成龍	1613	1863	전적 : 家禮諺解, 西厓集, 艮齋集 등 1,071종 3,039책(1969) 2. 고문서 : 書院要覽, 院任錄, 入院錄, 居齋案, 講案, 尋院錄, 土地・奴婢案 등 58점 3. 책판 : 西厓先生文集・別集, 童蒙須知, 陶山及門錄辨訂 등 25종 1,907점	『古文書集成』 20(정문연, 1994)에 병산서원 고문서 수록.『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4)에 전적, 고문서, 현판, 기타 유물 목록 일괄수록.
경북 현풍	道東書院	金宏弼	1604	1610	1. 전적 : 景賢錄 등 내사본 10종 26책. 2. 고문서 : 道東重刱事蹟, 各處通文謄草, 院任錄, 入院錄, 尋院錄, 土地・奴婢案 등 다수 3. 책판 : 景賢錄 1종 71판 4. 기타 : 제기 30점.	『道東書院誌』(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에 선별수록.『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달성군, 2005)에 고서, 책판, 기타유물 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경남 함양	濫溪書院	鄭汝昌	1552	1566	1. 전적 : 寒州先生文集, 桐溪先生文集 등 147점. 2. 고문서 : 經任案, 院錄類, 哀寶錄類, 田畓案, 秋收記, 通文, 簡札 등 717건. 3. 책판 : 一蠹先生文集・介庵先生文集 책판 377점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문화재청, 2005)에 고문서, 고서, 책판 등의 목록수록. 『濫溪書院誌』(1935, 朴彩箕)에 건립연혁, 배향인물 사적이 있음. 『古文書集成』 24(정문연, 1995)에 고문서 수록. 『濫溪書院尊衛錄』(남계서원편, 1962)에 존위록 수록.

2차 서원전문가 워크숍, 2012.4) <부록> 참조.

전북 정읍	武城書院	崔致遠	1615	1696	1. 전적 : 直軒集, 肯構堂遺稿, 武城書院誌(1930) 등 8점 2. 고문서 : 泰山書院院(生)儒案, 院生案, 尋院錄, 奉審錄, 完文, 延額記事, 重修日記, 慕賢稧案 등 49종	『武城書院誌』(崔成在 等編, 1884)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문화재청, 2009)에 고서와 성책고문서의 목록이 있음.
충남 연산	遯巖書院	金長生 宋浚吉 宋時烈	1634	1659	1. 고문서 : 金長生文廟配享敎旨, 儒生到記, 院中賭地記, 齋中記簿, 節目, 學稧案, 田畓改量案, 齋任錄, 連山縣 齋任錄 등 10종 2. 책판 : 沙溪先生遺稿, 沙溪全書, 愼獨齋先生遺稿 등 11종 1,841판	『遯巖書院誌』(1958)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2(문화재청, 2007)에 책판만 있음.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전남 장성	筆巖書院	金麟厚	1624	1662	1. 전적 : 家禮輯覽, 經書辨疑, 書傳, 樂學軌範 등 54종 486책(1996) 2. 고문서 : 奴婢譜, 院長先生案, 執綱案, 補講案, 文稧案, 西齋儒案書, 院籍, 長城府使下帖 등 68건 3. 책판 : 河西先生文集(舊·新), 草千字, 楷字, 墨竹, 筆法板木 등 7종 616판	문적일괄 14책 64매 (보물 제587호) 『筆巖書院院籍』(1802)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筆巖書院誌』(197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 서원에서 현전하는 서원자료는 지역에 따라 수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 즉, 영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전자료의 수가 가장 많으며, 영남권내에서도 퇴계학파권과 남명학파권 간에 차이가 있다. 이는 각 서원에서 생산된 자료의 수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원의 관리소홀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서원에서 보면 內賜本과 제향인의 手澤本 등의 전적은 서원측에서도 중요시 여겨 별도의 함을 제작하여 보관해 왔다. 그러나 서원 건립 초기에 자체 구입하거나 개인·관청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등은 관리소홀로 인해 거의 남아있지 않다. 현재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책은 대부분 19~20세기 초의 것이다. 서원건립 초창기의 전적은 현전하는 傳與記나 書冊置簿記, 書院誌 등을 통해 그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서원에 남아있는 藏書 목록은 대부분 서책과 책판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문서류는 考往錄, 傳與記, 尋院錄, 重建日記 등과 같이 서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서책들과 같이 분류하여 보관하고, 기타 문서 등은 중요도에 따라 목궤 내지 잡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하였다. 서원들은 그 오랜 역사에 비례하여 그만큼의 문서가 작성·보관되었을 것이 자명하지만, 생산된 정확한 수량이나 목록은 기록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서원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비교적 잘 소장하고 있는 옥산서원의 경우에서 보면 모든 문서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원 측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제, 제향, 임원(조직), 관문서(증명서) 등은 文書秩을 두어 목록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었다.[3] 이들 문서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대궤에는 서원의 재정과 관련된 노비·토지매매문서, 전답안, 노비추쇄안 및 부피가 큰 통문을 보관하였고, 중궤에는 집사기, 홀기, 입원록, 전여기 등 서원 조직·제향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였다. 그 외 명문, 완문, 관문 등은 잡문서로 묶어 보관하되 각종 회계록을 별도로 모아두었다. 심원록·고왕록과 같이 수시로 기록하거나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서책과 함께 책장에 보관하였다. 모든 서원에서 이와 같이 보관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서원에서 文書櫃를 별도로 비치한 것으로 보아 문서의 분류와 관리는 비슷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전적은 별도로 소장처인 장서각을 만들거나, 궤에 넣어 동·서재의 별실에 보관하였다. 별실에 보관한 경우는 대개 서원건립 초기에 그러하였고, 이후 장서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보관할 별도의 시설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도산서원의 경우 동서재의 협실에 보관해 오다가 서적수의 증가로 인한 공간부족과 화재의 위험으로 1819년 書庫(光明室)를 신축하였다.[4]

이들 서적의 관리는 원임들이 담당하였다. 1862년 필암서원의 節目에는 內賜한 서책은 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보기를 원하면 서원에 와서 소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책을 보관한 經藏閣(藏書閣)의 출입은 執綱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였고, 또 傳與뒤에 서책을 잃으면 새로운 집강이 추심하여 收藏하라고 하였다. 도산서원도 院規에 서책 수장고에 출입할 시에는 三任(원장·재유사·별유사) 입회시 내지 堂

3) 『壬戌(1862) 五月 書冊都錄』(옥산서원 소장).
4) 광명실 신축은 알려진 1819년(己卯)과 치부기의 乙未年이 차이가 있으므로 상고할 필요가 있다(김종석, 『도산서원고전적』 해제편, 2006, pp.6~8쪽).

會시에만 가능하며 서원의 책은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도산서원 문서가 국학진흥원에 기탁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각 서원들의 전형이 되어 대부분의 서원에서 '書籍門外不出'을 원규나 절목으로 제정・시행하였다.

1752년(壬申) 9월의 옥산서원 完文에는 '옥산서원에는 宣賜 된 책도 많고 서원 설립시 節目으로 정한 書冊不出院門의 규정이 있어 수백 년 동안 1권의 책도 闕失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관가에서 책자를 보기 위해 下帖으로 명하여 빈번히 왕래하면서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기도 했다. 혹은 포쇄를 위해 이동을 하면서 闕失되는 폐단이 있으니 士林들은 원규를 지켜 추후 官長이라도 책을 빌려볼 수 없도록 하라'고 했다. 또한 1792년 치제시 정조는 祭官을 통해 '書籍門外不出'이 원규로 성문화 되어있으니 다행이라고 하면서, 양반들의 私家로 빌려가서 보고 있는 책자는 즉시 서원으로 가져오라고 傳諭하고 있다.[5)]

이처럼 옥산서원에서의 서책의 열람은 서원 내에서만 가능하였으며,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수령 내지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왕명 이후에도 서책의 闕失은 계속 증가하여 이에 옥산서원은 새로이 서책목록을 작성하고 諸生들이 이 규정을 잊지 않도록 판목으로 새겨 걸어 경계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실제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서적이 분실되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서원측의 관리부실이 이어지면서 많은 전적이 유실되었다.

서원은 향촌 내 교육기관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문고 내지 출판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여 지방문화의 창달에 기여하였다. 사액서원은 일반적으로 사액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전답, 노비와 함께 서적을 하사받았으며, 자비로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후 국가에서는 원생들의 공부를 분

---

5)「壬申 九月日 府尹完文」,「壬子 諭旨」『書冊傳與都錄』(壬戌(1802) 8월).

발시킨다는 의미로 서적을 인출할 때마다 서원에 頒賜를 거듭하였다. 또한 각 가문내지 院祠에서 印刊된 문집 등이 반질되어 옴으로써 서원은 향촌사회의 유생들을 위한 도서관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백운동서원이 창건된 지 2년 후에 편찬된 『竹溪誌』에 의하면 소수서원에는 이미 42종 500여 책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었다.[6] 옥산서원은 「1862년 書冊都錄」에 394종 2,545책이, 도산서원은 「1890년 傳掌記」에 490종 2,991책이 나온다.[7] 遯巖書院은 현재 남아있는 서적이 없지만, 현전하는 「齋中記簿」(戊午 3월)에 의하면 주역을 비롯한 경서와 사서, 예서, 각종 문집 등이 소장되어 있었다.[8]

1759년에 작성된 「屛山書院書冊目錄」[9]은 서원의 원임 체임시에 작성된 것으로 총 90종이 수록되어 있다. 병산서원은 도산·소수·옥산서원과는 다르게 서원 인근 명문가들에 의한 院外 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러한 대출은 한편으로 장서의 대량 산실을 야기하여 장서 관리 체계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1673년의 목록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서적이 유실되었으며, 남아있는 것도 낙질이 심하였고 또한 10년 이상 반납을 하지 않은 서적도 있었다. 이 당시 장서의 1/3이 새로 들어온 新書였는데, 이는 18세기 이래 문중, 원사 등을 중심으로 일기와 문집의 출판이 성행하였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769년 목록에서 100종으로 장서가 늘어난 것도 新書의 증가로 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서책의 관리는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아서 1883년 『院案要覽』의 서책록조에서 보면 모두 산질되어 10분의 1정도의 서책만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서원은 이러한 지방의 도서관적 역할 뿐만 아니라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

---

6) 周世鵬, 『竹溪志』 권2, 「順興白雲洞書院藏書目錄」.
7) 유교넷(http://www.ugyo.net) 도산서원 고문서 참조.
8) 이해준, 「돈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2012 참조.
9) 朴現圭, 「<屛山書院書冊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書誌學報』 14, 한국서지학회, 1994 참조.

도 하여 지방출판 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 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10]. 서원에서 간행되는 책은 사서삼경 등 교육용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서원에 배향된 분 또는 서원과 관련이 있는 분의 문집과 유고 등이었다.

<표 2> 서원별 출판현황

서원명	鏤板考(種)	최근 조사 현황
紹修書院[11]	–	4종 428판
陶山書院[12]	17	28종 3,928판
屛山書院[13]	3	25종 1,907판
玉山書院[14]	7	19종 1, 123판
道東書院	–	1종 71판
濫溪書院	–	5종 377판
遯巖書院[15]	3	14종 1,841판
武城書院	–	4종
筆巖書院[16]	1	7종 616판

위 <표 2>는 1778년 徐有榘가 편찬한 『누판고』에 나오는 9개 서원의 출판 현황과 최근 조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17] 이들 서원에서 출판된 서적은 대부

---

10) 강주진, 「서원과 그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11) 이 책록에는 수량을 밝히지 않은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데 『竹溪誌』, 『六先生遺稿』, 『追遠錄』,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 『岳武穆筆籍』, 『鳶飛魚躍』, 『學求聖賢』 등과 沙州에 있어서 찾아오지 못했다고 기록된 『漁溪集』과 『朱書刊補』가 있다(『紹修書院冊錄』, 1762).

12) 『嶠南賓興錄』, 『經書釋義』, 『啓蒙傳疑』, 『退溪言行錄』, 『古鏡重磨方』, 『理學通錄』, 『朱子書節要』, 『松齋集』, 『聾巖文集』, 『雲巖逸稿』, 『溫溪逸稿』, 『退溪文集·續集·年譜』, 『退溪自省錄』, 『耻齋遺稿』, 『月川文集』, 『近始齋文集』, 『溪巖文集』 등의 17종이다(徐有榘, 『鏤板考』(국립중앙도서관소장 古20338) 참조).

13) 『懲毖錄』(전16권), 『西崖文集』(전21권, 별집 9권, 연보 3권), 『梧里文集』(전6권, 부록 4권, 속집 2권, 별집 2권, 부록 2권) 등이 있다.

14) 『求仁錄』·『近思錄』·『大學章句補遺』·『奉先雜儀』·『中庸九經衍義』·『太極問辨』·『晦齋集』 등 7종이 확인된다.

15) 『沙溪遺稿』(전 14권), 『愼獨齋遺稿』(전15권), 『沙溪年譜』(전1권) 등이 있다.

16) 『河西集』(전 14권, 별집 9권)이 있다.

분 주향인 내지 배향인의 문집과 그 후손 내지 문인들의 문집 및 그들의 행적을 엮은 傳記類들이었다. 이 문집류와 전기류는 서원과 연관 있는 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려는 후학이나 후손들의 의도로 간행된 것이며, 나아가 가문과 서원의 위세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소수·도동·남계·무성서원 등은 출판된 서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서원 소장 冊錄이나 현전하는 판본을 살펴보면, 소수서원에서는 『追遠錄』 등 10종이 간행되었으며, 도동서원에서는 1771년에 『景賢錄』이 간행되었다. 남계서원에서는 『文獻公實記』(鄭汝昌)의 초·중간이 1635년과 1743년에 있었으며, 『介庵先生文集』(姜翼)이 1686년에 간행되었다. 『누판고』에서는 무성서원에서의 출판사항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후 1834년에 태안현감과 서원유생들이 품의하여 巡營에서 <桂苑筆耕>을 開刊한 사실이 확인된다.[18]

따라서 각 서원에서는 이러한 서책 출판을 전담하는 刊所를 별도로 설치하여 승려에게 그 역을 맡기고 또한 재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옥산서원은 刊所를 별도로 두고 서적을 출간하거나, 경주부 내지 다른 서원의 판목을 보수하는 일도 수행하였다. 특히, 속사였던 定慧寺에는 1670년 14종의 책판이 있었는데, 이중 9종이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주향자인

17) 『鏤板考』는 정조가 즉위한 다음 해에 각도에 유시를 내려 조사케 하여 정조 20년에 완성된 것이므로 자세히 조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당대의 누락된 도서는 물론 그 후에 간행된 도서가 포함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2008, p.308). 최근 조사현황은 2004년 이래 문화재청과 지자체에서 실시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를 주로 참고하되, 각 지역에서 별도로 목판조사를 실시한 것도 참고하였다(전남대문헌정보연구소, 『전남 서원의 목판』, 1998; 2004~2009년 『(비지정)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 달성군(도동), 안동시(병산), 경주시(옥산), 논산시(돈암), 정읍군(무성)』; 소수박물관, 『소수박물관의 목판과 현판』, 2009; 경북지역의 목판자료(1)·(3), 2005·2007; 이상은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2012) <부록>의 각 서원현황을 참조).

18) 『武城書院誌』 乾·坤, 「桂苑筆耕開刊記」, 1888; 이후 무성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는 1931년에 『武城書院誌』(3책), 1939년에 『曺公金鍾遺稿』(曺漪), 『曺金鍾集』(曺南承) 등이 확인된다.

이언적의 문집과 저술들이었다.[19] 이후 『누판고』가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近思錄이 추가로 간행되면서, 옥산서원에서는 총 10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적출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서원의 기금으로 충당하지만 때로는 문중이나 제자들이 거출한 비용 및 특정유지의 기부금 등으로 印出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손들이나 문인들이 契를 조직하여 그 돈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원이 소장하고 있었던 서책, 책판 및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필사원본류와 고문서 자료 등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특히 서원측의 관리소홀로 많이 망실된 상태이다. 현재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19세기 말에 적성된 각 서원의 院誌, 傳與記, 置簿類 등과 비교해보면 도산·옥산서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0% 이상이 망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서원자료의 정리 현황[20]

1. 목록·해제집 발간

서원자료에 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1932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전국 향교와 서원, 문중에 분포해 있는 고전적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

19) 1670년 정혜사에는 『九經衍義』·『求仁錄』·『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問辨』·『大學補遺』·『梅月堂四遊錄』·『奉先雜儀』·『櫟翁稗說』·『益齋集』·『抄漢書』·『太極圖說』·『韓濩所書赤壁賦』·『晦齋文集』·『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孝行錄』등 14종의 책판이 있었다.(『東京雜記』) 이 중 경주부에서 간행한 『매월당사유록』, 『역옹패설』, 『적벽부』, 『효행록』, 『익재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박장승, 「경주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19, 2001).

20) 이하 내용은 『서원자료 정리의 성과, 현황, 과제』의 <부록> 참조.

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21]

서원자료는 해방 후 다시 한 번 수난을 겪게 된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서원자료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전란을 피해 보존될 수 있었던 자료들도 전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재차 사라져 갔다. 실제 돈암서원자료의 경우 현재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1958년의 서원지에는 도서목록이 정리된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개별 서원 장서에 대한 조사는 1956년 한국어문학회에서 도산서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22] 이후 서원 장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는 1968년 이춘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23] 이 조사를 통해 경상도 서원의 자료들이 비교적 잘 보존, 관리되어 왔으며, 특히 옥산·도산·병산서원 등의 소위 퇴계학맥권의 서원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4,300여 책으로 가장 많은 장서를 보관하고 있던 도산서원은 이 서책들 중 일부가 역동서원의 장서로서 도산서원으로 이관·보관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이 역동서원 장서 중에서 퇴계가 직접 수집한 서적 12종 113책은 임란이전 판본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도산서원 장서는 零本이 적고 타 서원문고나 도서관에서 보기 힘든 책들도 상당수 있어 서원문고의 보고라 할 만하다.

이후 개별 서원별로 자료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일부 자료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갔지만, 서원 소장자료에 대

---

21) 조선총독부, 『朝鮮圖書解題』, 조선통신사, 1932. 이후 전국에 산재한 고전적에 대한 종합적 조사는 1970년 독락당과 옥산서원에 보관 중이던 삼국사기 외 여러 종의 귀중본들을 도난당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서 고전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환기시켰으며, 이후 중요 고전적에 대한 문화재지정과 전국에 산재한 고전적의 조사·정리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동아일보』 1970년 8월 7일(5면)).

22) 한국어문학회, 「도산서원 장서목록」, 『어문학』 1, 1956.

23)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1969에 의하면 예안의 도산서원에는 907종 4,338책, 옥산서원 866종 4, 111책, 병산서원 1,071종 3,039책, 소수서원 141종 563책, 도동서원 95종 529책, 남계서원 59종 317책, 돈암서원 78종 245책, 필암서원 132종 595책이 있었다. 무성서원은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무성서원 자료가 당시까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내용은 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한 일괄 조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2004~2009년 사이에 진행된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에서 였다. 이 조사를 통해 옥산·도동(달성군에서 조사)·남계·병산·돈암·무성·필암서원 소장의 전적, 고문서, 책판 및 기타 유물(기문, 현판, 제기 등) 등의 현황 및 목록, 보존실태 등이 보고되었다. 소수·도산서원은 이 사업과는 별도로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다. 도산서원은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서원자료 10,700여 점을 일괄 기탁하면서, 그 목록이 2006년 『도산서원 고전적』으로 소개 되었으며, 소수서원은 자체적으로 1998년에 「소수서원 소장 자료 조사보고서」(3책)를 간행하여 고서, 고문서 및 기타 유물의 목록과 간단한 해제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처럼 서원자료에 대한 조사가 정부, 지자체, 기관별로 진행되어 대략적인 현황이 파악되었지만, 이 조사는 자료의 목록과 일부 자료에 대한 사진 및 간단한 해제만이 제공되어서 연구자 내지 일반인들이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서원지(자료집) 발간

1930년대 이후부터 각 서원별로 서원지 편찬이 크게 증가하였다.[24] 이 시기는 先祖에 대한 현창사업의 촉발로 각 문중마다 대원군 당시 훼철되었던 서원과 사우의 복설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였다. 서원지 발간은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9개 서원의 자료집 간행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4) 9개 서원을 중심으로 서원지 발간 시기를 살펴보면, 『靜會堂誌』(돈암서원, 1908), 『武城書院誌』(1930), 『濫溪書院誌』(1935·1962), 『遯巖書院誌』(1958), 『筆巖書院誌』(1975), 『玉山書院誌』(1993), 『道東書院誌』(1997)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원 藏書는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비하여 해방 후에 약 15%이상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서적들은 주로 서원·문중 등에서 발간한 문집·전기류가 차지하였다(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1969)내 서원 장서목록 참조).

(1) 소수서원 : 최초의 사액서원이라는 상징성과 소장 자료의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일반에게 자료가 소개되었다.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소수서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정리한 『紹修書院謄錄』을 간행하였다.[25] 이후 1999년에는 紹修書院院錄謄本, 雜錄, 紹修書院講所雜錄, 廟宇重修記事, 田畓案, 退溪笏記, 愼齋笏記 등을 영인한 『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되었고, 2005년에는 영주시에서 『소수서원잡록』을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소수서원은 옥산·도산서원 등과는 다르게 서원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자료가 소실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었다. 현재 서원측에서 확인한 외부 소장처는 국사편찬위원회, 도산서원(국학진흥원 기탁), 계명대학교 도서관, 개인 3명 등이다. 개인 3명이 소장한 것은 이들이 소수서원에 유물을 일괄 기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소수서원은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007년에 『紹修書院誌』(영남문헌연구소간)를 편간하였다.[26] 이 서원지에는 소수서원의 연혁과 건립 및 사액과정과 배향자의 이력, 서원이 소장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 및 성책류와 고서 등의 목록 및 문집 등에 소재한 소수서원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던 각종

---

25) 조선사편수회, 『紹修書院謄錄』, 1937.

26) 소수서원 자료는 각처에 분산·소장되어 있다. 그래서 서원지에 수록된 자료들은 우선, 소수서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 후 여러 기관에서 간행된 <고서목록·해제집>에서 소수서원 관련 키워드(백운동, 소수서원, 경렴정, 문성공 등)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임사록, 심원록 등에 기재된 인물의 저서와 소수서원 관련 연구서와 논문의 인용서목 등을 조사하였다. 이정, 검색이 어려운 지역사록, 는 영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사록향교, 서원, 다. 성씨사록종중에 통문을 보내 수집하기도 했다. 수집된 자료는, 소사진자료와 본문으로 구성하였다. 사진자료는 서원의 전경과 건물, 유적, 유물, 시판, 石刻, 影幀 등이 있다. 본문은 창건과 중흥, 제향인물, 원규와 立議, 享祀와 告由, 影幀, 강학, 현판, 詩賦, 散文들, 文獻, 建物, 遺蹟, 遺物, 원문자료(입원록, 원록 등본, 원임제명록), 당회와 운영, 연표 등 총 16전경항목으로 구성하였다(嶺南文獻硏究所 編, 『紹修書院誌』, 2007의 凡例 참조).

문자들도 수록하고 있어 소수서원 관련 자료의 현황 파악에 참고가 된다. 그러나 이 서원지에는 이들 자료에 대한 목록과 간단한 소개에 그쳐 자료집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옥산서원, 도동서원 : 두 서원의 서원지는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1993년과 1997년에 각각 『玉山書院誌』와 『道東書院誌』로 발간하였다. 두 서원지는 서원내 소장 자료가 너무 많아 1책에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한다는 원칙을 세워 서원지 편찬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선별하였고, 동일한 자료가 방대할 경우에는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사료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옥산서원의 경우 서원운영과 관련하여 그때 그때 작성된 필사원본과 고문서가 거의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옥산서원지』에는 都錄, 傳與記, 尋院錄 등 대부분의 필사원본은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자료집 발간이 필요하다.

(3) 도산서원 : 도산서원 소장 자료(고문서)는 1994년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도산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도산서원자료 중 院規, 儀禮, 通文, 日記類 등 일부를 엮어서 1994년과 1997년에『陶山書院古文書』(1)·(2)로 편간하였다. 여기에 실린 고문서는 모두 원본사진과 正書를 같이 기재하여 연구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후 1999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에 단국대 퇴계학연구소에서 간행한 자료집에 누락된 院任錄·遊院錄 등 일부자료가 수록되었다. 도산서원 소장 자료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이들 자료는 『陶山書院古典籍』(2006)이라는 목록집으로 간행되었으며, 현재 유교넷(http://www.ugyo.net)으로 원문이미지와 간단한 해제를 서비스를 하고 있다.

(4) 병산서원 : 병산서원 관련자료는 1994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편간된 『古文書集成』 20집에 정리되었다. 현재 이들 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한국국학진흥원의 웹사이트인 유교

넷(http://www.ugyo.net)의 '명문가고문서' – '풍산류씨 충효당' 항목에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는 『古文書集成』 20(1994)에 수록되었던 고문서와 성책류 58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남계서원 : 1935년과 1962년 등 몇 번에 걸쳐 서원지의 편찬이 있었으나, 이후 서원 관련 모든 자료는 199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편간된 『고문서집성』 24집에 정리되었다. 현재 남계서원 소장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 국사편찬위원회 · 남명학 고문헌 시스템 · 한국고문서 자료센터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6) 돈암서원 : 1958년에 『돈암서원지』가 발간되었다.

(7) 필암서원 : 1949년(1책), 1975년(2번, 4책, 3책)에 『필암서원지』가 발간되었다. 이후 고문서는 1985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古文書』에 정리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보물(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 문적들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8) 무성서원 : 1884년에 『무성서원지』가 발간되었다.

9개 서원의 관련 자료는 서원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몇몇 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원은 관리소홀로 자료가 대부분 산실되었다. 한편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소수 · 도산 · 옥산서원 등의 경우 자료집 성격의 서원지 등이 발간되었지만, 지면상의 문제로 모든 자료를 수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몇몇 서원자료는 전문학술기관에서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Ⅳ. 맺는말 -향후 정리의 과제와 추진 방안-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본산으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유교교육기관이다. 특히 서원은 여론과 공론의 수렴처로서 지역 사림들의 사회·정치활동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지연과 학연별로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자, 각종의 유·무형의 자료가 집약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해당 서원이 지닌 고유하고, 특별한 성격을 드러내어 이를 현대에 재조명하여 계승·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재조명의 기초 작업이 바로 서원자료와 기록자료의 정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선된 서원별 문화사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27]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서원관련 원자료의 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오늘날 콘텐츠 개발의 부진을 초래하여 서원문화의 다양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원 기록자료는 3단계를 거쳐 조사·정리·가공되어야 한다.[28] 첫째는 자료의 포괄적 수집과 정리이며, 둘째는 <서원지(자료집)> 보급이다. 이를 통해 컨텐츠 개발이나 스토리텔링, 교육, 체험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서원지를 바탕으로 제 분야의 체험를 통해 개발된 소스들은 최종적으로 <한국서원 아카이브>에 집결된다. <서원 아카이브>으로 내외에 한국 서원 문화의 보급과 홍보의 허브로 활용하여 연구, 교육, 관광 등에 활용될 수 있다.

1. 1단계 : 광범위하고 철저한 서원자료의 조사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

27) 이해준,「한국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28) 이하 내용은 이해준 외,『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0 참조.

대다수 서원자료가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대부분 망실되거나 散失된 실정이다. 산실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향인의 후손과 원임 및 그들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사지역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부터 시작한다. 대상 서원의 기본적인 연혁과 관련 문중의 구체적 구성과 위상, 연혁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 관련 유적, 주요 성씨와 중심인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 파악이 그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9개 서원은 각 지역의 首院으로서 역할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많은 서책와 서원운영과 관련된 필사원본과 고문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각 서원의 관계자료는 소실된 것을 제외하고도 서원측의 관리소홀로 후손가 내지 서원 관계자(원임)들에게 분산된 것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각 서원자료의 종합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소수서원 자료는 한국전쟁으로 상당수가 소실되거나 이후 散失되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69년 7월 5일(5면)기사). 그러나 2007년에 발간된 『소수서원지』에서 보면 국사편찬위원회, 계명대 도서관, 국학진흥원(도산서원소장본)에 중요한 소수서원 자료가 보관되어 있고, 특히 개인이 소수박물관에 기탁한 유물속에 서원관련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에서도 보면 배향자의 후손가(무첨당, 독락당)에서 서원관련 많은 중요한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옥산서원 문서는 이외에도 제향자의 후손가에 많이 소장하고 있음이 양동마을 일반동산문화재 일괄 조사 때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소수·옥산서원의 예에서 보듯이, 서원관련 자료가 배향자의 후손 또는 서원의 운영을 담당했던 원임들의 후손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 또한 현재는 규장각, 장서각,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학술기관과 대학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소장 자료들이 대부분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외의 자료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서원자료의 종합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문집이

나 일기자료 등에도 각종 記文, 詩文 등의 관련자료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광범한 조사도 필요하다.

2. 2・3단계 : 서원지(자료집) 편찬과 아카이브 구축

서원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원지(자료집) 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 발간된 『옥산서원지』, 『도동서원지』 등은 상세한 해제와 원자료의 영인을 통해 서원지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모든 자료를 수록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자료만 선별・수록하였기에 활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 발간된 『소수서원지』(영남문헌연구소편, 2007)는 서원의 창건과 운영, 제향인물, 건물연혁, 소장 자료, 토지, 건물, 서적, 유적, 유물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현황파악이 용이토록 하여 소수서원에 대한 홍보와 연구에 근거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는 목적으로 간행하였다. 그래서 기존 서원지들에 비해 다소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위해 국한문 혼용체의 사용과 事蹟, 記文, 詩文, 碑文, 簡札 등의 번역문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원자료들을 영인하지 못하고 入院錄, 院錄謄本, 院任題名錄, 任事錄 등의 일부 자료만 탈초・수록하고, 나머지 자료는 목록과 현 소장처만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들 서원지는 서원별 내지 연구자들의 기초자료의 선별 기준이 달라서 수록내용의 편차가 심하다.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목차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29] 서원에 전승된 (성책)고문서는 매우 다양하며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

29) 서원별로 자료의 유무내지 수량에서 차이가 나지만, 공통된 목차가 갖춰진다면 개개 서원의 공통성과 고유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외에도 개별 서원자료의 검색과 비교가 편리해질 것이다.

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 고문서 분류에 대한 논의는 현재에도 정리되지 못한 채 규장각, 장서각, 국학진흥원 등의 중요 기관들에서는 각기 다른 분류안을 채택하고 있다. 서원고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 기관에서의 분류안에 따라 서원고문서를 분류하면 문서들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기에 서원자료는 그 종합적인 특징에 주의하여 실제 관리와 연구의 편의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서원(성책)고문서를 이해준의 견해에 따라 내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30]

① 창건과 연혁 : 考往錄, 事蹟, 日記類, 上樑文, 記文, 書院誌, 官撰資料(列邑院宇事蹟, 書院可攷, 書院謄錄, 邑誌 등)
② 조직과 운영 : 院任案, 院生案, 執事分定記, 謁廟錄, 稧案, 鄕約, 儒生案 등
③ 경제운영 : 土地·奴婢案, 田畓案, 身貢案, 守護軍案, 院屬案, 用下記, 傳與記, 都錄, 屬寺, 屬店, 書院村 文書, 牌旨, 賜牌文書 등
④ 교육·제향 : 講案(講規), 書院規約, 立議, 節目, 完文, 學規, 書冊都錄, 笏記, 致祭文, 告由文 등
⑤ 향촌사회사자료 : 尋院錄, 時到記, 扶助記, 通文, 回文, 上書, 所志, 萬人疏, 簡札 등

이러한 서원지 편찬에는 서원관계자, 연구자, 활용자(교육자, 개발자, 관련 공무원 등) 등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후, 분야별 서원 연구자(인문, 경관, 건축, 문서, 기타)가 집필해야 하며, 서원지는 자료집의 성격으

30) 이해준은 서원 기록자료를 크게 ①서원관계 관찬자료, ②서원지와 제향인물의 문집, ③서원고문서로 나누고, 복합적 성격을 가진 서원 고문서는 주제에 따라 ①창건과 연혁, ②제향인물, ③조직과 운영규약, ④경제, ⑤향촌사회사 자료로 세분하였다(이해준, 「한국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로 향후 제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서원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과 함께 탈초와 번역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종합하는 <한국서원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원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한국 유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서원지 편찬과 아카이브 구축에는 서원측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들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서원자료를 이용한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서원이 가지는 정신사적, 문화사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9개 서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역사적 위상이나 현존 서원자료를 통해서 볼 때 학제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11년부터 <한국 유교문화 심층연구>의 일환으로 도산서원 자료를 활용한 학제 간 '서원포럼'를 진행 중이다. 서원정신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이러한 사업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사업을 통해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문학, 철학, 미술사 분야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각 서원별로 이러한 연구가 활성되기 위해서는 서원측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지자체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각 서원별로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서원의 홍보,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어 그 문화사적 의미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주진,「서원과 그 사회적 기능」『한국사론』8, 국사편찬위원회, 1980.
김윤식,「조선조 서원문고에 대한 일고찰」『서지학연구』41, 2008.
김종석,『도산서원 고전적』해제편, 한국국학진흥원, 2006.
문화재청,『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2010.
박장승,「경주 소재 書院·祠에서 간행한 典籍考」『신라문화』19, 2001.
朴現圭,「<屛山書院書冊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季刊書誌學報』14, 한국서지학회, 1994.
裵賢淑,「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書誌學硏究』31, 2005.
嶺南文獻硏究所 編,『紹修書院誌』, 紹修書院, 2007.
李樹健 外,『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 국사편찬위원회, 1999.
이수환,「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大丘史學』65, 2001.
李春熙,『李朝書院文庫目錄 -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
이해준 외,『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0.
이흥재·이해준 외,『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문화정책개발연구원, 2001.

※참고 사이트
국가기록유산 : http://www.memorykorea.go.kr
국가전자도서관 : http://www.dlibrary.go.kr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 http://www.itkc.or.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 http://www.ugyo.net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학자료센터 : http://www.kostma.net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옥영정*

Ⅰ. 서언
Ⅱ. 서원 고문헌 본존관리의 현황과 보존처리
Ⅲ. 서원 고문헌 본존관리의 방향과 활용방안
Ⅳ. 결언

Ⅰ. 서언

서원의 고문헌은 건물이나 조경, 입지 등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달리 서원의 정신적 유산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당서원의 연원, 당시의 시대적 상황, 제도, 인맥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사료가 된다. 서원 자료의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곧 서원의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옛 선비의 생활과 가치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선조의 지혜에 좀 더 다가가는 것이다.

서원의 고문헌자료는 크게 고서, 고문서, 책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곧 보존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의 보존관리는 발굴한 자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에 관한 것과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병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교수.

행되는 것을 말한다.

각 서원에 소장된 고문헌의 이동 상황을 점검하고,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우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목록 작성과 동시에 보존관리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목록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유물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많은 자료가 발굴되고 목록이 작성되었어도 소장자료에 대한 지속적 보존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애써 작성한 목록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고비용의 보존처리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원 고문헌의 올바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목록의 작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미 목록이 작성되어 알려졌지만 제대로 보존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현대식 시설에 자료를 기탁하고 있는 몇몇 서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한두 군데에 불과하다. 각 서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문화재급은 국가가 제공하는 보관장치에 수장되기도 하고 기타 중요한 자료는 도난 방지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 고문헌은 별다른 훼손방지 시설이나 장치 없이 일반 물품과 같이 보관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문중의 기록물과 섞이는 경우도 많으며 엉뚱한 곳에 흩어져서 소장된 경우도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서원의 고문헌은 도난이나 유물의 손상에 방치된 상태로 보존관리에 관련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글은 서원의 기록물로서 고문헌으로 구분되는 고서, 고문서, 책판 등의 자료에 대하여 보존관리를 위한 방법과 종합적 체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부터 차례차례 해결해나감으로써 세계문화유산급 가치에 부합하는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 체계를 구상하여 기준적인 내용을 제시해보는데 의미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 동산문화재의 사례에 따라 보존관리 조사표, 보존처리표, 목록 해제 등과 함께 서원 고문헌 관리의 전반적인 체제를 마련하여 이를 통한 체계의 수립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Ⅱ. 서원 고문헌 본존관리의 현황과 보존처리

1. 서원 고문헌의 보존 관리 기록

서원의 고문서나 고서, 책판의 보존관리 기록으로 잘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과 경주 양동 옥산서원의 기록이 있다. 각 서원마다 고서와 책판에의 관리를 위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원규에 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정하기도 하였다. 보존관리 전통의 계승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원자료 보존 관리를 위한 선조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소장 고문헌의 목록을 작성하고 원규에 규정을 정하여 유출을 막은 것이다.

소수서원의 경우 소장 서적 현황은 서원에서 작성한 여러 종의 장서목록이 있는데, 1653년(효종 4)의 『院中書冊置簿』에는 122종 및 追錄 21종, 1698년(숙종 24)부터 1761년(영조 37)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書冊目錄』에는 서적 168종과 책판 7종 및 추록 27종, 1796년(정조 20)의 『兵陣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에는 129종과 책판 6종이 수록되었고, 1891년(고종 28)까지 16종이 증가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또한 소수서원은 소장하고 있는 각 책 본문의 마지막장에 "來讀院中 勿出院門"이라 墨書하였으며, 傳掌記 등을 작성하여 그 보관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였다.

옥산서원의 경우『書冊現在都錄』의 完文(1862년 5월 작성)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서원 서책 '院門外不出'에 대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이 완문의 내용을 판각하여 經閣의 門楣에 달아 경계토록 하고, 任司가 열람한 날짜와 사람, 책명을 기록한 후 직접 돌려받고 혹 그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책판의 경우에 서원에서 관리한 기록이 상당 수 남아있다. 이는 조선시대 편찬한 각 지방의 읍지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영남지역 읍지의 경우 각 읍지에는 특별히 보관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나 서원, 향교, 사찰, 관청, 사가 등의 유형으로 표시한 경우도 자주 보인

다. 이 중에 서원은 소장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인다. 이는 서원의 성격상 강학기관이면서 동시에 건물 구조로 볼 때 장판각을 갖춘 경우가 많았으므로 책판의 보관처로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경주의 西岳書院, 玉山書院, 상주의 道南書院, 西山書院, 興巖書院, 玉成書院, 近巖書院, 일선(善山)의 金烏書院, 예안의 陶山書院, 용궁의 三江書院, 함안의 德巖書院, 西山書院, 松汀書院, 합천의 新川書院 등으로 그 처소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에는 경주의 옥산서원, 상주의 도남서원과 흥암서원, 예안의 도산서원과 같이 현재 장판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장판각이 남아 있지 않거나 당대 장판각의 존치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읍지의 기록으로 서원 가운데 가장 많은 책판을 보관한 곳은 경주의 옥산서원으로 총 18종이 확인된다. 이 책판은 「淨惠寺所藏板」조에 "今移在玉山書院"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본래부터 옥산서원에 소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金鰲勝覽』이 간행된 1930년대 초에 정혜사의 책판이 가까이에 위치한 옥산서원으로 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19세기 영남 각읍의 책판 소장서원

소장처 구분	소장서원
書院 (15개 지역 44개 서원 122종)	尙州 : 道南書院(1)・玉成書院(3)・興巖書院(2)・西山書院(2)・近巖書院(3)・道南書院(1), 善山 : 金烏書院(3)・洛峯書院(4)・松山書院(3)・松山書院(1), 密陽 : 禮林書院(2), 龍宮 : 三江書院(1), 安東 : 周溪書院(3)・屛山書院(6)・虎溪書院(2)・三溪書院(1)・默溪書院(3)・魯林書院(6), 禮安 : 陶山書院(24), 永川:臨皐書院(4)・梅谷書院(2)・道岑書院(5)・橫溪書院(1), 咸安 : 西山書院(3)・德巖書院(1)・松亭書院(1), 星州:栢溪書院(1)・晴川書院(2), 靑松 : 松鶴書院(1), 咸陽:藍溪書院(2)・柏淵書院(2)・唐洲書院(1), 咸昌 : 栗谷書院(3), 州:・龜江書院(1)・玉山書院(8)・龍山書院(1)・東江書院(1)・西岳書院(1), 淸道 : 紫溪書院(2)・西巖書院(1), 晉州:德川書院(2)・宗川書院(2)・龍塘書院(2)

표에서 보듯이 19세기에 영남 각읍의 책판 소장기관은 서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총 15개 지역의 44개 서원에 122종의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고 서원에서 서적 간행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인해 다수의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말에 작성된 『누판고』에 의하면 전국의 서원 중에서 도산서원은 가장 많은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원에서 『擊蒙要訣』과 『嶠南賓興錄』 책판을 보관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17세기 인조 때 전라도 순천부와 해서의 석담서원에 있는 책판으로 『격몽요결』을 인출하여 올려 보내겠다는 예조의 계문을 확인할 수 있다.[1] 『홍재전서』의 「군서표기」에 나와 있는 『嶠南賓興錄』의 간행에 대한 기록도 도산서원에 책판을 보관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2] 도산서원의 책판관리 기록은 『陶山書院傳掌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도산서원전장기』는 도산서원에서 관장한 물품을 기록한 자료로 17세기초부터 20세기초까지 기록되었다. 한 해 안에도 여러 번 점검하고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도 있다. 그 중에는 책판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해 놓은 것도 있으며 초기의 기록은 책판의 수량은 기록하지 않고 종류만 기록하였는데, 17세기 초에 도산서원에서는 『啓蒙傳疑』, 『古鏡重磨方』, 문집 책판, 『陶山十二曲』, 『漁父辭』 책판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원에서는 다른 물품과 함께 책판의 소장에 각별히 주의

---

1)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7년(1629) 8월 17일 기사; "홍명구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右相 李廷龜의 말을 들으니, 『擊蒙要訣』을 인출하여 반포하는 일도 탑전에서 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 한 가지 일은 거행 조건으로 내지 않은 탓에 본조에서 알지 못하여 복계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 책은 실로 아동을 교육하는 데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冊板이 전라도 順川府와 海西의 石潭書院에 있다고 하는데 張數가 많지 않아 인출하는 일이 큰 工役은 아니니, 본도로 하여금 각각 수백 件을 인출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2) 『弘齋全書』 卷184 羣書標記六○命撰[二] 嶠南賓興錄二卷, "刊本復命道臣取傳敎祭文 及閣臣差備官座目 入格榜目 入門收券數爻 入格試券中優等四作 倣瓊林聞喜錄凡例 刊印以進 藏其板于陶山"(…다시 道臣에게 명하여 傳敎, 祭文, 閣臣과 差備官座目, 入格榜目, 入門하고, 收券한 수효, 入格 시권 중에 우수한 것 4편을 취하여 『瓊林聞喜錄』의 범례를 본떠 간행하여 진상하고, 그 冊板은 陶山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를 기울이며, 시기별로 꾸준히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목록과 보존관리 실태

서원 고문헌은 위의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선조의 노력에 의해서 각별히 지켜져 왔지만 현재 남아있는 고문헌의 보존관리의 상태로 본다면 소장 문화재 안전관리, 보존 등의 대책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물 및 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소장처는 대체로 보존을 위한 유물각을 설립하여 보존관리가 진행되기도 하고 훼손된 자료의 경우 보존처리를 한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후손별로 자료가 분산되거나 별도의 관리시설을 마련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서원 자료를 위한 별도의 보존시설은 거의 없다. <표 2>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예정인 9개 서원의 고문헌 소장현황과 자료조사연구, 보관장소 등을 표시한 것이다.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보존환경의 편차가 심하고 목록작성의 체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인 보존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서원 외에 대부분의 서원 고문헌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목록작성이 된 고문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며,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흩어져서 수록되기도 하여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 관련 연구자들도 학술적 자료 활용 외에 보존관리에는 거의 무관심하여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주체, 체계가 없는 상태로 지속가능한 관리 인력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군다나 습기와 충해로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가 많고 도난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것 중에 책판의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고, 고서·고문서의 사례와 논저 검토결과 대부분 문화재급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만 이루어지고 그 방식은 지류유물의 보존처리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비슷한 공정을 거친다. 하지만 비지정 유물을 소장한 곳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창고에 쌓아두거나, 종이상자나 궤에 넣어 다락방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관장소의 대부분이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벌레 및 설치류 등의 피해로 해당 유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기도 하다.

서원의 장판각이나 문서고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대부분이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장소에서 오래 된 궤짝이나 상자에 넣어두고 먼지가 쌓인 상태로 방치되거나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된 채로 밀폐되어 있다. 또한 보관함과 문서 크기차이로 유물이 구겨진 상태로 보관되기도 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소장된 것은 대부분 도난에 무방비 상태다.

함에 보관하는 것도 내부의 습도나 온도가 높아서 하절기에 습기와 곤충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온·습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훼손유형을 감안할 때 서원 소장 고문헌의 지속적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다. 서원 소장처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항온·항습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종이상자에 보관하는 방식은 평상시 보관하기에는 수월하지만 고온다습한 여름철 장마 후에 습기를 한번 머금을 경우 건조에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는 오히려 곰팡이 생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고서나 고문서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이어서 유물의 크기가 큰 것은 구겨짐이 발생하고 작은 크기의 것은 상자 내부에서 흐트러져서 순서가 뒤바뀌거나 구겨진다.

보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소장 문화재 안전관리, 보존 등의 대책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난 대비 시설과 설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서 보존하고 있던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난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다량 소장처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고문헌은 화재에

취약하여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가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개인 소장자들이 자동소화설비를 갖추고 전적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할 과제로 유물 소장자의 인식, 과학적 보존처리에 대한 이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2> 주요 서원의 기록물 보존관리 현황

서원명	소장현황		자료조사연구		보관장소
			조사보고	타기관소장	
소수서원(1543)	고서	141종563책(1969), 30종 145책(1997)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소수서원소장자료조사보고서(1998) 소수서원지(2007) 소수박물관의 목판과 현판(2009) 도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2011)	국사편찬위원회 계명대 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소수서원사료전시관 소수박물관
	고문서	110점			
	책판,기타	4종 428장			
남계서원(1552)	고서	59종 317책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2005)		
	고문서	717점			
	책판,기타	377장			
옥산서원(1573)	고서	330종 2197, 503종 2847책(1969) 943종 3977책(2005)	한일관계사연구(1920)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옥산서원지(1993) 영남고문서집성2(1992) 고문서집성65(2003)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 보고서(2005)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각 문중 종택	옥산서원 유물전시관(2010)
	고문서	1156점			
	책판,기타	19종 1121장, 기타24종			
도산서원(1574)	고서	907종 4338책(1969), 1026종 4605책(2010)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도산서원고문서1,2(1994, 1997)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1999)		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2128점			
	책판,기타	57종 4014장 (책판28종 3928장)			
필암서원(1590)	고서				
	고문서				
	책판,기타				

도동서원 (1605)	고서	10종 26책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 보고서(2005) 도동서원지(1997)		금고, 장판각, 유물전시관
	고문서				
	책판,기타	1종 71장, 기타28점			
병산서원 (1613)	고서	6174점(동산문화재), 3689점(전적및 현판)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문화재관리국(1991) 고문서집성20(1994)		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책판,기타	25종 1907장			
돈암서원 (1634)	고서		비지정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2007)		
	고문서	10종			
	책판,기타	1841장			
무성서원 (1696 사액)	고서	8종	무성서원조사보고(2010)	전북대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고문서	49종			
	책판,기타	기타51			

* 원문제공 사이트
남계서원 :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남명학고문헌시스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한국고문서자료관
옥산서원 : 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타(진행중) 도산서원 : 유교넷
도동서원 : 도동서원지 원문 DB서비스 병산서원 : 유교넷, 한국고문서자료관

3. 고문헌 훼손의 유형과 보존처리방식

1) 훼손의 유형[3)]

고서·고문서 자체에 관한 훼손은 대부분 보존방식이나 보존을 위한 시설, 장치 등의 미비에 의한 것이다. 이는 온·습도, 빛, 생물에 대한 유지·차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종이의 열화와 관련이 있다.

3) 종이유물 훼손의 유형에 관한 내용은 주로 박지선, 「지류문화재 보존」,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국립문화재 연구소 편,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2004. 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대부분 종이로 만들어진 고서·고문서는 온도, 습도, 빛에 의하여 열화(slowfire)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가 진행되며 종이는 진한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부스러지는 등 종이가 태워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간의 화학반응을 촉진시키거나 재질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습도변화는 물체의 빈 공간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열화를 촉진시킨다. 고문헌 보존관리는 이런 열화가 진행되기 전에 시설 장치를 통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이미 열화가 진행된 유물에 대하여 보존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상황으로는 그 훼손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하며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보존관리가 될 경우 나타나는 훼손의 유형은 온·습도, 빛과 열, 생물 등에 의한 훼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보존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온·습도에 의해서 종이가 손상될 때 나타나는 표시는 종이가 약화되고 부스러짐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산성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존처리에서는 중성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서고문서의 산성도유지는 온·습도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장기간 보존될 수 있다. 아울러 색변화와 물의 번짐 흔적이 발생되고 채색된 것일 경우 안료가 탈색된다. 물리적으로는 종이가 휘고 주름이 잡히며 서로 붙는 현상까지 생기게 된다. 다량소장처마다 빠짐없이 나타나는 훼손유물의 대표적 사례로서 모두가 온·습도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종이유물에 가장 적합한 온·습도조건으로 온도는 18~20℃, 상대습도는 45~55%이며, 허용 온·습도조건은 온도 21~22℃, 상대습도 50~55%이다. 종이 습도가 높아져서 습도 65% 이상이 되면, 종이의 함수율이 10%가 넘게 되어, 곰팡이균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 곰팡이균의 유기산이 종이 위에 장시간 남아 있으면, 종이의 재질인 셀룰로오즈가 서서히 절단(酸分解)

되어 종이가 열화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미생물에 의한 종이유물의 변질은 오랜 시간동안 방치할 경우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고온 다습한 여름철 기후를 반드시 거치게 되고 이 기간에 습도조절을 통한 유물의 습기 제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훼손의 정도가 점점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침습에 의하여 젖은 지류 유물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곰팡이의 서식지가 되고 그대로 붙어서 굳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소장처마다 최소한의 장치로서 장마기간이 끝난 후에 습도 조절에 필요한 제습기 등을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조명이나 햇빛에 노출될 경우 발생되는 열과 자외선은 종이의 화학결합을 손상시킨다. 특히 자외선의 흡수는 종이의 산화와 산성화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보관 장소는 빛을 차단한 곳이어야 하며 창문이 있을 경우 암막커튼이나 자외선 차단 필터를 사용하여 완전히 가려야 한다. 빛에 의한 열도 종이에서 셀룰로오즈 섬유소를 탈수시켜 종이가 가진 탄력과 인장강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빛이나 열에 의해서 종이에 손상이 발생될 때 나타나는 표시로는 종이가 약화되고 부스러지며 노란색(흰색)에서 갈색으로 색 변화가 발생된다.

구겨지거나 접힌 고문헌을 펴는 작업에는 평평하고 무거운 물건을 얹어서 평판작업을 한 후에 중성지를 놓고 종이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

세 번째로 생물에 의한 훼손에서는 설치류와 곤충의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서·고문서가 있는 장소를 항상 청결히 유지시켜야 한다. 수장고나 서가 등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관리하며 보관장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도 안에 넣어서 먼지가 앉지 않도록 주위의 청소는 물론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고서나 고문서, 책판의 해충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빗살수염벌레(권연벌레), 책좀(Bookworm, silverfish), 흰개미 등이 있다. 빗살수염벌레는 지류유물 내부를 관통하여 구멍을 내거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생기게 된다. 또 벌레가 뚫고 지나간 자리가 접합되어 페이지가 펼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곤충에 의해서 종이에 손상이 발생될 때 나타나는 표시는 종이 표면에 작은 구멍과 같은 천공이 발생되고 조각파편이나 가루가 떨어진다.

설치류에 의한 훼손은 종이를 갉아내고 둥지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며 종이 표면에 갈색, 흑색 또는 붉은빛을 띤 얼룩점이 발생되기도 한다. 다량소장처 중에 문서고나 창고에 보관된 고문헌 중에는 설치류의 서식지가 되어 손상되고 배설물 등에 오염된 사례를 빠짐없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잘못된 보관과 보수에 의한 훼손이 있다. 화학성접착제에 의한 훼손은 접착테이프나 일반접착제에 묻은 화학성 접착물질이 종이를 손상시키며 변색된 종이는 원상태로 복구하기 어렵다.

2) 고문헌의 보존처리방식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류유물의 형태적 보존처리 순서는 대체로 해체→클리닝→배접→결손부메움→건조→평판작업→장황→보관상자 제작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대로 된 보존처리를 받을 때 과정이다.

하지만 서원 고문헌은 위의 과정을 모두 거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인 긴급처리을 수행한 후에 본격적인 유물의 보존처리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서원자료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보존처리기관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종이유물의 보존처리방식을 살펴보면

① 해체는 보존처리 작업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정된 실, 종이심, 표지, 구배접지 등 원래의 장황형태를 분리하는 작업이다.

② 클리닝은 붓질이나 水沈을 통하여 오염 및 산화 정도를 완화하는 작업이다. 수침작업의 여부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한다. 다량소장처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긴급처리는 건식클리닝 단계이며 습식클리닝이후 부터는 보존처리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구배접지 제거와 배접은 본래 원문이 아닌 다른 종이로 배접되어 오염

되거나 배접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이를 제거하고 새로운 종이로 본래 종이를 받쳐주기 위해 덧대어 주는 작업이다.

④ 결손부 메움은 배접하는 것 보다는 크기가 적은 경우에 쓰이는 방법으로 유물의 결실부분을 소맥전분풀과 준비된 종이를 사용하여 메우는 작업이다.

⑤ 건조과정은 클리닝, 배접, 메움 작업 후 건조시키는 작업이다.

⑥ 평판작업은 구김, 주름, 접힘 등의 물리적 손상을 복구시키는 작업이다.

⑦ 장황은 책, 두루마리, 족자, 병풍 등으로 꾸미는 작업이다.

⑧ 보관상자의 제작은 중성매트와 종이폴더, 오동나무 등으로 상자를 만드는 작업이다. 중성매트의 경우 유물의 크기별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원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곳에서 건식클리닝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수행할 수 있는 보존관리방안이다.

이와 같은 보존처리의 내용은 보존처리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유물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유물의 훼손 정도에 따라 처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과정은 생략되기도 한다.

낱장으로 대부분 남아있는 고문서는 해체나 장황작업 없이 클리닝과 결손부 메움, 배접, 건조, 평판작업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장황된 족자나 두루마리 등은 배접과 장황에 보다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책판의 형태로 남은 자료는 위의 보존 처리 과정 중에서 ① 보존처리 전 크기 및 손상상태를 파악하는 조사 및 사진촬영, ② 붓으로 표면의 먼지 등을 가볍게 털어주는 건식클리닝, ③ 생물에 의한 훼손 유무점검과 훼손 정도에 따른 소독 조치가 필요하다. 마구리가 훼손된 책판의 경우 뒤틀림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완과 함께 내부가 손상된 목재유물의 안전조치도 필요하다. 아울러 온·습도가 적합한 보존환경에 보관한 후, 적절한 시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완전한 보존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존관리조사표의 작성과 활용[4)]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를 위한 방법과 체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서는 목록작성과 함께 보존관리조사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보존관리조사표는 소장처 단위로 작성되는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 시설조사표'와 보존처리가 필요한 개별 유물별로 작성되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고문헌 실태조사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서원 고문헌에 관한 보존관리는 유물자체의 형태적인 보존처리와 시설을 비롯한 보존여건의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조사표를 작성함으로서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표의 구상안은 <표 3>, <표 4>와 같다.

'보존관리 시설 조사표'는 고서, 고문서, 책판 등의 수량과 보관장소, 보존처리 환경으로 각종장치의 설치, 인력, 도난의 이력 등을 간단히 체크하고 전체적 보관상태를 정하고 소장자와 조사자의 간단한 의견을 작성하는 것이다. 표의 순서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 내용은 ① 소장자 사항 ② 유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③ 유물의 보존 관리사항 ④ 소장자와 조사자 의견사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유물의 보존 관리사항은 유물의 보관시설과 장소, 각종 시설물의 유무와 수량, 인력배치의 여부, 과거 도난의 유무 전체적 보존관리 상태 등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보관시설과 장소로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고 보관함의 유형을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 보존관리 상태는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사자가 표시하도록 한다.

조사자의 의견사항은 주로 보존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적 보존관리 상태와 관련하여 보완할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후에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며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4)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 조사표는 필자의 기존 연구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향」, 『서지학보』 34, 2009, pp.260~263.의 보존관리조사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일반적인 고문헌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기반으로 서원 고문헌에 특화하여 적용해 본 것이다. 이는 서원 고문헌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표 3>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 시설 조사표(안)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소장자(서원명)</td><td colspan="4" rowspan="2"></td><td colspan="4">기증유물</td></tr>
<tr><td colspan="4">기탁유물</td></tr>
<tr><td rowspan="2">주소</td><td>원소장처</td><td colspan="8"></td></tr>
<tr><td>현소장처</td><td colspan="8">○○서원</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원소장처</td><td colspan="4"></td><td colspan="4">보존관리 담당기관 유 무</td></tr>
<tr><td>현소장처</td><td colspan="4"></td><td colspan="4">연락처</td></tr>
<tr><td colspan="2" rowspan="2">유형과 수량</td><td>고서</td><td>고문서</td><td>책판</td><td colspan="2">민속</td><td colspan="3">기타</td></tr>
<tr><td>○건(책)</td><td>○점</td><td>○판</td><td colspan="2">○점</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보관장소</td><td>문서고,장서고</td><td>유물전시관</td><td>캐비넷,금고</td><td>벽장</td><td>궤짝</td><td>종이상자</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보존관리 환경</td><td>감시카메라</td><td>항온항습기</td><td>경보장치</td><td>소화기</td><td>제습기</td><td>방충장치</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인력배치여부</td><td>상근인력</td><td>비상근인력</td><td colspan="6">기타</td></tr>
<tr><td></td><td></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 rowspan="2">과거 도난여부</td><td>있음</td><td>없음</td><td colspan="6">기타</td></tr>
<tr><td></td><td></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 rowspan="2">전체보관상태</td><td>매우양호</td><td>양호</td><td>불량</td><td>매우불량</td><td colspan="4">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소장자 의견</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조사자 의견</td><td colspan="8"></td></tr>
</table>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 고문헌 실태조사표’는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중에 보존처리가 실제로 필요한 개별 고문헌에 대한 조사표이다. 그 내용은 ① 유물명과 일련번호 ② 유형과 재질 ③ 훼손관련 사항 ④ 보존처리 대책과 의견 사항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훼손관련 사항은 고문헌의 훼손정도와 범위, 상태 등을 표시하는 항목으로 실태조사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훼손상태, 훼손범위, 훼손정도를 표시하고 훼손상태는 물리적손상과 화학적 손상 그리고 기존에 잘못된 수리에 의한 손상으로 구분된다.

보존처리대책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한 조치를 1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종이상자에 의한 보관, 건식크리닝, 습식크리닝, 복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보존처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책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종이상자나 나무상자에 의한 보관은 가장 기본 적인 처리대책에 해당한다. 물리적 손상의 경우 건식크리닝과 평판작업만으로 대부분 처리될 수 있으며 습식 크리닝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의 화학적 손상과 물리적 손상 중에 결손이나 충식부분의 메움, 잘못된 수리에 의한 손상 등이 해당된다. 복원은 문화재급 유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벌레나 설치류에 의한 물리적 손상은 보존관리시설이나 장치와 연관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화학적 손상이 온·습도에의 한 경우이므로 앞서 살펴본 온·습도, 빛, 충식 중에 해당되는 유물의 상태를 잘 살펴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 고문헌 실태조사표(안)

일련번호					
유물명					
유형	고서	고문서	책판	민속유물	기타
수량					
규격					
재질	종이류	직물류	목재류	짚풀류	기타
	저지, 죽지, 마지, 화지, 기타	비단, 삼베, 무명, 기타	소나무, 느티나무, 황양목, 박달나무	짚, 갈대, 기타	
훼손범위	상단	오른쪽	중간	왼쪽	기타
	중단	오른쪽	중간	왼쪽	기타
	하단	오른쪽	중간	왼쪽	기타
훼손상태	물리적손상	꺽임 주름 접힘 찢김 말림 마모 낙서 긁힘 충식			
	화학적손상	그을림 불에 탐 기름 접착제 음료에 의한 오염 분비물 누습			
	잘못된 수리에	배접 들뜸 변색 긁힘			

	의한 손상							
훼손정도		매우큼	큼	중간	약함	매우약함	기타	
보존처리 대책	종이상자 중성시트	건식크리닝		습식크리닝			유물재질조사필요유무	복원
				일부배접	전체배접			
기타 의견								

Ⅲ. 서원 고문헌 본존관리의 방향과 활용방안

1. 보존관리체계의 종합적 수립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체계적 관리기관의 운영, 시설, 장치,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보존관리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고문헌 자체에 관한 것과 관리 여건 조성에 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고문헌 자체에 관한 것으로 온·습도, 자외선, 곰팡이, 해충 등에 관한 주의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장치 등 환경조성을 하고 목록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문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문헌 보존을 위해서는 주위 환경을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은 종이를 쉽게 퇴색시키고 곰팡이의 번식은 높은 습도의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벌레나 설치류도 종이유물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것이므로 환경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공기순환을 잘 시켜 곰팡이 생성을 억제하고, 상대습도도 50~55% 정도로 유지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 관리의 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존관리시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건물로서는 시설을 갖추었으나 감시카메라·녹화기·경보기·자동소

화시설 · 항온항습시설 · 감시모니터 · 감지기 · 무인경비시스템 · 상근 관리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갖출 수 없으므로 시급하게 필요한 보관처를 중심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서원 기록자료의 보존 매뉴얼의 작성이나 기록화사업, 유물목록, 보존관리 시스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전문화, 고령화되어가는 소장문화재 관리 인력에 대하여 전문화, 보존대책 필요해진다. 이는 자료가치, 정리방법, 보존대책, 활용방향에 대한 정기교육도 필요하다.

유물의 조사자는 처음에 목록을 작성하는 시점부터 설치된 관리시설과 필요한 관리시설을 살펴보고 이를 점검하여 조사표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 작성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보존관리의 정책과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만들어지는 '보존관리 시설 실태조사표'는 보존환경조성과 보존관리체계를 수립하는데 근거자료가 되며 고문헌 목록과 함께 종합적인 보존관리에 활용되는 것이다.

한편 고문헌 소장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료의 보존처리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매우 제한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소장처는 유물각 등을 설비하여 보존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지정 유물을 소장한 대부분의 서원 고문헌 소장처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창고나 다락방에 쌓아두거나, 통풍되지 않는 궤짝, 누습에 무방비한 종이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소는 습기가 많고, 벌레 및 설치류 등의 피해로 해당 유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기도 하다.

모든 서원 고문헌 소장처마다 보존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줄 수 없는 사정이므로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적 보존관리 물품이나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고 각 들에게 종이나 목재의 열화원인에 대해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보존 당사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료의 보존처리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하여 보

존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후속세대를 육성하도록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교육 참여자에게 보존관리 관련물품을 지급하거나 보존처리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기관에 기증 기탁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자체별로 위탁관리시설을 건립하여, 수장자들이 일반 동산문화재들을 수증하거나 수탁하여 공동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서원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에게 항온・항습설비, 무인경비시스템, 자동소화설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별로 유물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문화재를 기증 내지는 기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국의 서원 고문헌을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유물관의 건립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원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문중에 대해 자료의 소실 및 도난을 방지하고 기증・기탁을 통해 과학적 보존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장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증 기탁 조건에 최우선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서원 고문헌에 대한 훼손의 방지와 훼손자료에 대한 보존처리를 통해 특화된 보존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효과적인 보존관리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고문헌 목록 및 해제의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보존관리 체계의 구축에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 목록, 해제, 원문서비스의 강화와 서원 고문헌 목록의 통합

고문헌의 기초연구는 분류, 목록, 해제, 원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문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목록도 필요하다. 잘 만들어진 고문헌목록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그 목록을

읽는 것으로도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기초 요소로 처음부터 잘 유지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향후 구성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에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 고문헌목록인 것이다.

목록의 기술요소는 고서의 1차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으로 일정한 체제의 틀에서 기술하는 것이며, 크게 구분하여 볼 때 서명 저자사항, 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서원소장 고문헌 중에 해제를 갖추었거나 문화재관리국 주관으로 작성된 일부 목록을 제외하고 서원 소장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고서목록들은 연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발간된 서원 소장 고문헌의 목록에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요약해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목록 작성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분류체계, 서지적 구성, 목록기술의 방식 등이 일관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서지정보의 전달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산문화재 조사에서 작성한 최근 몇 군데의 소장목록을 제외하고 많은 서원 고문헌의 목록이 서명과 저자명, 간행시기, 분류(등록)번호, 크기 등을 기록한 간략목록 만을 작성하고 있거나 아예 작성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는 판본 감정과 시기 추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정이 틀리거나 간행시점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간행이나 필사년대가 미상으로 처리된 자료에 대한 연대비정, 미해독 장서인의 해독, 서명이 잘못 기재된 것의 수정 등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남은 것이다.

둘째, 각 서원 자료의 특성을 목록상에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서원 유생안, 원규, 고문서, 책판 등 주기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많은 고문헌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서나 문집에 적용되는 목록의 방식을 적용하여 정작 연구자에게 필요한 특징적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기술 형식에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주기사항에 대한 언급이 결여된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기존의 목록을 재정비하면서 종합화하는 것은 서원 고문헌의 연구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목록으로 정리되지 않은 소장자료에 대한 조사 정

리도 필요하며 기존에 발간된 고서목록과의 관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제집의 작성에도 소장자료 전체에 대한 기초, 일괄해제의 필요성이 있다. 분야별 해제집이 소장자료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해제의 방식이나 기준이 책마다 달라서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 원문이미지 자료의 구축과 공개방식의 일원화

고문헌 기초연구의 기반은 원문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1차적인 마무리가 된다. 물론 원문이미지를 바탕으로 탈초, 정서, 표점, 번역 등 2차적인 기반연구가 필요하지만 서원 고문헌의 경우 1차단계만 이루어져도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문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는 일부 서원 고문헌은 대부분 그 이미지 자료의 해상도, 밝기, 색상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소장처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제공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제공하는 이미지의 방식이나 해상도 등이 다르므로 연구진행을 위한 "원문이미지 작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원문이미지가 제공되는 것은 대부분 각 소장처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지만 제공되는 이미지의 전체분량이나, 해당자료가 전체자료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 규모 등을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종합적 보존관리 시스템의 개발

고문헌의 목록과 해제, 이를 기반으로 삼아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큰 목적은 영속적으로 자료를 보존하는 것과 함께, 자료의 공개성과 보편성 확보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대학과 각급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여 고문헌 DB를 구축하고 있다. 서지 DB의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부기관이나 도서관은 참조서지링크나 MARC정보, 색인,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원문DB는 컴퓨터 저장용량, 전송속도 등의 발달로 최근 들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화된 서원 고문헌의 목록작성은 이상과 같은 목록기술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형 목록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원 고문헌과 관련된 일부 DB 시스템은 독립된 서원 고문헌 DB로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종합형 서지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서원 고문헌의 종합적 보존관리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서지목록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서지목록을 중심으로 용어사전, 편저자색인, 소장기관, 서명색인, 관련연구논저, 해제, 원문 등의 DB를 상호간 링크시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해보는 것이다.

서원 고문헌의 목록기술 내용 가운데 서명, 저자사항, 형태사항, 판차사항, 주기사항, 소장사항 등에서 단어나 구를 선택하면, 책자형태로 발간된 해제집 DB, 해당 고문헌의 작성자 저자에 관한 DB, 국역된 자료, 원문, 고문헌 소장기관, 용어사전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기 구축된 디지털 자료가 이곳 저곳에 산재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보존관리와 보존처리 조사표는 종합적 보존관리체계의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목록이 작성되는 시점에 기록된 보존관리 조사표를 전산화하여 DB를 구축하게 되면 보존관리 조사표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규모의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5. 서원 고문헌의 활용

서원고문헌의 종합적 보존관리체계의 구성과 함께 고문헌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자료의 적극적 활용자원화

의지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활용지원 정책이나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였고 각 서원의 특성에 맞는 발전적 활용의지가 부족하였다.

이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원자료에 많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례 공간으로만 쓰인 경향이 많으며, 각 서원 마다 차별성 없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됨으로서 보다 제대로 된 서원의 가치를 투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다양한 서원 역사문화 자료 정리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자료를 고증하고 활용하는 비중과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서원 고문헌 자료의 활용은 하드웨어 활용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서원의 활용방식에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보탬으로서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활용지원 정책 및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하며 각 서원의 특성에 맞는 발전적 활용의지를 갖추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본다면 서원의 일반 고문헌 중에 귀중본으로 구분하여 별치한 고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하여 당시 서책을 하사 받은 기록과 그 책의 영향으로 지속된 관습의 형성을 파악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해제의 방식도 이러한 귀중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서원의 장서로서 당시 하나의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군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서원 장서문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원에서 간행된 고문헌의 편찬 제작과정의 재현이나 서원의 의례와 함께 유지 전승되었던 유생의 참여행사에 대한 고증도 의미있을 것이다.

책판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본다면 선조의 전통적 방식과 생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책판제작 당시의 보존체계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판을 기존의 문중이나 주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책판 중심의 연구 방향을 설정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책판의 제작연대를 기준으로 100년 또는 200년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책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행사를 개발

하여 시도해보는 것이다. 예컨대 '00책판 판각(제작) 100(200)주년 기념 전시회 및 학술회의'가 구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당시 작성과정과 함께 참여 인물, 관련문중,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등 그 책판이 만들어낸 다양한 스팩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개별 책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동일한 해에 제작된 목판을 동시에 기념할 수도 있다.

Ⅳ. 결언

현재까지 드러난 서원 고문헌의 보존 관리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도 극히 일부의 서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고문헌 보존의 선결조건인 고문헌 목록작성은 문화재청 및 전문연구기관의 서원 고문서 조사와 시·도 단위의(전남·충남 등) 서원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연구기관의 서원 고문서 조사의 경우 서원의 소장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로 현황, 수량, 자료의 종류 파악되었지만 고문서를 단순하게 유물정리방식으로만 조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자료 정리결과가 서원문화사로 종합되거나 활용,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원 고문헌 목록시스템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시·도 단위의 서원고문헌 조사에서도 지역별로 서원을 분류하여 조사하여 서원의 종합적 성격을 밝히는 시도로 의미 있지만 서원자료 심층 조사에는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무리가 따른다.

서원 고문헌의 올바른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처음 발굴에서부터 고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발굴시 현장 정보, 묶음 형태의 유지가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보존관리로 응급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재청이나 조사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존지원책으로는

복원, 1차적 보존처리, 중성지, 제습기, 보관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도난,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많으므로 소장자가 기탁, 기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응급처리 방식 외에 본격적인 복원이나 과학적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앞서 언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 고문헌조사표'를 작성해볼 수 있다.

보존관리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고문헌에 대한 안정적인 보존관리 기반이 확립되는 의미가 있으며, 보존지원을 통하여 국가적 문화유산관리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실 위기에 처한 문화재에 대한 내용적인 영구보존을 도모하여 장기적인 연구자료 축적과 보존처리를 위한 정보 확보가 가능해진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물의 훼손 단계별로 유형화시키고 각 유형별로 보존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보존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 편찬 방향

이해준*

Ⅰ. 머리말
Ⅱ. 서원 기록문화의 활용 필요성
Ⅲ. 서원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 현황과 문제점
Ⅳ. 편찬 추진과정과 유형별 구체안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이번 제2차 서원 워크숍의 목적은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보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구체적 대안을 도출하여 세계유산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1] 본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는 서원 기록문화의 정리・보존관리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서원별로 필요한 당면 과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예시(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논의들을 통하여 한국의 서원문화가 보다 품위 있고 풍부하며, 교육 유산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인증 받는데 좋은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공주대 사학과 교수.

1) 이해준, 「한국 서원 유・무형 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pp.141~153.

본 워크숍의 4개 주제 중에서 제1, 2주제는 기록자료의 확보와 연구에 대한 것이라면, 제3주제는 보존과 관리 문제를 다룬다. 필자가 다루는 제4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원의 기록자료를 정리한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 부분이다. 이 부면의 논의는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 보존관리와 함께 ① 전승주체의 문화유산 이해와 관심(참여), ②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이라는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평가 요소와 직결되는 중요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서원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교육, 홍보자료들을 발간한 바가 있고, 또 현재 기획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에 필자는 (1) 서원 교양해설, 홍보자료의 유형과 현황을 우선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 기획, 편집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3) 편찬 추진의 로드맵과 효율적인 편찬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서원별로 바람직한 교육·홍보자료의 편찬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필자의 이 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한다.

Ⅱ. 서원 기록문화의 활용 필요성

앞선 제1주제(이수환 교수), 제2주제(김덕현 교수)의 발제에서 확인되듯 서원의 기록문화 자료들은 내용과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체계화할 기초자료들로 400~500년의 오랜 역사를 증빙하면서 한국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강할 데이터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귀중한 서원의 기록자료들이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기록물 연구 조사는 주로 학술논문의 자료로, 혹은 연구자 중심 단순 유물조사로 그쳐 널리 홍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그리하여 전문연구서나 학술자료집은 일반인들이 이해하

기 어렵고, 단편적인 홍보 브로슈어는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한편 최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① 기존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치되거나 선후 갈등이 있던 논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며, '자원의 활용과 유지'에 관심을 둔다는 점, ② 官 주도의 보존일변도에서 민간 주도 및 상호 협력(지원), 효율적 활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즉 [보존 ⇒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재 ⇒ 문화유산], [官 주도 ⇒ 민간 주도 및 상호협력]의 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서원도 이런 점에서 결코 다르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서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후손이나,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연구전문가들에만 집중되었다. 또 서원관계자나 후손, 일부 전문연구자들만이 서원의 가치와 내용을 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가치와 의미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다수 일반인들'은 방관하는 형태가 문제라는 것이다. 즉 보다 큰 목표는 서원문화유산이 현재에 살아 숨쉬고, 보다 폭넓은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계승하려는 의지, 나아가 이를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2)]

그리고 이들 서원기록문화 자료들은 그러한 활용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귀중한 기초자료원이 되어 줄 것이다. 다만 이들 서원의 기록문화 자료들이 알기 쉽고 가치 있게 인식되고 계승되려면 현재보다 몇 배 이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용을 위한 마인드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

---

2) 이해준, 「서원 기능의 보존과 올바른 활용방향」, 『2010 서원연합회 발제문』, 2010, 이해준, 「유교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활용」, 『옛사람들의 학문과 생활-충남의 유교문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1.

‘자랑스런’, ‘미래의 경쟁력이 될’ 한국의 브랜드 가치인 서원문화. 그것을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은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또 알리고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을까? 나아가 자부심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 들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혹평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향 중심의 서원 기능,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제향인물의 행적 소개로 비쳐진 측면이 더 크고, 그래서 서원문화가 지닌 정신사·지성사적 품격과 수준, 문화적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다.

특히 이는 요즈음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서원스테이와 체험이 확대되는 추세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과정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서원별 차별성과 특성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요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서원문화는 교육, 체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재들을 많이 포함한다. 서원별로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특징으로 지니고도 있다. 서원의 이러한 활용가능성, 경쟁력을 고려할 때 그 활용실태는 기본적으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서원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 연구에 의하면 ① 제향, 각종의례, 문중행사 등으로 활용 층의 제한 ② 예절, 한문, 인성교육,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 운영 ③ 수직적 교육중심의 정적인 분위기 형성 ④ 문화재, 인물중심의 서원문화이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

물론 현재 성균관과 서원연합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도산서원·소수서원 등 일부 규모 있는 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과 순례 프로그램이 비교적 높은 호응을 얻는 편이지만, 아직도 서원문화 소재의 적극적 활용이나 아이디어 개발 측면에서 숙제가 많다. 다양한 수요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

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서원 스테이의 효율적 운영-서원별 특성이 부각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원의 활용방법'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인 것이다. 그래서 서원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의지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4] 더 욕심을 부려 본다면 이와 겸하여 효율적인 교육 체험을 위한 자료집의 개발, 제작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서원 교육, 홍보자료 편찬 현황과 문제점

1. 유형별 편찬 현황

서원의 교육, 홍보용 발간(편찬)물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자료모음 성격의 서원지 편찬, ② 전문 연구학술서, 그리고 ③ 홍보용 브로슈어가 대종을 이룬다. 물론 이들 이외에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향후 추구해야할 ④ 교육, 체험 자료집을 편찬한 특별한 경우도 있다.

1) 書院誌, 書院資料集

전통적인 한적본 형태로 각종 서원자료 자료(원문)들을 모아 수록한 유형과 서원고문서 자료를 모아 간행한 유형이 있다. 전통적인 書院誌의 전형을 이룬 주세붕 편찬의 『竹溪志』를 시발로 『迎鳳志』, 『吳山志』 등으로 이어진 16~17세기의 서원지의 전통은[5] 19세기말 20세기에 이르러 『무성서원지』(1884,

4) 교육, 체험프로그램(콘텐츠)들을 개발 공모하거나, 발표회를 정례화하고 선정된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 서원과 인접한 관련 종가(고택), 정려, 누정, 인물유적, 집성촌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과 철학, 일화, 전설, 그리고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체험프로그램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5) 정만조, 「조선시대 書院志 體例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제29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36), 『남계서원지』(1935), 『소수서원등록』(1937), 『돈암서원지』(1958), 『필암서원지』(1975)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전통을 이어 20세기 후반에 편간되는 서원지들은 서원연혁, 제향인물 관련 중요 자료원문을 수록하고 이를 번역하는 정도에 그치고 편찬 당시의 활동상과 규약과 의례, 재산과 물품 등등의 현황을 추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다만 『돈암서원지』(1994)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논문(해설) 형태로 '서원의 기원과 역사', '한국유학의 기호학파', '건물', '제향인물' 등을 함께 수록하여 돈암서원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경우도 있다.

한편 지역별로 서원을 총람하는 형태로 『전남의 서원·사우』(1988, 전남도·목포대), 『충남의 서원·사우』(1999, 충남도·충남발전연구원), 『경기도 서원총람』(2006,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등이 편찬된 적이 있고 고을별로 향교와 서원을 정리해 편찬한 경우도 적지 않다.[6] 그런가하면 한국서원연합회는 2011년에 『한국서원총람』 상·하권을 2,500면의 방대한 분량으로 발간한 바 있다. 대개 이들의 내용구성을 보면, ① 연혁, ② 제향인물의 행적, ③ 건축현황, ④ 관련유적과 유물, ⑤ 기타 등이고, 원고의 분량도 한 서원당 50매 내외의 분량이어서 아주 개략적인 소개 수준을 넘지 못한다.

끝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문연구자들에 의하여 편찬된 자료집 형태의 서원지들이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서원 고문서 자료집성 형태의 서원지가 바로 그것이다.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옥산서원(1993), 도동서원(1997) 자료를 영인, 출간하였는데 이들 자료집은 기존의 연혁관련, 제향인물 관련 자료 이외에 서원의 사회적 위상과 활동상, 조직과 운영, 경제실상 등등 서원문화의

2006; 조준호,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性格」, 『한국학논총』 제33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6)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2000; 한국국학진흥원, 『서원을 찾아서』, 2005.

생생한 자료들을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들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해제만이 이루어지고 이를 활용한 서원문화사의 종합 정리까지는 진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7]

소수서원에서 편찬한 『紹修書院誌』(2007)의 경우는 각종 서원관련 문서 자료를 창건과 중흥, 제향인물, 원규와 입의, 향사와 고유, 영정, 강학, 현판·석각, 시부, 산문, 문헌, 건축물, 유적, 유물, 임원록, 당회와 운영 등으로 나누어 관련 자료 원문을 번역 편찬하였다.[8]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고문서집성』으로 서원소장 고문서를 영인하여 편간하였는데 제20책으로 병산서원(1994), 제24책으로 남계서원(1995), 제25책으로 덕천서원(1995), 제29~30책으로 용연서원(1996), 제50~51책으로 용산서원(2000) 등을 발간한 것이 그것이다[9].

2) 연구학술서

9개 서원의 경우 의외로 서원의 종합적 성격을 주제로 다루면서 학술서로 발간된 경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龍山書院,[10] 화양동 서원[11] 등의 사례

---

7) 다만 옥산서원의 경우는 자료집의 앞에 서원의 역사, 사회·경제적 기반, 정치·사회적 기능, 소장자료의 해제를 수록하고 있음.

8) 필암서원의 경우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국립광주박물관, 2007)이라는 특별기획전 도록에 김인후의 가계와 출사, 인종과의 만남, 조선 성리학과 하서, 선비정신과 시세계, 하서와 필암서원, 하서의 문묘배향 등 기획연구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9) 고문서나 전적 등 서원소장 자료들을 모은 자료집의 경우는 목적이 학술자료용으로 수요층이 전문 연구자들이므로 별도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의 이수환 글에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될 것이다. 본 발표초록의 [부록] 서원별 자료정리 현황을 참조

10) 한국학중앙연구원, 『龍山書院』, 집문당, 2005. 학술논문집으로 연구주제는 慶州 龍山書院 재지사족의 향촌지배(李樹煥), 慶州 龍山書院 運營과 慶州崔氏家의 역할(安承俊), 龍山書院과 敎育活動(丁淳佑), 朝鮮後期 書院의 財政運營 문제에 관한 一試論(鄭萬祚), 朝鮮後期 書院의 特性과 行政官廳(朴丙鍊) 등이다.

11) 국립청주박물관, 『화양서원 만동묘』, 통천문화사, 2011. 전시도록인데 논고로 화양동서원의 역사(이해준), 조선성리학과 만동묘(지두환), 화양구곡의 현양과 상징, 화양구곡도(윤진영), 우암선생 瀛州訣書와 만동묘 건립(박준호) 등을 수록하였다.

에서 보는 것처럼 서원의 격이나 위상보다 전승주체나 의지가 큰 곳에서부터 이런 노력이 시도되었다.

물론 9개 서원의 경우 제향인물 관련 행적과 사상, 추숭활동을 다룬 학술세미나는 서원별로 대부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물도 적지 않은 량이 나왔다.[12] 이들 제향인물의 사상이나 행적연구는 전문서로서 풍부한 내용과 높은 수준을 대변하지만, 너무 전문적이거나 일반인이 접근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전문연구의 더 큰 문제점은 연구 분야별로 극히 정밀한 주제와 대상들을 다룸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서원의 종합가치, 이해 교육, 전승의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문체나, 편집형태, 그리고 디자인의 면에도 무신경하여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분량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울 만큼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다.

즉 전문적인 글, 특수한 분야,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를 일반인의 입장, 식견으로 객관화하여 이해하기란 결코 용이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자료를 보고 해당 서원의 역사적, 문화적 성격을 종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같은 연구와 학술세미나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곧바로 이들이 전승, 이해, 교육, 활용에 연계될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라는 점이다. 오히려 자칫 편견과 거부감, 경외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더욱 관심권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국학진흥원의 국학교양총서 발간 사업은 이 같은 연구서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예컨대 『안동서원기행』이나 『퇴계인물씨리즈』(이황, 유성룡, 김성일, 정구, 조목, 장현광, 정경세, 이현일, 이만부, 이상정, 류치명, 이진상 등)같은 기획물

12) 필암서원의 경우처럼 하서 김인후의 추숭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하서 학술재단은 1986년 창설된 이래 각종 학술회의 개최와 하서의 학문과 사상연구, 하서전집 발간, 연구서 발간, 연구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관련 연구서로는 각책마다 10여 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수록한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화』라는 연구총서를 4책이나 발간하였다.

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3) 홍보용 브로슈어

마지막으로 홍보 브로슈어가 있다. 현재 우리가 현지에 가서 접하게 되는 서원안내자료(관광 홍보 브로슈어)는 우선 매우 소략하고, 건물과 문화재, 제향인물 중심의 해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다.

물론 일반인의 서원 이해와 관람에 기초적, 사전적 지식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서원의 홍보용 브로슈어들을 보면 거의 모든 서원이 비슷한 체제와 내용이며, 차이가 있다면 아주 욕심을 부려 적은 면수에 너무 많은 자료를 넣으려는 경향과, 반대로 다소 무성의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듯 한국 서원의 크고 웅대한 가치와 의미가 너무 소략하게, 그처럼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서원은 다른 문화유산에 비하여 무형적인 역사와 정신, 교육, 의례 등을 포함하는 유산이어서 내용구성과 자료선별, 전달의 방식 등 편집에 많은 아이디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내용구성상의 문제점이다. 내용구성상 대부분이 제향 인물 중심의 행적사이거나, 건축물 중심이다. 우리의 문화재 정책이 유형문화재 중심이어서 주로 서원 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설명문, 안내문도 모두 건축물 중심으로 해설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물론 제향인물의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서원의 종합적인 문화사와 연계 설명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질 교육, 홍보자료에는 이러한 건축물과 제향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경관, 제향이나 교육의례, 정신과 사상, 기타 무형의 유산까지로 그 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반인을 대상한 서원해설, 교양서의 편찬 필요

☞ 간략한 가이드 북, 교육 보조재료의 편찬 필요

2. 문제점과 과제

1) 내용 구성상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서원교육, 홍보자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의 4가지 문제점을 요약할 수가 있다. 즉 ① 내용 구성 ② 대상(수요층) ③ 전문연구의 주제 분산성 ④ 교육, 홍보, 편집의 마인드 등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서원을 홍보하는 책자들의 가장 먼저 지적되는 내용 구성문제는 대부분은 연구서, 학술서의 경우 제향인물의 사상이나 행적을 다룬 것, 혹은 서원의 건축물을 다룬 것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각 서원의 문화특성과 연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향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인물 추숭의 성향으로 인식되고, 그에따라 제향인물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해당 서원의 교육, 문화적 성격을 축소하게 된다면 문제이다. 영웅적, 전기적인 제향인물 설명 일변도에서 벗어나 서원의 역사와 정신에 연관되는 부분의 비중을 높여 의미가 더욱 고양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원의 다양한 역사와 성격은 제향인물의 생존했을 때와 사후 문인이나 후학들의 배출과 그들의 추숭활동, 나아가 정치,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향인물에만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자칫 이같은 서원의 역사와 변천, 다양한 성격을 소홀히 하거나 논외로 하기가 쉽다. 더 많은 이야기꺼리와,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원의 소개는 유형적인 건축물, 문화재 중심 경향이 일반적이다. 물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강조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서술의 내용이 서원의 경우에서는 가구 기법이나 형태에 더하여, 성리학적 경관개념, 위계와 배치구조, 교육·강학·제향·거접 등 서원 기능과 연관되는 의미 등이 함께 이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과 서원공간의 가치는 역사

와 인물, 시대정신을 떼어 놓고 그 의미를 살필 수가 없는 까닭이다.

서원은 주지하듯이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숭하고 제향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던 곳이었다.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존재하며, 이들 모두가 내용에 포함, 혹은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원의 건축물과 공간은 조선시대 해당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선비들의 활동무대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선비들이

- 여론 및 공론의 결집처로서 사회사적 활동
- 교육, 강학, 제향 및 각종 사회 교화
- 도서출판 및 도서관적 기능
- 학맥의 거점으로 학문적 이론과 행동양식
- 향약, 의병, 상소, 당쟁, 학문토론 등등 역사적 사건의 장소

등등으로 활용했던 유적·유물, 정신들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알리고 느끼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불명확한 수요층(대상)

다음은 수요층(대상)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없이 불특정 다수, 수요층을 무작위로 하여 자료를 배포하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이다. 예컨대 서원 관련 교육, 홍보자료로 편찬·간행된 전문연구서, 인물추숭 자료, 관광안내 브로슈어 들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제공될 자료는 없거나, 아주 기초적인 것일 수밖

에 없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연구서를 보면서는 어렵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제향인물 관련 도서를 보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지 – 서원과 연관된 – 를 구분하지 못한다.

실제 이러한 수요층(대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료를 편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원을 보는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일반시민들의 수준과 관심, 유림들의 수준과 관심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는 마치 불특정한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의 밥상을 차려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과 다름없다. 어쩌면 일방향의 획일화된 자료로도 서로 다른 생각(수준)의 사람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주요 대상, 수요층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선정하고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서원을 바라보는 주요 대상(수요층)을 선정하고 대상에 맞는 교육 및 홍보자료를 편찬하는 것이다. 대상(수요층)에 따라 인식과 관심(기대)이 다르다는 것과, 그에 따르는 적절한 접근 방식과 자료 선정, 구체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도 어려운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서원의 교육과 홍보를 생각하면서 서원 관련 연구자, 후손, 유림의 경우를 일단 논외로 하면, 우리가 수요층으로 손꼽아 볼 대상은 대개

가) 서원과 유교문화에 부정적 이해를 가진 일반인
나) 서원과 유교정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일반인
다) 초중등 학생들
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지도자들(문화해설사)

정도가 아닐까 싶다. 결국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보면 '서원의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비단 어린 학생들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층위의 수요층들이 서로

다른 눈으로 서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음으로는 과연 우리가 주된 수요층을 이들 중 대체 어느 층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아마 우리의 현실로 보면 ① 초등, 청소년층(중고생)이 가장 먼저일 듯하고, 다음으로 ② 서원과 유교정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일반인,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③ 서원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할 교사(해설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하나만 선택하여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 서원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동시에 추진할 수도, 또 여건이 안되면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이 선정되면 대상의 요구와 수준, 기호에 맞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효율성 있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13]

☞ [서원자료집－인물 연구서－홍보브로슈어] 사이에 브루오션이 있다.

그리고 ①의 초등, 청소년층(중고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교육용 해설서(간략한 가이드 북, 30~50면 정도 분량)가 합당할 것이고, ②의 서원과 유교정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일반인이 대상층이라면 당연히 전문서의 내용을 축약하고 알기 쉽게 해설한 서원소개, 해설서(일반교양서, 250~300면 정도 분량)가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③의 교사(해설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육보조 자료(교육교재)의 편찬이 계획되어야 마땅할 듯하다. 이들의 체제와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절에서 그 대강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

13) 사실은 서원연합회나 서원학회가 이런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고, 교육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교육, 홍보 마인드의 부족

끝으로 서원의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부족문제이다. 잘라서 말한다면 현재의 서원은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나, 그 어려움에 대하여 큰 고민을 하지 않는 듯하다. 어쩌면 적당히 만들거나 진행하더라도, 알아서 좋아하고 당연이 좋아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과 상상, 도덕과 인성에 무지한 부류로 괄목상대라도 할 기세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아마도 서원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느끼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무시 못할 사실이다. 물론 그들이 유교문화의 본질을 너무나도 모르거나 편파적으로 이해해서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이유는 유교문화가 전근대적, 보수적, 공리공론, 비실용적, 당파성, 추상적, 관념적이어서 극복의 대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유교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제 식민사관의 의도적인 평가절하와 악평, 민족주의 인사들의 自省論, 여기에 더하여 서구화・산업사회화가 진전되면서 그 가치가 폄하, 왜곡, 굴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서 더욱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모든 부정적 요인들의 진원지가 바로 '서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한편 서원과 같은 인물, 유교문화유적은 다른 유적에 비하여 경쟁력도 떨어진다. '靜的・敎育的'이라는 인상이 강하며 그런 까닭으로 지루함을 유발하고, 그리고 재 방문 비율이 가장 적은 문화유산자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즉 흥미롭거나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유적도 아니다. 오히려 '정신과 학문, 내면적 문화를 가치로 하는 유교문화 유적'을 머리 아픈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문화'나, 우리가 강조하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방법을 준비하지 않은 채, 건축물, 특정 인물(조상자랑), 혹은 전통의례나 한학 중심의 문화 개념이 강조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수요자에 대한 배려나 전달 방식, 전승 활용할 대상 자료의 선정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또 그런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극복할 의향이나 아이디어의 창출에 무신경, 소극적이었던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양하고 풍부한 서원의 문화자료들을 다양한 수요에 맞게 잘 포장하여 재생 활용하여야 하고, 그래야 이들 문제점과 한계가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만 한다면 스토리텔링, 교육과 체험의 다양한 소재로 활용할 흥미롭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교육가, 자원 활용전문가가 함께 모여 연계하고,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연구자라도 활용 방법이나 기술이 미흡할 수 있고,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활용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해지는 것이 바로 해설, 교육자료의 충실한 편찬, 수요자의 수준에 맞는 정확한 맞춤형 편찬과 제공이다. 예컨대 누가 찾아올 것인가? 무엇을 보여주고 느끼게 할 것인가? 다시 찾고 계승할 주체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서원의 가치와 문화가 후대로 올바로 계승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두가 노력이고, 아이디어이며, 투자일 수 있다. 복원은 돈으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머리로, 가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Ⅳ. 편찬 추진과정과 유형별 구체안

이상에서 교육·홍보자료 편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끝으로 편찬 추진의 과정과 유형별 바람직한 구체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가 본고에서 제시하는 추진 방안 예시들이 여러 서원의 자료 편찬에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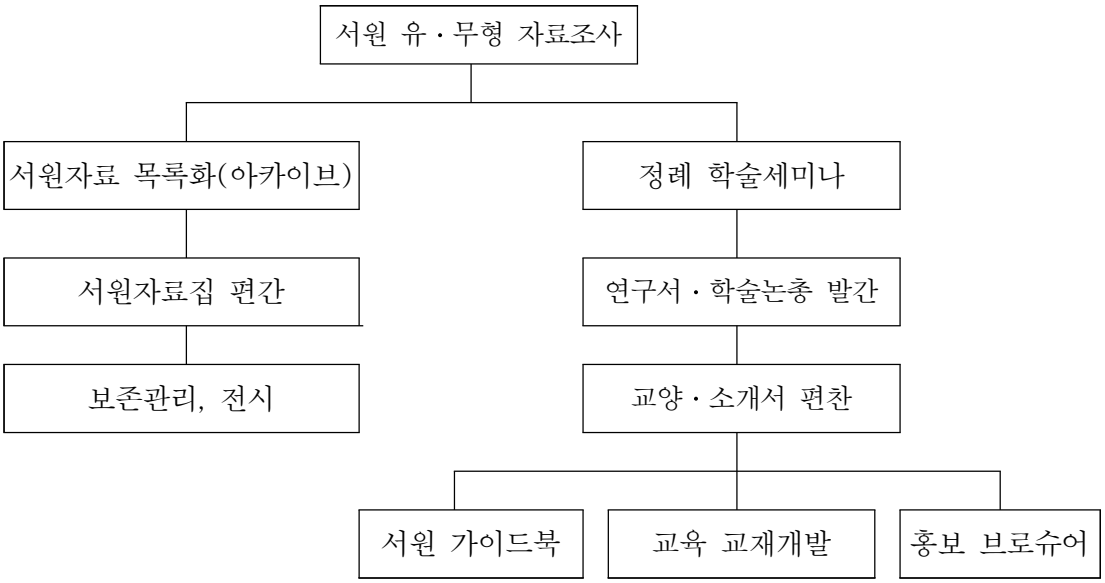
등재신청과 관련하여 등재추진단에서는 2012년도 예정사업으로 한국서원 문화 학술연구(『한국의 서원』)[14]와, 등재서원 특성 학술연구(『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15] 및 책자 발간을 기획 추진 중이다. 또한 기록문화(문헌) 자료와 무형문화(의례, 제향) 자료정리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이에 대하여는 앞의 이수환 서원지 편찬 논의를 참조). 그리고 교육과 제향의례 부분은 제3차 서원워크숍(6. 15일 개최 예정)에서 방향을 정하여 진행될 것임]. 따라서 이들 작업과 연계선 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업은 한국의 서원 전체를 묶는 작업으로 서원별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서원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교육・홍보자료 기획・편찬이 요청된다.

편찬물의 유형은 수요층에 따라, 그리고 분량, 내용수준에 따라 여러 종류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교육, 홍보물의 편찬 유형으로는 ① 전문학술・연구서, 자료집, ② 교양・소개서, ③ 가이드 북, ④ 교육프로그램 교재, ⑤ 홍보 브로슈어 등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은 대상층과 편찬 목적에 따라 각각 내용 구성(체제)와 편집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다.

---

14) 『한국의 서원문화』는 한국서원의 문화사적 가치와 의미를 10개 분야로 나누어 총정리하되 학술논문형식이 아닌 개설, 해설, 교양서로 집필하여 1책(350~400면 내외)를 출간할 예정이다. 수록내용은 서원총론(이배용)/ 역사와 변천(정만조)/ 자연경관(김덕현)/ 건축문화적 특징(이상해)/ 교육과 강학(정순우)/ 성리학과 시문(권오영)/ 제향의례(정승모)/ 운영과 경제기반(이수환)/ 향촌사회와 서원(이해준)/ 장서(도서관)와 출판문화(옥영정) 등이다.

15)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제하에 한국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표상하는 9개 지정대상 서원별 특성을 구체화하여 한 책으로 묶어 간행하며, 필진은 서원 특성에 따라 2~4명이 분담 집필할 예정이며, 350면 내외의 분량으로 기획하고 있다. 내용 구성은 한국서원문화의 특성(총론)/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한국서원의 현황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전문학술·연구서, 자료집[16]

교육, 홍보자료가 제대로 편찬되려면, 이에 앞서 다양한 서원관련 유형·무형의 자료를 완벽하고,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하는 일과, 서원의 가치와 역사를 학술적,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고자 하는 9개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으로 유·무형의 다양한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들 각 서원에 남아 전하는 자료, 일부 분산소장된 자료, 문헌으로 검색되는 자료 등등 서원관련 유형 무형의 모든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편간하거나 아카이브화 하는 일이 우선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17]

16) 이 중 서원자료집의 경우는 서원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이수환 교수의 논의에서 언급될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17) 이해준, 「한국 서원 유·무형 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pp.141~153.

결국 이들 조사 정리된 자료들은 해당 서원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유인할 것이고, 연구와 조사 성과가 교육과 홍보의 대상 폭, 내용의 질을 결정하며, 나아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의 원형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많은 학술회의가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서원문화의 종합, 집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순도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로 제향인물 연구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주제를 보다 넓혀 서원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서원별로 매년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서원이 지닌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성격을 밝히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관련 연구단체나 지역의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기획하면 좋을 것이다.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서원 제향인물의 사상과 학맥, 정치적 활동, 서원의 경관과 건축특징, 유·무형 서원문화유산 등등으로 정하여 정례적인 연구를 진행시켰으면 한다. 학술회의를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그 결과는 서원학술총서(연구서, 논문집) 형태로 발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연구주제와 연구분야 선정에서 가능하다면 9개 서원 중에서 해당 서원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차별성 있는 키워드를 부각하여 알리고, 이를 현재적으로 재조명, 계승, 활용하려는 아이디어가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병산서원의 장서 기능,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제향 의례전통, 도산서원·옥산서원·병산서원의 학술논쟁과 학맥, 옥산서원과 도동서원의 다양한 서원 운영 조직, 경제관련 고문서, 무성서원의 향학당 사적, 최치원 영정과 문집발간, 한말 의병과 향약(동약), 필암서원의 서원고문서와 장판들 등등은 별도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정도로 특징이 부각된 예들이다.[18] 바로 이러한 각 서원의 특징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가 기획된다면 좋을 것이다.

다만 이들 전문적인 연구서나 자료집 편찬은 전문연구자의 수요와 기대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들의 서원에 대한 관심 충족과 이해, 가치 바로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인의 수준과 기대치, 알고 싶은 내용이 전문가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① 서원 교양・소개서, 교육용 ② 서원 가이드 북, 교육, 체험 및 스테이의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③ 교육 보조 교재 발간 같은 교육과 홍보용 자료의 편찬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2. 서원 교양・소개서(○○서원의 역사와 문화)[19]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문학술서는 일반인에게 서원의 가치와 문화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홍보 브로슈어로는 서원의 가치, 특성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그 같은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서, 즉 서원의 성격과 문화사를 알기 쉽게 종합정리한 교양・소개서(해설서)의 편찬을 기대한다. 서원정신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서원 교양・소개서는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서원 교양・소개서는 대상층을 일반인으로 하여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이면 이해할 정도의 평이한 문체와 사진・삽도 및 자료가 많이 수록된

---

18)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잠정목록신청서(2011) : 紹修書院(1543년); 최초의 서원, 제향의식과 의례(장서, 유물, 건축 시원형), 濫溪書院(1552년); 향촌교화, 玉山書院(1573년); 다양한 운영주체, 서원경제, 건축기록 (장서, 문서, 경관), 陶山書院(1574년); 퇴계 이황과 강학 전통(학통, 강학 자료, 경관), 筆巖書院(1590년) ; 서원 문서와 제향인물 유적 유물(학맥, 정치), 道東書院(1605년); 경관과 변천사 자료, 屛山書院(1613년); 자연과 조화된 서원 건축경관의 전형, 서원건축, 遯巖書院(1634년); 호서 예학의 산실(학맥, 출판), 武城書院(1696년); 향민교육과 강학, 향약, 한말의병(최치원, 강습례, 의병)[( )의 내용은 필자가 추가한 것으로 향후 연구의 진전을 기대].

19) 『○○서원의 역사와 문화』『퇴계 이황과 도산서원』같은 방식도 좋을 것이고, 서원별 문화특성과 강점(경관, 건축, 인물, 강학, 제향, 자료 등등)이 책의 타이틀로 강조되면 이상적일 것임.

정감 있고 흥미로운 체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편집과 디자인을 전문 기획자에게 맡기거나, 아예 유가지로 편찬하여 판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20] 그래서 체제와 분량은

- 신국판 변형, 300면 내외
- 원색, 2,000부(유가 판매 : 3,000~5,000부)
- 학술논문형식이 아닌 개설, 해설, 교양서로 집필(고교졸업생 정도의 이해 수준)
- 기존 연구성과 요약, 정리. 충실한 자료 예시(사진・삽도・자료의 비중 30~40%)

로 하고, 집필진은 해당 서원의 문화사적 특성에 따라 서원연구의 분야별 전문가(지리, 경관, 건축, 역사, 교육, 의례, 사상, 고문서, 기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내용과 체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해당 서원의 역사와 문화사적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되, 기본적으로 포함할 내용(목차, 주제)은

- 화보
- 서원 입지와 경관, 풍수
- 창건과 역사변천
- 제향인물의 행적
- 서원의 건축물과 배치

---

20) 그리고 이 작업은 가능하면 有價 販賣할 계획으로 기획 편찬하는 방안이 좋을 듯싶다. 팔리는 책, 사서 보는 책이 될 만큼의 경쟁력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팔린다는 것은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일정 부수를 구입, 배포하는 MOU를 편집 기획(출판)사와 맺고 유가 판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집필자 선정과 원고작성을 서원(지자체)가 맡고 편집디자인만을 이들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다.

· 교육, 강학, 제향 의례
· 조직과 운영, 서원경제
· 사족활동(학맥, 정치)
· 장서와 출판
· 전적, 고문서와 유물
· 현판, 금석기문
· 서원 관련 문화유적
· 일화와 전설
· 주요자료 원문 / 연표 / 기타

등을 참조하여 서원의 성격에 맞게 추가 보완하면 좋을 듯하다.

한편 한국의 대표서원으로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는 9개의 서원은 공통적으로 수려한 경관과 전통 있는 건물들, 제향 인물의 학문·사상·행적, 서원의 지성사·사회사적 활동, 제향의례의 전통, 각종의 문화유산 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해당서원이 지닌 보편적 성격(서원의 역사·인물·건축·교육·제향·활동 등 종합)과 여기에 각각의 서원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격(해당 서원의 지역별, 학맥별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21] 그리고 유·무형의 자원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원별 자료의 정리과정에서 특성을 좀 더 부각할 주제들도 구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무성서원 같은 경우 무성서원의 역사와 변천사를 살펴보면

· 孤雲 崔致遠의 생사당과 丁克仁의 향학당
· 申潛의 5부학당과 생사당

21) 앞의 주 14) 참고.

- 도내 유생의 청액상소와 연액 의절
- 최치원 영정 이안과 桂苑筆耕 발간
- 武城 액호와 絃歌樓
- 무성서원의 강습례 전통
- 勉菴 崔益鉉의 의병 창의와 무성서원

등과 같이 무성서원만의 특수한 역사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해당 서원만의 주제어들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22] 이런 특성이 예감되는 독특한 서원문화사 주제들에 대하여 자체 학술세미나를 통한 정리를 한 후 교양서의 편찬에 반영하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이상에서 교양·소개서의 편찬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서원의 가치와 의미, 특성종합)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수요층, 대상의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의 기술(편찬, 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된 셈이다.

결국 수요층에 따라 알기 쉽고 다양하게 정리되어 전달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시급한 후속 작업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즉 위에서 살핀 전문연구서나 종합적인 교양 해설서를 활용한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인 활용 자료집으로 발제자는 (3) 서원 가이드 북, (4) 교육, 체험 및 스테이의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교육 보조 교재 발간이 후속작업으로 병행되기를 기대한다.[23]

---

22) 필자는 돈암서원의 경우도 ·정회당, 아한정, 양성당의 강학 전통·사계 김장생의 실천 예학과 호서산림·17세기 기호사림의 首善之地·정묘의병과 문인들의 참여, 활동·문집과 예서의 출판사업(장판각 자료)·대표적인 서원건축(응도당)·개화기 근대학교로의 일신(찬명학교)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홍보 브로슈어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3. 서원 가이드-북(유가 판매도서)

앞에 제시한 일반인을 위한 교양·소개서는 상세하고 종합적인 300면 내외의 저서 형태라면 이를 원본 텍스트로 하여, 간략하고 알기 쉽게 축약한 40~50면 정도 분량의 『○○서원문화 가이드 북』을 편찬했으면 한다. 이 서원 가이드 북은 홍보 브로슈어의 단편성을 보완하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서원 문화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요약해서 알리는 전달 매체로 이용되었으면 한다.

내용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자료와 앞에 제시한 서원 교양·소개서를 활용하되, 일반인이나, 교사, 학생, 유림, 전문가들에게 '알고 싶은 서원 지식' '알리고 싶은 서원문화' 아이템을 조사하여 이들 중 수요자 수준에 맞는 소주제를 8~10개 정도(Q&A) 선정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가이드 북의 경우 [서원문화]와 [제향인물]을 나누어 제작하는 방안도 유용할 듯하다.[24]

그리고 서원 가이드 북은 무엇보다 편집상 간결하고 쉬운 문체, 삽도·자료·사진의 다양한 수록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이었으면 한다. 가능하면 편집기획자, 교사(만화, 문학, 문화)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수요층의 기대와 호기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 편집과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집의 경우 좀 더 확실한 경쟁력의 확보, 편찬기획의 수준의 담보, 일반교양인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어쩌면 전문출판사와 함께 3,000~5,000원 정도의 유가 판매용으로 기획 출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직하다.

---

24) 필암서원의 경우 『하서 김인후 선생이야기』(울산김씨 문정공대종중·대동문화재단, 2007)라는 책자를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분량이 신국판 220면으로 좀 많으나 전기, 소설형식으로 평이한 문체, 흥미로운 목차 구성, 다양한 삽화(사진, 그림) 등으로 좋은 사례가 되어 준다. 이 책자의 독후감을 시상하기도 하고, 독후감 모음집(2007)도 발간하였다.

4. 교육 보조재료 개발

끝으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보조재료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특히 최근 들어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서원 스테이가 일반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목표,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사실 교육과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명목)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체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교육자료의 제작, 수요층에 맞는 주제별 교육・체험 자료를 먼저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선도기관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학생, 성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비문화체험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비문화체험 수련, 도산서원』(문화체육관광부, 2009)을 편간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초, 중등학생(2박 3일, 1박2일, 1일), 대학생 체험과정(1박 2일), 외국인 다문화가정 체험과정(2박 3일, 1박 2일), 외국인체험과정(2박 3일), 그리고 성인일반 체험과정[25] 등으로 대상에 따른 체험이 진행되며 각기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수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글로벌 인재양성전통과 현대의 접목, 예절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적 인간양성,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라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도산서원에서 보는 것과 유사하게 다양한 체험 대상과 일정을 마련하여 한문・예절・인성・역사탐방・전통놀이 등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서원 교육자료』(소수서원. 예문관 선비촌, 2009)라는 체험교육 지침서를 만든 바 있고, 2010년에는 박석홍 편

25)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체험에는 문화단체(전통예절), 교원 공무원 기업인, 학부모, 사회단체, 가족 체험 등이 이루어진다.

의 『선비문화를 찾아서』(영주시, 52면)라는 교육보조 자료를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한편 서원연합회도 최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원스테이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운영하면서 공통 자료집으로 『서원문화체험(2010)』과 『서원스테이(2011)』를 편찬 보급한 바 있다[26] 이밖에도 퇴계학연구회가 주관한 '유교문화체험 연수교재 및 콘텐츠 개발회의'라든가, 필암서원에서 교육관인 집성관을 준공한 이후 선비학당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등등이 모두 이러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27]

그러나 이들 자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들도 적지 않다. 그것은 교재의 내용과 대상별 교육과정의 철저한 점검이 없이 어쩌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상태에서, 어쩌면 요령 있는 교사나 지도사, 그런가하면 스타급 해설자가 모두를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듯도 느껴진다.[28]

다음에 직접 9개 서원의 예는 아니지만, 몇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예시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예감하여 보고자 한다.

1) 『白鹿洞書院』과 『嶽麓書院(史話)』

발제자는 이 대표적인 중국 서원의 교육 및 홍보자료에서 우리의 교재 개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白鹿洞書院』(黎華 편)은 백록동서원의 홍보 브로슈어 형태로 변형 4.6배판 24면의 분량이다. 수록내용은 연혁개요, 100년 전 옛사진, 白鹿洞賦, 저명인의 詩文, 柱聯, 書畵, 朱子白鹿洞教條, 朱子家訓, 金石文, 朱熹讀書法, 白鹿洞의 역대 명인 肖像, 현대 풍광, 주요활동(학술활동) 등이다. 이 책을 예시한 것은 수록 내용들이 모두 백록동서원의 역사와 정신, 전통을 설명할 때 직접 확인해야할 사진이나 원자료(원문)를 가능하면

26) 서원연합회, 『서원스테이 사업(6개서원)』, 문화체육관광부, 2009.
27) 필암서원, 『山仰會報』 제15호, 2010.
28) 월봉서원, 『월봉서원 생생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 2009.

충실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다. 발제자가 보기에는 홍보물을 겸한 교육 교재로 이용이 가능할 만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도 현재의 서원 홍보 브로슈어의 분량을 좀더 늘려서(16절 → 4절), 해설, 설명시에 시각 자료로 예시하면 어떨까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嶽麓書院(史話)』(朱漢民, 鄧洪波 著, 호남대학출판사, 2009)는 악록서원의 보다 분명한 색깔을 가진 교육 교재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64면의 분량이지만, 글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량이고 대부분이 삽도 사진, 자료들이다. 전체적인 내용구성은 서원의 역사에 따라 創建(북송) 鼎盛(남송) 延續(원명) 再興(청대) 變革(學制)의 5시기로 구분하고 각기 3~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간략한 해설과 자료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물 고적이라 하여 유적 유물을 수록하였다.

이 책자는 소개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사, 지도자(안내자), 해설자용 자료집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록된 자료는 중요 관련 유적(사진), 암각서 금석문(탁본), 시문 원문(책자, 비문), 고문서(원문), 유품, 영정(사진), 전적의 주요내용, 옛사진, 원규 등등이다. 특히 수록된 다양한 자료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자료, 없어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 꼭 내용을 소개하여야 하는 특별한 자료들까지 성의 있게 수록하여 준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자료의 성격과 전승 상황에 따라 사진, 상상도, 사료, 탁본, 회화, 고문서, 유물, 삽화 등으로 다양하게 편집한 아이디어도 활용할 점이다.

9개 서원의 경우 자료량이 충분하므로 조금만 유의하면 핵심, 중요, 특기할 자료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프로그램 운영 지도서로서, 혹은 교보재 모음과 해설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교육(워크숍)을 받은 교사, 안내, 해설자가 수요층(대상)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선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놓은 '자료집'의 성격이면 좋을 것이다.

2) 소수서원『선비문화를 찾아서』

두 번째로 소개하여 예시를 삼고자 하는 자료는 소수서원의『선비문화를 찾아서』(영주시, 박석홍 편, 2010, 52면)라는 책자이다.

이 책자는 청소년용으로 4.6배판 52면의 원색으로 만화, 삽화, 사진 등을 혼용하여 주제별로 구성한 책자이다. 솔직히 대상층(수요층)이 분명하지 않고, 너무 많은 량, 모두 다 수록하려는 욕심 때문에 다소 방만하고 핵심 컨셉과 키워드가 분산된 느낌이다. 또 편집상의 기교나 매끄러움에 문제가 없지 않으나, 수요층의 기호나 관심을 유발하려는 노력과 아이디어는 대단하다. 수록대상 유적은 소수서원(1~20면), 선비촌(21~27면), 소수박물관(28~34면), 선비문화수련원(35~38면), 순흥권의 문화유적(39~51면)을 망라하여 영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20면 정도의 소수서원 부분에는 전경, 약사(년표), 경관, 건물, 영정, 전시유물, 제향인물(안향, 주세붕, 이황, 안축, 안보) 등이 다양한 사진, 삽화, 자료, 일화의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향후 개정판을 낸다면, 서원만 소개하는 자료로 분리하고 편집상의 욕심을 줄여 약간 번다하거나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면 어떨까 한다. 분량도 2배 정도 늘려 40~50면으로 한다면 편집의 산만함과 답답함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산정과 편집 기획을 함께 논의할 편집(기획)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편집위원회에 자료를 잘 알고 동원하는 전문가(연구자, 서원유림)와, 수요층별로 적절하게 선택하여 전달할 교사나 해설자, 편집기획자, 그리고 삽화, 사진 같은 작업을 도와줄 예술인(교사)가 함께 참여한다면 훨씬 완벽한 교육, 체험의 교육재료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Q&A 형식의 기획 개발도 고려).

3)『하서 김인후 선생이야기』

이 책자는 필암서원의 제향인물인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행적을 정리한

전기물로 울산김씨 문정공대종중과 대동문화재단에 의하여 2007년에 기획 발간된 것이다. 신국판 220면, 원색으로 김병효가 짓고 백정환이 삽화를 그렸다. 소설 형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문체이며, 사진·삽화가 많아 글의 분량도 많지 않다. 편집 기획도 정겨우며, 목차도 '전라도 장성 맥동에 큰별 내리고' '스승 면앙정 송순과의 인연' '대과에 급제하던 날' '인종이 선생에게 묵죽을 내린 사연' '난산에 통곡소리 애절히 번지고' '백년초해를 지은 뜻은' 등으로 흥미롭고 평이하다.

이 책자는 전기이면서, 교육체험의 독후감 작성용 텍스트로 만들어 졌다. 그리하여 부록편에 필암서원과 하서에 관한 자료들을 수록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책자를 일고 제출한 독후감을 뽑아 시상하기도 하고, 『독후감 모음집』(2007)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파주문화원에서 발행한 『큰스승 육곡 이이의 삶과 사상』(2007), 『명재상 방촌 황희의 삶과 사상』(2007)도 마찬가지의 평이한 문체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반이 알기쉽게 구성 정리한 것임을 편집자는 밝히고 있다.

물론 이들의 경우는 200여 면이 넘는 적지 않은 분량이다. 많은 학생들이 일고 체험하는 교육자료로는 다소 분량이며, 가능하다면 다른 서원의 경우 교육재료로 만들려면 50면 내외로 축약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29]

4) 교육 콘텐츠의 개발

또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와 인력을 동원하여 개발한 콘텐츠의 선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kostma.net)의 병산, 남계서원 원문자료 제공이 있다. 그런가하면 한국국학진흥원의 조

29) 약간 다른 경우이지만, 체제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백일헌 이삼 전기)』(백제군사박물관, 2007)같은 경우 전기 형식으로, 초등생용이며, 아주 간결, 작은 분량(독후감, 발표용)이다. 삽화(사진)와 글의 비중이 반반 정도이며 4.6배판 60면 분량인데, 이런 정가 적당할 것 같다.

선교육 한마당 '기록자료로 본 서원'에서는 교육, 재정, 규범, 운영, 제향 등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고 서원 창건, 강학일기를 활용하여 서원의 창건과 강학절차 등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도 탑재되어 있다. 유교문화박물관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자료를 만나는 박물관 자료마당이 마련되어 있다.30)

주지하듯 서원문화는 교육, 체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재들을 많이 포함한다. 서원별로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특징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소재 하는 콘텐츠의 개발, 자료의 온라인 소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가능하다.

활용가능성, 차별화, 경쟁력을 고려한 이들 서원별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더욱 효율적인 서원교육과 체험을 약속할 것이다. 물론 현재 성균관 산하에서 결성 된 서원연합회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도산서원이나 소수서원 등 일부 규모 있는 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과 순례 프로그램 이 비교적 호응을 얻는 편이지만, 서원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의지 및 지원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수요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서원 스테이의 효율적 운영－서원별 특성이 부각되고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원의 활용방법'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인 것이다.

더 욕심을 부려 본다면 교육, 체험프로그램(콘텐츠)들을 개발 공모하거나, 발표회를 정례화하고 선정된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 서원과 인접한 관련 종가(고택), 정려, 누정, 인물유적, 집성촌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과 철학, 일화, 전설, 그리고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체험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

30)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http://edu.ugyo.net), 유교문화박물관(http://www.confuseum.org)

Ⅴ. 맺음말

발제자는 서원의 교육과 홍보 마인드에서 가장 우선하고 중시하여야 할 것이 고품격과 지성사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는 서원문화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과 현재적 의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자, 계승 활용의 시의성과 당위성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부 부정적 인식도 없지는 않지만 300~400년 전의 유교문화는 어쩌면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미래 사회의 화두인 '지성사'와 '정신사'의 본질적 모습을 지닌다. 서원문화자원은 무엇보다 도덕과 지성, 교육의 장이었다는데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저변에 물질과 경쟁 중심의 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유교-서원문화 유산은 도덕성 결여나 교육과 정신문화의 황폐화 등 현실을 극복하고 도덕, 인성,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이다. 어느 문화자원보다도 훨씬 '내면적 특징과 지성적 품위'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는 선비문화는 현대와 미래사회에 더욱 필요한 핵심 덕목으로 더욱 중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의 측면에서도 재생과 활용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다음으로는 서원이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활용, 계승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평과 자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원문화는 권위적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특히 가문 선조의 추숭이나 경쟁 모습으로 홍보되고 활용되었다. 인물 추숭은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때문에 그 인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도 퇴색해 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아무리 의미와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가문이나, 집단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현재 수많은 서원들이 남아 있고,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경쟁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더욱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비 복원사업이 진행된

경우라도 그 활용률은 10% 정도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원활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들 다양하고 서원별 특성이 내재된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 관리하여 서원문화의 현대적 가치 계승 및 문화자원으로 지속적인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필자는 서원의 문화와 그 기능을 단순한 제향 공간으로 自足하거나, 혹은 차별성 없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을 잃는 것을 보면서, 서원문화의 지속가능한 활용, 혹은 현대적인 계승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다양한 서원 역사문화 자료 정리가 그 단단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민대 한국학연구소,『유교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도산서원,『선비문화체험 수련, 도산서원』, 문화체육관광부, 2009.
서원연합회,『서원스테이 사업(6개서원)』, 문화체육관광부, 2009.
소수서원,『소수서원 교육자료(체험교육 지침서)』, 예문관선비촌, 2009.
월봉서원,『월봉서원 생생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 2009.
윤희면,『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상해,『서원』, 열화당, 2002.
이수환,『조선후기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코모스,『한국 서원의 국가브랜드화 방안 및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이해준,『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9.
_____,「유교문화 자원화를 위한 연구방법론」,『충청학과 충청문화』 9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9.
_____,「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_____,「서원스테이의 과제와 바람직한 운영전망」,『2011 서원연합회 발제문』, 서원연합회, 2011.
이흥재·이해준 외,『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문화정책개발연구원, 2001.
정만조,『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Benedicts Selfslagh,「교육기관들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Milan Hejumanek,「조선시대 지방정치와 문화의 핵심기지로서의 서원」,『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일반논문

柳雲龍의『吳山志』편찬 의도 _임근실
道東書院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_이병훈
道東書院 祭享儀禮의 特徵 _최순권
남원 노봉서원 건립과 운영 _강지혜
淸末 서원 교학과 운영의 正體 _이영란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임근실*

Ⅰ. 서론
Ⅱ. 『吳山志』의 체제
Ⅲ. 祭享儀式의 정비
Ⅳ. 講學活動의 정비
Ⅴ. 결론

<국문요약>

李滉의 高弟인 柳雲龍은 선산과 인접한 仁同縣監으로 부임하면서 길재를 추숭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퇴계학파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길재의 묘소를 정비하고, 砥柱中流碑를 건립했으며, 길재의 묘표를 개수하는 등 길재를 현창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했다. 특히 퇴계학파의 학자들은 길재를 모시는 吳山書院을 창건하였고, 유운룡은 오산서원의 서원지인 『吳山志』를 편찬하여 오산서원의 건립과 관련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유운룡이 편찬한 『오산지』는 4권 1책으로 간행되었고, 각 권의 내용은 行錄, 享祀, 學規, 考證이다. 『오산지』는 관찬서인 『三綱行實圖』, 『新增東國輿地勝覽』, 『國朝五禮儀』와 사찬서인 『彝尊錄』, 『慵齋叢話』, 『續蒙求』를 인용하였다. 또한 최초의 서원지인 『竹溪志』와 陶山, 伊山, 易東, 川谷, 屛山書院 등 퇴계학파의 학자들이 건립한 서원의 원규들을 인용하였다. 또한 중국의 서적으로는 『朱子大全』과 『大明一統志』를 인용하되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자신의 생각과 함께 서술했다.

『오산지』는 이전의 서원지에 비해 서원의 실질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서원지에서는 중국의 서원을 소개하는 글, 제향인물과 관련된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유운룡은 『오산지』에서 서원의 祭享과 講學에 관련된 부분을 세세하게 정비하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원.

고 비중을 늘렸다. 유운룡이 정리한 11개조 84조항의 학규는 이전 서원지의 학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조항이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조항을 추가하여 서원의 강학과 운영을 세세하게 정비하였다. 또한 유운룡은 이전의 서원지에 비해 祭物과 祭器의 제작방법 등을 더욱 상세하게 수록하였고, 行禮의 儀節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서원의 제례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산지』가 오산서원 이전의 서원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서원의 운영방식을 정비해 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 『오산지』, 오산서원, 유운룡, 길재, 서원지

Ⅰ. 서론

본고는 吳山書院의 서원지인 『吳山志』의 체제와 특징을 살피기 위해 작성되었다. 오산서원은 1588년(선조 21)에 仁同縣監이었던 柳雲龍(1539~1601)이 건립한 서원이다. 유운룡이 인동현감으로 부임한 후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일은 吉再(1353~1419)의 追崇이었다. 이를 위해 유운룡은 길재의 묘소를 수축하고 묘역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묘소 옆에 砥柱中流碑와 墓標를 세우고, 길재를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한 후 그 서원지를 편찬하였다.

오산서원은 퇴계학파가 공유하였던 서원론이 투영되어 건립되었다. 오산서원의 건립은 그 동안 이황과 그 제자들이 행한 서원건립운동의 경험이 집약된 일이었다. 유운룡은 길재를 추숭하는 일련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그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겼다. 선현에 대한 추숭작업과 그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하는 일은 스승인 이황의 영향력이 컸다. 이황은 선현에 대한 추숭의 일환으로 서원을 건립하고, 그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다. 또한 건립과 운영에 참여한 서원의 詩를 짓고, 迎鳳書院, 易東書院 등 여러 서원의 記文을 작성하였다.[1] 이러한 스승의 영향을 받은 유운룡은 기문의 작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산서원의 서원지인 『오산지』를 편찬하기에 이르

1) 『退溪集』 卷4 「書院十詠」; 卷42 「迎鳳書院」; 卷42 「易東書院」.

렀다. 유운룡은『오산지』를 편찬하여 오산서원을 건립하는 과정과 서원의 운영 방식을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오산지』의 내용 분석을 통해 유운룡이 서원의 운영방식을 정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오산서원의 건립 과정과 그에 나타나는 역사성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오산지』의 전반적인 체제를 검토할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오산지』에 수록된 내용 중 서원의 祭享儀式과 講學活動에 해당하는「享祀」와「學規」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산서원의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그 특징적인 면모를 찾으려 한다. 연구방법으로는『오산지』[2]를 주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보다 앞서 간행된『竹溪志』[3]와『迎鳳志』[4]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Ⅱ.『吳山志』의 체제

『吳山志』는 유운룡이 건립한 오산서원의 書院志이다. 유운룡은 인동현감으로 부임하였을 때 길재를 추숭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를 제향하는 오산서원을 세웠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기록을 모아 편찬한 것이『吳山志』이다. 유운룡은 오산서원을 건립한 이후『오산지』를 간행하기에 앞서「吳山書院記」를 작성하였다. 유운룡은「오산서원기」의 말미에서 서원을 건립하기 시작할 때 기록을 작성해야 했지만 부족함이 많아 미리 하지 못했다고 하고, 훗날 오산서원과 관련 사적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서원을 건립한 사실을

2)『吳山志』: 柳雲龍 편찬.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일산貴2511-09-1.
3)『竹溪志』: 周世鵬 편찬.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일산古2107-15; 建國大學校 所藏本 811.9 주53ㅈ ; 소수박물관(2002)『(國譯)竹溪志』, 榮州市.
4)『迎鳳志』: 盧慶麟 편찬. 高麗大學校 所藏本 만송 貴 340.

기록한다고 하였다.[5] 이를 보면 유운룡은 서원이 건립된 직후에 먼저 「오산서원기」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오산지』를 찬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88년(선조 21)에 유운룡은 서원이 낙성된 후 서원이 영원히 지켜질 것을 도모하면서 『오산지』를 편찬하였다.[6] 그가 『오산지』를 지은 이유는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난다.

> "서원이 낙성되어 향사 날이 멀지 않으니 祭儀와 定規가 없을 수 없다. 삼가 陶山·易東·伊山·白雲(紹修)·金烏·川谷·屛山 등 서원의 定規와 『五禮儀』 등을 취하여 대략 참고하여 서술하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대부분은 선현들이 참작하고 정하여 이미 시험한 효과가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요 한 가지도 내 자의로 만들거나 추측한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뒤에서 살피는 사람은 하잘 것 없는 내가 지었다고 해서 홀대하지 말기를 바란다."[7]

위의 글을 보면 유운룡은 서원의 제향 절차와 원규를 정하기 위하여 『오산지』를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운룡이 『오산지』를 편찬한 목적이 서원의 제례와 운영을 정비하여, 오산서원 운영의 실질적인 편리함을 갖추는데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서원지와는 다른 모습니다. 周世鵬(1495~1554)이 『죽계지』를 편찬한 목적은 '서원'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

5) "古者凡有作必書, 況先生之淸名懿德, 有以感動人心, 輝映方來者, 不可以無記, 而經始之初. 凡百草草 未及周章, 院中闕事, 無甚於此, 良用介介, 第以草創雖在於首事, 潤色必待於繼成, 詎知後之繼今者, 將多于前功, 而益有所發明歟, 倘有後世之子雲者出, 不以鄙學爲僭妄不足取, 而請記於大人先生, 以爲多士之矜式, 又轉而聞于朝, 得蒙頒賜書額之明旨, 則其於敦敎善俗之方, 尤爲萬萬, 竊恐物換星移, 事蹟泯沒, 無從憑考, 故略敍立院梗槪如右, 以俟其採擇云爾." 『吳山志』 卷4 「考證」 「吳山書院記」.

6) "十六年戊子(○先生五十歲三月) 吳山書院落成, 率境內諸生講學(○取諸書院規及五禮儀, 以立學規, 爲院中永守之圖, 撰吳山志)." 『謙庵集』 卷7 「年譜」.

7) "書院告成, 享祀有日, 不可無祭儀及院規. 謹取陶山·易東·伊山·白雲·金烏·川谷·屛山等書院定規及『五禮儀』, 略加參述如左. 類皆出於前賢酌定已試之效, 一無起於賤末卼見臆探之說, 後之覽者, 其毋以曾經鄙人之手而忽之哉." 『吳山志』 卷2 「享祀」 「題吳山志」.

소개와 자신이 추진한 서원 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盧慶麟(1516~1568)이『영봉지』를 편찬한 목적은 중국 서원에 관한 세간의 이해를 돕고, 영봉서원의 제향과 위차에 대한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다.[8]

『오산지』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오산지』의 현재 표지는 파손되었던 표지를 수보 배접하여 원표지를 살려 개장하였다. 서지형태는 四周單邊 半郭의 25.3×16.9 ㎝으로 경계선이 있고[有界], 內向黑魚尾로 책의 크기는 34.6×22.2 ㎝이다. 한 면에 10行 19字이며, 주석은 1행에 2줄[註雙行]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간본이므로 훈련도감자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간혹 금속활자도 보이는 목활자본이다.[9]

『오산지』는 伊山書院의 장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 마지막장에 "齋房에 와서 보고, 서원의 문을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 필사되어 있고,[10] 앞표지 뒷면에 "伊山書院으로부터 1590년(선조 23)에 기증되었다."는 기록이 있다.[11] 이를 통해 볼 때 1588년에 유운룡이『오산지』를 편찬하였고, 1588년에서 1590년 사이에 간행되어 이산서원에 1부가 보관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권말에는 '野隱家藏'이란 묵인이 있어 길재의 집안에 보관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2]

『오산지』는 4권 1책으로 행록, 향사, 학규, 고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오산지』이전에 편찬된『죽계지』·『영봉지』와는 다른 구성이다. 먼저,『죽계지』는 조선의 서원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최초의 사액서원인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의 서원지이다. 백운동서원은 1543년(중종 38)에 풍기군수 주

8) 조준호,「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성격」,『韓國學論叢』33, 2010, p.4.
9)『오산지』의 서지학적 정보는 한국고전적종합정보의 해제(배현숙)와 유운룡의『謙庵集』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0) "來見齋房, 勿出院門"
11) "吳山志一件送, 伊山書院, 萬曆十八年八月日."
12) 한국고전적종합정보의『오산지』해제에서는 "권두와 권말에는 野隱家藏의 묵인이 있고, 권말에는 斗巖家藏이 필사되어 있다."고 하지만 원문DB로는 권말의 野隱家藏의 묵인만 확인된다.

세붕이 고려의 유학자 安珦(1243~1306)을 제향하기 위해 풍기에 세운 서원이다. 이후 1549년(명종 4)에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그의 요청에 의해 紹修書院이란 額號로 사액되었다.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후 그 서원지를 간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죽계지』로 초간본의 간행 시기는 1545~1548년으로 추정된다.[13)]

『죽계지』는 「行錄」, 「尊賢錄」, 「學田錄」, 「藏書錄」, 「雜錄」, 「別錄」의 권6으로 이루어져있다. 책의 맨 앞부분에는 주세붕의 序와 성세창의 <白雲洞文成公廟記>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은 「安氏行錄」, 「行錄後」로 제향인물과 제향에 관련된 기록이다. 권2는 「尊賢錄」으로 朱熹가 지은 宋代 유학자의 사당, 정자, 당실의 기문이다. 권3은 「學田錄」으로 주희가 지은 學田記 등과 백운동서원의 학전이 위치한 지역과 그 규모를 기록하였다. 권4는 「藏書錄」으로 주희가 지은 藏書記와 백운동서원의 藏書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권5는 「雜錄」으로 주희가 지은 詩・銘・贊 47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儒學의 명제들과 관련이 있다. 권6은 「別錄」으로 爲學, 立敎, 辟邪로 구성되어 있는데, 四書의 구절을 발췌하여 주제별로 묶었다.

『영봉지』는 1558년에 경상도 성주에서 노경린의 주도로 건립된 迎鳳書院의 서원지이다. 영봉서원은 李兆年(1269~1343)과 金宏弼(1454~1504)의 위차문제로 건립 당시부터 많은 분란이 있었다. 『영봉지』는 권으로 구별되지 않고, ①「迎鳳書院記」, ②「書院錄」, ③「李氏行錄」, ④「學規錄」, ⑤「藏書錄」, ⑥「學田錄」, ⑦「書院學田錄」, ⑧「廟院定議錄」, ⑨「春秋大享圖」, ⑩「祭式」의 10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은 이황의 「영봉서원기」로 시작된다. 다음 書院錄에 주희가 지은 서원기와 『大明一統志』에 나오는 중국의 書院 목록이 실려 있다. 그 다음은 「李氏行錄」으로 이조년, 李仁復(1308~1374), 김굉필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學規錄은 7개조의 學規와

13) 옥영정, 앞의 글, p.302; 안정, 「죽계지 해제」, 『국역 죽계지』, 소수박물관, 2009, pp.16~19.

細目으로 이루어져있다. 「藏書錄」은 소식과 주희의 藏書記와 영봉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적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學田錄」에는 주희의 글을 수록하고, 「書院學田錄」에 영봉서원의 학전 현황을 기록하였다. 「廟院定議錄」은 제향 위차와 관련한 서간을 모아 놓았고, 마지막은 「春秋大享圖」와 「祭式」이다.

다음의 <표 1>은『오산지』의 목차와『죽계지』와『영봉지』의 목차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오산지』의 목차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겠다.

<표 1>『죽계지』,『영봉지』,『오산지』의 목차 비교[14]

『죽계지』	『영봉지』	『오산지』
권1, 安氏行錄	③ 李氏行錄	권1, 行錄
권1, 行錄後 春秋大享圖 祭式	⑨ 春秋大享圖 ⑩ 祭式	권2, 享祀 春秋大享圖 祭式
권5, 雜錄後 院規	④ 學規錄	권3, 學規
권首, 白雲洞文成公廟記	① 迎鳳書院記	권4, 考證 事跡(吳山書院記)
권3, 學田錄	⑥ 學田錄 ⑦ 書院學田錄	–
권4, 藏書錄	⑤ 藏書錄	–
권2, 尊賢錄	–	–
권5, 雜錄	–	–
권6, 別錄	–	–
–	② 書院錄	–
–	⑧ 廟院定議錄	–

14) <표 1>은『竹溪志』目錄,『迎鳳志』,『吳山志』目錄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영봉지』의 경우 권이 명확하지 않아 항목의 차례를 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오산지』는 이전 서원지에 비해 몇 가지 항목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서원의 제향인물에 대한 제향의식을 다룬 권2 「향사」와 서원의 강학활동과 운영방안을 다루고 있는 권3 「학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먼저, 서원의 제향에 관한 기록은 『죽계지』에서는 「行錄後」 안에 「春秋大享圖」와 「祭式」만 있고, 『영봉지』에서도 「春秋大享圖」와 「祭式」만 있었다. 그러나 유운룡은 『오산지』 제향 부분을 기록할 때 春秋大享圖와 祭式을 수록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권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서원의 학규는 『죽계지』에서 「雜錄後」에 속했으나 『영봉지』와 『오산지』에서는 「學規錄」으로 분리되었다. 학규의 분량에서는 『오산지』가 다른 두 서원지보다 월등히 많은 양이 수록되어 있다.[15] 즉, 「향사」와 「학규」는 서원의 필수적 기능인 존현과 강학을 나타내는 내용인데, 『오산지』에서는 이 부분이 각각 하나의 권으로 정리되고 분량도 늘어났다. 이는 유운룡이 오산서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吳山志』를 편찬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오산지』는 學田錄과 藏書錄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죽계지』와 『영봉지』는 「학전록」과 「장서록」이 공통적으로 보이지만, 『오산지』에서는 이 부분이 사라졌다. 「학전록」, 「장서록」은 소수서원과 영봉서원에서 학전과 장서의 소유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오산지』에서는 학전록과 장서록이 없어 이 부분의 소유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오산지』는 학전록과 장서록을 수록하지 않았을까?

유운룡은 이황과 黃俊良(1517~1563)의 의견을 수용하여 학전록과 장서록이 수록하지 않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구성의 『오산지』를 편찬하였다. 노경린은 영봉서원의 서원지인 『영봉지』를 편찬하면서 이황과 그의 제자들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이때 황준량은 서원지에 학전과 장서의 수를 기록하지

15) 『오산지』에 나타나는 제향의식과 강학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3장과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황준량은 서적과 학전 등의 시행 조목을『영봉지』뒤에 부기하고, 유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자는 의견을 내었다.[16] 여기에 이황도『죽계지』의 형식이 조잡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영봉지』는 그 형식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영봉지』는 학전록과 장서록을 수록하였고, 제향 위치와 관련한 서간을 모아 놓은「廟院定議錄」이 등장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유운룡은 스승인 이황과 동학인 황준량의 의견에 동조하여 자신이 편찬한『오산지』에는 학전록과 장서록을 수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오산지』의 세부 목록을 살펴보자.『오산지』의 目錄은 제1권(行錄, 祭文, 碑陰記), 제2권(享祀, 祭儀, 展謁), 제3권(有司, 院士, 居業, 勸課, 防檢, 交際, 相正, 養賢, 修宇, 點書, 典僕), 제4권(考證)으로 구성되어 있다.[18] 하지만 실제 책의 본문에는「목록」에서 없었던 목차의 제목과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오산지』의 실제 체제는 行錄, 享祀, 學規, 考證의 순이다. 권1은「行錄」으로 오산서원의 제향인물인 길재의 행적과 그를 추모하는 내용의 기록들을 수록하고 있다. 순서는 行狀, 吏曹牒, 祭文, 碑陰記, 附問答一條이다. 권2는 오산서원의 제향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으로 題吳山志,[19] 享祀, 祭儀, 展謁로 구성되어 있다.

권3「學規」는 오산서원의 규약으로 有司, 院士, 居業, 勸課, 防檢, 交際,

---

16) "……鄙意有惑 復此稟請 錄中備載中原書院之所及藏書學田之類 似欲援據故事 以解齒頰無奈剩耶 竹溪雜志 方爲周武陵之尤 高明之見 何必踵成 只令寫取書帙學田之數 與凡施行之條目 錄付有司 俾善傳守 ……"『迎鳳志』「廟院定議錄・答四印堂書」.

17) "……迎鳳志 仲擧寄示 皆已見得 但滉常病竹溪志未免稍雜 今但取其意 而勿盡效其所爲 何如 其所抄爲學立教 亦多混紊無頭緖 如何如何……"『迎鳳志』「廟院定議錄・答四印堂書」.

18)『오산지』의 표지 우측 상단에 필사되어있는 목차에는 권을 나누지 않은 채 적혀있고, '行錄' 대신 '行狀'으로 표기되어 있다.

19)「題吳山志」:『謙庵集』에는「題吳山志」로 수록되어 있다(『오산지』에 수록된 글 중에서 별도의 제목이 없는 경우는 개별 문집에 수록된 제목을 따랐다. 다른 경우도 이와 같다).

相正, 養賢, 修宇, 點書, 典僕의 11개 조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 학규는 陶山, 易東, 金烏, 川谷, 屛山書院의 院規와 『國朝五禮儀』, 『竹溪志』를 참작하여 정리하였다. 유운룡은 학규의 규정을 정리하면서 여러 서원의 원규들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각각의 전거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운룡은 자신의 생각[按]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권4 「考證」은 서원의 연혁과 사적을 다룬 부분으로 考證과 事跡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오산지』의 목차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오산지』의 목차[20]

『오산지』[21]			
권	제목	세목	내용(지은이, 저술연도)
1	行錄	行狀	行狀(박서생, 1422)
		吏曹牒	追贈牒(1427)
			三綱行實(1434)
			輿地勝覽(1530)
			權近詩叙(권근, 『陽村集』권20 序類 題吉再先生詩卷後序)
			南在詩叙(남재, 1403)
			彝尊錄(김종직)
			慵齋叢話(성현, 1525)
			續蒙求(유희춘, 1566)
			請復職趙光祖疏(기대승, 1569)
			李楨彝尊錄跋(이정)
			金烏建院議

20) <표 2>는 『吳山志』 目錄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내용에는 인용된 서적 또는 글의 원제목과 지은이, 연도 등을 표시하였다. 학규에 인용된 원규들은 서원명 뒤의 괄호 속에 인용된 횟수를 기록하였다.

21) 『오산지』의 목록에는 권1이 「행록」, 「제문」, 「비음기」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吏曹牒」과 「附問答 一條」을 나타낼 수 없어 편의상 모두 세목으로 분류하였다.

			對語使問(이황, 1567)
			賜祭議[22]
		祭文	賜祭文(선조, 1577)
			孫舜孝祭文(손순효, 1485~1487)
			尹根壽祭文(윤근수, 1574)
			柳成龍撰[冶隱先生墓標改豎祭文(유성룡, 1587),[23] 吳山書院奉安文(유성룡, 1588)
		砥柱碑陰記	砥柱碑陰記(유성룡, 1587)
		附問答一條	附問答一條(길겸－이황의 문답)
2	享祀	題吳山志	題吳山志(유운룡, 1588)
		享祀	『朱子大全』, 『竹溪志』, 川谷院規
		祭儀	春秋大享圖, 祭器, 齋戒, 序立, 陳器, 行禮, 行奠幣禮, 行初獻禮, 行亞獻禮, 行終獻禮, 行飮福禮, 行望瘞禮, 大享祝文, 墓祭祝文, 祭官
		展謁	川谷院規
3	學規	有司	陶山(1), 川谷(3), 金烏(1), 屛山(2), 按(2)
		院士	陶山(2), 竹溪志(2), 川谷(3), 屛山(2), 按(2)
		居業	陶山(5), 川谷(3), 屛山(2), 按(1)
		勸課	陶山(1), 川谷(1), 金烏(1), 按(1)
		防檢	陶山(2), 竹溪志(3), 川谷(4), 按(3)
		交際	陶山(1), 竹溪志(1), 川谷(3), 按(1)
		相正	陶山(1), 川谷(5), 屛山(7), 按(4)
		養賢	竹溪志(1), 屛山(3), 按(3)
		修宇	竹溪志(1), 川谷(1)
		點書	川谷(1)
		典僕	屛山(1), 按(2)
4	考證	考證	『輿地勝覽』, 『大明一統志』
		事跡	吳山書院記(유운룡, 1588)

22) 賜祭議 : 『冶隱集』에는 「賜祭議」으로 수록되어 있다.
23) 祭文(柳成龍撰) : 『겸암집』에는 「冶隱先生墓標改豎祭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오산지』는 『朱子大全』과 『大明一統志』를 제외하면 모두 조선에서 발간된 서적과 서원의 원규를 인용하여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서적을 활용하여 서원지를 구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선식 서원지로 이행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유운룡이 『오산지』에서 활용한 조선의 서적은 관찬서, 사찬서, 서원지, 서원의 원규로 나누어진다. 먼저 관찬서로는 『三綱行實圖』, 『東國輿地勝覽』, 『國朝五禮儀』가 있다. 사찬서는 『彝尊錄』, 『慵齋叢話』, 『續蒙求』, 『竹溪志』가 있고, 여러 序文, 跋文, 祭文, 記文도 수록하였다. 그리고 도산서원, 천곡서원, 금오서원, 병산서원의 원규가 활용되었다. 『오산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적들은 별도의 논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산지』의 체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원의 실질적인 운영방식을 향사와 학규로 나누어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서원은 제향인물을 추숭하는 일인 尊賢과 원생들의 교육활동인 講學에 그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었다.[24] 유운룡은 이 두 가지 기능을 『오산지』에서 「향사」와 「학규」라는 각각 하나의 권으로 구성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세세하게 규정하였다. 다음 3장과 4장에서는 『오산지』에 나타나는 오산서원의 尊賢과 講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겠다.

Ⅲ. 祭享儀式의 정비

유운룡은 오산서원의 제향의식[祭儀]을 『오산지』의 「향사」를 통해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제향인물에 대한 추숭을 중시하였고, 이는 '尊賢'이라는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존현을 실제적으로 시행하

24)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 『朝鮮時代 書院硏究』, 집문당, 1997, pp.49~81.

는 일이 바로 서원의 제향의식인 '享祀'이다. 따라서 오산서원을 건립한 유운룡도 서원의 제향인물인 길재에 대한 제향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운룡은 도산서원, 역동서원, 이산서원, 소수서원, 금오서원, 천곡서원, 병산서원의 원규와『국조오례의』를 참고하여 오산서원의 제향의식을 정비하였다.[25]

『오산지』「향사」의 가장 주목할 부분은 行禮의 편의성을 위해 儀節과 器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운룡은『오산지』「향사」에서 祭禮日의 규정, 祭物과 祭器의 자세한 圖式, 行禮의 상세한 儀註, 祭官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첫 번째 특징은 祭禮日을 享祀日과 墓祭日로 나누어 각각 규정한 사실이다. 유운룡은 오산서원의 春秋大享 향사일을 仲月(음력 2월, 8월) 中丁으로 하였다. 성균관 文廟의 釋菜가 仲月 上丁에 있었기에, 서원의 춘추대향일을 정하는 일은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다.[26] 먼저『죽계지』에서는 달을 달리하여 季月(음력 3월, 9월) 上丁으로 정하였다.[27] 하지만『영봉지』에서는 仲月 中丁으로 규정하고,「천곡원규」에서도 上丁에 석채를 지내고 中丁에 서원의 향사를 행한다고 기록하였다.[28]『오산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춘추대향을 仲月 中丁에 행하도록 규정하였다.[29]

또한 유운룡은『오산지』의 향사에 제향인물인 길재의 墓에 드리는 墓祭日의 날짜와 그 의례도 수록하였다. 이렇게 묘제일과 그 의례를 기록한 점은 특수한 경우로 오산서원이 길재의 墓 바로 옆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길재의 묘제는 오산서원에서 필요한 의례였다. 향사일은 淸明日이며, 祭物은 삼색

25)『吳山志』卷2「享祀」「題吳山志」.
26)『國朝五禮儀序例』「時日」.
27)"春秋大享, 例卜季月上丁, 上丁有故, 改卜中丁.○凡舍菜先聖, 必於春秋仲月, 而此則卜季月者, 公旣配享仲月, 而上巳之淸明重陽之佳節, 卽公平生所浴祼契遊賞於此者."『竹溪志』,「雜錄後」.
28)"士, 或未免知有院, 而不知有校, 輕重之失序甚矣. 自今每歲上丁, 入院之士, 齋會先行釋菜, 中丁行院祀.○川谷院規."『吳山志』卷2「享祀」.
29)"春秋大享, 例卜仲月中丁, 有故, 改卜下丁.○有故者, 如國忌之類."『吳山志』卷2「享祀」.

의 과일[三色實果], 떡[米食]과 국수[麵食], 포(脯)와 젓갈[醢], 물고기와 고기[魚肉], 炙肝과 雞腥이다. 그리고 祝文이 있으며, 行禮는 <家廟參拜儀>와 같다. 여기서 <가묘참배의>는 『朱子家禮』의 권2 祠堂條에서 "正朝, 冬至, 朔日, 望日에 參拜한다."는 내용을 수용하였다.[30] 이것은 유운룡이 『오산지』를 편찬할 때 『朱子家禮』를 참고했음을 알게 해준다. 또 『오산지』에서 묘제의 儀節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자가례』의 의례를 참고하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 이미 『주자가례』가 보급되었고, 점차 유교식 예제를 시행하는 학자들의 숫자가 늘어난 사실을 반증한다.[31]

두 번째 특징은 祭物과 祭器의 자세한 圖式이다. 『오산지』에서는 祭器와 祭物式을 수록하여 각각의 재료와 수량을 기록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제작, 혹은 조리과정을 알기 쉽게 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여기서 祭物式은 『죽계지』와 『영봉지』에서도 일부 보이나, 祭器의 경우 『오산지』에서만 나타난다. 祭器式은 "『국조오례의』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는 구절을 보아 『국조오례의』를 참고하여 기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32] 또한 祭物과 祭器는 도산서원, 역동서원, 소수서원, 천곡서원, 금오서원 등 여러 서원의 의식을 참고하여 사용하도록 정하였다.[33]

그리고 유운룡은 「春秋大享圖」에 祭物과 祭器의 陳設을 도식화하여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陳設圖는 『국조오례의』 등의 禮書의 序例에서 주로 찾을 수 있고, 『죽계지』와 『영봉지』에서도 나타난다. 아래는 『국조오례의』, 『죽계지』, 『영봉지』, 『오산지』의 陳設圖를 비교한 표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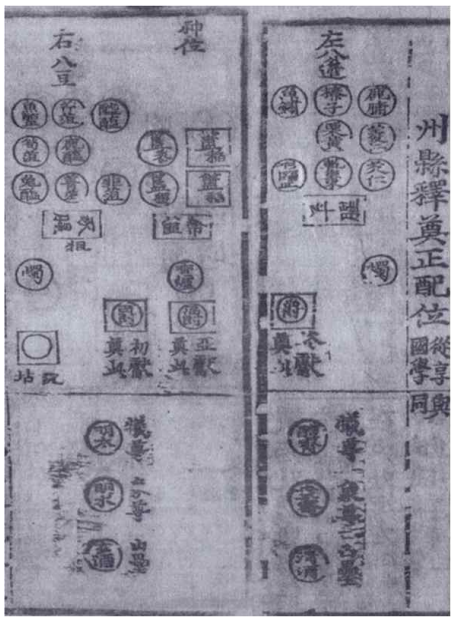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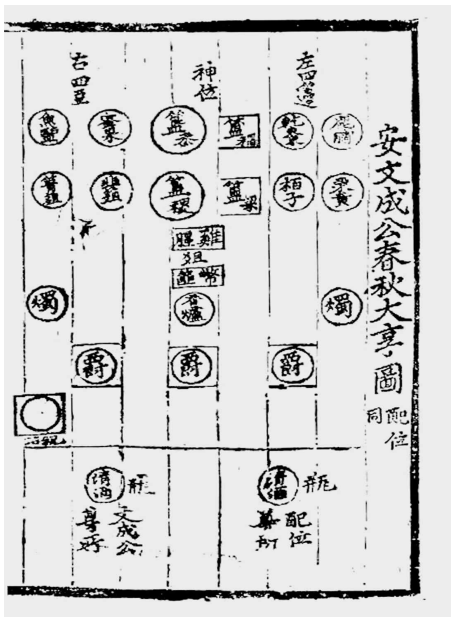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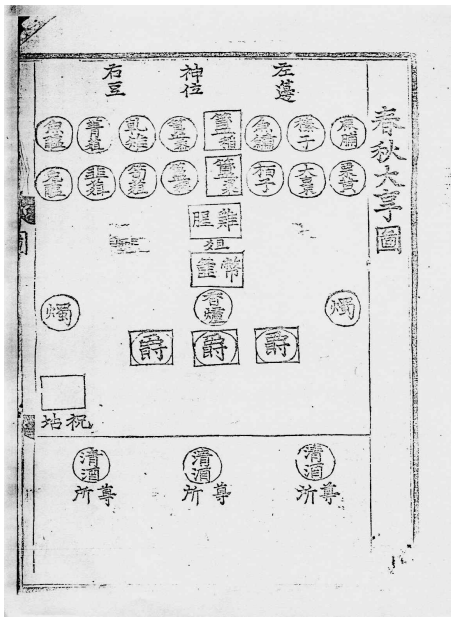
30) "正冬朔望則參." 『朱子家禮』 卷2 「祠堂」.

31) 기존의 『주자가례』의 보급과정은 다음과 같은 연구가 주목된다.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과정」, 『국학연구』 16, 2010.

32) 『吳山志』 卷2 「享祀」 「祭器」.

33) "鹿脯 栗黃 乾棗 鹿醢 魚醢 菁菹 取諸院儀. 韭菹 取陶山易東白雲儀. 魚脯 取陶山儀. 雞腥 幣篚用 白雲陶山儀. 香爐燭 取諸院儀. 爵陳設 白雲陶山儀. 祝坫 取白雲儀. 尊所雜 取白雲川谷義. 簠簋 用川谷金烏儀." 『吳山志』 卷2 「享祀」 「祭器」.

<표 3>『오례의』,『죽계지』,『영봉지』,『오산지』의 陳設圖[34]

『국조오례의』	『죽계지』
	
『영봉지』	『오산지』
	

34) <표 3>은『國朝五禮儀書例』卷2「吉禮」「州縣釋奠正配位」와『竹溪志』卷2「行錄後」「春秋大享圖」와『迎鳳志』「春秋大享圖」와『吳山志』卷2「享祀」「春秋大享圖」를 비교하였다. 서원지에서는 '춘추대향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공통적으로 祭器와 祭物을 진설을 도식화하였음으로 '陳設圖'라는 명칭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표 3>을 살펴보면 『국조오례의서례』「州縣釋奠正配位」, 『죽계지』「安文成公春秋大享圖」, 『영봉지』「春秋大享圖」, 『오산지』「春秋大享圖」에서 진설되는 祭物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오산지』에 나타나는 오산서원 祭物의 특징을 찾기 위해 네 가지 陳設圖의 祭物를 비교하여 아래의 표를 작성하였다.

<표 4> 『국조오례의』, 『죽계지』, 『영봉지』, 『오산지』의 祭物[35]

		오례의	죽계지	영봉지	오산지
籩豆	형염刑鹽	○			
	어숙漁鱐	○		○	○[36]
	건조乾棗	○	○	○[37]	○
	율황栗黃	○	○	○	○
	진자榛子	○		○	
	능인菱仁	○			
	검인芡仁	○			
	록포鹿脯	○	○	○	○
	구저韭菹	○	○	○	○
	탐해醓醢	○			
	정저菁菹	○	○	○	○
	녹해鹿醢	○			○
	근저芹菹	○			
	토해兎醢	○		○	
	순저筍菹	○		○	
	어해魚醢	○	○	○	○

35) <표 4>는 『國朝五禮儀書例』 卷2 「吉禮」 「州縣釋奠正配位」와 『竹溪志』 卷2 「行錄後」 「春秋大享圖」와 『迎鳳志』 「春秋大享圖」와 『吳山志』 卷2 「享祀」 「春秋大享圖」의 祭物를 비교하였다.

36) 『오산지』에서는 '漁鱐' 대신 '魚脯'라고 표기되어 있다.

37) 『영봉지』에서는 '乾棗' 대신 '大棗'라고 표기되어 있다.

	밀과蜜果		○		
	계성雞腥		○	○	○
	백자栢子		○	○	
	건치乾雉			○	
		左八籩 右八豆	左四籩 右四豆	左六籩 右六豆	左四籩 右四豆
腥	양성羊腥	○			
	시성豕腥	○			
簠簋	도稻	○	○	○	○
	양粱	○	○	○	
	서黍	○	○	○	○
	직稷	○	○	○	
酒	명수明水	○			
	예제醴齊	○			
	명수明水	○			
	앙제盎齊	○			
	현주玄酒	○			
	청주淸酒	○	○	○	○
		二腥 二簠 二簋	一腥 二簠 二簋	一腥 二簠 二簋	一腥 一簠 一簋

<표 4>를 살펴보면 오산서원이 향교와 다른 서원에 비해 진설하는 籩豆, 簠簋, 犧牲의 수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오산서원에서 진설하는 제물을『국조오례의』와 비교하면 犧牲을 빼고 모든 祭物이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羊腥과 豕腥을 올리는『국조오례의』와 달리 오산서원을 비롯한 서원들은 雞腥을 올린다. 오산서원에서 雞腥을 제물로 올리는 일에 대해 백운동서원(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의식에서 그 전거를 찾았다.[38] 이처럼 雞腥을 올리는 것은 경상도 지방의 서원에서 지내는 제향의식의 특징 중 하나로 지

금도 이와 같이 雞腥을 올리는 서원이 남아있다.[39]

세 번째 특징은 제례의 儀節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운룡은 제례의 儀節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유운룡은 향사의 단계를 '① 齋戒 ② 序立 ③ 陳器 ④ 行禮 ⑤ 行奠幣禮 ⑥ 行初獻禮 ⑦ 行亞獻禮 ⑧ 行終獻禮 ⑨ 行飮福禮 ⑩ 行望瘞禮'의 총 10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儀註를 수록하였다. 『오산지』 儀註의 상세한 모습을 다른 서원지와의 비교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예로 『죽계지』 「祭式」과 『오산지』 「行禮」의 初獻禮 儀註를 비교해보았다.[40]

A. 『죽계지』[41]

1. 초헌관을 인도하여 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2.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3. 술잔을 올린다.

4. 축문을 읽는다.

---

38) "雞腥幣篚用, 白雲陶山儀." 『吳山志』 卷2 「享祀」 「祭儀」.

39) 윤숙경, 「鄕校와 書院의 祭禮에 따른 祭需에 관한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3, 1998, pp.256~258.

40) 『영봉지』의 「祭式」은 『죽계지』와 유사함으로 『오산지』와 『죽계지』만을 비교하였다.

41) 『죽계지』의 「祭式」에서 초헌례가 차지하는 분량을 알 수 있도록 祭式을 모두 수록하였다. 밑줄을 그은 부분이 『죽계지』 초헌례의 의주이다.
"○行初獻禮. ○只行再拜禮. ○行上香禮. ○引初獻官盥. ○引詣文成公神位前, 三上香. 童歌竹溪辭三章. ○次詣配位前, 皆三上香. ○引降復位, ○行初獻禮 ○引初獻官詣尊所, 西向立. 詣神位前, 北向跪. ○獻酌. ○讀祝. ○次詣配位前. ○獻酌. ○讀祝. ○引降復位. ○行亞獻禮. ○如初獻, 引降復位. ○行終獻禮. ○如亞獻, 引降復位. ○飮福受胙. ○餘皆如校禮." 『竹溪志』 卷1 「行錄後」 「祭式」.

5. 인도하여 내려와 위치로 돌아간다.

B.『오산지』[42]

1. 謁者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尊所에 이르면 서향하여 선다.

1-1. 司尊이 冪을 들어 술을 뜬다.

1-2. 奉爵이 爵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2. 謁者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이르면 무릎을 꿇는다.

2-1. 奉爵이 爵을 가져다가 헌관에게 준다.

2-2. 헌관은 爵을 잡아 爵을 든다.

3. 爵을 주면 奠爵이 신위 앞(서쪽을 상위로 한다)에 올린다.

3-1.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조금 물러나 무릎을 꿇는다.

4. 祝이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祝文을 읽는다.

5.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고 돌아간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오산지』初獻禮의 儀註가『죽계지』의 초헌례의 의주에 비해 매우 자세함을 알 수 있다.『죽계지』「祭式」에서 初獻禮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아헌례와 종헌례의 의주는 아예 생략되었다. 하지만『오산지』는 초헌례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儀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오산지』에서는 謁者, 司尊, 祝의 역할이 드러나지만『죽계지』에서

42)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詣尊所西向立. 司尊擧冪酌酒. 奉爵以爵受酒. 謁者引獻官詣神位前跪. 奉爵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奠爵奠于神位前(西上). 獻官俯伏興, 小退跪. 祝進獻官之左東向跪讀祝文. 獻官俯伏興, 引降復位."『吳山志』卷2「享祀」「祭儀」.

는 이를 찾을 수 없다. 이는 『오산지』의 儀註가 이전의 서원지에 비교하여 상세하게 정리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러한 상세한 의주는 서원의 제의를 행할 때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네 번째 특징은 祭官의 명칭과 인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운룡은 제례에 참여하는 제관의 명칭과 그 인원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서원지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오산지』의 제관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5> 『오산지』의 祭官[43]

직책	인원	비고
獻官	3	縣監이 초헌관이 되면 원장이 아헌관이 된다. 현감이 有故하여 불참하면 원장이 초헌관이 된다. 예비로 1명을 둔다.
祝	1	
贊者	1	
謁者	1	
贊引	1	인원이 없으면 謁者가 겸한다.
司尊	1	
奉香	3	奠爵을 겸한다.
奉爐	1	奉爵을 겸한다.
掌饌	1	陳設을 겸한다.
盥洗位	1	인원이 없으면, 없어도 괜찮다.

<표 5>를 보면 유운룡은 서원의 제향에 13가지의 직책과 최소 15명의 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원이 부족할 때는 직책을

43) <표 5>는 『吳山志』 卷2 享祀 「祭儀」의 祭官을 정리하였다.

서로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헌관을 縣監이 맡도록 하여, 서원의 제의에 있어서 지방관의 역할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유운룡은『오산지』의「享祀」에 제관까지 규정하였는데, 이는『국조오례의』를 참고하였기에 가능한 조항으로 보인다.『국조오례의서례』를 살펴보면 제관의 조항이 나오며, 제관의 명칭과 인원이 해당 의례에 따라 각기 규정되어 있다.44)

이처럼 유운룡은『국조오례의』를 참조하여 오산서원의 향사를 祭禮日, 祭器・祭物式, 行禮, 祭官 등의 내용으로 세세하게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운룡은 鄭逑(1543~1620)가 작성한「천곡원규」에서 서원의 제의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45) 실제로『오산지』의 제의를 정비한「향사」에서는「천곡원규」를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유운룡이『오산지』의 제의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했던 자료는『국조오례의』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오산지』는 간략화 되어있는『죽계지』의 초헌례와는 달리 상세히 모든 의주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면 유운룡은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주를 정리하였을까? 아래의 <표 6>에서는『국조오례의서례』와『오산지』의 초헌례 儀註를 비교하여 둘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

44)“初獻官(守令), 亞獻官, 終獻官, 東西從享分獻官各一, 東西廡分獻官各一(縣, 則無), 祝, 掌饌者, 執尊者(每尊所各一), 執事者(隨位酌定), 贊者, 謁者, 贊引四(縣二. ○亞終獻官, 分獻官, 以佐貳官, 敎授, 訓導, 及本邑閑散文官差. 祝以下諸執事, 皆以學生充.).”『國朝五禮儀序例』「祭官」「州縣釋奠」.

45)『寒岡年譜』卷1「隆慶二年(戊辰)」.

<표 6>『국조오례의』,『오산지』의 初獻禮 儀註 비교[46]

『국조오례의』[47]	『오산지』[48]
찬자가 "행초헌례"라고 말한다.	"행초헌례"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문선왕 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이르면 서향하여 선다.
執尊者는 冪을 들고 술을 떠낸다.	司尊이 冪을 들고 술을 뜬다.
집사자는 爵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奉爵이 爵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꿇어앉아 홀을 꽂게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이르면 무릎을 꿇는다.
집사자가 爵을 가져다가 초헌관에게 준다.	奉爵이 爵을 가져다가 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이 爵을 잡아 爵을 든다.	헌관은 爵을 잡아 爵을 든다.
爵을 들어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爵을 주면 奠爵이 신위 앞(서상)에 올린다.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라."라고 한다.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무릎을 꿇는다.
祝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祝文을 읽는다.	祝이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祝文을 읽는다.
마치면,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게하고, 인도하여 나간다.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온다.
<配位 儀註>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서 본 자리로 돌아온다.	

46) <표 6>은『國朝五禮儀』卷2「吉禮」「州縣釋奠文宣王儀」와『吳山志』卷2「享祀」「行初獻禮」의 儀註를 비교하였다.

47) "贊者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詣文宣王尊所西向立 .執尊者擧冪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以爵授初獻官. 初獻官執爵獻爵. 以爵授, 執事者奠于神位前. 贊搢笏. 俯伏興, 小退北向跪. 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 訖, 謁者贊俯伏興平身. 引出詣配位尊所西向立. 執尊者擧冪酌醴齊. 執事者四人以爵受酒. 謁者引詣復聖公宗聖公述聖公亞聖公神位前東向. 行禮並如上儀(唯不讀祝). 訖引降復."『國朝五禮儀』卷2「吉禮」「州縣釋奠文宣王儀」.

48) "謁者引初獻官詣尊所西向立. 司尊擧冪酌酒. 奉爵以爵受酒. 謁者引獻官詣神位前跪. 奉爵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奠爵奠于神位前(西上). 獻官俯伏興, 小退跪. 祝進獻官之左東向跪讀祝文. 獻官俯伏興, 引降復位."『吳山志』卷2「享祀」「行初獻禮」.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오산지』의 儀註는『國朝五禮儀』와 매우 유사하다. 執尊와 司尊, 執事와 奉爵 등 명칭의 차이, 配位의 유무가 다를 뿐 그 내용은 많은 부분 일치한다. 이를 통해 유운룡이『국조오례의』를 전범으로 삼아『오산지』의 의주를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세히 규정된 儀節을 수록한 까닭은 실제 祭禮에서 儀禮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유운룡은 기존 서원지에서 祭式 부분이 간략화되어 있었기에 禮를 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보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는 사림이 朱子書를 활발히 연구했던 시기로, 특히 16세기 후반의『朱子家禮』주석서는 喪・祭禮를 중심으로 '行禮'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49] 퇴계학파는 이 작업을 통해 많은 주석서를 남겼고, 유운룡의 아버지인 유중영도『家禮增解』를 저술한 바 있다.[50] 이러한 학문적 영향을 받은 유운룡은 스승의 喪事를 주관할 정도로 깊은 예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고,[51] 스스로 喪祭禮와 관련된 지침서의 성격을 가진「追遠雜儀」를 저술하였다.[52] 이러한 유운룡의 경험이『오산지』에도 반영되어 서원의 祭禮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儀註로 정비하였다. 즉,『오산지』의 상세한 의주는『朱子家禮』註釋書의 '行禮'의 매뉴얼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국조오례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오산지』의 단계에 들어서면 "禮를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서원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49) 장동우,「『家禮』註釋書를 통해 본 朝鮮 禮學의 發展過程」,『東洋哲學』43, 2010, pp.243~249.
50) 장동우, 위의 논문, 2010, <표 1>.
51) 설석규,「謙庵 柳雲龍의 學問과 現實對應 자세」,『동방한문학』20, 2001, pp.42~44.
52)『謙庵集』卷4「追遠雜儀」.

Ⅳ. 講學活動의 정비

유운룡은 오산서원의 강학활동을 『오산지』의 「학규」를 통해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원생들의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는 '講學'이라는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 유운룡은 오산서원 구성원들의 교육과 생활을 여러 조항의 학규를 두어 정비하였다. 『오산지』는 이전의 서원지에 비하여 학규의 분량이 늘어나고 세분화되었다. 『오산지』「학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죽계지』와 『영봉지』의 학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산지』의 학규와 비교하면 『죽계지』와 『영봉지』의 학규는 소략하다. 『죽계지』의 경우 원규는 권5 「雜錄後」에 다른 시문들과 함께 수록되어있어, 독립된 편명을 갖지 못하였다. 이는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건립하고 『죽계지』를 편찬할 때 학규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백운동서원의 원규로 볼 수 있는 기록은 「白雲洞致敬設」과 「院規」 12조항이다. 「백록동치경설」은 서원의 수리를 언급한 修宇 조항이다. 그리고 「원규」의 12개 조항은 모두 따로 항목을 나누지 않고 서술되었다. 또한 「원규」에서 3개 조항은 제향과 관련된 조항이며, 나머지 조항들은 院長, 有司, 防檢, 養賢을 다루었다. 그리고 「원규」는 아래와 같은 구절로 시작된다.

> "첫째, 제사를 경건히 봉행할 것(謹祀). 둘째, 어진이를 예우할 것(禮賢). 셋째, 사당을 잘 보수할 것(修宇). 넷째, 물자를 비출할 것(備廩). 다섯째, 서책을 점검할 것(點書)."53)

『죽계지』에서는 謹祀, 禮賢, 修宇, 備廩, 點書를 원규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제일 앞쪽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영봉지』의 「學規錄」에

53) "一曰謹祀. 二曰禮賢. 三曰修宇. 四曰備廩. 五曰點書." 『죽계지』 卷5 「行錄後」「院規」.

서 차용되었다.『영봉지』의「學規錄」은『죽계지』의「원규」와 같은 방식이나, 勸課와 擇院長의 두 가지 조항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54] 추가된 勸課와 擇院長의 조항은『영봉지』가 편찬될 당시 두 부분의 문제가 중요시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영봉지』에서는 각 조항 아래에 부차적인 설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죽계지』보다 구체적인 학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영봉지』의「學規錄」는『죽계지』의「원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죽계지』의 원규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이처럼『죽계지』의「원규」는『영봉지』의「學規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오산지』에서는 이전의 서원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유운룡은『오산지』에 오산서원의 학규를 11개조(有司, 院士, 居業, 勸課, 防檢, 交際, 相正, 養賢, 修宇, 點書, 典僕)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이「학규」는 陶山, 易東, 伊山, 金烏, 川谷, 屛山書院의 원규와『죽계지』를 참고하여 서원의 규칙을 정하였다. 각각의 규약마다 여러 서원의 원규들을 선택적으로 수록하고 그 전거를 기록하였다.[55] 원규의 인용 순서는 서원이 건립된 순서인 백운서원 – 도산서원 – 천곡서원 – 병산서원의 순서이다. 하지만 유운룡은 인용한 원규를 '도산, 역동, 이산, 백운, 금오, 천곡, 병산의 원규'라 밝히고 있는데, 스승인 이황이 건립한 서원을 우대하여 먼저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오산지』학규에서 각각의 조항마다 인용한 다른 서원의 인용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

54) "一曰謹祀. 二曰禮賢. 三曰勸課. 四曰修宇. 五曰考廩. 六曰點書. 七曰擇院長."『迎鳳志』「學規錄」.

55) "書院告成, 享祀有日, 不可無祭儀及院規, 謹取陶山, 易東, 伊山, 白雲, 金烏, 川谷, 屛山等書院定規及五禮儀, 略加參述如左, 類皆出於前賢酌定已試之效, 一無起於賤末粗見臆探之說, 後之覽者, 其毋以曾經鄙人之手而忽之哉, 時萬曆十六年四月日."『吳山志』卷2「享祀」,「題吳山志」.

<표 7>『오산지』 학규의 인용 목록[56]

	陶山	易東	伊山	竹溪	金烏	川谷	屛山	按 유운룡	계
有司	1				(1)[57]	3	2	2	9
院士	2			2		3	2	2	11
居業	5					3	2	1	11
勸課	1				1	1		1	4
防檢	2			3		4		3	12
交際	1			(1)[58]		3		1	6
相正	1					5	7	4	17
養賢				1			3	3	7
修宇				1		1			2
點書						1			1
典僕	1						1	2	4
계	14	0	0	8	2	24	17	19	84

<표 7>을 보면『오산지』의 학규는 서원 인물들의 천거(有司, 院士)가 모두 20조항이며, 원생들의 몸가짐(居業)이 11조항, 금지 사항(防檢)이 12조항, 처벌 규정(相正)이 17조항으로 그 비중이 높다. 또한 인용 순서는 서원이 건립된 시기에 따라 백운서원-도산서원-천곡서원-병산서원의 순서이고, 그 사이사이에 유운룡의 按이 19조항 들어 있다. 그리고 천곡서원에서 24조항, 병산서원에서 17조항, 도산서원에서 14조항, 소수서원[죽계]에서 8조항의 원규를 인용하였데, 이는 총 65조항에 이른다. 이들 서원의 건립과 사액은 유운룡의 스승인 이황과 그 제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56) <표 7>은『吳山志』卷3「學規」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57) 천곡금오원규로 표현된 학규가 있어서 금오에 (1)로 표현하였다.
58) 천곡죽계원규로 표현된 학규가 있어서 죽계에 (1)로 표현하였다.

먼저 죽계는 소수서원의 별칭으로 1543년(중종 38) 주세붕에 의해 건립된 백운동서원이 이황의 주도로 '紹修'라는 額號로 사액되었다. 1548년(명종 3)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은 이듬해 12월에 嶺南監司였던 沈通源(1499~?)에게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요청했다.[59] 이황은 사액을 받은 이후에도 서원의 유사 선정이나 운영방식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도산서원과 이산서원은 이황이 생전에 서당을 건립하여 강학하던 곳이다. 또한 이들 서원은 이황의 사후 그를 제향하는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이산서원은 이황이 서원기와 원규를 작성할 정도로 그 운영에 관심이 많았던 서원이었다.[60] 역동서원은 이황이 禹倬(?~?)의 학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서원으로 역시 서원기를 남겼고,[61] 도산서원과 같은 예안지역에 건립되었다. 이로 인하여 역동서원, 이산서원, 도산서원은 같은 원규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표 7>과 같이 역동서원과 이산서원의 원규는 인용되지 않고, 도산서원의 원규만 인용되었다.

천곡서원의 전신은 迎鳳書院으로 성주목사 노경린이 이황과 상의하여 건립하였지만 제향인물의 위차문제로 이후 천곡서원으로 개칭되었다.[62] 이황은 영봉서원이 건립된 후 그에 대한 서원기를 작성하였고, 영봉지의 편찬에도 영향력을 미쳤다.[63] 하지만 제향인물의 위차가 계속 논란이 되어 결국 제향인물이 교체되고, 1566년(명종 21)에 정구에 의해 천곡서원으로 이름마저 바뀌었다.[64] 즉, 천곡서원이란 명칭은 1566년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위의 다섯 서원은 이황의 「書院十詠」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65]

---

59)『退溪集』卷9「上沈方伯」.
60)『退溪集』卷42「伊山書院記」.
61)『退溪集』卷42「易東書院記」.
62)『退溪集』卷12「答盧仁甫」;『退溪集』卷20「答黃仲擧」.
63)『退溪集』卷42「迎鳳書院記」.
64)『寒岡集』卷3「上退溪李先生」.
65)『退溪集』卷4「書院十詠」.

병산서원의 전신은 豐岳書堂으로 풍산류씨 가문의 서당이었으나, 1572년(선조 5)에 류성룡이 현재 장소로 옮기고 후원하였다. 선현을 제향하지 않고 강학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류성룡의 사후 그를 제향하였다.[66] 하지만 '병산서원'이란 명칭은 유성룡을 제향하기 이전부터 사용되었다.[67] 따라서 유성룡의 형인 유운룡도 가문의 서원인 병산서원과 연관이 깊었을 것이다. 이들 서원의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오산지』 학규의 인용 서원[68]

서원명	위치	건립	사액	건립 인물	제향 인물	서원지 /출간인	비고
소수 紹修	순흥	1543 중종38	1550 명종5	주세붕 이황 (사액)	안향 안추 안보 주세붕	『竹溪志』 주세붕	· 白雲洞書院 · 書院十詠
천곡 川谷	성주	1559 명종14	1573 선조6	노경린 이황 (자문)	정자 주자 김굉필 이언적 정구 장현광	『迎鳳志』 노경린, 황준량	· 迎鳳書院 · 書院十詠 · 迎鳳書院記
이산 伊山	영주	1559 명종14	1574 선조7	이황	이황		· 伊山書院記
도산 陶山	안동	1561 명종16	1575 선조8	이황	이황		· 陶山書堂
역동 易東	예안	1570 선조3	1684 숙종10	이황	우탁		· 書院十詠 · 易東書院記
병산 屛山	안동	1572 선조5	1863 철종14	류성룡	류성룡 류진		· 豊岳書堂

66)『西厓先生年譜』卷2「年譜」「四十二年甲寅」.
67)『西厓先生年譜』卷1「年譜」「十五年丁亥先生四十六歲」.
68) <표 8>은『吳山志』卷3「學規」에 인용된 서원을 건립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금오 金烏	선산	1572 선조5	1575 선조8	최응룡	길재 김종직 정붕 박영 장현광		

<표 8>을 보면 금오서원을 제외한 다른 서원들은 이황과 그의 제자들이 서원의 건립과 그 운영에 깊이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보면 오산서원의 학규는 이황의 제자인 유운룡이 스승의 서원론을 바탕으로 지어진 서원의 원규를 정리하여 수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산지』의 학규는 서원의 원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짐을 보여준다. 이는 초창기 건립된 백운서원과 도산서원(이산서원, 역동서원)의 원규를 인용하는 빈도가 천곡서원과 병산서원의 원규를 인용하는 빈도보다 적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조항에 이르는 유운룡의 생각이 추가된 점도 같은 현상으로 파악된다. 즉, 후대로 갈수록 각각의 조항들이 더욱 세분화되고 자세히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오산지』의 학규와『죽계지』와『영봉지』의 학규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훨씬 선명하게 들어난다.

<표 9>『죽계지』,『영봉지』,『오산지』의 학규 조항 비교69)

	『죽계지』	『영봉지』	『오산지』
有司	2	1	9
院士	2	3	11
居業	0	0	11
勸課	0	1	4

69) <표 9>는『竹溪志』卷5「雜錄後」「院規」와『迎鳳志』「學規錄」와『吳山志』卷3「學規」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防檢	4	4	12
交際	0	0	6
相正	0	0	17
養賢	1	0	7
修宇	1	1	2
點書	0	1	1
典僕	0	0	4
祭享	3	3	0
계	13	14	84

<표 9>에서 『죽계지』의 학규가 13조항, 『영봉지』의 학규가 14조항임을 고려할 때, 『오산지』의 84조항은 이전의 서원지의 학규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이다. 즉, 오산서원이 건립되었을 때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은 규정들을 필요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산지』의 학규는 전체적으로 많은 규정이 나타났고, 그 규정들이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居業, 交際, 相正, 典僕의 규정들은 『오산지』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규정이다. 이 4가지의 규정은 서원에서 생활하는 인물들의 잘못을 처벌하는 규정(相正, 典僕), 교제방법(交際), 학업방식(居業)을 정비하였다. 실제로 서원에서 생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와 잘잘못에 대한 처벌규정을 다루고 있다. 유운룡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오산서원이 건립되기 이전 서원들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오산지』의 학규는 유운룡이 이전에 퇴계학파가 건립한 서원의 원규들을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오산서원의 운영을 정비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오산지』의 「학규」와 같은 방식으로 서원의 규정으로 삼은 경우로는 臨皐書院의 『書院規範』(1558~1631)이 있다. 임고서원은 1553년(명종 8)에 정몽주를 제향하기 위해 경상북도 영천에 지어진 서원이다. 임고서원은 이황이

건립과 운영에 많은 공을 드린 서원으로 퇴계학파와의 관련성이 높다. 이 서원에서는 1562년(명종 17)에 만들어진『書院凡規』와 1558년(명종 13)에서 1631년(인종 9)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書院規範』이 남아있다.

이 중『서원규범』는 춘추대향도와 祭物式, 祭式, 간략한 원규가 수록되어 있지만, 祭式은『죽계지』와『영봉지』처럼 간략화 되어있다.『서원규범』도 祭物式이 수록되어 있으나,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오산지』의 학규와 같이 퇴계학파와 관련성이 높은 서원의 원규를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원규범』에서 원규를 9개조[有司, 院士, 勸課, 養賢, 防檢, 相正, 修宇, 點書, 典僕]로 나누어 인용하고, 뒤에 2개조[講師, 禁防]를 新增하였다. 다음의 <표 10>을 통해『오산지』와『서원규범』의 학규 조항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표 10>『오산지』,『서원규범』의 학규 조항 비교[70]

	『오산지』	『서원규범』
有司	9	6
院士	11	15
居業	11	0
勸課	4	14
防檢	12	7
交際	6	0
相正	17	11
養賢	7	4
修宇	2	2
點書	1	1

70) <표 10>은『吳山志』卷3「學規」와『書院規範』「學規」를 정리하였다.

典僕	4	2
講師	0	2
禁防	0	2
계	84	66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오산지』와 『서원규범』의 9개조(有司, 院士, 勸課, 養賢, 防檢, 相正, 修宇, 點書, 典僕)는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오산지』에서는 居業과 交際조항이 있고, 『서원규범』에서는 신증된 講師와 禁防조항이 있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규범』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원은 『오산지』 학규에서 인용한 서원과 같다. 즉, 『서원규범』에서도 백운서원, 도산서원, 천곡서원, 금오서원, 병산서원을 인용하고, 인용한 순서도 서원이 건립된 순서이다. 또한 후대 건립된 천곡서원과 병산서원의 원규를 상당수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오산지』와 『서원규범』의 공통점이다. 이처럼 오산서원의 학규와 임고서원의 『서원규범』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볼 때 16세기 후반에 퇴계학파의 학자들은 서원 운영의 경험을 축적하여 서원의 원규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는 사림이 서원 건립을 시작했던 시기로, 16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상당한 양의 서원이 건립되었다.[71] 이 시기 퇴계학파는 서원의 건립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주자성리학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황의 제자인 유운룡도 스승의 서원론을 기반으로 하여 오산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유운룡은 이전에 퇴계학파가 건립한 서원의 원규들을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오산서원의 운영을 세세하게 정비해 나갔다. 즉, 『오산지』의 단계에 들어서면 "서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고

71) 정만조, 앞의 책, 1997.

민이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써 학규 조항이 늘어났다.

Ⅴ. 결론

유운룡은『오산지』를 편찬하여 오산서원의 제향의식과 강학활동을 정비하였다. 유운룡이 오산서원의 제향의식과 강학활동을『오산지』에 향사와 학규로 나누어 각각 하나의 권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운룡은 퇴계학파의 학자들이 건립한 서원의 운영방식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6세기 중엽 소수서원이 건립되면서 이후 퇴계학파의 학자들의 주도로 경상도에는 가장 많은 수의 서원이 건립되었다. 즉, 퇴계학파의 서원론이 대표성을 지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운룡이 퇴계학파의 학자들이 건립한 서원의 운영방식들을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일은 전체적인 서원의 운영을 정비해 나간 행위라고 생각된다.

유운룡이 편찬한『오산지』는 4권 1책으로 간행되었고, 각 권의 내용은 行錄, 享祀, 學規, 考證이다.『오산지』은 관찬서인『三綱行實圖』,『新增東國輿地勝覽』,『國朝五禮儀』와 사찬서인『彝尊錄』,『慵齋叢話』,『續蒙求』를 인용하였다. 또한 최초의 서원지인『죽계지』와 도산, 이산, 역동, 천곡, 병산서원 등 퇴계학파의 학자들이 건립한 서원의 원규들을 인용하였다. 중국의 서적으로는『朱子大全』과『大明一統志』를 인용하되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자신의 생각과 함께 서술했다. 이보다 앞서 간행된『죽계지』와『영봉지』는 중국 서적의 원문을 가감 없이 인용했던 점과는 다른 특징이다.『오산지』는 조선 서적의 활용이 월등히 많고, 중국 서적을 인용하되 의견의 근거로만 사용하고 있어 조선식 서원지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로 이해된다.

『오산지』는 이전의 서원지에 비해 서원의 실질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서원지에서는 중국의 서원을 소개하는 글과 제향인물과 관련된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유운룡

은 『오산지』에서 서원의 祭享儀式와 講學活動에 관련된 부분을 세세하게 정비하고 비중을 늘렸다. 유운룡은 이전의 서원지에 비해 祭物과 祭器의 제작 방법 등을 더욱 상세하게 수록하였고, 行禮의 儀節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서원의 제례를 정비하였다. 또한 유운룡이 정리한 11개조 84조항의 학규는 이전 서원지의 학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조항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종전에 보이지 않던 조항을 추가하여 서원의 강학과 운영을 세세하게 정비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오산지』가 오산서원 이전의 서원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16세기 후반 서원의 운영방식을 정비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朱子大全』『大明一統志』『三綱行實圖』『國朝五禮儀』『新增東國輿地勝覽』『竹溪志』『迎鳳志』『吳山志』

吉再(1353~1419)『冶隱先生言行拾遺』
權近(1352~1409)『陽村集』
李滉(1501~1570)『退溪集』
柳雲龍(1539~1601)『謙庵集』
鄭逑(1543~1620)『寒岡集』

설석규,「謙庵 柳雲龍의 學問과 現實對應 자세」,『동방한문학』20, 2001.
_____,「16세기 退溪學派의 分化와 柳雲龍의 역할」,『조선사연구』9, 2009.
안민엽,「書院 勃興期 朝鮮 士林의 書院認識」,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석사논문, 2008.
안정,「죽계지 해제」,『(國譯) 竹溪志』, 소수박물관, 2009.
옥영정,「『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硏究」,『書誌學硏究』31, 2005.
우정임,「退溪 李滉과 그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書院의 기능」,『지역과 사회』22, 2008.
윤숙경,「鄕校와 書院의 祭禮에 따른 祭需에 관한 연구」,『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13, 1998.
장동우,「『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과정」,『국학연구』16, 1998.
_____,「『家禮』註釋書를 통해 본 朝鮮 禮學의 發展過程」,『東洋哲學』43, 2010.
정만조,『朝鮮時代 書院硏究』, 집문당, 1997.
_____,「조선시대 書院志 體例에 관한 연구」,『韓國學論叢』29, 2006.
조준호,「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성격」,『韓國學論叢』33, 2010.

柳雲龍の『吳山志』編纂意図

林勤實

李滉の高弟である柳雲龍は善山と隣接する仁同の縣監で赴任してから、吉再を追崇する作業にとりかかる。彼は退溪学派の学者たちのてを借りて吉再の墓所を整備したり、砥柱中流碑を建立したり,吉再の墓標を改修する等、吉再を顯彰する事業を多様に全開した。また彼らが吉再を仕える吳山書院を創建した後、柳雲龍は吳山書院の書院志である『吳山志』を編纂して、吳山書院の建立と關聯があることを全部記錄する。

柳雲龍が編纂した『吳山志』は4卷1冊で刊行され、各卷の內容は行錄, 享祀, 学規, 考證である。『吳山志』は官撰書の『三綱行実圖』, 『新增東國輿地勝覽』, 『國朝五禮儀』と私撰書の『彝尊錄』, 『慵齋叢話』, 『續蒙求』を引用した。また最初の書院志と知られる『竹溪志』と陶山, 伊山, 易東, 川谷, 屛山書院等、退溪学派の学者達が建立した書院の院規を引用した。中國の書籍は『朱子大全』と『大明一統志』を引用したが、必要な部分を抜萃して自分の意見といっしょに敍述した。

『吳山志』は以前の書院志と比べて、書院の実質的な運營に焦点を合わせて編纂された特徵がある。以前の書院志では中國の書院を紹介する所とともに、祭享人物と關聯がある記錄が大きい部分を占めた。ところが柳雲龍は『吳山志』で書院の祭享と講学に係る部分を詳しく整備して比重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研究員

を増やした。柳雲龍が整理した11ヶ條84條項の学規は、以前の書院志の学規と比べてはるかに多い條項を規定したものである。そして従前には見えなかった條項を追加して、書院の講学と運營を一つ一つ整備した。また柳雲龍は以前の書院志と比較して祭物と祭器の製作方法等をもっと詳細に収錄したし、行禮の儀節を具に収錄して書院の祭禮を整備した。このような規定は、『吳山志』　が吳山書院の以前の書院を發展的に繼承して、書院の運營方式を整備していた事を見せるものである。

キーワード:『吳山志』, 吳山書院, 柳雲龍, 吉再, 書院志

道東書院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이병훈**

Ⅰ. 머리말
Ⅱ.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조사·정리 현황
Ⅲ.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특징
Ⅳ. 맺음말

<국문요약>

玄風의 道東書院은 동방오현의 首賢으로서 문묘에 배향된 寒暄堂 金宏弼을 향사하는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대원군 훼철시에도 존치하였다. 그 결과 옥산·도산서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타 서원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자료가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도동서원 내부의 유·무형 자료에 대한 조사·정리현황을 파악하고, 이 중 고문서, 서적, 책판과 같은 유형 자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도동서원 소장 고문서는 중건 초기인 17세기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18세기 이후의 것으로 특히, 19~20세기에 생성된 경제와 관련 자료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동서원의 창건과 교육, 조직과 운영, 사회·경제적 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서적과 책판은 서원 교육과 출판문화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지만, 현전하는 자료가 매우 소략하여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외에 보다 종합적인 도동서원의 문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원에 남아있는 미공개 자료와 각 처에 산재한 자료 및 서원관련 각종 구술 자료를 조사·정리한 종합적 자료집 성격의 『書院誌』 편찬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도동서원, 김굉필, 한훤당, 동방오현, 서원자료

* 본고는 2013년 10월 15일에 '도동서원의 재조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도동서원 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Ⅰ. 머리말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교육, 의례,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 문화요소를 잉태했던 내부의 교육공간도 잘 남아있다. 이처럼 종합적 문화를 가진 서원은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1990년대 이래로 많은 진척을 이루어 그 전모가 대부분 밝혀졌다.[1]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거나[2], 개별 서원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한 결과물이 학계에 보급되어 조선시대 서원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3] 이외에도 서원들의 보편성과 지역성을 담은 교양서들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4] 이러한 연구의 확대는 각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자료의 수집·정리를 통한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각 서원에 소장하였던 서책 및 운영과 관련한 필사본, 고문서 등의 관련 자료들은 대원군의 전면적인 훼철 당시 대부분 소실되었다.[5] 대원군 당시 훼철되지 않았던 서원은 비교적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

---

1) 대표적 연구 성과로는 柳洪烈, 『韓國社會思想史論攷』, 일조각, 1980; 丁淳睦, 『韓國書院敎育制度硏究』, 영남대출판부, 1979; 姜祥澤, 『朝鮮後期 慶南地域의 書院 硏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硏究』, 집문당, 1997; 李樹煥, 『朝鮮後期 書院硏究』, 일조각, 2001; 尹熙勉,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李海濬, 『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경인문화사, 2008 등이 있다.

2)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韓國의 書院과 學脈 硏究』, 국학자료원, 2006.

3) 정순우·정만조·박병련·이수환·안승준, 『龍山書院』, 집문당, 2005.

4) 이호일, 『조선의 서원 : 살아있는 역사의 거울, 조선의 서원을 찾아서』, 가람기획, 2006; 정만조·정순우·김종석·손숙경·이헌창·이수환·옥영정,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 고문서로 읽는 조선조 교육의 역사와 풍속』, 태학사, 2013.

5)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2001.

었지만, 이들도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외부적 영향과 관리 소홀로 인해 자료의 도난 내지 소실이 많아 서원에 따라 차이가 많다.

실제, 도동서원은 대원군 원사 훼철시에도 존치된 곳이자, 건립이래로 현풍과 고령, 성주 등의 경상도 중부권을 대표하는 首院으로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서 서책과 책판 및 서원 운영과 관련한 많은 기록 자료를 남겼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여타의 훼철 서원과 비교하여 현전하는 자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훼철 되었던 도산·옥산·병산서원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19세기 말 이래로 서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현전하는 자료만으로 도동서원의 종합적 문화상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 도동서원의 다양한 문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儀禮, 전설·일화, 건축, 자연·인문환경, 제향인 및 그 문인들의 후손가에 소장된 자료 등과 같이 서원 내·외부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유산에 대한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도동서원에 전승되어온 성책고문서 및 전적, 책판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조사·정리된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각 자료들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6]

6) 도동서원 내 건물에 걸린 현판과 기문의 현황과 의의에 대해서는 김덕현, 「도동서원 현판자료 조사보고」(『제4차 서원 전문가 워크샵-서원 현판류 자료의 문화사적 가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2012. 11)와 김덕현, 「한훤당의 寒水照月과 한강의 中正仁義-도동서원 당호에 함축된 한훤당의 정신과 한강의 교학이념」(『도동서원의 재조명 전국학술대회 자료집-道東에서 꽃피다』, 달성문화재단·달성군, 2013. 10. 15)이 참고 된다. 여기에서는 현판과 기문을 생략한다.

Ⅱ.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조사・정리 현황

서원은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교육・교화 및 공론형성의 중심지이자, 출판과 도서관 역할을 수행한 종합적 문화를 지닌 상징적 장소이므로 기존의 건축, 제향인물, 제향의례, 서원 기록 자료를 넘어 서원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총괄적으로 조사・수집・정리되어야 한다.[7] 현재까지 이러한 종합적 조사 내지 『서원지』 편찬이 진행된 곳은 없으며, 추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기 조사・발간된 서원자료의 현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풍의 도동서원은 東方五賢의 首賢으로서 문묘에 배향된 寒暄堂 金宏弼을 향사하는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대원군의 원사 훼철시에도 존치하였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그 역사적 위상과 건축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소수・남계・옥산・도산・병산・돈암・무성・필암서원 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이다. 이들 서원은 조선후기 각 지역의 수원으로서 여타의 서원에 비해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8] 그러나 9개 서원에 현전하는 자료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데, 옥산・도산・병산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원은 자료의 망실과 산질이 심한 상태이다. 이것은 각 서원에서 생산된 자료 수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

---

7) 서원은 인재양성과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건립되어 초기에는 교육적 기능이 우선 하였지만, 점차 교육, 강학기능이 쇠퇴하면서 先儒 향사와 교화적 기능이 중시되어갔다. 더불어 서원이 지역별, 학맥별로 유대를 강화해 가면서 그 상징적 제향인물에 대한 제례의식과 기능이 점차 증대되어 갔다. 한편으로는 최초 서원건립의 목적이었던 강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서적 구입과 제향인내지 서원과 관련된 인물의 문집 및 강의 교재를 출판하였다. 이외에도 국왕이나 지방관청, 문중, 향교, 서원들로부터 서적을 수증함으로써 지역의 도서관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외부적으로는 중앙정계와 향촌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사론 형성과 집행의 중심으로서 그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도 했다(이해준 외, 『서원 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0).

8)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2012, pp.425~427.

원 측의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다.[9]

<표 1>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정리현황

지역	서원	주향	건립	사액	현전 자료의 수량	정리현황
경북 현풍	道東書院	金宏弼	1605	1607	1. 전적 : 景賢錄 외 내사본 등 7종 23책. 2. 성책 고문서 : 道東重刱事蹟, 各處通文謄草, 院任錄, 入院錄, 尋院錄, 土地·奴婢案 등 105종 215건 3. 책판 : 景賢錄 외 8종 71판. 4. 기타 : 제기 30점, 현판·기문 17점.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編, 1969), 『道東書院誌』(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에 선별수록.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달성군, 2005)에 고서, 책판, 기타유물 수록. 『경북지역의 목판 현황』(한국국학진흥원, 2006)

도동서원 자료는 옥산·도산서원 등에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미치지 못하지만 여타의 서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10] 그래서 196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정부기관·대학연구소·지자체·연구자 등에 의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서원 소장 자료 및 건축, 제향 의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왔다.[11]

---

9) 도동서원 전적의 경우 1969년 조사에서는 95종 529책이 있었지만, 2005년 조사에서는 7종 23책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서원 조직의 구성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도동서원은 1990년대 이후로 원장을 모시기 어려워 현재는 초헌관이 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2년에 지역 유림이 주축이 되어 '도동서원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서원을 운영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남계서원·도동서원-』, 2013, pp.264~267).

10) 이수환, 「도동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한국사학회, 2000.

11) 도동서원은 일찍이 독특한 건축물과 조형미로 인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건축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서원소장 자료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인 1963년에 강당과 사우 및 담장이 보물 제350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제 분야의 연구가 진척되면서 도동서원의 주변 경관과 역사적 위상이 提高되어 2007년에는 서원 전역이 사적 제488호로 지정되었다.

도동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69년 국회도서관에서 시행하였다. 당시에는 대원군 미훼철 원사 47개소 중 그때까지 존속하고 있던 3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현지를 답사하여 藏書를 확인한 곳이 17개소, 書信을 통해 확인한 곳이 4개소였다. 도동서원은 서신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당시 총 95종 529책의 장서가 있었다.[12] 이때의 조사는 고문서, 책판 등은 제외한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후 1997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도동서원 소장 고문서 105종 215건을 全收 조사하여 『道東書院誌』를 발간하였다. 당시 자료집 형태의 서원지가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이러한 조사와 출판은 큰 의의가 있었지만, 지면의 부족 등으로 모든 자료를 수록하지 못하고 37종 42건의 특정 자료만을 선별 수록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도동서원의 창건사실 및 사회·경제적 기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긴 하였지만, 20세기 이래로 생성된 서원자료와 전적·책판 등의 기타 자료가 미수록된 미완의 서원지였다.[13]

2005년에는 달성군에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조사는 도동서원에 소장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수량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책판, 제기, 현판·기문 등과 고문서, 전적을 포괄하는 종합적 조사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비록 전문적인 해제 없이 목록을 소개하는데 그친 한계는 있지만, 이전 조사 결과물과의 비교를 통해 소장 자료의 망실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2006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도동서원 소장 목판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8종 71매의 목판에 대한 결판 여부 및 도동서원의 출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15]

---

12)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의 해제 참조.
1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道東書院誌』, 영남대 출판부, 1997의 해제 및 일러두기 참조.
14)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도동·인흥서원』, 2005.

최근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도동서원 享祀를 밀착 조사하여 서원향사의 절차에 대한 체계적 보고서를 발간했다.[16] 이는 기존의 건축, 전적, 고문서, 제기, 책판 등 유형유산에 대한 접근에서 벗어나서, 서원 건립이래로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제향 의례라는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서원문화의 원형을 규명하는데 일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원 문화의 현대적 전승 사실을 조사·정리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17]

2012년 4월에 국가브랜드위원회·문화재청·14개 지방자치단체·서원연합회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이후 학술문헌연구와 관련자료 정리 등을 거쳐 등재신청서와 보존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도동서원을 비롯한 8개 서원에 대한 유·무형의 서원 문화를 조사·정리하고, 이를 전승·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역사, 건축, 교육, 서지학 등 제분야의 연구자를 활용해 서원 기록 자료에 대한 DB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18] 이러한 DB는 향후 서원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조사·정리된 도동서원 관계 자료는 연구자의 관심과 사업의 목적에 따라 취사선택되어 각기 다른 형태로 전해지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보존관리의 어려움으로 망실된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향후 자료의 손실을 막고 학문·관광·산업 등의 제분야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전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형태의 서원지 편찬이 선행되어야 한다.

---

15)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2)』, 2006.
16)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남계서원·도동서원－』, 2013.
17) 현재에는 도동서원뿐만 아니라 여타 서원 자료들을 활용하여 잊혀진 문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달성문화재단에서는 2013년 9월 7일 <도동서원 사액봉행 행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도동서원 자료 및 여타 서원자료를 종합하여 『도동서원 사액봉행 학술연구』라는 보고서를 2013년 7월에 발간하였다.
18) 서원연합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seowonstay.com).

Ⅲ.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특징

도동서원 소장 자료에는 고문서와 전적, 책판 및 현판·기문 등이 있다. 고문서류는 서원의 창건 사실과 조직 및 운영, 경제적 기반, 향촌사회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모두 105종 215건이 남아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성책고문서로서 일반 고문서는 1664년(현종 5) 한강 정구의 도동서원 종향을 예조에 요청하는 裵繼緖 등이 연명한 上書와 정유년 정월에 문경공 종가의 제수를 지공한 내역을 적은 도동서원 회중 절목, 1892년(고종 29) 도동서원 전물단자, 19세기 말 점필재 문집 출간시의 門徒를 모록한 金堉의 처벌에 대한 밀양향중의 통문, 1939년(기묘) 9월 도동서원 원회에서 舊債를 발본하기 위해 賭租를 賣貿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첨존들도 다음달 15일까지 沒數하여 보내주길 당부한다는 회문 등이다. 이외에 도동서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자료로 松潭書院 관계 자료 7종 16건과 『鄕案』 2책, 1786년 등서한 「향안설립초정규등초」 1건이 있다.

전적과 책판은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과 출판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전적은 총 7종 23책뿐이며, 책판은 8종 71장에 불과하다. 이것은 관리소홀로 인한 도난과 消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실제, 전적은 1969년 당시 95종 529책이 확인되었으며, 책판도 완본과 비교하여 결락된 판목이 100장에 이른다.

서원 내 건물에 걸린 현판과 기문은 총 17점이 있다. 이중 서원 운영 및 중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傳敎」, 「書道東書院額板下」, 「書院規目」 및 水月樓 관련 기문 4점 등이 있다. 특히, 「전교」를 등서한 현판은 院屬과 관련한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이며, 「서도동서원액판하」 현판은 한강 정구가 퇴계의 글씨를 집자하여 『도동서원』 현판을 제작하여 걸고 그 연유를 기록한 것으로, 도동서원의 중건과 사액 연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 「서원규목」은 1918년에 중간한 것으로 성주 천곡서원의 원규를 대본으로 하여 서원의 인적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 한 것으로 한강 정구가 지었다.

이처럼 도동서원 내부에는 현재까지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현판·기문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의 종류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도동서원 소장 (성책)고문서

대원군 훼철이전의 각 서원에는 호구단자·명문·완의·상서·소지·서목·통문·회문 등 다양한 고문서가 많았다. 도동서원은 현풍지역 사림의 교육·정치·사회적 활동의 중심지이자, 원사훼철 시에도 존치되면서 서원 운영과 관련한 많은 고문서가 생성되었다고 짐작된다. 하지만, 현재에는 105종 215건만이 남아있으며, 이 자료들도 중건 초창기인 17세기 자료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8세기 이후의 것이며, 특히 20세기 이후의 단편적인 경제관계 자료가 많다.[19] 현전하는 도동서원 (성책)고문서의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도동서원 소장 (성책)고문서 목록[20]

번호	자료명	작성연대	비고
1	道東書院刱建事蹟	1604~1720	서원지
2	院任案	1604~1965	서원지
3	入院錄	1610~1906	서원지
4	入院錄	1910~1966	

19) 이하 서술은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도동서원·인흥서원』,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남계서원·도동서원-』, 2013 및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도동서원지』 해제, 1997와 이수환, 「도동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한국사학회, 2000을 주로 참고하였다.

20) 이 표는 『道東書院誌』(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97)를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1997년 조사 당시의 상황이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료가 남아있지만 일부 망실한 것도 확인된다.

5	薦案	1940 前後	
6	鄕錄(上)	1621~1791	서원지
7	鄕錄(下)	1814~1851	서원지
8	鄕案設立初定規謄草	1786	서원지
9	奉安時諸執事分定記	1610~1803	서원지
10	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	1695~1810	서원지
11	敦事錄	1720~1730	서원지
12	敦事錄	1791~1848	서원지
13	參祭錄(萬曆39~辛卯 3월)	1611~1651	서원지
14	參祭錄(庚辰2월~己亥8월)	1700~1719	
15	參祭錄(己亥10월~己未8월)	1719~1739	
16	參祭錄(甲戌12월~壬申2월)	1694~1752	
17	參祭錄(甲午8월~丙午3월)	1774~1786	
18	參祭錄(丙午10월~丙寅2월)	1786~1806	
19	參祭錄(癸未3월~壬辰3월)	1823~1831	
20	參祭錄(辛卯10월~壬戌3월)	1831~1862	
21	焚香錄(丁未8월~乙卯6월)	1907~1915	
22	謁祠錄(壬申정월~戊寅12월)	1692~1698	서원지
23	謁祠錄(己卯정월~癸未12월)	1699~1703	
24	謁祠錄(甲申2월~丁亥3월)	1704~1707	
25	謁祠錄(丁亥2월~辛卯12월)	1707~1711	
26	謁祠錄(辛卯정월~甲午4월)	1711~1714	
27	謁祠錄(甲午5월~丁酉2월)	1714~1717	
28	謁祠錄(戊戌정월~癸卯2월)	1718~1723	
29	謁祠錄(甲辰3월~戊申2월)	1724~1728	
30	謁祠錄(戊申3월~丁巳1월)	1728~1737	
31	謁祠錄(丁巳2월~辛酉8월)	1737~1741	
32	謁祠錄(辛酉2월~庚午8월)	1741~1750	
33	謁祠錄(丙子정월~壬午)	1758~1762	

34	謁祠錄(壬午윤5월~癸未8월)	1762~1763	
35	謁祠錄(甲申9월~癸巳7월)	1764~1773	
36	謁祠錄(癸巳8월~丁酉9월)	1773~1777	
37	謁祠錄(丁酉10월~壬寅정월)	1777~1782	
38	謁祠錄(壬寅2월~壬子2월)	1782~1792	
39	謁祠錄(壬子2월~庚申6월)	1792~1800	
40	謁祠錄(庚申6월~庚午2월)	1800~1810	
41	謁祠錄(丙戌정월~丙申10월)	1826~1835	
42	謁祠錄(丁酉2월~戊辰2월)	1837~1868	
43	謁祠錄(丁丑2월~辛卯8월)	1817~1831	
44	謁祠錄(壬辰정월~辛丑12월)	1832~1841	
45	謁祠錄(壬戌윤8월~庚午6월)	1862~1870	
46	尋院錄(丙午~癸亥)	1606~1623	서원지
47	尋院錄(丁亥2월~己亥10월)	1647~1659	
48	尋院錄(庚子정월~丙辰2월)	1660~1676	
49	尋院錄(丙辰3월~乙亥4월)	1676~1695	
50	尋院錄(乙亥7월~庚辰12월)	1695~1700	
51	尋院錄(庚辰12월~丁亥2월)	1700~1707	
52	尋院錄(丁亥3월~壬辰3월)	1707~1712	
53	尋院錄(壬辰4월~丙申3월)	1712~1716	
54	尋院錄(丙申윤3월~甲辰仲冬)	1716~1724	서원지
55	尋院錄(戊申2월~丁巳2월)	1728~1737	
56	尋院錄(丁巳5월~庚午9월)	1737~1750	
57	尋院錄(庚午10월~癸未2월	1750~1763	
58	尋院錄(癸未3월~己丑10월)	1763~1769	
59	尋院錄(辛亥3월~丁卯4월)	1791~1807	
60	尋院錄(丁卯4월~甲戌윤2월)	1807~1814	
61	尋院錄(甲戌2월~癸未9월)	1814~1823	
62	尋院錄(癸未9월~己丑12월)	1823~1829	

63	尋院錄(庚寅3월~癸卯3월)	1830~1843	
64	尋院錄(己未3월~癸亥3월)	1859~1863	
65	尋院錄(辛卯3월~甲辰2월)	1891~1904	
66	尋院錄(戊寅3월~庚戌10월)	1938~1970	
67	尋院錄(辛亥8월~戊辰)	1971~1988	
68	各處通文謄草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서원지
69	廟室移建時到記	1840	
70	育英齋完議節目	1787~1789	서원지
71	學稧案	1854~1867	서원지
72	補院契案	己亥(1899)2.1	서원지
73	補院契案	1899~1968	서원지
74	補院契(收錢錄)	己亥(1899)~1939	서원지
75	補院契錢植本案	辛酉(1921)3.10	
76	補院契錢收捧記	戊辰(1928)2.27	
77	補院契續案	乙酉(1945)3.26	
78	門樓稧案	甲辰(1904)~乙巳(1905) 12월	
79	本院修理案	戊寅(1938)2월	
80	重修物力都摠	1803(순조3)	서원지
81	重修物力都摠冊	1858(철종9)	서원지
82	重修時執事分定冊	1858(철종9)	
83	道東書院重修贊助金芳名錄	1958	
84	道東書院補修贊助金芳名錄	1974	
85	道東書院重修還安記念詩帖	1967	
86	倉庫重修記	戊辰2월	
87	庫室重修	戊辰윤2월13일	
88	奴婢案	17세기초~1702(숙종28)	서원지
89	月次鐵物錄	丙辰~乙卯	서원지
90	奴婢賣買文書	1729(정조3)	
91	道東書院院生案	戊辰 2월	서원지

92	道東書院院生案	癸酉 2월	
93	道東書院院生案	戊寅 정월	서원지
94	道東書院院生案	乙丑 12월	서원지
95	道東書院院生案	丙寅 10월	
96	道東書院院生案	己丑 11월	서원지
97	道東書院院生案	丙戌 10월	
98	道東書院募入案	戊午 2월	서원지
99	道東書院募入案	壬戌 4월	
100	道東書院募入案	甲子 9월	서원지
101	道東書院資費案	戊午 2월	서원지
102	道東書院資費案	癸亥 7월	
103	道東儒生案	丁卯 8월	서원지
104	道東書院田畓大帳	辛丑 2월	서원지
105	庚子量田畓案	戊午	
106	院田收稅記	壬午 정월	서원지
107	田畓成冊	乙丑・丁卯・戊辰	
108	道東書院土地臺帳	1932(壬申)2월	
109	本院土地臺帳	乙巳~丁卯	
110	道東書院垈地實測坪數臺帳	癸亥 12월~丙子 12월	
111	道東書院田畓結卜大帳	癸未 10월	
112	邑西部員藪坪畓斥賣冊	丁酉 3월	
113	道東書院結卜區別成冊	乙未 2월	
114	道東書院結卜區別成冊	乙未 4월	
115	道東書院土地賭租代金記	辛巳 3월	
116	本院粮米賭地散責合責區分記	庚辰 정월	
117	道東書院土地賭租賣買冊	己卯 9월	
118	基地稅太定式	戊辰 8월	
119	書院土地契約書案	辛卯 3월	
120	道東書院入金記	己丑 7월	

121	本院賭地冊	壬寅 3월	
122	馬山賭地冊	戊戌 3월	
123	馬山賭地冊	庚子 정월	
124	馬山賭地冊	辛丑 정월	
125	馬山賭地冊	己亥 정월	
126	(本院)正案	丁未정월~戊申6월	
127	(本院)正案	丙寅5월~戊辰	
128	(本院)正案	戊寅 2월	
129	(本院)正案	甲辰2월~乙巳	
130	(本院)正案	丙申12월~丁酉	
131	(本院)正案	丁未2월~戊申	
132	(本院)正案	甲寅2월~丙辰	
133	(本院)正案	乙未 3월	
134	(本院)正案	己亥12월~庚子	
135	(本院)正案	丁亥3월~己丑	
136	(本院)正案	壬午10월~甲申	
137	(本院)正案	己未정월~甲子	
138	(本院)正案	甲子8월~丁卯	
139	(本院)正案	甲子 8월	
140	(本院)正案	甲申4월~丁亥	
141	(本院)正案	甲午4월~庚子	
142	(本院)正案	甲寅정월~戊午	
143	屯租記	甲申 10월	
144	屯租記	乙酉 9월	
145	屯租記	丙戌 9월	
146	屯租記	無子 11월	
147	屯租記	辛卯 3월	
148	屯租及食狀記	甲午4월	
149	屯租及食狀記	庚子 3월	

150	穗穀及現收支記	辛亥 10월	
151	別補	戊午2월~癸亥12월	
152	別補	辛亥 2월	
153	別補	戊寅 10월~己卯	
154	別補	甲寅12월~乙卯	
155	別補	壬申10월~丁丑12월	
156	別補	丙辰12월~丁巳12월	
157	別補	庚戌 12월	
158	別補(正案冊)	甲午 12월	
159	別補(正案冊)	丙戌 11월	
160	別補(正案冊)	丙申 12월	
161	別補(正案冊)	乙未 12월	
162	(本院)春正冊	戊午6월~甲子정월	
163	(本院)春正冊	丙辰12월~丁巳12월	
164	(本院)春正冊	庚辰 5월	
165	(本院)春正冊	甲子 정월~丙子	
166	看穗記	甲子 9월	
167	看穗記	庚寅 9월	
168	看穗記	戊寅 10월	
169	看穗記	丙寅 9월	
170	道東書院定穗記	戊申 3월	
171	傳掌記	己未 2월	
172	傳掌記	甲戌4월~癸巳3월	서원지
173	雜物傳掌記	癸酉(1693)8월8일~壬申(1752)5월	서원지
174	道東書院書冊目錄	丁亥4월~최근	
175	院中物件記	甲子 4월	
176	院中物件記	甲辰5월~庚辰	
177	書院物件目錄	丁亥3 월	
178	‥付物件目錄・書冊目錄・財産收入簿	辛巳4월~壬午	

179	庚子移安院會下記		
180	道東書院用下記	己丑7월~辛卯	
181	庫舍門間重建下記冊	壬子 2월	
182	景賢錄重刊時下記	己亥 2월	
183	下記장부	丁未 9월	
184	文敬公宗家祭需節目	丁酉정월4일	서원지
185	道東書院奠物單子	1892(고종29)	서원지
186	回文	己卯 2월	서원지
187	回文	己卯 9월	서원지
188	祭文	1605(선조38)~1720(숙종46)	서원지
189	慶尙左道玄風縣儒生裵繼緖等謹齋沐再拜上書	1664(현종 5)	
190	明文	辛亥 10월	
191	庭揖禮	(최근)	
192	抄錄	丁亥(1947) 3월	
193	景賢錄本院保有及頒帙記	庚辰 4월	
194	畢齋金先生門人錄分冊記	乙亥12월	
195	畢齋門人錄‥下記正案冊	甲戌 9월	
196	本院放債冊	己酉~丁巳	
197	通文		서원지
198	明文	1779(정조3)	
199	簡札	壬午 9월 2일	
200	任案錄(松潭)	壬子(1852)8월~丁卯(1857)2월	
201	院任案(松潭)		
202	松潭書院謁祠錄(甲戌12월~癸未9월)	1694~1703	
203	松潭書院謁祠錄(癸未8월~丁亥2월)	1703~1707	
204	松潭書院謁祠錄(壬辰정월~乙未2월)	1712~1715	
205	松潭書院謁祠錄(丙辰2월~辛酉2월)	1736~1741	
206	松潭書院謁祠錄(壬申8월~甲申7월)	1753~1764	

207	松潭書院謁祠錄(癸巳8월~庚子8월)	1773~1780	
208	松潭書院謁祠錄(庚子8월~辛亥2월)	1780~1791	
209	松潭書院謁祠錄(辛亥2월~丙寅10월)	1791~1806	
210	松潭書院尋院錄(丁亥~壬午3월)	1767~1801	
211	松潭書院尋院錄(辛酉4월~壬午2월)	1801~1822	
212	松潭書院尋院錄(乙卯7월~戊辰9월)	1855~1868	
213	松潭書院院生案	戊申 2월	
214	松院儒錢收合記		
215	松潭書院別有司前明文	甲申(1824) 12월	

※ <비고>에 '서원지'라고 한 것은 『도동서원지』(1997)에 영인된 자료를 표기한 것이다.

위 <표 2>의 (성책)고문서 자료들을 서원창건(중건)자료, 인적구성 및 조직·운영 자료, 서원 경제 자료, 기타 관계 자료 등으로 나눠서 그 대표적인 것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1) 서원 창건(중건) 자료

도동서원은 『考往錄』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서원 중건을 전후한 상황은 당시 서원유생들의 상서·소지·통문 등을 1책으로 모은 『道東重刱事蹟』을 통해서 그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21] 『도동중창사적』은 1604년의 서원 중건 당시부터 1720년까지 서원 유생들이 감사·지방관·각처 교원 등에 보낸 상서·소지·통문 등과 봉안시 제문, 초대 원장 薦案 등을 모은 것으로 서원 중건 초기의 문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자 이를 수합하여 戊戌年(1738?)에 재정서한 것이다.

21)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서원 중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정구의 『寒岡集』이 참고가 된다. 여기에는 서원 중건 후 재사액과 관련한 당시 감사와의 문답 서신, 봉안제문, 도동서원 내 한강수서원문, 도동서원 원규 등 중건초의 사실이 많이 남아있다.

게재된 내용은 한강 정구가 작성한 1610년 한훤당 김굉필의 위패를 봉안할 당시의 치제문, 1604년 3월 郭逝을 한훤당 서원의 원장으로 천거하는 薦首 정구 외 4인의 연명 천안이 있다. 이후 1604년(선조 37)부터 1620년(광해군 12)까지 약 17년간 초대 원장을 역임한 곽근의 單字가 있다. 단자는 원임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가 그 사유를 적어서 보내온 것인데,[22] 곽근은 1606년, 1608년, 1609년에 단자를 보내어 원장의 중임을 맡기 어려우니 다른 자를 찾아보길 청하였다. 1646년에는 郭衛國이 원장의 重任을 맡기 어렵다는 내용의 단자를 보내왔다. 곽위국은 1630년(인조 8)에 부임하여 이후 6년간 원장을 역임하였는데, 처음 부임하기 전년도인 1629년(인조 7) 3월에 원장으로 천망되어 이를 정중히 거절하는 단자를 보내왔었다.

이처럼 원장의 천망과 같이 인사와 관련된 것 외에도 『도동중창사적』에는 서원 중건 당시의 실정을 알려주는 통문과 이후 서원의 재정 운영 및 한훤당 묘소 수리와 관련한 상서, 묘우 중건과 관련한 통문 등이 謄書되어 있다.

먼저, 도동서원 중건 당시인 1604년(선조 37) 7월에 곽근, 裵暗喜, 郭三吉, 金大振 등이 도동서원 전신인 쌍계서원의 사례를 들어 관찰사 겸 순찰사에게 중건에 필요한 물력을 협조해주길 요청하는 請助呈書를 올렸다. 이에 관찰사는 題音에서 본현과 고령 등에서 匠人과 粮米, 鐵物, 목재, 소금 등을 조력하고, 이의 운송에 배를 내주어 사용하도록 조처하였다. 또한, 1607년(선조 40) 10월의 통문은 안동대도호부사 정구, 대구도호부사 鄭經世, 합천군수 呂大老가 함께 도동서원 중건에 필요한 물력을 순찰사의 당부처럼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길 열읍 수령들에게 요청하는 글이다. 이를 통해 도동서원의 중건시에는 관찰사와 지방관들의 협조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도동서원은 중건이후 서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속

22) 도동서원 『원규』 「존원장」조에는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글로 갖추어 원중에 고한다"고 하였다. 곽근 역시 이에 따라 單字를 갖춰 원장직의 중임을 거부한 것이다.

및 원위전에 대한 면역과 면세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1606년(선조 39) 원생 곽근 등은 관찰사에게 서원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錢穀有司의 군역을 면제해주길 요청하는 상서를 올려 면역 받는 한편, 1622년(광해군 14)에도 유생 곽근 등이 관찰사에게 원속의 군액을 면제하여 逃散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상서를 올렸다. 하지만, 원속에 대한 면역권은 해당 고을 지방관의 권한이었기에 도동서원측은 수령의 체임시마다 이들에 대한 침해를 계속 받았으며, 그때마다 상서를 통해 면역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640년(인조 18) 원생 前參奉 郭以昌 등의 상서에는 祠直, 齋直, 庫直, 書員, 使喚 등의 원속 10여 인들 중 6~7인이 城軍으로 차출되어 서원의 유지가 어려우니 이들의 차출을 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644년(인조 22)에는 생원 郭弘栽 등이 고령현감에게 도동서원 건립 초에 고령의 원위전 5결을 復戶토록 영구히 정한 것을 지켜 이에 대한 免稅와 서원 소속 紙匠의 免役을 요청하는 상서를 올렸다.

이처럼 도동서원은 서원 중건이후 서원수호를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관에게 면역과 면세를 계속해서 청하는 한편, 도동서원 중건에 큰 역할을 한 한강 정구와 현풍지역 유현의 도동서원 배향을 위해 노력하였다. 1664년(현종 5) 裵繼緖 등은 예조에 한강 정구의 종향을 요청하는 상서를 올렸지만 전례가 없다하여 거절당하였다. 이후 1677년(숙종 3)에 郭壽厦 등이 정구와 배신, 朴惺의 배향을 청하였지만, 정구만 윤허를 얻어 1678년(숙종 4) 3월 26일에 봉안하였다.[23] 현풍 유학 金處中 등은 1678년(숙종 4) 洛川 裵紳의 도동서원 종향이 무산된 후 그의 학덕을 기려 별도의 사우를 짓기로 하고, 사우 건립에 필요한 물력을 순찰사가 도와주길 요청하는 상서를 올리기도 했다.[24]

---

23) 『숙종실록』권6, 3년 11월 6일(기묘). 『奉安時執事分定記』, 「玄風生員 郭壽厦 等 上書」, 여기에는 약 70여 명의 유생이 참여하였다.

24) 현풍 사림은 1695년(숙종 21)에 도동서원 옆에 別祠를 건립하여 郭承華, 곽율과 함께 배신

도동서원 중건 초기 정구는 한훤당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山直 10인을 획급 받았으며, 춘추로 墓祀를 설행하도록 정하였다. 그 결과 도동서원은 중건이후 원내의 건물뿐만 아니라 묘소도 관리를 해왔다. 1647년(인조 25) 현풍 유생 郭壽星 등이 예조에 보낸 상서를 보면, 한훤당의 묘소가 조성된 후 경황이 없어 柱石·床石·莎臺石·階熱石 등의 儀物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오랜 세월 풍우로 封築이 붕괴되고, 주석이 부서져서 사림이 이를 증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래서 1643년(인조 21) 봄에 무덤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 伐石하고, 인근 고을의 軍丁을 동원하여 돌을 옮기기 위해 수령과 관찰사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정의 禁令이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예조에서는 돌을 운반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금령은 매우 의아한 일이라며, 제음을 수령과 관찰사에게 보여 사림의 뜻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그 후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였다. 1709년(숙종 35) 10월 郭斗壽 등이 순찰사에 올린 상서에는 농사철과 饑饉, 관찰사의 체임, 재력의 부족 등으로 재가를 받지 못하여 40여 개에 이르는 벌석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예조의 제사에 나오는 것처럼 부근의 龍淵·湧泉·瑜伽·潬灾·龍興寺의 승도와 본현의 군정을 정도에 맞게 내어주고, 또한 錢이나 布 혹은 穀栗 등으로 부족한 재력을 해결해 주길 요청하였다. 그러나 순찰사는 흉년으로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1720년(숙종 46) 도동서원 유생 嚴大厦 등의 통문에는 묘우가 건립된 지 오래되어 풍우에 주춧돌이 상하고, 용마루가 기울어 당기는 형세가 매우 위태롭기에 오는 5월 상정에 위패를 강당에 봉안하고, 묘우를 중수

을 병향 하였다가, 1706년(숙종 32)에 元槩를 추향하였다(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도동서원지』, 1997, p.8). 박성은 1642년(인조 20)에 여헌 장현광이 중심이 되어 현풍현 쌍계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였지만, 봉안하기 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후 1693년(숙종 19)에 박성의 묘소 근처에 송담서원을 건립하여 봉안하였다(『경남일보』, 1997. 9. 5).

한 후에 환안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중수를 급히 서둘러야 하고, 수리 비용이 많이 들기에 열읍에 통고하여 도와주길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통문은 고령・합천・거창・안음・함양・산음・삼가・초계・의령・단성・진주・하동・곤양・사천・고성・진해・함안・칠원・창원・김해・웅천 등 경상우도의 校院에 발송하였다.

이상과 같이 『도동중창사적』은 도동서원의 前身인 雙溪書院의 창건과 임란이후의 중건 때에도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사림의 공론에 의해 한훤당의 내・외손 및 일향사림의 공동협력에 의해 건립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감사를 비롯한 본현 내지 인근 고을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서원 중건, 重修에 필요한 물력의 보조와 典僕・山直 등 서원 운영에 필요한 원속의 획급 및 勿侵, 원위전의 免稅를 요청한 과정과 결과가 상세히 남아있어서 도동서원의 중건 초창기의 역사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2) 인적구성 및 조직・운영 자료

도동서원에는 서원의 인적구성과 조직・운영체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여타의 자료에 비해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다. 이를 보면, 서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院長・有司의 명단인 『院任案』(1책)과 院生의 명단인 『入院錄』(2책)이 있다. 이 두 책은 도동서원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기에 별도의 궤에 보관해 왔다.[25]

『원임안』은 1690년에 중수한 것으로 1604년 중건 이래 1965년까지의 원장・유사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원장이 서원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서

25) 도동서원 원규 「존원장」 조에는 '원장록을 비치하여 그 임기를 기록하고, 다음에 맡는 사람이 열람하기 쉽게 하고 또 欽戒토록 한다. 유사 또한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한강속집』 권4, 잡저, 「원규조」). 이에 의거하여 도동서원은 원임안을 작성하여 별도의 궤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雜物傳掌記』).

원을 대표하는 책임자라고 한다면, 원중 대소사를 운영해 나가는 실질적인 담당자는 유사였다. 원장의 임기는 院規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1·2년에 重任·再任이 허락되었다. 도동서원 원장은 중건 초기에는 몇몇 사람이 중임과 재임을 반복하면서 서원 운영을 주도하였는데 초대 원장 곽근은 1604년부터 1620년까지 약 17년간 재임하였다.[26] 원장은 본읍 수령과 타향 출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를 역임한 자들이었다.

원장의 신분은 현직 관료는 많지 않고 生員·進士·參奉·幼學 및 전직 하급관료 출신으로 향내에 명망있는 인사가 선출되었는데, 유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27]

원장은 18세기 초반까지는 대체로 현풍곽씨와 서흥김씨 및 기타 사족의 연합에 의해 운영되다가 18세기 중반부터 본읍 수령이 원장에 임명되고 있었다. 수령이 처음 원장을 역임한 것은 1695년 현풍현감 具文游의 사례가 있었지만, 18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오면 본읍 수령은 대부분이 원장을 역임하여 이 시기까지 총 36번이나 나타난다. 이러한 수령의 원장 겸임은 서원 측의 圈請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서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장의 지역적 범위도 18세기 초반까지는 현풍을 중심으로 성주(이서)·칠곡(이원지)·고령(이현룡)·창녕(윤동로) 등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정종로(상주), 류태좌·류치명(안동)·이언순(예안), 이진상·이종상(경주), 최흥

26) 1630년부터 6년간 원장을 역임한 洛叟 郭瑋國은 1646년과 1653년에 重任되었다. 또한 찰방을 역임한 郭融은 1637년 원장에 未察任하였다가, 1652년과 1654년에 重任되었다. 郭弘栽는 1656년, 1659년, 1661년에 중임하였다.

27) 1621년부터 1623년까지 원장을 지낸 郭崦은 승문원 박사를 지냈으며, 의금부도사를 지낸 東湖 이서(李竹+舒)는 1623년부터 1625년까지 역임하였다. 이들 외에도 1636년에는 고령현감 竹圃 李見龍, 1637년에는 典籍을 역임한 金致信, 1650년 지평을 지낸 郭弘址, 1658년 부사 金善英, 1663년 참봉 金元龜, 1677년 참봉 李元祉, 1688년과 1705년에 좌랑을 지낸 禮圃 郭壽龜 등이 있다.

원・허전(대구), 장인원(인동) 등의 유력 인사들이 임명되는 등 경상좌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 시기 원장 선출도 '圈出'이 아닌 '道儒圈出', '圈請'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임하지 않는 경우도 12번이나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도동서원의 향촌내 위상이 18세기 중반부터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8]

유사의 경우 원장과 院中이 상의하여 선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斯文統檢 및 유생공궤, 원곡분급, 문서검열, 세입세출 등의 문제를 담당하였다. 도동서원은 보통 2명의 유사가 임명되었는데, 18세기 말부터 4~8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원장의 거주지가 서울, 안동, 상주 등지와 같이 멀리 있을수록 유사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적 문제를 담당하는 典穀有司를 두었는데 이는 주로 良人院生이 담당하였다. 도동서원은 1794년부터 1811년까지 일시적으로 上有司가 나타나는데 원장으로 임명된 수령을 대신하여 서원 내부의 여러 일을 주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9]

『입원록』은 도동서원 원생들의 명단으로 1610년부터 1906년까지의 1책과 1910년부터 1966년까지 1책 등 모두 2책이 있다. 입원록에 수록된 성씨는 모두 24성으로 宋・辛・柳・閔・韓・洪氏 등은 1778년 이후 나타나고 있다. 입록된 원생은 총 1,124명이며, 이중 현풍곽씨가 563명, 瑞興金氏가 305명, 朴氏 72명, 嚴氏 47명, 成씨 35명, 李氏 30명, 裵氏 19명, 羅氏 12명, 鄭・蔡씨 각 7명, 柳氏 5명, 崔氏 4명, 吳・尹・趙・張・辛・洪氏 각 2명,

---

28) 1990년대부터 원장을 초빙하기 어려워져서, 현재는 초헌관이 원장을 겸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남계서원・도동서원』, 2013, p.264).

29) 퇴계가 작성한 「이산원규」에서 원장에 대한 규정없이 상유사, 하유사만을 둔다고 규정한 후 원장없이 유사만 규정하는 원규가 여러 서원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병산서원 원규」에서와 같이 상유사는 서원안의 여러 일을 주관하고, 하유사는 米布의 출납, 공궤, 타작 등의 일을 주관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원장에게 아뢰고 시행한다고 했다. 결국, 서원의 원임 구성은 점차 서원의 활동이 다양해지자 유사가 분화하여 원장-상유사(별유사・재유사)-하유사(유사, 庫有司)의 삼층 구성이 일반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pp.188~190).

宋・河・許・盧・閔・韓氏 각 1명씩이다. 여기에는 입원생의 성명과 薦主만 기재되어 있어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성씨를 통해 볼 때 대부분 현풍 향내인사들이었다.

원규에는 이들 원생의 선발시 20세 이상의 儒生들 중 춘추향사에 薦主의 천거로 入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입록 시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사정에 따라 한 해에 2번 입록 하거나, 10년 이상 입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부정기적으로 입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사뿐만 아니라 墓祭시에도 입록이 이루어졌다. 천거는 1명의 천주가 1명을 천거하거나 3~5명의 천주가 公薦하기도 했다. 또한 1명의 천주가 여러 명의 유생을 천거하거나, 당중의 논의로 일괄 천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19세기로 가면서 取士制는 거치지 않고 공의에 의해 직서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며, 20세 미만이라도 入格薦과 같이 이미 司馬에 입격하거나 才行이 뛰어난 자는 허락하였다. 천주는 원규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사원 및 원임・헌관을 역임한 院儒들로 구성되는데 당중에서 薦望하였다.

원장・유사 이외에 도동서원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은 執事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도동서원에는 『奉安時諸執事分定記』(1610~1803)와 『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1695~1810)가 있다.

『봉안시제집사분정기』를 보면, 1610년 한훤당 김굉필 위판 봉안시에 初獻 都事 裵大維, 亞獻 宜寧縣監 李涵, 終獻 玄風縣監 權濬, 掌議 郭逝, 祝 校書正字 孫遴 등의 제관과 11명의 집사 및 현풍과 26개 고을[30]에서 약 70여 명의 유생이 제사에 참여하였다. 1678년 한강 정구를 봉안할 때는 初獻 幼學 金處中, 亞獻 幼學 郭希天, 終獻 幼學 郭鉢, 掌議 生員 郭壽厦, 祝 進士 朴世杰・生員 郭壽星 등의 제관과 27명의 집사 및 현풍, 영산, 자인, 창녕, 의성, 칠원 등지에서 49명의 유생이 제사에 참여하였다.[31] 『별사봉안시제집

30) 창녕, 영산, 영천, 하양, 경주, 고령, 성주, 선산, 예천, 청도, 대구, 청송, 초계, 의령, 개령, 함창, 칠원, 삼가, 인동, 거창, 고성, 합천, 영해, 김해, 상주, 안동

사분정기』에는 1695년 郭承華・배신・郭□을 별사에 봉안할 때 참여한 초헌관 유학 郭宗之 이하 33명의 제관・집사와 현풍을 비롯한 성주, 인동, 칠곡, 영산, 고령, 함양, 창녕, 칠원 등에서 59명의 유생이 제사에 참여하였다. 1706년에 원개를 봉안할 때는 초헌관 유학 郭壽漢 이하 29명의 제관・집사와 70명의 현풍지역 유생들이 제사에 참여하였다.[32]

이외에도 서원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參祭錄』(8책), 『謁祠錄』(24책), 『焚香錄』(1책), 『敦事錄』(2책) 등이 있다. 이들 자료에 등재된 인사들은 성주・창녕・고령・대구・칠곡・합천・인동 등 인근 고을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향내 인사들로 나타난다.

『참제록』은 원생들이 춘・추 향사와 墓祭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기록한 것으로 봉안식이 있었던 이듬해 1611년부터 1862년까지 모두 8책이 남아있다. 도동서원 원규 「勤享祀」조에는 "…본원의 향사에…만일 불참자가 있을 때는 문서에 그 성명을 쓰되 有故와 無故의 사정을 아울러 기록하여 나중에 모였을 때 면전에서 책망한다. 일곱 번까지 불참한 자는 명단에서 축출하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한 자는 다섯 번째에 축출한다. 만일 병이 들어 그 사실을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자이거나 혹은 먼 지방에 나가 미처 돌아오지 못한 자의 경우는 모두 이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

31) 이외에도 1618년 立碑시 題名錄, 1677년 한강의 도동서원 종향을 청원하는 郭壽廈 이하 70여 명의 명단과 예조의 啓目, 봉안시 祭文, 1698년 祠宇 중건, 1720년 묘우 개수, 1721년 별사 중수, 1743년 묘우 중수시의 移・還安祭때 작성된 告由文, 집사분정기, 祝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32) 이외에 1676년 10월 10일의 傳敎와 1721년 別祠 改修, 1743 묘우 重修, 을묘년 별사 移建時에 작성된 이・환안 집사분정기, 고유문이 있으며, 말미에 정종로가 지은 「享祀時 別祠用祝告由文」이 있다. 또한 원묘와 별사에 봉안할 때와 각 종 중수・수리로 인해 위패를 이・환안할 때 작성된 고유문, 축문 및 墓祭시의 축문 등을 1책으로 엮은 『祭文』(1605~1720)이 있어 참고가 된다.

있다. 이에 유사가 매 제사 때마다 참석한 자들을 점검하여 참석 여부와 불참시 그 연유를 기록하였다. 불참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우 '無緣', 사유가 분명한 자들은 單刺, 疾病, 遠出, 遠行, 出他, 有故 등으로 표기하였다. 특이한 것은 1625년(인조 3)에 '狀', '京'이라 표기한 것으로서 당시 한강의 諡號를 상소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보인다. 1636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입원생 전원을 기재한 후 참석여부를 각 인명 아래에 표기하다가, 이후부터 참석자와 불참 이유가 명확한 자들만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참제록』과 비슷한 용도로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작성한 『焚香錄』 1책이 있다.

『알사록』은 1692년부터 1870년까지 모두 24책이 있는데, 매월 朔望禮 뿐만 아니라 춘·추 향사와 묘제에 참석코자 內院한 유림들이 묘우에 참배한 기록이다. 謁廟와 참석자의 기록은 2명의 유사가 분담하였으며, 매월 실시되었던 삭망례의 경우 유사의 有故, 出他, 私祀, 疾病 및 雨天 등의 사유로 알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기재된 인물들은 대체로 원생들로서 새로이 院錄에 입록한 자들은 '新進', '新院錄'이라고 부첨하였다. 이들 외에도 부정기적으로 院會 등에 참석하기 위해 入院하거나, 지방관 및 타읍의 유력 인사들의 방문시에도 묘우에 참배한 후 알사록을 작성하였다. 이 중 지방관 및 타읍 인사들은 『심원록』에도 기록하였다.

『돈사록』은 서원 건물의 중수·중건·수즙·수리 등의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감독·격려하였던 인물들을 기록한 것으로 1720년부터 1730년까지 작성된 것과 1791년부터 1848년까지 작성한 것 등 총 2책이 있다. 이 자료는 1720년 이래로 도동서원에서 시행되었던 각 종 工役들의 종류와 都監, 작업과정, 작업일, 매일 동원되는 군정의 수와 동원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동서원의 중수·수리 내역 및 작업일과 동원된 전체 인력의 수을 통해서 공사의 규모도 짐작할 수 있다.[33]

33) 『돈사록』에서 확인되는 각종 수리·수즙·중건 내역을 보면 1720년 묘우 중수, 1730년 서재 중수, 1785년 담장 수리, 1791년 묘우·강당·神門 수리·층계개축·대문改瓦·대문밖

도동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곽 사림세력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로 『尋院錄』 22책이 있다. 이 책은 도동서원을 내방한 인사가 자필 서명한 일종의 방명록으로 비록 5~6책의 결본이 있으나, 1606년부터 1988년까지 기재되어 있다. 『심원록』은 『원임록』과 함께 각 서원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책으로 그 등재여부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등재된 인사는 당시 서원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도동서원의 인적교류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기재순서는 직위(본관), 성명, 字・號, 거주지, 방문일 순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率奴・率馬가 기재되어 있어 주목된다. 17세기 이후에는 거주지가 기재되지 않고 본관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동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부 사림세력을 파악하는데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하다. 확인되는 방문인들의 거주지를 보면 대체로 현풍・성주・고령・창녕・칠곡・합천・대구 등의 경상도 중앙부의 성주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도동서원의 중건에 정구의 역할이 컸고 또한 종향되었다는 점에서 성주를 중심으로 한 한강문인들의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34] 이외에도 현풍현감을 비롯한 인근의 지방관들도 관심도에 따라 서원을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1716년부터 『심원록』의 기재 자격에 변화가 생긴다. 즉, 本縣人의 경우 1692년부터 작성되어 온 『알사록』이 있으

계단개축・강당窓戶改造・도배, 1796년 담장수리, 1797년 강당수리, 1800년 神廚始役, 1808년 主一門중수, 1810년 杏壇創築, 1811년 강당중수, 1812년 담장수리・祠門개조・祠宇始役, 1829년 담장수리, 1831년 9월~1832년 3월 강당중수, 1842년 立碑, 1845년 묘문・협문・庫舍수리, 1848년 묘도비 移竪 등이다.

34) 방문인들을 보면 정구 이후로 張顯光・李潤雨・許穆・柳永詢(巡察使)・李好閔을 비롯해 羅世謙・郭再謙・郭澍・郭再鳴(현풍), 朴廷璠・朴廷琬(고령), 裵尙龍・李舒・李天封, 李彦英(성주), 文景虎・曺挺生(합천), 徐思遠・孫處訥(대구), 成安義・成安仁(창녕), 李大期(초계), 李宜活・李宜潛(경주), 金光繼・金光岳・琴愷・李有道(예안), 成汝信(진주), 鄭四勿・鄭四象(영천), 裵大維(영산), 趙翊(상주) 등 당시 한강문인을 비롯한 경상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방문하였다.

므로, 1716년부터는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초반이후부터 모두 타지역 인사들만이 기록되고 있다.

도동서원의 사회적 활동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부 통문을 1책으로 엮은 『各處通文謄草』가 있다. 여기에 수록된 통문은 각종 是非·문집 간행·원사 복설 등의 사안과 직접 관련된 서원·향교·문중·개인·儒稧 등에서 보내온 것으로 19세기 중반 이후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별로는 안동·경주·대구·밀양·초계·합천·성주·고령·상주·예안·청도·경산 등과 같이 주로 영남 중남부권을 아우르고 있다.[35] 이는 도동서원이 이 일대에서 가지는 위상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영남지역 유림활동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3) 서원 경제 자료

서원의 경제와 관련된 자료로는 일반적으로 『土地案』, 『奴婢案』, 『院屬案』 등이 있다. 도동서원의 경우 16세기 말부터 1702년까지의 『노비안』 1책이 있다. 여기에는 모두 710구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방식은 각 노비의 부모의 신분과 성명, 所生 순서, 이름, 나이 순서이며, 혼인했을 경우 夫妻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도망·사망한 자는 확인되는 경우 연도를 함께 기록하였다. 이외에 드물지만 保·軍과 같이 군역 여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16세기 말로 추정되는 「本奴婢秩」에는 노비의 구분없이 도망 8, 사망 11, 나이 미상 7 등 모두 26구가 확인된다. 도망과 故가 많은 것은 이 노비안이 재작성될 때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66년까지 대체로 20~40구 정도였다가 1681년에 110구로 증가하고, 1702년에는 다시

35) 경주의 玉山書院, 양동 유림 및 안동의 屛山書院·하회, 虎溪書院, 예안 陶山書院 등에서는 孫李·屛虎是非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상주 愚山書院과 청도 紫溪書院, 밀양 儒會에서는 『愚伏集』, 『濯纓集』, 『佔畢齋集』重刊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외에는 대원군 당시 훼철된 원사를 復設하면서 위패를 다시 봉안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길 요청하는 내용들이었다.

227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36] 이는 生産에 의한 자연증가의 결과이지만, 1681년 이후 노비안에 원노비를 상세히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632년에 노2, 비1, 1647년에 비 2구가 향교에서 서원으로 이속되었으며, 이후 1693년에 노 8, 비 6구가 다시 향교로 환송되었다. 이는 도동서원과 현풍향교 간에 중건 당시의 상보적 관계에서 비사족들의 향교 출입 증가에 따른 향교의 질적 변화로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681년 이후의 노비안에 타관노비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도망노비 중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였다. 이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성주・고령・창녕・의령・선산 등의 지역으로 나타난다.

도동서원의 院屬 관련 자료는 『院生案』 7책, 『募入案』 3책, 『資費案』 2책, 『儒生案』 1책이 있다.[37] 이들 책들은 구체적인 작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8세기 중반 내지 19세기의 것으로 보이며, 모두 관의 手決이 있는 것

---

36) '본노비질' 이후에 수록된 노비수는 시기별로 1628년 12구[노3(사망2・미상1), 비9(사망6・미상3)], 1632년 18구[노11(도망3・사망1・미상7), 비7(사망1・미상6)], 1647년 8구[노3(도망2・미상1), 비5(미상5)], 1634년 21구[노11(壯3・사망4・미상4), 비10(老2・사망3・미상5)], 1638년 33구[노13(壯4・弱1・미상8), 비18(老1・壯7・弱9・사망1)], 1647년 24구[노13(壯3・弱6・도망1・미상3), 비8(壯3・弱2・미상3)], 1652년 39구[노19(壯7・弱12), 비20(壯12・弱8)], 1666년 29구[노17(도망6・사망4・미상7), 비12(도망1・사망3・미상8)], 1681년 110구[노55(老1・壯21・弱18・도망11・사망4), 비55(老3・壯28・弱17・도망6・사망2)], 1693년 163구[노83(壯23・弱30・도망9・사망21), 비80(老3・壯39・弱21・도망7・사망10)], 1702년 227구[노118(老3・壯37・弱31・도망13・미상4), 비109(老4・壯40・弱30・도망13・사망20・미상2)]이다. 나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미상으로 표기하였다.

37) 서원은 노비뿐만 아니라 募入・投託・仰屬人으로 표현되는 避役을 목적으로 한 원생・양인・下典・守直軍・匠人 등 광범위한 원속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17세기 중반이후부터 노비를 대신하는 서원 경제적 확대를 위한 한 방안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도동서원 강당에도 걸려 있듯인 1676년(숙종 2) 10월의 전교에서 도산・옥산・도동서원 등 문묘종사제현을 봉사하는 서원에는 다소 폐단이 있더라도 모입자, 즉 원속을 勿侵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이 서원 원속 증가의 한 요인이 되었다. 피역인들의 서원 투속은 대체로 保奴・守直 등 賤役으로 투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7세기 중반이후부터 경제적 부를 매개로 면역 또는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한 원생으로의 투속도 많았다. 서원측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을 원생으로 모입하였지만, 기존의 양반 입원생과는 엄격히 구별하였다(이수환, 앞의 논문, 2000, p.150).

으로 보아 私募案은 아니고 관에서 인정한 안이었다. 『원생안』 7책에 나타난 원생수는 18~35명, 『모입안』 3책에는 각 15명과 碑閣直 2명, 『자비안』 2책에는 10명과 비각직 2명이 등재되어 합계 45~62명 정도로 나타난다. 이들은 관에서 인정한 수이기에 사망·도망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充定하였다. 이들 모입자는 대부분 牟老·山田·津村·烏舌·瑜伽·縣下 등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양인들이다. 이들은 서원내 각종 수직을 담당했지만 대부분이 피역의 대가로 일정량의 禮錢을 납부하였다.

『유생안』은 19세기 이후의 것으로 『원생안』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유생이 기존 양반유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서원 운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양반유생 중심의 서원운영체제가 점차 약화되면서 서원측에서 이들 양인들의 모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38]

이외에 『月次鐵物錄』 1책은 중건 초기인 1616년부터 1675년까지 도동서원 소속 山直의 서원에 대한 철물 납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산직이 매달 서원측에 捧上한 낫·도끼의 철물 수량과 그것을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였다. 도동서원은 중건 당시 조정으로부터 封瑩을 수호할 산직 10명을 획급 받았는데, 이들은 피역을 대가로 서원 측에 노비신공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하였다.

산직 10명 중 1명은 都山直이고, 9명 중 兒弱 1명을 제외하고 8명이 매월 鎌과 斧를 봉상하였다. 이외에도 건물수리·중창 등이 있을 시에는 필요한 鐵釘을 봉상하기도 했다. 낫은 每名이 1월에 1柄씩, 도끼는 6월에만 3명에 1자루씩 봉상하고, 단 5월과 9월의 方農시에는 停捧하도록 규정하였다. 도

38) 『유생안』에 입록한 자들은 서얼과 양인으로서 신분을 상승하여 새롭게 양반에 편입한 新鄕들로 짐작 된다. 이들은 19세기 이래로 서원내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19세기 말에는 院任의 소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양반유생(舊鄕)들과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었으며, 이 문제가 조정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고종실록』 권36, 고종 34년(1897) 8월 16일;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8월 16일, 고종 35년(1898) 1월 25일, 2월 21일).

끼의 경우 현물 대신 錢으로 봉상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들 산직의 봉상이 노비신공에 상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들 산직이 매년 서원 측에 봉상한 내용은 규정과는 조금씩 달랐다. 兒弱이 봉상하기도 하고, 5·9월뿐만 아니라 6·7월에도 停捧하기도 하고, 12월에는 雪때문에 정봉하기도 하였다. 실제는 산직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에 따라 未捧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봉상된 낫·도끼도 인근 서원·서당 또는 유림댁에서 推去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서원전과 관련해서는 신축·경자년의 『田畓案』(2책)과 『田庫收稅成册』(1책), 『院田收稅記』(1책)가 있는데 이를 통해 도동서원의 전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道東書院田畓大帳』은 1661년(신축) 2월에 현풍의 21개 고을과 고령의 3개 고을에 산재한 도동서원 소유 전답 총 10결 43부 4속을 기록한 것이다. 전답은 현풍에 9결 82부 6속, 고령에 60부 8속이 있었는데, 이 중 院基·位田畓, 寺基·寺位, 陳田 등은 면세의 혜택이 주어졌다. 1678년에 작성된 『道東書院田畓修正記』와 더불어 17세기 중·후반 도동서원 전답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院田收稅記』는 임오년(1762?)에 도동서원 원전에서 收稅한 기록이다. 도동서원은 가뭄과 도망, 은닉 등의 병폐가 막대하여 田結에서의 出稅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자, 매년 10월 향사 때에 원전의 결부수와 토지의 척박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收稅하도록 영원히 定式으로 하였다. 즉, 토질의 등급에 따라 일등은 2전 5푼, 이등 2전, 삼등 1전 5푼, 사등 1전, 오등 7푼, 육등 5푼을 分定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西部城底田, 水所也員, 縣內鳳山員, 烏舌, 山田 등지의 作人 30인에게서 11냥 6푼을 수세하였다. 기재 방식은 원전 소재지, 소작인 성명, 전결수, 원전 등급, 납세금액 등의 순이다. 말미의 無稅秩에는 放賣·秋納·公需價·碑閣·舊基 등과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 등에는 수세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도동서원에는 『正案』(17책), 『別補正案』(11책), 『屯租記』(7책),

『賭地冊』(5책) 등이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는 19세기 말의 몇 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도 단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말 이래로 서원 경제의 변화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의 면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4) 기타 관계 자료

도동서원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 외에도 건물 중수, 교육, 각종 稧와 관련한 자료가 많다. 이외에도 도동서원과 직접적인 관련된 자료는 아니지만 현풍 향안과 인근 송담서원 관련 자료가 남아있어서 참고가 된다.

18세기 이래로 대부분의 서원이 가문 중심적으로 변모한 시기에 도동서원 중수와 관련한 자료는 에 대한 열읍의 관심은 당시 영남에 있어서 도동서원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重修物力都摠』은 1803년 시행된 서원 전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 시 소요된 막대한 비용을 본손 및 본읍과 열읍의 각 교원과 문중 등의 부조로 충당한 내역이다. 본손이 330량, 본읍 향교 15량, 禮淵·尼陽書院 각 9량, 육영재 3량, 別補賣畓錢 553량 및 향내 30여 문중 및 宅에서 91량 8전, 院生完文錢 90량, 원생·교생 부조전 각 10량·4량, 賣瓦錢 36량, 이외 관가 10량 등 합 1,160량 8전이었다. 이외 열읍 부조는 성주 60량, 청도 25량, 의령 11량, 고령 19량 5전, 초계 27량, 영산 15량 5전, 창원 6량, 대구 14량, 창녕 34량, 합천 15량, 칠원 10량, 거창 9량, 함안 1량 등 13읍의 교원과 문중에서 모두 247량을 부조하였다. 이에 부조량은 도합 1,407량 8전이었다.

이후 창녕의 楊氏문중 1량과 성주 倫洞의 박씨문중에서 3량을 보내오고, 賣松錢 52량 1전 5푼이 추가로 들어왔다. 1804년에는 三嘉의 古巖書院 1량, 晋坡의 김씨문중 1량, 大坪의 林氏문중 1량이, 1805년에는 靈山 道泉의 裵氏문중에서 2량을 보내와서 別補에 붙였다. 이중 1,394량 4전이 중수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65량 5전 5푼은 본원 債錢을 갚았다. 이때의 중수는 열읍 사림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으며, 10월 3일 낙성연에서는 백일장을 겸

하여 인근 6~7개 고을의 많은 유생들이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1858년(철종 9) 중수시에 작성된 『重修物力都摠冊』과 『重修時執事分定冊』이 있다. 『중수시집사분정책』은 건물 중수로 위패를 이·환안하면서 집사를 분정한 것을 기록한 것이며, 『중수물력도총책』에는 중수시 소용된 비용만을 적고 있어서 중수비 마련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총 중수비로 1,545량 3전 4푼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1803년의 중수시보다 많은 것으로 1858년에 전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도동서원은 조잔해진 서원을 복구하기 위하여 각종 稧를 조직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補院稧案』 類 6책이 그러하다. 1899년 도동서원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현풍 유림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補院稧는 근래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관계 자료를 남기고 있는데, 『補院稧案』은 계원들의 명단을 적은 것으로 1899년 2월 보원계를 만들 당시에 작성한 稧案 1책과 1899년부터 1968년까지의 계안 1책이 있다.

『補院稧收錢錄』은 1899년부터 1939년까지의 收錢한 내역을 적은 것이다. 1899년에 수전한 규모를 보면 2월 1일에 본읍 유림 117명으로부터 38량이 追入되었고, 여기에 이자 113량 5전을 합해서 모두 344량 5전이었다. 이러한 보원계를 통한 수전은 해마다 계속되어 1904년에는 이자를 합쳐 1,937량 9전 7푼이나 되었고, 이 중 1,437량으로 답 19두락지를 매득하여 항구적인 서원경제의 확대를 기하였다. 이후에도 추입은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읍 뿐만 아니라 고령·창녕·성주·합천·인동·경주·칠곡·군위·상주·봉화 등 열읍 유림들도 적극 참여하였다.[39]

교육과 관련한 자료로 『育英齋完議節目』과 『學稧案』 등이 있다. 육영재

39)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앞의 책, 1997, p.10. 이외에도 1921년 『補院稧錢植本案』, 1928년 『補院稧錢收捧記』, 1945년 『補院稧續案』 등이 있다.

와 학계의 등장은 18세기 이후 재지사족의 위축과 수령권의 강화라는 구도 속에서 나타났다. 육영재는 조선후기 광범위하게 운영되던 養士齋의 異稱으로 보여 지는데, 실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하였던 안동 일대에서의 양사재 건립은 부진하였던 반면, 사족의 영향력이 취약하였던 지역은 건립 빈도가 높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英陽의 경우 사족들이 양사재 齋任에 대한 임의 임명에 반발하여 수령이 재정적 감독을 통해 힘의 우위를 확인하면서 양사재를 사실상 官學化 하였다.[40] 이처럼 양사재에 대한 사족들의 독자적인 운영은 19세기 들어 수령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 일반화되었다.

도동서원 육영재 역시 18세기 후반이래로 수령들에 의해 적극적인 진흥책이 모색되던 일련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육영재는 대체로 향교와 연결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는 사실에서 현풍향교와 도동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였거나, 혹은 도동서원 초기에 있었던 養蒙齋의 건물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41]

도동서원 소장 『育英齋完議節目』은 1787년(정조 11) 겨울에 현감으로 부임한 趙廷獻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그는 이듬해인 1788년(정조 12) 2월부터 8월까지 도동서원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그 해 4월에 쓴 「育英齋序」에 의하면 육영재 選士의 규칙은 이미 전임 현감 金光泰에 의해 제정되어 운영된 사실이 있다. 김광태는 부임 후 도동서원 원장을 지내면서 舊교동에 중건되었던 현풍향교를 1759년(영조 35)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인물이다.[42]

---

40) 정순우, 「도동서원의 교육활동과 사족의 동향」, 『도동서원의 재조명 학술대회 발표문』, 2013, p.88.

41) 현재, 玄風鄕校에는 1787년 育英齋 完議가 남아있다. 이를 통해 도동서원과 함께 육영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玄風鄕校」, 『慶北鄕校資料集成』(1),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p.427). 이외에도 『육영재완의절목』의 내용 중 '校院'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육영재 거접의 주체가 현풍향교와 도동서원이었음을 방증한다(정순우, 앞의논문, 2013, p.92).

42) 김광태는 1756년 10월부터 1760년 봄까지 도동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도동서원의 육영재는 18세기 후반 수령들에 의해 적극적인 진흥책이 모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3)

김광태는 서문에서 선현의 유풍이 남아있고, 英豪한 인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樂育'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사실을 슬퍼하고 새로운 인재양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居接시의 폐단과 재임 선출시의 사사로움이 있는데, 이는 향중에서 우려하고 거접하는 유생들이 부끄러워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서 재임과 유사는 매년 罷接시에 接中에서 선출하고, 거접할 때는 관에 품부하여 백일장을 열고 15인을 抄選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이전과 같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44)

거접에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함에도 이를 감내하고 거접을 정례화할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육영재완의절목』의 상당 부분은 재정과 경제적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 육영재는 자체의 齋畓이 구비되어 있어, 거접시에 供饋는 어느 정도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곡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아 거접에 관한 최소 경비에 머물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거접에 참여한 인물은 주로 현풍곽씨와 서흥김씨 일족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訓長은 郭漢相을 포함한 현풍곽씨 2인과 嚴圭 등 4인으로 구성되었고, 接儒 15인 중 현풍곽씨가 11인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김씨가 3인, 成씨가 1명 참여하였다. 1788년 거접록에는 14명 중 곽씨 10인, 김씨 3인, 曺씨 1명이 참여하였다. 1789년 5월의 거접록에는 16인이 수록되어 있는데 곽씨가 13인, 김씨 2인, 조씨가 1인으로 사실상 현풍곽씨 중심의 거접이 시행되었다.

이어 1789년에 完議에 대한 개록이 있었다. 운영 경비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이 있으면 향후 재임에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목을 보아서 운영 과

43) 정순우, 앞의 논문, 2013, p.87.
44) 「育英齋序」, 『育英齋完議節目』(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pp.452~453).

정에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시행하던 거접을 式年으로 바꾸었으며, 재답의 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도동서원『學稧案』1책은 1854년부터 1867년까지 학계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이다. 이 학계는 1854년 현풍에 소재한 현풍곽씨, 서흥김씨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이후 1855・1856・1857・1859・1860・1864・1866・1867년에 追入이 있었다. 추입된 인사들 중 타읍 출신은 1857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고령・대구・창녕 등에서 1~2명이 있었지만, 1857년부터 고령・성주・진주・함안 등으로 확대되고, 추입 인원도 대폭 증가하였다. 이처럼 현풍과 인근 고을의 사족들이 참여하는 학계가 만들어진 것은 사족들의 향촌 내 지위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학계의 설립목적은 18세기 중반이래로 사족 내부에서의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소수의 사족만으로는 19세기 말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뜻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강학과 교육만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사론을 결집하는 곳으로 현풍 일대의 수원으로서 오랫동안 지역 유림을 선도하였던 도동서원이 적합하였던 것이다. 이후 도동서원의 쇠락한 교육적 기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학계를 만들어 이를 통해 지역 유림의 여론을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세기 중반이후 영남지역에서는 宗族, 門中 내지 洞里 단위로 학계를 조직하여 강학과 교육활동에 힘써왔다. 그렇기에 처음의 학계 조직은 가문내 인재들의 교육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혈족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후 점차 고을 내 사족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강학을 이유로 정기적 모임을 가졌으며 이때에 사족들의 공동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45] 도동서원 학계 역시 운영자금을 모아서 경영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5) 吳世昌 外,『嶺南鄕約資料集成』,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가 없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도동서원에서는 불필요한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서원내의 각종 祭器, 食器를 포함한 雜物과 書冊 등의 종류와 수량을 별도의 목록으로 기록하였다. 『傳掌記』(2책), 『雜物傳掌記』, 『道東書院書冊目錄』, 『院中物件記』(2책), 『書院物件目錄』, 『…物件目錄·書冊目錄·財産收入簿』 등이 그러한 산물이다. 이처럼 서원 물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중간에서 下輩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을 막고, 새로운 院任이 참고하여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이었다.46)

『잡물전장기』를 보면 물품을 보관하는 곳에 따라 神廚所藏祭器와 別祠祭器, 院內雜物, 講堂雜物로 구분하여 원내의 모든 물품을 기록하였다. 원중잡물에는 도끼, 솥, 식기, 수저, 젓가락, 그릇, 돗자리, 食床, 瓮 등의 생활기구와 典籍冊, 奴婢案, 院屬案 등이 있었다. 특히, 강당 내부에는 서원 측에서 중요시하는 院錄, 院長案, 上有司案은 櫃에 넣어 보관하였으며, 토지와 노비의 明文은 買得明文과 無買得 명문, 義財畓명문으로 구분하여 정리·보관하였다. 또한 이전에 없던 물품이 새로 갖춰졌을 경우 '新備'라 하여 별도로 기재하였다. 1730년의 『雜物傳掌記』 「新備」조에는 「景賢錄冊板」 74판, 「庚子榜目板」 11판, 尋院錄·謁祠錄 所藏櫃 1坐 등이 보인다. 「경현록」판과 「사마방목」판은 1730년 내지 그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서원을 방문하여 알묘한 인사들을 기록한 심원록과 알사록은 이때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서 별도의 궤에 담아 동·서재에 나눠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景賢錄重刊時下記』, 『景賢錄本院保有及頒帙記』, 『畢齋金先生門人錄分冊記』, 『畢齋門人錄…下記正案冊』 등이 있다. 이들 자료는 18세기 초 『경현록』을 중간한 후 이를 반질한 내역과 중간시의 수·출입금을 적은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乙酉·甲申 謄錄」, 『玉山書院誌』, 1993, pp.159~163.

것, 19세기 말에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록을 중간하면서 반질한 내역과 소용된 금액을 정리한 것들이다. 특히, 부조금의 내역을 통해 당시 도동서원의 사회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책판 간행의 절차와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동서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향촌사회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현풍현『鄕錄』2책과 1621년의 향록 작성 당시에 제정된 규정과 계축년에 일부 고친 규정을 1786년에 謄書한『鄕案設立初定規謄草』가 소장되어 있다. 향록은 鄕案의 異稱인데, 이러한 향안은 17세기 이후 경재소가 폐지되면서 향청이나 향교 또는 서원에 각 1부씩 비치하였다. 도동서원에 있는『향록』도 이러한 연유로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풍향교에도 도동서원과 작성연대가 같은『향록』2책과『향안설립초정규등초』가 남아있다는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47]『향안설립초정규등초』는 향약적인 요소를 전혀 가미하지 않은 대표적인 鄕規로 보인다. 이 향규에는 향안 등재와 鄕任선출, 향임자의 직무와 제재, 元惡鄕吏 규찰과 貢賦, 搖役 부과, 鄕會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향록』은 1621년부터 1791년까지의 상권과 1814년부터 1851년까지의 하권으로 되어 있다. 이 향록을 통해 당시 현풍지역 사족의 분포를 짐작할 수 있다. 향안에 의거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등재된 인사를 분석하면 玄風郭氏와 瑞興金氏를 비롯한 朴·嚴·鄭·蔡·羅·裵·成·李 등 10개 성씨에 총 545명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 현풍지역 재지사족을 총망라한 것으로, 이 시기 도동서원『입원록』에도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 이 중 현풍곽씨와 서흥김씨가 전체의 76%로서 압도적 다수를 나타난다.[48] 이

4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玄風鄕校」『慶北鄕校資料集成』(1),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48) 향록 작성 이전의 현풍현 재지사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1610년 7월에 작성한 현풍향교『靑衿錄』이 있다. 여기에는 교생들의 명단인 校案과 어린 학생들의 명단인 童蒙 및 초시 합격자의 명단(入格)을 정원 외로 표기하고 있다. 교안에는 割名한 7명을 제외하고, 모두 23명이 나온다. 이들은 곽씨 10명, 朴氏 6명, 金氏 4명, 嚴氏 1명, 蔡氏 1명, 許氏 1명 순으

는 이들 양 가문이 현풍지역의 주도세력이었음을 나타낸다. 이들 가문에 비해 가세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도동서원 및 향안에 참여하여 현풍을 대표하였던 가문으로는 淸道金氏(金仁壽 후예), 慶州·善山金氏, 密陽朴氏(朴惺 후예), 順天朴氏(朴允康 후예), 寧越嚴氏(嚴誠 후예), 平康蔡氏(蔡石堅 후예), 壽城羅氏(羅世謙 후예), 星州裵氏(裵嗣宗 후예), 成·李·鄭氏 등이 있다.[49]

이외에는 大庵 朴惺(1549~1605)을 제향한 松潭書院의 자료가 있다.[50] 이 자료는 대원군 훼철시에 이관된 것으로 짐작되는데,『任案錄』(1책),『院任案』(1책),『謁祠錄』(8책),『尋院錄』(3책),『院生案』(1책),『儒錢收合記』(1책), 明文 1건 등이다. 특히『알사록』은 서원건립 당시부터 19세기 초까지의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다.

2. 도동서원 소장 서책과 책판

1) 도동서원 소장 서책의 현황과 특징

서원은 사림 교육과 先賢 祭享의 기능을 가진 곳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講學과 藏修를 위한 많은 서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도동서원은 영남의 首院 중 하나로서 많은 典籍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조성 경위는 다음의

로 나타난다. 뒤이어 '童蒙'에는 朴氏 3명, 文氏 1명, 魚·蔡氏 각 1명 등 총 6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동몽은 정원 외로 두고 교육 시켰는데, 성장해서는 校生으로 입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청금록의 마지막에는 '入格' 명단이 있다. 모두 16명이 확인되는데, 郭氏 7명, 金氏 5명, 朴氏 2명, 嚴·辛氏 각 1명 순으로 나타난다(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편, 앞의 책, 1992, p.396). 이 중 郭澍(入格), 郭𨛦, 郭崘, 金致信, 郭揚馨, 朴敏修, 金克輝, 郭淨 등은 1610년의 도동서원『入院錄』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1610년을 전후한 시기 현풍지역은 곽씨, 박씨, 김씨 등이 주요 사족이었는데, 특히 土姓인 현풍 곽씨가 지역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향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49) 이수환, 앞의 논문, 2000, p.126.

50) 송담서원은 1694년(숙종 20)에 대암 박성을 제향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처음에는 여헌 장현광에 의해 1634년(인조 12) 현풍 쌍계에 서원이 건립되었지만, 화재로 봉안하지 못하였다. 1677년(숙종 3)에는 정구, 배신과 더불어 도동서원에 종향을 추진했지만,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향중 사림이 발의하여 박성의 묘소가 있는 대니산 기슭에 서원을 건립하였다.

네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도동서원이 사액될 때 나라에서 내린 '內賜本'이다. 『도동중창사적』에 의하면 도동서원의 전신인 雙溪書院에는 1573년 사액 당시에 국왕이 내려준 서적을 포함하여 수천 권의 藏書가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건물과 함께 모두 燒失되었다고 한다.[51] 그러나 1605년 서원을 중건한 후 1607년에 '道東'으로 재사액이 되고 1610년에 奉安을 하였는데, 같은 해에 한훤당이 文廟에 종사되면서 도동서원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서적의 頒賜는 문묘종사 대현서원을 중심으로 명조, 선조, 영조, 정조대에 총 29종이 이뤄졌는데 특히 정조대에 많은 도서가 반사되었다. 내사본은 주로 四書五經 위주의 經學이 16종으로 대부분을 이루며, 이외에 성리서와 類書, 사서와 傳記書, 주자의 문집이 들어 있다.[52] 결국, 도동서원에도 이처럼 다수의 내사본[53]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2005년 조사에서는 『五經百編』(5권 5책)과 『春秋』(27권 10책), 『御定奎章全韻』(1책) 등의 3종만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내사본과 제향인의 手澤本 등은 서원 측에서도 중요시 여겨 별도의 책함을 만들어 특별히 보관해 왔는데, 도동서원에서는 내사본인 『五經百編』과 『春秋』가 그러하였다.

둘째, 지방관아와 감영에서 도서를 간행하여 보낸 경우로서 관아에서 간행했거나 비축하고 있던 도서를 보낸 경우이다. 일례로 옥산서원의 경우 경

51) 『선조실록』 권7, 6년(1573) 11월 28일(갑진); 「萬曆三十二年(1604) 請助皇書」(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앞의 책, 1997, p.16).

52) 김윤식, 「朝鮮朝 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 『서지학연구』 41, 2008, pp.303~306.

53) 도동서원은 경주 옥산서원과 더불어 1573년 경상감사의 계청으로 사액되어 서적이 頒帙되었다. 옥산서원은 사액 이후에도 1577년과 1590년에 걸쳐 서적이 내사되었는데, 도동서원에도 동일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외에도 옥산서원에는 수시로 서적이 내사되었는데, 『書冊都錄』과 『傳與記』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사본은 『周易』·『詩傳』·『書傳』·『春秋』·『禮記』·『論語』·『御定春秋四傳』·『論語諺解』·『孟子大文』·『孟子俱解』·『中庸俱解』·『性理大全』·『朱子大全』·『鄕禮合編』·『國朝儒先錄』·『御定朱書百選』·『朱子語類』·『御定奎章全韻』·『御定五經百編』·『御製雅頌』·『御製大學續或問』등이 있다. 도동서원 역시 옥산서원과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부에서 『東萊先生音註唐鑑』을, 慶尙監營에서 『書傳大全』·『二倫行實圖』·『孟子諺解』·『孟子集註大全』 등을 보내왔다. 도동서원 역시 지방관의 흥학책에 편성하여 이들 서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1969년 장서 목록에서도 이 서책들이 확인 된다.

셋째, 인근의 서원이나 문중에서 서적을 간행하여 보내오거나, 자신들의 장서를 기증한 경우이다. 1969년의 조사에서는 도동서원 소장 서적의 약 70%가 개인 文集이었다. 이는 문집 저자의 후손내지 그를 제향하는 院祠에서 간행하여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 藏書를 기증하는 경우로는 1868년 易東書院이 毁撤된 후 그 장서가 도산서원으로 이관된 사례가 있다. 대원군의 원사 훼철시에는 훼철 대상 원사의 재산과 기물은 일반적으로 향교로 이관하였지만, 특별히 緣故가 있는 미훼철 서원으로 이관되기도 했던 것이다. 도동서원 역시 대원군 훼철시에 인근의 송담서원에서 운영 자료의 일부가 이관되었는데, 확인은 어렵지만 이때 송담서원 藏書 중 일부도 함께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는 서원 자체의 판단에 의해 간행하거나 구입한 전적들이다. 일반적으로 서원에서의 도서 구입은 원생 교육에 필요한 小學, 四書五經 등의 經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史書와 詩文類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도동서원의 자체 간행본으로는 제향자인 김굉필의 문집인 『景賢錄』과 『寒喧先生司馬榜目』이 있다. 여기에 한훤당의 스승인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록이 있었다. 『점필재문인록』은 19세기 말 加筆·冒錄한 사건이 발생하자, 公議에 따라 도동서원에서 이를 수정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藏書를 보유한 도동서원은 여타 서원이 그러하듯, 서적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 향내의 도서관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유생들이 책을 열람하면서 파손과 분실 등이 빈번해지자 일부 서원에서는 별도의 서적 관리 규정을 만들거나, 院規로서 열람과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였다.[54]

현재 도동서원에서는 별도의 서책 관리 규정이 확인되지 않지만, 19세기

이래로 『書冊目錄』을 작성하여 서적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 院任선출 등의 어려움으로 관리가 소홀[55]해지면서 대부분의 전적을 亡失하여 2005년 일반동산문화재 조사에서는 내사본을 포함하여 총 7종 23책만이 확인되었다.[56] 뿐만 아니라 도동서원 藏書를 기록한 자료들도 망실되어 2005년 조사 이전의 도동서원 藏書의 종류와 규모를 유추할 만한 자료는 1969년 국회도서관에서 조사한 것뿐이다.[57] 당시에 조사된 도동서원 장서는 총 95종 529책으로 이중 66%가 19~20세기에 간행된 것이었다.[58] 이를 정리하면 옆의 <표 3>과 같다.

---

54) 옥산서원에 소장된 『書冊現在都錄』의 1862년 5월 完文에는 서원 서책을 '院門外不出'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서 퇴계가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1862)에 이르러 도서의 분실이 잦은 까닭에 이 완문의 내용을 판각하여 經閣의 門楣에 달아 경계토록 하고, 任司가 열람한 날짜와 사람, 책명을 기록한 후 직접 돌려받고 혹 그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丙午 4月 書冊借去錄』 1책이 옥산서원에 남아있다. 도산서원 역시 소장 도서의 반출과 일반인들의 광명실 출입을 院規로서 금지하고, 출입과 열람시에는 원임 3인의 입회하에 가능하였다(이수환, 앞의 논문, 2012, pp.427~430).

55) 현재 도동서원은 2002년에 도동서원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서원 원임의 인선, 향례시 집사 천망, 서원 재산 운용 등 서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있다. 위원은 현풍 유림들 30~50명이 참여하는데, 이는 1990년대 이래로 원임의 선발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실제, 원장은 1990년 이래로 선발하지 않으며, 도유사를 중심으로 향유사와 별유사를 두어 서원의 집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3, pp.264~265).

56)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도동서원·인흥서원』, 2005.

57) 도동서원에는 19세기 초·중반에 새롭게 작성한 『道東書院書冊目錄』과 『…附物件目錄·書冊目錄·財産收入簿』가 있었지만, 현재 분실된 상태이다. 그렇기에 도동서원 2005년 조사 이전의 장서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69년에 국회도서관에서 실시한 서면 조사시 작성한 목록이 유일하다.

58) 1969년 이춘희의 조사에서 확인되는 각 지역 대표 서원의 장서 현황은 영주 소수서원 141종 563책, 함안 남계서원 59종 317책, 경주 옥산서원 866종 4,111책, 안동 도산서원 907종 4,338책, 안동 병산서원 1,071종 3,039책, 장성 필암서원 132종 595책, 논산 돈암서원 78종 245책 이었다. 이중 소수·옥산·도산서원에는 임란 이전에 간행된 서책이 다수 확인되지만, 절대 다수는 도동서원처럼 19~20세기에 집적된 것이었다(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

<표 3> 1969년 조사 당시 도동서원 소장 서적[59]

번호	서명	저(편)자	간행연대	수량	비고
1	江湖先生實記	金鎭植	1934	5권 2책	石版本
2	敬菴先生文集	吳汝橃	1898	1책(零本)	活字本
3	景賢錄	金夏錫	1719	6권 3책	木板本
4	古今堂集	盧德奎	1908	4권 3책	木板本
5	孔子實記	元泳義	1921	4권 1책	現代活字本
6	槐軒先生文集	郭再謙	1845	4권 2책	木板本
7	九居堂先生逸集	鄭慶興	1933	2권 1책	木活字本
8	龜峰先生遺集	權德麟	-	2권 1책	木板本
9	歸巖先生文集	李元禎	1937	12권 6책	木板本
10	近思錄	朱熹・呂祖謙	-	2책(零本)	木板本
11	洛川先生文集	裵紳	1862	2권 2책	木活字本
12	南皐文集	宋奎弼	1918	6권 3책	古活字本
13	聾巖先生文集	李賢輔	1935	5권 2책	木板本
14	大溪先生文集	李承熙	1927	36권 20책	新鉛活字本
15	大峯先生文集	楊熙止	1935	4권 2책	木板本
16	讀書要語	薛瑄(明) 著	-	1책	筆寫本
17	東岡先生文集	金宇顒	-	4책	筆寫本
18	東渠集	宋鼎錧	1926	4권 2책	木板本
19	東國李相國集	李奎報	1913	5책(零本)	活字本
20	東溟先生集	金世濂	1737	6권3책(零本)	陶活字本
21	桐巢先生遺稿	南夏正	1927	7권 4책	石版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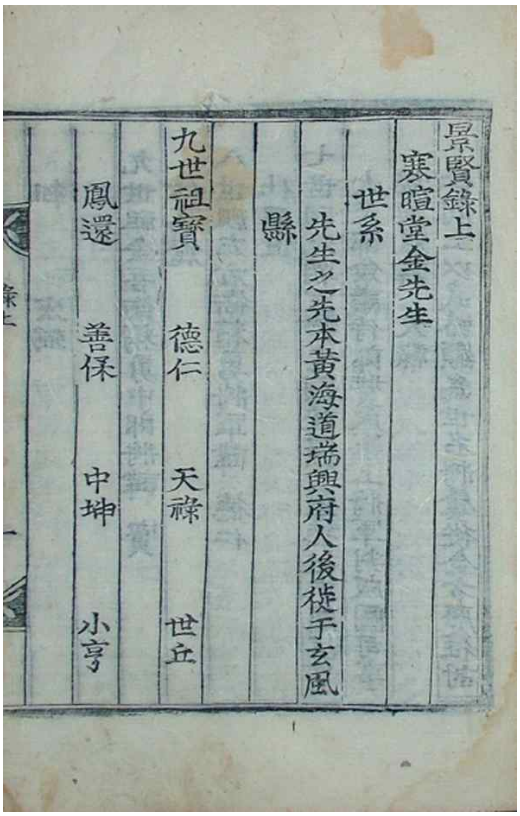
59) 이 표는 李春熙 編『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을 저본으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DB와『영남문집해제』(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8)를 참고하여 편집하였다.

22	東湖先生文集	文德敎	–	2권 1책	木板本
23	忘憂先生文集	郭再祐	1629(?)	2권 1책	木板本
24	茅溪先生文集	李命培	1907	2책(零本)	木板本
25	武陵雜稿	周世鵬	1859	2책(零本)	木板本
26	文獻錄	–	–	1책	–
27	眉山文集	鄭道休	1929	4권 2책	木板本
28	庵村先生實紀	黃源轍 編	1925	2권 2책	石版本
29	碧桂文集	金浩龜	1931	4권 2책	木板本
30	北厓先生文集	金圻	1897	4권 2책	木板本
31	四書解	–	–	1책	
32	四賢行錄	郭承華・裵紳・元槩・郭[走日]	1898	1책	筆寫本
33	三綱行實圖	世宗 命編	–	1책	木板本
34	西厓先生文集	柳成龍	1894	4책(零本)	木板本
35	書傳大文	–	16세기 중엽	2권 2책	乙亥字本
36	雪川先生文集	李鳳祥	20세기 초	4권 2책	–
37	聖學輯要	李珥	–	7권 4책	木板本
38	素山先生文集	李浩祐	1959	5권2책(零本)	石印本
39	蘇齋先生文集	盧守愼	1652	10권 8책	木板本
40	小學	–	–	2책	木板本
41	松岡集	金聲夏	1923	8권 4책	木板本
42	守口齋先生文集	周孟獻	1907	4권 2책	木板本
43	是庵先生文集	任華世	1809	4권 2책	木板本
44	顔子大全	崔宗瀚 編	1931	5권 2책	石印本
45	巖居先生文集	朴永魯	1931	6권 3책	石版本
46	冶隱先生集	吉再	1858	6권 2책	木活字本
47	御定奎章全韻	正朝 命編	1796	1책(상・하)	木板本
48	旅軒先生文集	張顯光	19세기 말	4책(零本)	木板本
49	旅軒先生性理說	張顯光	18세기	8권 6책	木板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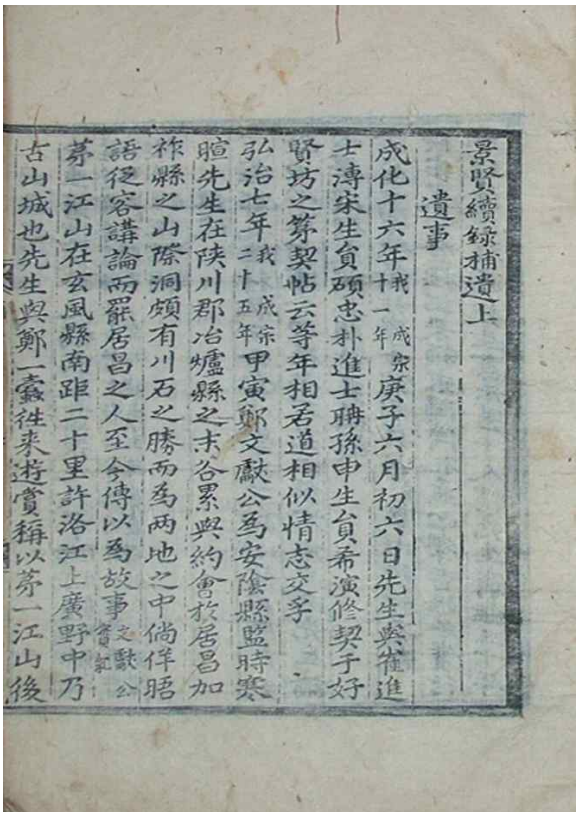
50	易學圖說	張顯光	17세기	8권 8책	木板本
51	濂洛風雅	金履祥(元)編	–	1책	筆寫本
52	潁水全集	徐壽錫	1927	35권 17책	木板本
53	禮記	胡廣	–	13책	木板本
54	禮疑答問	–	–	6책	筆寫本
55	五先生禮說分類	鄭逑 編	1629	12권 7책	木板本
56	聱漢先生文集	孫起陽	1825	4권 3책	木板本
57	全韻玉篇	春坊	19세기	2권 2책	木板本
58	畏齋先生文集	李厚慶	1744	4권 3책	木板本
59	愚齋集	孫仲暾	1935	1책(零本)	木板本
60	迂拙齋先生實記	朴漢柱	20세기	2권 1책	木板本
61	陰崖先生集	李耘	1754	4권 2책	木板本
62	二倫行實圖	金安國	1730	1책	木板本
63	伊山文集	沈相吉	1932	4권 2책	木板本
64	二程全書	朱熹 編	–	11책(零本)	木板本
65	麟經(春秋)	胡安國(宋) 撰	1798	27권 10책	木板本 (丁酉字飜刻)
66	資治通鑑綱目	朱熹	–	81책(零本)	木板本
67	資治通鑑綱目	朱熹	–	13책(零本)	木板本
68	潛窩先生實紀	崔震立/ 崔宗謙 編	1775	4권 2책	木板本
69	佔畢齋集	金宗直	1917	8책(零本)	木板本
70	靜庵先生文集	趙光祖	1892	5卷, 附錄6卷, 續集4卷: 5책	木板本
71	定庵先生逸稿	郭越	1925	2권 1책	石版本
72	靜齋先生文集	李聃命	1937	8권 4책	木板本
73	存齋先生文集	李徽逸	1694	2책(零本)	木板本
74	左傳	–	–	7책(零本)	–
75	周易傳義大全	胡廣	–	10책(零本)	木板本
76	朱子書節要	李滉	1611	20권 10책	木板本

77	朱子語類	黎靖德 編	-	49책(零本)	木板本
78	眞西山讀書記乙集 上大學衍義	眞德秀	18세기 초	43권 12책	古活字本 (戊申字)
79	晋陽世稿	追遠齋	1906	4권 2책	木板本
80	滄洲先生文集	河憕	1897	5권 2책	木板本
81	春秋集傳大全	胡廣	18세기 말	4책(零本)	壬辰字本
82	濯淸軒先生實紀	郭趪	1900	2권 1책	木板本
83	擇窩文集	禹震煥	1929	9권 4책	石版本
84	退溪先生文集	李滉	-	32책(零本)	木板本
85	寒岡先生文集	鄭逑	1841	24권 9책	木板本
86	韓史緊辨	李炳善	1924	1권 1책	現代活字本
87	漢陰先生文稿	李德馨	1935	12권 5책	木板本
88	寒齋集	李穆	1914	4권 2책	古活字本
89	寒喧先生榜目	-	1737	1책	木板本
90	寒喧先生司馬榜目	-	1676	1책	筆寫本
91	海東三綱錄	金性澈 編	1805	6책(零本)	木板本
92	晦堂先生文集	張錫英	1932	45권 22책	木板本
93	晦齋先生文集	李彦迪	1926	2권, 별집2권 4책	木板本
94	塤篪兩先生續集	鄭萬陽・鄭葵陽	1967	6권 3책	木板本
95	塤篪兩先生語錄	鄭萬陽・鄭葵陽	1966	4권 2책	木板本

위 도동서원 장서 목록을 보면, 총 95종 중 문집류가 63종으로 가장 많으며, 經書 13종, 性理書 8종, 史書 7종, 기타 3종으로 나타난다. 제작 시기는 연대추정이 어려운 21종을 제외하면 19~20세기 초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19세기 이전의 것으로는 『景賢錄』·『書傳大文』·『御定奎章全韻』·『易學圖說』·『朱子書節要』·『麟經(春秋)』·『二倫行實圖』·『大學衍義』 등 총 18종이 있다.[60] 2005년 조사 당시에는 대부분의 전적이 망실된 상태로 『景


景賢錄上
寒暄堂金先生
世系
先生之先本黃海道瑞興府人後徙于玄風
縣
九世祖寶 德仁 天祿 世丘
鳳還 善保 中坤 小亨

<경현록(상)>


景賢續錄補遺上
遺事
成化十六年(我成宗十一年)庚子六月初六日先生與崔進
士溥宋生貞碩忠朴進士聃孫申生貞希演修契于好
賢坊之第契帖云等年相若道相似情志交孚
弘治七年(我成宗二十五年)甲寅鄭文獻公爲安陰縣監時寒
暄先生在陝川郡冶爐縣之末谷累與約會於居昌加
祚縣之山際洞頗有川石之勝而爲兩地之中倘佯晤
語從容講論而罷居昌之人至今傳以爲故事(文獻公實紀)
茅一江山在玄風縣南距二十里許洛江上廣野中乃
古山城也先生與鄭一蠹往來遊賞稱以茅一江山後

<경현속록보유>

賢錄』·『司馬榜目』·『全韻玉篇』·『어정규장전운』·『춘추』 등의 5종과 1969년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景賢續錄補遺』(1719이전, 1책)와 『五經百篇』(1798, 內賜本, 5권 5책)이 확인되었다.[61]

도동서원 원규를 제정하면서 강습을 장려한 내용이 있어서 당시 서원 내 학습 내용을 알 수 있다. 즉, “겨울과 봄에는 五經과 四書 및 伊洛의 여러 성리서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 子書, 문집을 대상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읽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養蒙齋의 학생에게는 한훤당이

60) 특히, 한강 정구가 편찬한 『五先生禮說分類』(1629, 12권 7책)와 퇴계가 찬한 『朱子書節要』(1611, 20권 10책) 및 학습서였던 『書傳大文』(16세기 중엽, 2권 2책)은 도동서원의 중건 시기를 전후하여 제작된 완질본으로서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지만 모두 망실된 상태이다.

61)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도동서원·인흥서원』, 2005.

특히 강조하였던 성리학의 실천 윤리서인 『小學』을 강독하도록 명하되, 그 과정을 엄하게 세워 훈계하였다. 이외에도 『莊子』·『列子』·『老子』 등과 같은 도교의 책과 불교의 서책을 서원에 들이지 못하도록 엄히 금하였다.62)

실제 위의 목록에서도 『소학』을 비롯한 경서와 성리서가 21종, 역사서와 자서가 10종, 문집류는 19세기 초반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약 7종이 확인된다. 이는 도동서원에서 경서와 성리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사액서원은 일반적으로 사액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전답, 노비와 함께 서적을 하사받았으며, 자비로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후 국가에서 원생들의 공부를 분발시킨다는 의미로 서적을 인출할 때마다 서원에 頒賜를 거듭하였다. 도동서원에 남아있는 내사본이 이러한 서적들이다. 또한 각 가문 내지 院祠에서 印刊된 문집 등이 頒帙되어 옴으로써 향촌사회 유생들을 위한 도서관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도동서원 소장 전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문집으로 총 63종이 있다. 이는 새로 들어온 新書였는데, 해당 인물을 제향하는 원사나 후손들이 간행하여 보내온 것들이었다. 이는 18세기 이래로 문중, 원사 등을 중심으로 일기와 문집의 출판이 성행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서원은 향촌 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문고(도서관) 역할을 담당하여 지방문화의 창달에 기여하였다.

2) 도동서원 소장 책판의 현황과 특징

서원은 지방의 도서관적 역할 뿐만 아니라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여 지방출판 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 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원에서 출판된 서적은 대부분 주향인 내지 배향인의 문집과 그 후손내지 문

62) 『도동서원 원규』「勤講習」,「嚴禁防」 조 참조.

인들의 문집 및 그들의 행적을 엮은 傳記類였다. 이는 선현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려는 의도로 간행되기도 했지만, 가문과 서원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63]

도서를 간행하는 일은 구입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는 일이기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원에서는 간행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초기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이 많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4] 이러한 서적출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서원의 기금으로 충당하지만 때로는 문중이나 제자들이 거출한 비용으로 印出되기도 하고, 특정 有志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손들이나 문인들이 契를 조직하여 그 자금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65]

1778년 徐有榘가 편찬한 『鏤板考』[66]에 나오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들의 출판현황을 보면 도산서원 17종,[67] 병산서원 3종,[68] 옥산서원 7종,[69]

---

63) 강주진, 「서원과 그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64) 평양 淸凉書院에서 1566년 『近思錄集解』, 『漢書傳抄』와 1568년에 『古史通略』이 간행되었고, 성주 川谷書院이 1574~1575년에 『薛文淸公讀書錄要語』, 『朱子書節要』를 간행하고, 서천 鳴谷書院에서 1581년에 『표제구해공자가어』, 『신간소왕사기』가 간행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천혜봉, 『한국 서지학』, 민음사, 2006, pp.592~593). 이처럼 초창기에 설립된 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은 흔치 않았으며, 주로 감영이나 지방 관아에서 출간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65) 이수환, 「영남지역 서원의 특징과 교육활동」, 『한국의 서원과 학맥 연구』, 국학자료원, 2002, pp.84~86.

66) 『누판고』는 정조가 즉위한 다음 해(1778)에 각도에 유시를 내려 조사케 하여 정조 20년(1796)에 완성된 것이므로 자세히 조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당대의 누락된 도서는 물론 그 후에 간행된 도서가 포함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2008, p.308).

67) 『嶠南賓興錄』, 『經書釋義』, 『啓蒙傳疑』, 『退溪言行錄』, 『古鏡重磨方』, 『理學通錄』, 『朱子書節要』, 『松齋集』, 『聾巖文集』, 『雲巖逸稿』, 『溫溪逸稿』, 『退溪文集·續集·年譜』, 『退溪自省錄』, 『耻齋遺稿』, 『月川文集』, 『近始齋文集』, 『溪巖文集』 등의 17종이다(徐有榘, 『鏤板考』(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20338) 참조).

68) 『懲毖錄』(전16권), 『西崖文集』(전21권 : 별집9권, 연보3권), 『梧里文集』(전6권 : 부록4권, 속집2권, 별집2권, 부록2권) 등이다(徐有榘, 『鏤板考』 참조).

69) 『求仁錄』, 『近思錄』, 『大學章句補遺』, 『奉先雜儀』, 『中庸九經衍義』, 『太極問辨』, 『晦齋集』

돈암서원 3종,[70] 필암서원 1종[71]이 확인되며, 소수서원・남계서원・무성서원・도동서원 등은 출판된 서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현전하는 판본을 살펴보면 소수서원에는 『追遠錄』 등 10종이 간행[72]되었으며, 남계서원에서는 『文獻公實記』(鄭汝昌)의 초・중간본, 『介庵先生文集』(姜翼)의 간행이 있었다. 무성서원에서의 출판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73]

도동서원은 <표 4>와 같이 『景賢錄』 新・舊板과 『景賢續錄』, 『景賢續錄補遺』 신・구판,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佔畢齋先生門人錄』 등 총 8종이 확인된다. 이들 판목은 현재 완질로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도동서원 출판문화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 도동서원 소장 책판 목록[74]

번호	서명	완본수	현존수	결락수	비고
1	景賢錄(舊版)	26	16	10	기탁
2	景賢錄(新版)	23	2	21	〃
3	景賢續錄	31	9	22	〃
4	景賢續錄補遺(舊版)	28	10	18	〃

등 7종이다(徐有榘, 『鏤板考』 참조).

70) 『沙溪遺稿』(전14권), 『愼獨齋遺稿』(전15권), 『沙溪年譜』(전1권) 등이다(徐有榘, 『鏤板考』 참조).

71) 『河西集』(전14권, 별집 9권)이다(徐有榘, 『鏤板考』 참조).

72) 『紹修書院冊錄』(1762)에는 수량을 밝히지 않은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데 『竹溪誌』, 『六先生遺稿』, 『追遠錄』,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 『岳武穆筆籍』, 『鳶飛魚躍』, 『學求聖賢』 등과 沙州에 있어서 찾아오지 못했다고 기록된 『漁溪集』과 『朱書刊補』가 있다.

73) 1834년에 태안현감과 서원 유생들이 품의하여 순영(巡營)에서 『桂苑筆耕』을 개간한 사실이 확인된다(『武城書院誌』, 「桂苑筆耕開刊記」(1888)). 이후 무성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는 1931년에 『武城書院誌』(3책), 1939년에 『曺公金鍾遺稿』(曺湳), 『曺金鍾集』(曺南承) 등이 있다.

74)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지역의 목판자료(2)』, 2006, pp.391~408 참조. 도동서원 책판은 제기, 내사본과 더불어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보관 중이며, 현재 향사에 쓰이는 제기는 복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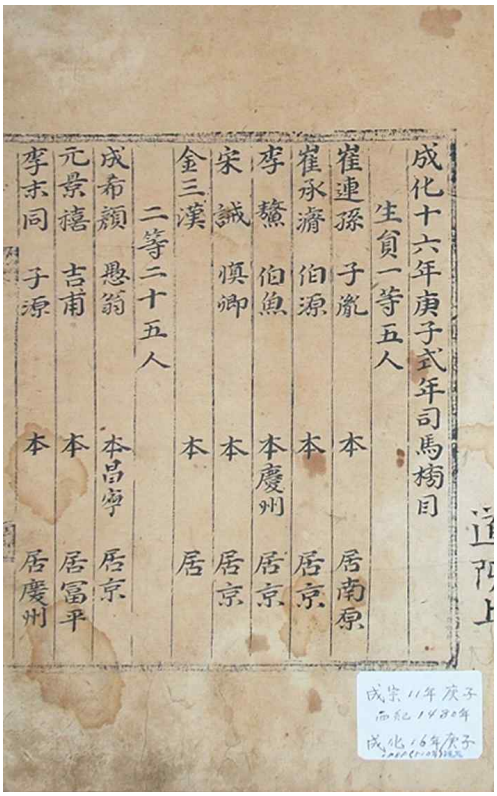
5	景賢續錄補遺(新版)	26	12	14	〃
6	成化十六年庚子三月初三日司馬榜目	11	10	1	〃
7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	16	7	9	〃
8	佔畢齋先生門人錄	10	5	5	〃
총 계		171	7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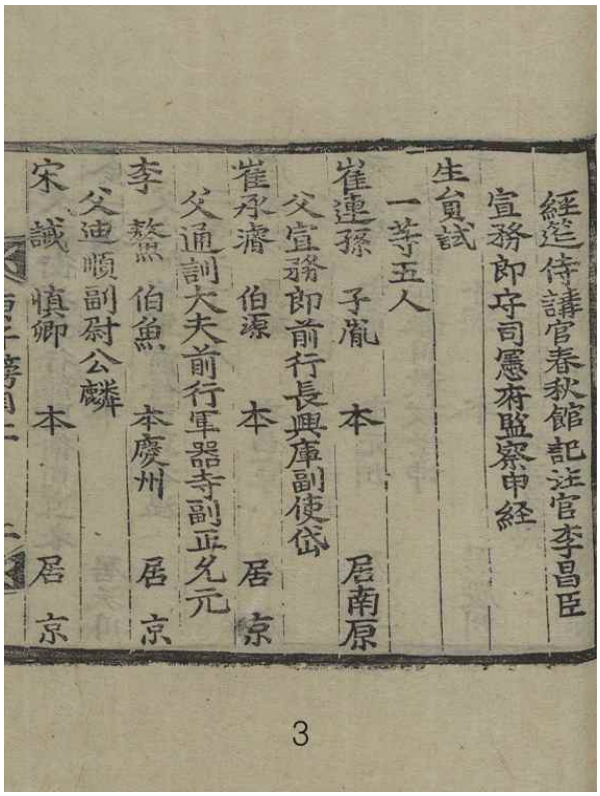
<경현록>판목

<변파록> 판목

『경현록』·『경현속록』·『경현속록보유』 판목은 신·구판이 섞여 있는데, 舊版으로 분류한 것은 신판과 거의 동일하지만 遺墨이 빠져있고, 형태상 크기뿐만 아니라 行款도 11행 21자로 신판의 10행 20자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현재에는 구판으로 간행된 서적을 확인할 수 없기에 정확한 판각 및 간행 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판의 11행 21자의 행관 형태가 시기적으로 앞서므로 짐작컨대 1719년 重刊이전에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경현록』(6권 3책)은 1719년 도동서원에서 신판으로 간행한 것으로서 한훤당의 8대손 拙齋 金夏錫(1638~1687)이 편집한 것이다. 간행 당시 3책 모두 『경현록』으로 표제 하였지만, 그 내용은 책에 따라 상책은 『경현록』(상·하권), 중책은 『경현속록』(상·하권), 하책은 『경현속록보유』(상·하권)으로 되어 있다.[75]


成化十六年庚子式年司馬榜目
生員一等五人
崔連孫 子胤 本 居南原
崔永濟 伯源 本 居京
李黯 伯魚 本慶州 居京
宋誠 愼卿 本 居京
金三漢
二等二十五人
成希顔 愚翁 本昌寧 居京
元景禧 吉甫 本 居富平
李末同 子源 本 居慶州


經筵侍講官春秋館記注官李昌臣
宣務郎守司憲府監察申經
生員試
一等五人
崔連孫 子胤 本 居南原
父宣務郎前行長興庫副使岱
崔永濟 伯源 本 居京
父通訓大夫前行軍器寺副正名元
李黯 伯魚 本慶州 居京
父迪順副尉公麟
宋誠 愼卿 本 居京
3

사마방목(1676, 필사본) 사마방목(1737,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성화십육년경자삼월초삼일사마방목』 판목은 1480년(성화 16) 한훤당 김굉필이 생원시에 입격한 후 당시 함께 입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긴 것이다. 『사마방목』 원본은 한훤당의 종가에 이어져오다가 중간에 遺失되었다. 이후 1676년에 성균관에 있는 『국조방목』을 열람 후 2건을 筆寫하여 본손가와 도동서원

75) 『경현록』은 6권 3책(상·중·하)으로 구성되어 있다. 1565년 李楨(1512~1571)이 순천부사 시절 이곳에 귀양살이했던 한훤당 김굉필과 梅溪 曺偉의 事蹟을 수집하여 처음 간행한 『경현록』은 퇴계의 자문을 구하여 작성하였다. 당시 이정의 작성한 것이 1719년 『경현록』 상책의 상권이며, 추후 남명 조식이 추가한 사적과 동고 이준경이 추가한 사실을 추기하여 『경현록』 상책의 하권을 이룬다. 이후에 한강 정구가 조위의 사적을 빼고 김굉필의 사적만을 모아 여기에 자료를 더하여 『경현속록』 상·하권을 만들었다. 그 뒤 김하석이 『경현속록보유』 상·하권을 더하여 간행하였다. 1719년 도동서원에서 『경현록』을 重刊하면서 『경현속록』과 『경현속록보유』를 포함하여 3책으로 엮고 각기 중·하책으로 하였다(黃義洌, 「<景賢錄>解題」, 『남명학연구』 9, 2000, pp.427~429).

에 보관하였다. 그 뒤 金繼甲이 여러 가문의 족보와 榜目을 考證하여 그의 조부가 필사한 방목의 내용을 增補한 후 1737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76]

도동서원에 『점필재김선생문도록첨간변파록』과 『점필재선생문인록』판목이 있는 것은 1580년에 金紐가 편찬한 『佔畢齋先生門人錄』을 重刊하는 과정에서 김종직의 본손인 金堉이 사사로이 문인록을 加筆·冒錄한 사실이 발단이 되었다. 즉, 도동서원은 김종직의 高弟인 김굉필을 제향하는 首院이자, 대원군 훼철시에 존치한 곳으로서 이 사건이 발발할 당시 현풍·고령·성주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고령에 점필재의 胄孫이 세거하고 있었지만, 도동서원이 중심이 되어서 通文[77]을 돌려 사림의 公論을 형성하고 문제를 야기한 김식을 罰하는 한편, 1875년 金聚東 등이 이 사건의 顚末을 기록한 변파록과 문제된 문인록을 수정하여 발간하였던 것이다. 『점필재선생문인록』 판목은 김식이 모록했던 것을 수정한 것으로 김취동의 발문이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도동서원 소장 자료의 조사·정리 현황과 고문서, 고서, 책판 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도동서원은 입지와 경관, 건축에서 한국 서원을 대표하는 곳으로 평가되어 일찍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후 서원에 소장된 자료 즉 고서, 고문서, 책판 등이 차례로 조사되었고, 최근에는 서원 향사라는 제향의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연구의 진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도동서원 소장 서적과 책판은 서원 교육과 출판문화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지만, 현전하는 자료가 매우 소략하여 활용에는

76) 「金繼甲 後書」, 『成化十六年庚子初三日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7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앞의 책, 1997, pp.469~470. 「通文」 참조.

한계가 있다.

도동서원 소장 고문서는 중건 초기인 17세기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18세기 이후의 것으로 특히, 19~20세기에 생성된 경제 관련 자료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동서원의 창건과 교육, 조직과 운영, 사회・경제적 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1997년 학계에 도동서원 고문서가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이를 활용한 연구는 극히 일부이며, 그나마 다른 서원을 연구하면서 일부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도동서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 것은 2000년 이래로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자료의 공개 당시 일부만 선별하여 소개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외에 보다 종합적인 도동서원의 문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원에 남아있는 미공개 자료와 각 처에 산재한 자료 및 서원관련 각종 구술 자료를 조사・정리한 종합적 자료집 성격의『서원지』편찬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서원향사』(남계서원・도동서원), 2013.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韓國의 書院과 學脈 硏究』, 국학자료원, 2006.
달성군,『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도동서원・인흥서원－』, 2005.
달성군・달성문화재단,『도동서원과 달성의 서원들』, 2013.
_____,『道, 東에서 꽃피다』(도동서원 재조명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1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慶北鄕校資料集成(1)』,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_____,『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李春熙 編,『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考』, 국회도서관, 1969.
윤희면,『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정만조,『朝鮮時代 書院硏究』, 集文堂, 1997.
한국국학진흥원,『경북지역의 목판자료(2)』, 2006.

강주진,「서원과 그 사회적 기능」,『한국사론』8, 국사편찬위원회, 1980.
김덕현,「도동서원 현판자료 조사보고」,『서원 현판류 자료의 문화사적 가치』(제4차 서원 전문가 워크샵 자료집), 한국서원학회, 2012.11.
이수환,「도동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사학연구』60, 한국사학회, 2000.
_____,「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민족문화논총』5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2.
이해준 외,『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0.
한국서원학회,『서원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2012.4.18.
黃義洌,「<景賢錄>解題」,『남명학연구』9, 2000.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t Dodong Seowon

Lee byoung hoon*

Dodong Seowon at Hyeonpung that held a memorial service for Kim Goeng-pil (Hanhwondang), chief classical scholar of Dongbangohyeon could preserve it even at destruction of cultural assets triggered by Daewongun. As a result, Dodong Seowon that was smaller than Oksan Seowon and Dosan Seowon had relatively many materials than other seowon had.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itua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material in Dodong Seowon from the 1960s to present time, and examined characteristics of archive material, books, wooden printing blocks and other tangible materials.

The archive material at Dodong Seowon was rarely produced in the 17th century, and it was mostly produced on or after the 18th century, in particular, the 19th to 20th century to describe economy. And, the material was very much important to know foundation, education, organization, oper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of Dodong Seowon. The books and wooden printing blocks helped understand

* The Yeungnam University's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seowon education and publication culture to a certain degree, and they had limitation on the use because of so small quantity of existing material.

To clarify Dodong Seowon culture in comprehensive way in addition to disclosed facts,‘SeowonJi’ that investigated undisclosed material at the seowon, material here and there and various kinds of verbal materials should be firstly compiled.

Key words : Dodongseowon, Kim Goeng-pil, Hanhwondang, Dongbangohyeon, seowon material

道東書院 祭享儀禮의 特徵

崔順權*

Ⅰ. 序論
Ⅱ. 位版式과 祝式의 變化
Ⅲ. 享祀 節次와 行禮 動線
Ⅳ. 墓祭의 設行
Ⅴ. 結論

<국문요약>

道東書院에서는 춘추로 享祀 및 墓祭를 지내는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 서원에서는 省牲壇으로 강당 옆에 石床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돼지를 올려놓고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세 번 묻는 省牲禮를 행한다. 현재는 석상에 돼지를 묶고 성생례를 행한다. 그리고 도동서원에서는 東入東出의 행례 동선이기 때문에, 헌관은 사당에 들어갈 때 동쪽 계단을 통해 동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에는 동문을 통해 나와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또한 헌작마다 三祭酒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서원에는 없는 茅沙器가 香盒 옆에 있으며, 헌작 후 재배로써 종헌례 후에 三獻官만 재배를 한다.

도동서원에서는 다른 서원과 달리 飮福受胙禮 후에 초헌관만 서쪽을 바라보고 재배하고, 나머지 제관은 북쪽을 바라보고 재배를 한다. 또한 도동서원에는 望瘞禮 때 坎을 사당 서쪽 담장 중간에 구멍을 내어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운다. 그리고 도동서원에서는 향사를 마치고 강당에서 唱笏에 따라 축, 집례, 초헌관 순으로 헌관과 모든 제관의 잔에 술을 따르고 난 후 서로 읍하고 잔을 비우는 餕禮를 마치고 음복 겸 아침 식사를 한다.

도동서원에서는 춘추 향사 외에도 서원 뒤에 있는 김굉필의 묘소에서 墓祭를 지낸다. 이것은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鄭逑가 朱子의 武夷故事를 따라 春秋 墓祀를 서원에서 설행하도록 조치한 이래로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묘제를 지냈는데, 현재는 가을 묘제만 지내고 있다.

주제어: 道東書院, 金宏弼, 祭享儀禮, 墓祭

Ⅰ. 序論

도동서원의 제향의례에는 春秋 享祀와 墓祭, 그리고 朔望 焚香禮가 있다. 이것은 서원 중건을 주도하고 院規를 정한 寒岡 鄭逑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정구는 조선중기를 대표하는 예학자로, 家禮는 물론 서원 祭享儀禮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常變通考』 學校禮 및 『全禮類輯』 서원의 주요 내용이 정구의 문답을 정리한 것만 보더라도 그의 위상을 가히 알 수 있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대부분 소수서원의 周世鵬과 李滉의 手筆笏記나, 『國朝五禮儀』 釋奠儀를 참조하여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동서원은 朱子의 「滄洲精舍 釋菜儀」를 많이 준용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서원에서는 설행되지 많은 墓祭를 주자의 武夷故事에 의거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향사 시기도 소수서원 홀기에는 季春(음력 3월)과 季秋(음력 9월) 上丁日로 되어 있는데, 도동서원에서는 정구가 지은 院規의 '謹享祀'에 院任이 상정일에 향교 釋奠을 행하고, 중정일에 서원 향사를 지낸다고 仲春(음력 2월)과 仲秋(음력 8월)의 中丁에 지내고 있다. 그리고 본원 유생은 매달 朔望에 靑衿服을 입고 先生廟에 분향 재배를 한다[1]고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동서원의 位版과 位次, 그리고 祝式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도동서원의 제향의례에 참고했을 주자의 「창주정사 석채의」와 도동서원의 현행 홀기 및 조사 내용[2]을 중심으로 제향의례 행례의

1) 『寒岡先生續集』 卷4 雜著 院規 爲道東作.
2) 조사 내용은 주로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제사』, 2003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특징과 행례 동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동서원에서만 설행되는 묘제 절차 및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도동서원 제향의례가 가지는 특징과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位版式과 祝式의 變化

1. 位版式

도동서원은 한훤당 김굉필과 한강 정구를 봉안한 서원이다. 즉 正位인 寒暄堂 金宏弼은 중앙 벽에 남향으로 모셔져 있고, 배위인 한강 정구는 동쪽(좌측) 벽에 서향으로 모셔져 있다.

먼저 도동서원 소장『祭文』에 나와 있는 한훤당 김굉필에 대한 칭호를 살펴보면, 1605년(선조 38)의 올린 墓祭文에는 '寒暄堂金先生'이라 하다가, 1606년(선조 39) 묘제문에서 1609년(광해군 원년) 봉안 축문까지는 "寒暄堂先生金文敬公"이라 하였다. 1610년(광해군 2)의 사당 제문부터는 "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이라 하였고, 1678년(숙종 4년)에 한강 정구를 배향한 위판에는 "贈領議政文穆公寒岡鄭先生"[3]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동서원 사당에는 중앙에 정위인 김굉필이, 동벽에 배위인 정구가 봉안되어 있다. 서원 봉안 초기에는 각기 그 규칙을 달리하여 혹은 동쪽을 위로 하거나(東上), 혹은 서쪽을 위로 하는(西上) 위차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祠堂과 墓道는 서쪽을 위로 하나, 文成廟에서 顔子와 子思가 좌측(동쪽)에 위치하고, 曾子와 孟子가 우측(서쪽)에 위치하며, 창주정사의 위차도 문성묘의 배위 위차와 같다[4]고 하여, 서원에서 배위는 주로 동쪽을 위로 하여 봉안

남계서원・도동서원』, 2013 참조.

3)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편,『도동서원지』, 1997, pp.462~467.

하였다. 도동서원에서도 이와 같이 정위인 김굉필의 위판이 중앙에 위치하고, 배위인 정구의 위판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서원 위판에는 대체적으로 正位와 配位는 '官職+諡號+號+姓氏+先生'이지만, 從享位는 대개 父子之間이나 師弟之間이어서 '號+姓氏+公'으로 되어 있다. 도산서원의 경우, 退溪 李滉에 대해 月川 趙穆을 종향할 때 위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되었다. 이에 사제지간이 분명하기 때문에 '工曹參判橫城趙某'라든가, 또는 後學이 스승을 존경하는 도리로 '月川趙先生'이라든가 하여 위판식을 절충하게 하였으나, 결국 한훤당의 경우, 川谷書院에서 程子와 朱子가 비록 높기는 하지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寒暄堂金公'이라 한 것처럼,[5] 결국 '月川趙公'으로 정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자(程顥, 程頤)가 濂溪(周敦頤)와 비교할 때, 비록 道德이 나란하다고 하지만, 사제지간임이 분명한데도 거리낌 없이 병칭하였다. 하물며 滄洲精舍에서 先聖에게 釋菜를 지냄에 염계 이하에 대해서 모두 '先生'이라 칭했으니, 후학이 존경을 표하는 칭호는 尊者에 의해 눌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先生'이란 글자는 아마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6]고 하여 정위와 배위의 위판식에 '선생'이라고 썼다. 결국 정구도 한훤당의 外曾孫이지만, 도동서원의 중건에 공로가 크고 후학들이 존경을 표하였기 때문에 '先生'이라는 칭호로 서원에 배향되었다.

2. 祝式의 變化

서원의 祝式은 『國朝五禮儀』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서원마다 춘추 향사 때에 스스로 지어서 썼다. 주로 서원의 正位에 대한 도학의 공로를 중심으로

4) 『屛溪先生集』 卷26 書 答李泰以 乙酉.
5) 『寒岡先生文集』 卷8 答問(答鄭彦宏).
6) 『愚伏先生集』 卷13 答問目.

창건 때 처음 쓴 제문을 祝文으로 그대로 쓰거나, 또는 중간에 유명 인사가 쓴 제문을 그대로 축문으로 써서 서원마다 축문 내용이 다르다.

도동서원의 현재 축문은 정구가 작성한 것으로, 『寒岡先生文集』[7]에 실려 있다. 그리고 도동서원 소장 『제문』에도 1610년(광해 2) 8월 추향에 쓴 축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維

萬曆三十有八年歲次庚戌八月癸酉朔越十月五日丁亥鄕後學郭逝等敬奉朝命昭告于

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維

公夾持敬義兩進明誠精積力九德立道成闡揚絶學百代儒宗密邇松楸悅陪儀容玆値仲(春秋)陳薦馨香用格時歆惠佑無疆尙

饗

이에 앞서 1609년(광해군 1)에 "本道 玄風에 있는 道東書院에서는 평상시 春秋享祀와 家廟祭를 거행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축문을 스스로 지어서 쓰고 「조정의 명을 받들어 거행한다」는 뜻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朱文公(주자)의 서원이나 가묘에 賜祭를 할 때 축문의 서두에 반드시 「삼가 조정의 명을 받들어 지낸다」고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斯文을 높이고 장려하는 일에 한결같이 중국의 예를 따르고 있으니, 아마도 該曹에 명하여 헤아려 결정하도록 함이 합당할 듯합니다."[8]고 하여 축문 앞에 '敬奉朝命'을 붙이게 하였는데, 이것 역시 정구가 경상감사 崔瓘에게 건의한 내용[9]이었다. 이에 1610년(광해군 2)부터 처음으로 축문에 '敬奉朝命'을 붙인 것으

7) 『寒岡先生文集』 卷11 祝文 道東春秋享祀文.
8) 『光海君日記』光海君 1年 8月 1日.
9) 『寒岡先生文集』 卷5 書 答崔監司.

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도동서원 축식에는 '敬奉朝命'이 삭제되어 있지만, 홀기에는 '敬奉'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1678년(숙종 4)에 정구를 배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축문 마지막에 '贈領議政文穆公寒岡鄭先生 配'를 추가하였다.

維歲次戊午八月己巳朔十九日丁亥卿後學金處中等敬奉
朝命昭告于
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維
公夾持敬義兩進明誠精積力九德立道成闡揚絶學百代儒宗密邇松楸
怳陪儀容玆値仲(春秋)陳薦馨香用格時歆惠佑無疆以
贈領議政文穆公寒岡鄭先生
配尙
饗

즉, 원래 宋 나라에서는 先聖 正位 및 配位에 각각 축문이 있었지만, 「창주정사 석채의」 선성 정위에는 독축을 하고 배위에는 독축을 하지 않으며, 다만 축문 끝에 (배위) '配'하고, (종향위) '從享'하였다[10]고 하여, 별개의 축문은 없지만,[11] 정위 축문 끝에 配享 또는 從享을 쓰게 되었다.

10) 『寒水齋先生文集』 卷13 書 答玄彦明.
11) 『愚伏先生文集』 卷13 書 答問目.

Ⅲ. 享祀 節次와 行禮 動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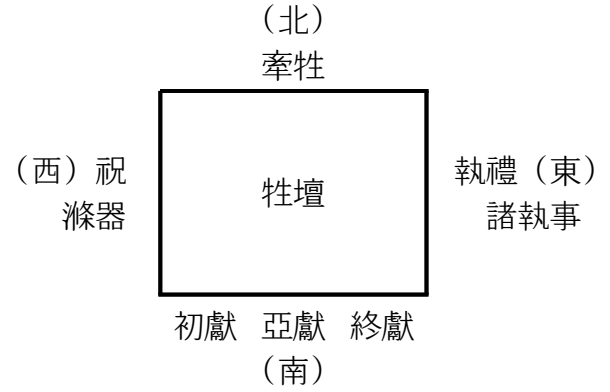
1. 享祀 準備

도동서원에서는 헌관 및 제집사로 천망된 제관은 종래에는 3일전에 入齋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전날 입재하고 있다. 入齋는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주의하는 齋戒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향사가 丑時, 즉 새벽 한시 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관들은 전날 오전까지 서원에 온다. 제관들은 서원 水月樓에 도착하여 衣冠을 정제한 후에 서원에 들어간다. 만약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들어올 수도 없고, 일단 들어온 후에는 제향이 끝날 때까지 나갈 수도 없다.

제관들은 時到記에 이름과 나이(干支), 주소 등을 적고서 초헌관을 찾아 예를 올린다. 이날 모인 이들끼리 강당에 모여 開坐揖禮로써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입재의 예를 갖춘다.

제관들이 모두 서원에 들어오면 먼저 사당에 나아가 謁廟禮를 행한다. 제관들은 강당에 모여 서로 마주보고 相揖禮를 하고 좌정하여 인사를 나눈 후에 줄을 지어 사당으로 올라간다. 제관들은 동문을 통해 묘정에 들어서서 서쪽을 상위로 하여 일렬로 도열한다. 초헌관이 唱笏에 따라 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堂上 중문 앞의 香案에 나아가 三上香하고 내려오면, 초헌관 이하 모두 재배하는 것으로 알묘례를 마친다.

도동서원에서는 省牲壇으로 강당 옆에 石床을 만들어 놓았다. 省牲禮를 행할 때 석상 위에 자리를 깔고 돼지를 올려놓으며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세 번 묻는다. 三獻官은 贊者의 인도하에 성생단의 남쪽에서 북향하여 서고, 祝은 서쪽, 執禮와 諸執事는 동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도열한다. 축이 서쪽에서 오른쪽으로 성생단을 한 바퀴 돌고 '腯'을 외치면, 헌관은 '充'이라 답한다. 이렇게 3회 반복하면서 희생이 충실하고 흠결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는 석상에 돼지를 묶고 성생례를 행한다.



성생례가 끝나면 分定禮를 행한다. 분정례는 미리 정한 삼헌관과 축, 집례 이외의 역할을 맡을 제집사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분정 방식이나 절차 역시 서원마다 다르다. 도동서원에서는 헌관을 중심으로 강당에 모여서 시도기를 보면서 약 17명 정도의 제관을 분정하여 '諸執事分定記'에 적는다. 도동서원의 현재 분정기판은 天啓 年間(1621~1627)에 제작된 것인데, 그 제관 명칭은 다음과 같다.

諸執事分定記
初獻 亞獻 終獻 掌儀 祝 贊者 贊唱 司尊 奉香 奉爐 奉爵 司盥 司帨 掌饌 天啓

原

분정기 작성이 끝나면 분정판을 들고 초헌관으로부터 제집사에 이르기까지 확인을 한 후에 강당 벽에 걸어놓는다. 분정을 마치면 축은 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祝文을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축문은 사당에 올라가 작성하나, 도동서원에서는 강당에서 작성한다. 축문 작성이 끝나면 축은 축판을 소반에 받쳐 들고 초헌관에게 확인을 하고, 사당 안 제상 아래 축상 위에 둔다.

도동서원에서는 정위와 배위에 각각 交椅의 신위 앞 좌측(동쪽)에 簠, 우측(서쪽)에 簋를 놓는다. 보에는 멥쌀을 담고, 궤에는 기장쌀을 담는데, 다른 서원과 달리 고두밥을 지어 올린다.[12] 도산서원의 경우, 제수용 쌀과 조를 씻는

淅米禮를 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쌀과 기장을 그냥 올린다.

그리고 보 좌측에 4籩, 궤 우측에 4豆를 진설하는데,[13] 다른 서원과 같이 각각 2열로 진설하는 것이 아니라, 1열로 진설한다. 4변에는 대추, 녹포, 밤, 어포 등 마른 제수를 놓고, 4두에는 어해, 녹해, 미나리, 무 등 젖은 제수를 놓고, 조에는 牲을 얹는다. 희생은 돼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정위와 배위에 올리는데, 정위는 돼지의 우측 부위로 꼬리가 있게 한다.

또한 정위와 배위의 尊所에는 象尊과 犧尊을 놓는데, 상준에는 헌작용 술을, 희준에는 작을 씻을 물을 담는다. 홀기에 爵洗位가 동쪽 계단의 동쪽에 위치하고, 준소 위에 상준과 희준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작세위에 별도로 작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罍)가 있었다. 이에 희준에는 홀기 그대로 작을 씻기 위한 물을 담은 것이 아니라, 상준의 술과 짝하여 진설한 玄酒의 의미로 진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상에는 향로와 향합을, 그 아래에는 다른 서원에 없는 茅沙器를 둔다. 또한 幣帛을 놓은 幣帛床과 祝文을 올려놓은 祝床(坫)을 별도로 진설하고 있다.

陳設圖(현재)					
位					
鹿醢 豆 魚醢 豆 菁葅 豆 韮葅 豆	簋 黍 燭 爵	豕腥 幣篚 爵	簋 稻 燭 爵	籩 鹿脯 籩 魚脯 籩 栗黃 籩 乾棗	
	香爐 祝坫		香盒 茅沙	犧尊 玄酒	象尊 淸酒

12) 남계서원에서도 고두밥을 지어 올린다(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남계서원·도동서원』, 2013).

13) 『寒岡先生文集』 卷6 書 答李景發.

2. 享祀 節次

도동서원에서는 향사를 丑時(1~3시)에 거행하는데, 향사 시작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들은 의관을 정제한다. 향사를 행하기에 앞서 헌관 이하 제관들은 강당에 모여 상읍례를 행하고 사당으로 올라간다. 향사는 집례가 향례의 진행순서를 적은 笏記를 낭독하는 唱笏로 시작된다.

초헌관은 贊者의 인도하에 먼저 진설을 점검하는 點視를 하며, 축은 위판의 뚜껑을 여는 開櫝을 하고, 이어 簠와 簋의 뚜껑을 연다.

집례의 창홀에 따라 찬자, 축, 제집사가 먼저 拜位에 나아가 북향 재배를 하고 각자의 자리로 나가며, 헌관 이하가 찬자의 인도하에 사당으로 들어온다. 찬자가 초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請行事'를 고하면, 삼헌관은 모두 재배를 한다.

초헌관이 신위전에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를 행한다. 도동서원에서는 다른 서원과 달리 上香禮와 初獻禮를 구분하지 않고,[14] 초헌관이 정위와 배위에 삼상향과 전폐례를 봉행하고 나서 바로 초헌례를 행한다. 즉 전폐례를 마치면 초헌관은 준소에 가서 작을 씻고 작에 술을 붓는 것을 監酌한 후에[15] 신위전으로 돌아와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나누어 붓는 三祭酒를 하고 獻爵을 한다. 그리고 축이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도동서원에서는 「창주정사 석채의」를 따라 헌작에 앞서 三祭酒를 하지만, 헌작 후에 바로 재배를 하지 않고 종헌례 후에 삼헌관이 모두 배위에서 재배

14) 홀기에는 초헌관이 전폐례 후에 동쪽 계단 동쪽에 위치한 작세위에 가서 북향을 하였다가 다시 준소로 와서 서향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상향례와 초헌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당 안 준소에 상준과 희준을 놓고 작을 씻으며(洗爵) 작에 술을 따르는(酌酒) 것처럼 홀기를 일부 개정하면서 상향례와 초헌례가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15) 지금의 행례와 다르게 홀기에는 헌관이 작을 씻고 닦는 다음에 작을 찬자에게 준다거나, 준소에서 헌관이 작을 들면 사준이 술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를 한다. 반면에 함양의 濫溪書院에서는 헌작 때마다 三祭酒를 하고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한다.[16] 그리고 讀祝도 「창주정사 석채의」를 따라 正位만 하고, 配位는 정위 축문에 붙여서 '~配 尙饗'이라 한다. 또한 독축 때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참사자 모두 부복을 하는데, 도동서원에서는 초헌관과 축만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는다.

초헌례가 끝나면 바로 아헌관이 신위전에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亞獻禮와 종헌관이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終獻禮를 행한다. 아헌례와 종헌례는 독축이 없는 것 말고는 초헌례와 같다. 다만 종헌례가 끝나 종헌관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일반 서원은 바로 飮福受胙禮를 행하지만, 도동서원에서는 삼헌관이 함께 재배하여 三獻禮가 끝났음을 알린다.

서원 향사는 釋奠을 근거로 하여 獻爵 後 拜禮가 없어서, "享祀에 獻爵과 受胙에 헌관이 降復位하여 再拜하는 것은 獻爵 後의 拜禮이다. 撤籩豆에 在位者 및 學生 모두가 재배하는 것은 辭神의 拜禮이다.[17]"고 하거나, "「창주정사 석채의」에 의거하여 獻官은 奠爵과 讀祝이 끝나면 降復位하여 再拜한다"고 하여 獻爵 後의 拜禮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헌작 후 배례의 논의 결과인지, 현재 함양 남계서원에서는 헌작마다 재배를 하는데 반해, 도동서원 등 일부 서원에서는 삼헌 후에 삼헌관만 재배를 한다.

삼헌이 끝나면 초헌관이 대표로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조육을 맛보는 飮福受胙禮를 행한다. 도동서원에서는 음복수조례에 초헌관이 사당 중문 앞에 마련한 음복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음복과 수조를 한 다음에 재배를 하고 자리로 돌아오면, 초헌관을 제외한 재위자들이 모두 재배를 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초헌관이 음복과 수조를 한 후에 제자리로 돌아와 삼헌관만 재배를 하거나, 재위자 모두 재배를 하기도 한다.

음복수조례에 이어 진설된 제물을 물린다는 의미로, 축이 변과 두를 조금

16) 『一庵先生文集』 卷5 答問 答朴華卿.
17) 『大山先生文集』 卷23 書 答李學甫問目 乙未.

옮기는 撤籩豆를 행한다. 도동서원에서는 철변두 후에 헌관만 재배를 하는데, 다른 서원에서는 辭神의 의미로 헌관 이하 재위자 모두 재배를 한다.

철변두가 끝나면 축문과 폐백을 坎에 묻는 望瘞禮를 행한다. 망예례는 영조대 이후로 묻지 않고 태우기 때문에 望燎禮라고 한다. 坎은 보통 사당의 서쪽 땅에 구덩이를 파서 만든다. 그런데 도동서원에서는 사당 서쪽 담장 중간에 구멍을 내어 坎을 만들고, 여기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운다. 이를 마치면 찬자는 초헌관 좌측에 서서 '禮畢'이라 고하고 삼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그런 다음에 찬자는 다시 돌아와 축 및 제집사들과 함께 배위에서 재배를 하고, 축은 闔櫝을 한다.

향사 후에는 서원에서 일반적으로 금번 제향이 잘 치러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祭公事, 또는 祭祀公論을 하거나, 재유사가 鄕約 約文을 읽는 讀約을 하고 飮福[18]에 들어간다. 반면에 도동서원에서는 향사를 마치고 강당에서 신이 흠향한 음식을 모든 제관이 나누어 맛보며 신의 공덕을 기리는 餕禮를 행한다. 즉 唱笏에 따라 축, 집례, 초헌관 순으로 세 번 헌관과 모든 제관의 잔에 술을 따르고 난 후 서로 읍하고 잔을 비우는 것으로 餕禮를 마치고 飮福 겸 아침 식사를 한다.

3. 行禮 動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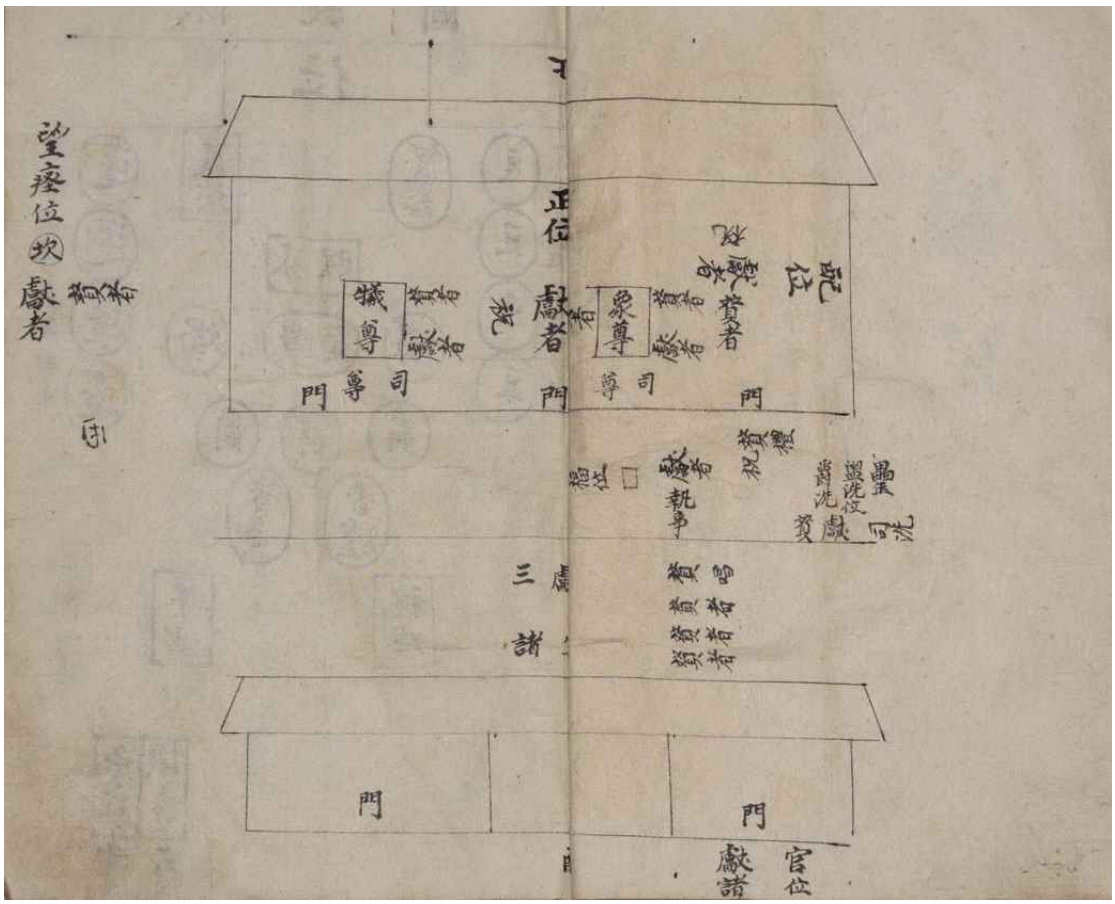
도동서원에서는 홀기에 "모든 행사에 헌관과 집사의 升降은 모두 동쪽 계단으로 한다."는 東入東出 원칙에 따라, 헌관은 사당에 들어갈 때 동쪽 계단을 통해 동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에는 동문을 통해 나와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紹修書院이나 陶山書院에서는 헌관이 중문으로 들어갔다가 동문으로 나오는가 하면,[19] 筆巖書院과 같이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서문으로 나

18)『愚伏先生文集』卷13 書 答黌堂稟目(『常變通考』卷27 學校).
19)『定齋先生文集』卷11 書 答臨川書院儒生問目.

오는 등 행례 동선이 각각 다르다.

도동서원의 경우는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동문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서원이다.

초헌례의 경우, 헌관은 북향하여 사당 뜰에서 西上의 원칙에 따라 맨 서쪽



에 위치한다. 그래서 초헌례를 행할 때 사당 뜰을 가로질러서 동문 쪽으로 이동하여 盥洗를 하고 上香 및 奠幣를 행하며, 사당 중문 쪽에 설치한 尊所에 둘러 洗爵 및 酌酒를 살핀다. 그리고 사당 중앙의 한훤당 신위전에 이르러 북향하여 헌작 및 독축을 하고, 이어 동벽에 위치한 한강 신위에 나아가 동향하여 헌작을 한 후에 동문으로 나와 동계로 내려가 제 자리로 간다. 하지만 홀기에는 奠幣禮 후에 동계 동쪽에 위치한 작세위에 가서 북향을 하였다가 다시 준소로 와서 서향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飮福受胙禮의 경우에도 동쪽 계단으로 올라 중문 앞 동쪽에 위치한 飮福位에 나아가 서향하여 飮福 및 受胙를 하고 재배를 하며, 다시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그리고 望瘞禮에도 헌관은 서쪽 담에 마련한 望瘞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며, 축은 축문과 폐백을 가지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望瘞位로 가서 서향하여 坎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우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처럼 도동서원에서는 望瘞位 때 축이 서쪽 계단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동쪽 계단 및 동문을 이용해 出入 또는 升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당 삼문의 경우, 중문과 동문에는 계단이 있으나, 서문에는 아예 계단이 없어서, 제물은 중문으로, 헌관 및 제집사는 동문을 이용해 출입을 한다.

Ⅳ. 墓祭의 設行

도동서원에서는 춘추 향사 외에도 정위인 김굉필의 墓祭를 지낸다. 일종의 유림 묘제를 지내는 것이다. 『寒岡先生文集』에 "매년 春秋마다 서원 향사 후 3월과 10월 上旬에 院生들이 祭需를 갖추어 先生墓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마침내 定式이 되었다"[20]고 하거나, 『道東書院誌』 道東重刱事蹟에 "先生墓가 書院 뒤에 있어서 그 書院을 설립하는 초기에 국가에서 山直 10명을 劃給하여 묘소 주변을 守護하게 하였고, 寒岡 鄭逑 先生이 모두 中朝武夷故事에 의거하여 春秋에 墓祀를 지내게 하였다. 본 서원이 설행하는 것은 국가가 崇尙하고 士林이 崇奉하는 바이니, 다른 서원과 구별됨이 있다"[21]고 하여, 정구가 춘추 묘제를 서원에서 설행하도록 조치한 이후로 도동서원의 유사들은 춘추 향사 외에도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정위인

20) 『寒岡集』寒岡先生言行錄 卷2 類編 尊賢.
21) 『道東書院誌』道東重刱事蹟.

김굉필의 묘제를 지냈다. 현재는 가을 묘제만 지내고 있다.

묘제 당일 아침에 유사들이 서원 뒤에 위치한 김굉필의 묘소에 가서 遮日을 치는 등 묘제 준비를 한다. 진설은 다음의 진설도와 같이 서원 향사와 일반 私家의 묘제 제수를 같이 쓰고 있는데, 메와 갱을 올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墓祭陳設圖					
位					
糊	箸	盞	醋	餠	
肉湯	魚湯	炙	肉湯	魚湯	
肉脯		魚脯		醢	
韮菹		芹菹		菁菹	
棗	栗	柏子	果	蓮實	乾柿

진설을 마치면 서쪽 위에 있는 김굉필의 아버지 묘소의 묘제 봉행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묘제를 봉행한다. 묘제의 절차는 일반 사가의 묘제와 같은데, 먼저 참사자 모두 墓前 재배를 한 다음에 헌관이 나와 焚香 후 降神 酹酒(傾酒于地)를 하고 降神 再拜를 한다. 이어 初獻禮에는 서원 향사와 같이 洗爵과 拭爵을 한 후에 斟酒를 하면, 헌관은 祭酒(以盞小傾于地)를 하고 獻爵을 한다. 집사가 進炙으로 肉炙을 올리면 축이 나와 축문을 읽고, 독축이 끝나면 헌관은 재배를 한다. 이때의 축식은 다음과 같다.

묘제 축식
維歲次 年 月 朔 日後學某等敢昭告于 寒暄堂先生金文敬公之墓伏以氣序流易玆値(暮春雨露旣濡初冬霜露旣降)

瞻省
封瑩不勝感慕恭陳薄羞用昭微忱仰惟
精爽庶
垂歆臨尙
饗

이 축식은 도동서원 소장『제문』에 보면, 1606년(선조 39)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이후 묘제 축식으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亞獻禮는 初獻禮와 같은데, 다만 讀祝이 없으며, 進炙으로 雉炙을 올리며, 終獻禮는 亞獻禮와 같으나 進炙으로 魚炙을 올린다. 이 묘제에는 메와 갱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獻爵 후에 侑食禮가 없이 바로 辭神 再拜를 하는 것으로 묘제를 마친다.

Ⅴ. 結論

도동서원에서는 춘추로 향사 및 묘제를 지내는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도동서원에서는 省牲壇으로 강당 옆에 石床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돼지를 올려놓고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세 번 묻는 省牲禮를 행한다. 현재는 석상에 돼지를 묶고 성생례를 행한다.

두 번째로는 도동서원에서는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동쪽으로 나오는 東入東出이기 때문에, 헌관은 사당에 들어갈 때 동쪽 계단을 통해 동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에는 동문을 통해 나와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사당 삼문의 경우, 중문과 동문에는 계단이 있으나, 서문에는 아예 계단이 없다.

세 번째로는 헌작 때 三祭酒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서원에는 없는 茅沙器가 香盒 옆에 있다. 함양 濫溪書院에서도 헌작 때 三祭酒를 하고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하나, 도동서원에서는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종헌례 후에 三獻官들이 모두 재배를 한다.

네 번째로는 飮福受胙禮 후 서쪽을 바라보고 헌관만 재배를 한다. 즉 음복수조례에 초헌관이 사당 중문 앞에 마련한 음복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음복과 수조를 한 다음에 재배를 하고 자리로 돌아오면 초헌관을 제외하고 재위자 모두 재배를 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초헌관이 降復位하면 삼헌관이 재배를 하거나 재위자 모두 재배를 한다.

다섯 번째로는 望瘞禮 때에 사당 서쪽 담장 중간에 구멍을 내어 만든 坎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운다. 감은 보통 땅에 구덩이를 파서 만드는데, 도동서원만이 담장에다 만들었다. 다른 서원에서는 감에다 축문과 폐백을 태워 묻거나 그냥 묻기도 한다.

여섯 번째로는 도동서원에서는 향사를 마치고 강당에서 신이 흠향한 음식을 모든 제관이 나누어 맛보며 신의 공덕을 기리는 餕禮를 행한다. 唱笏에 따라 축, 집례, 초헌관 순으로 헌관과 모든 제관의 잔에 술을 따르고 난 후 서로 읍하고 잔을 비우는 준례를 마치고 음복 겸 아침 식사를 한다.

일곱 번째로는 춘추 향사 외에도 서원 뒤에 있는 김굉필의 묘소에서 墓祭를 지낸다. 이것은 鄭逑가 朱子의 武夷故事를 따라 春秋 墓祀를 서원에서 설행하도록 조치한 이래로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묘제를 지냈는데, 현재는 가을 묘제만 지내고 있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서원향사－남계서원・도동서원』, 2013.
국립민속박물관,『한국의 제사』, 2003.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편,『도동서원지』. 1997.
윤희면,「서원의 제례기능과 위차문제」,『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2004.
이동구 편,『한국의 서원 의절』, 2013.

The characteristic of *Dodong Seowon* memorial rites

Choi soon guen*

Firstly, at *Dodong Seowon*(道東書院), a stone table is set up next to the lecture hall as the *Seongsaengdan*(省牲壇). The sacrificial pig is placed on this stone table and the ritual of asking three times if the animal is adequate as an offering is performed. The pig is usually tied to the stone table for the inspection ritual.

Secondly, as *Dodong Seowon* observes the principle of "enter and exit through the east," the officiants climb the eastern stairs and enter the shrine through the eastern doors. They exit the same way. There are access stairs for the central and eastern doors but none for the western doors.

Thirdly, at *Dodong Seowon*, when the officiants offer a goblet of wine, they pour a little of it three times into the *mosagi*(茅沙器; abowl filled with sand and a bundle of thatch) before offering it in front of the spirit tablet. This ritual is called *samjwae*(三祭). Thus, *Dodong Seowon* has a *mosagi*, and most other academies do not. at *Dodong Seowon*, they do not offer two bows in front of the spirit tablets. All three officiants offer two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bows together after the offering of the last libation.

Fourthly, at *Dodong Seowon*, the first wine officiant proceeds to a table prepared in front of the eastern doors of the shrine and kneels facing west. He partakes of the food and drink and then offers two bows. At other academies, the first wine officiant returns to his designated position after partaking of food and drink. Then, either the three officiants offer two bows or all participants offer two bows.

Fifthly, at *Dodong Seowon*, a niche is dug into the western wall encircling the shrine, halfway up the wall. This is where the eulogy and sacred gift are burned. Most academies dig a pit in the ground; only *Dodong Seowon* dug a niche into a wall.

Sixthly, at *Dodong Seowon*, after the memorial rite is over, all ritual participants share the food which has been enjoyed by the spirits and honor the merits of the spirit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master of ceremonies, the cups of the officiants and participants are filled three times. Then, all of them offer a half bow to each other and drink. That concludes the *Junnye*(餕禮), after which they eat.

Seventhly, at *Dodong Seowon*, following the precedents of Zhu Xi(朱子) when he stayed on Mt. Wuyi(武夷故事), grave rituals are offered at *Kim Goeng-pil's*(金宏弼) grave, located behind the academy. These are performed on the tenth day of the third lunar month and the second day of the tenth lunar month every year.

Key Words : Dodong Seowon(道東書院), Kim Goeng-pil's(金宏弼), memorial rites(祭享儀禮), grave rituals(墓祭)

남원 노봉서원 건립과 운영

강지혜*

Ⅰ. 머리말
Ⅱ. 노봉서원의 건립과 배향인물
Ⅲ. 노봉서원의 운영
Ⅳ.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는 남원 4대 사액서원의 하나인 노봉서원(露峯書院)의 건립과 사액, 배향인물,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원 노봉서원은 1649년(인조 27)에 향촌 사족들과 삭녕 최씨 문중이 건의로 건립되었다. 서원 건립 당시 주벽 홍순복(洪順福)을 위시하여 최상중(崔尙重), 오정길(吳廷吉)이 배향되었으며, 이후 최상중의 아들인 최온(崔蘊)이 1661년(현종 2)에, 손자인 최휘지(崔徽之)가 1694년(숙종 20)에 추향됨으로써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삭녕 최씨 가문이 성장세에 따라 남원에서 여론지지 기반이 탄탄해지자 1696년에는 서원의 사액을 요청하였고 다음해인 1697년에 사액 받았다. 사액서원이 되면서 면세전·제수품·원속 등의 대부분을 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등 서원의 재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장이안」·「심원록」 등 운영에 관련된 고문서 분석을 통해 노봉서원은 삭녕 최씨 문중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였으며, 남원의 핵심 사족들도 서원의 원임으로서 서원 운영에 대거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7~18세기를 지나 후대로 갈수록 서원의 갖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서원 철폐령이 내려져 1871년 노봉서원도 결국 훼철되었다.

주제어 : 남원, 전북원우록, 노봉서원, 삭녕 최씨, 사액서원

* 전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원.

Ⅰ. 머리말

조선시대 남원은 도호부(都護府)로서 전라좌영이 설치되어, 전라감영 소재지였던 전주와 함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도내에 건립된 총 133개소의 서원·사우 중에서[1] 총 24개소가 남원에 세워져 도내 지역별 분포 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원의 서원 가운데 국왕에게 편액을 받은 사액원우(賜額院宇)로는 창주서원(滄洲書院)·충렬사(忠烈祠)·영천서원(寧川書院)·노봉서원(露峯書院)[2] 등 총 4곳이 있다. 그 중에서도 노봉서원은 남원의 대표적 사족인 '삭녕 최씨(朔寧崔氏)'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노봉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는 당시 남원 향촌사회의 운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그동안 전북의 서원 연구는 『전북원우록』을 바탕으로 전북의 서원과 사우에 대해 정리한 논문 두어편이 있다. 남원 향촌 사회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연구는 「향안」·「동계안」·족보 등의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남원 향촌 사회운영상을 밝혔다.[3] 그러나 노봉서원을 비롯한 서원과의 관계성은

---

1) 『전북원우록(全北院宇錄)』에는 총 229개소의 서원·사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고종조 서원 철폐령 이전까지 존재했던 서원·사우는 133개소이다(한문종, 「전북 지방의 서원, 사우에 대한 시고-《전북원우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3,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89, p.235~237). 『전북원우록』은 전북 내 서원·사우의 연혁 및 배향자의 행적을 집록한 책으로, 전북향교재단 이사장이었던 이태연(李泰淵)에 의해서 1973년 편찬·간행되었다.

2) 노봉서원은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552번지에 소재해 있다. 그러나 1871년(고종 8)에 훼철된 이후 복원되지 못하여 현재는 노봉서원의 터와 주춧돌, 우물터 등이 남아 있다.

3) 전북지역 서원 연구 논문과 남원 향촌 사회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한문종, 「전북 지방의 서원 사우에 대한 시고」, 『전라문화논총』 3,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89; 한문종, 「전북 지방의 서원 사우의 복설 운동」, 『전라문화논총』 5,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2; 송준호,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사회』, 집문당, 1999; 안승준, 「南原·求禮 朔寧崔氏家와 所藏 古文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구조와 운영 등에 대해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향촌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인 양반지배계층이 주 근거지를 삼았던 서원 및 향교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기초 작업으로 삭녕 최씨가에서 주도적으로 건립·운영한 노봉서원의 건립과 사액, 그리고 운영에 대해 『남원노봉서원고문서(南原露峯書院古文書)』[4]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Ⅱ. 노봉서원의 건립과 배향인물

1. 노봉서원 건립과 사액

1) 노봉서원의 건립

17세기 중후반에 오면 족적 기반과 혈연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족계나 동족마을의 형성 및 동족자제의 교육을 위한 서당이나, 재실과 같은 현조(顯祖)의 제향시설 건립이 일반화된다. 남원에서도 이미 16세기 후반~17세기 초에 삭녕 최씨와 함께 대표 사족으로 손꼽혔던 순흥 안씨(順興安氏)와 풍천 노씨(豊川盧氏) 후손들이 서원을 건립하였다.[5]

『고문서집성』 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김봉곤, 「15, 16세기 지리산권(남원·함양) 사족의 혼인관계와 정치·사회적 결속」, 『역사학연구』 49, 호남사학회, 2013; 김봉곤, 「지리산권(남원)사족 삭녕최씨 가계기록과 통혼권」, 『고문서연구』 42, 고문서연구, 2013.

4)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김봉곤·김아네스 편, 『南原露峯書院古文書』, 디자인흐름, 2010. 이 자료집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문서집성』 72와 『고문서집성』 75에서 서원 관련 문서와 지리산권문화연구원에 기탁한 고문서를 모아 종류별·연대별로 분류하고 해제한 것이다. 이 자료집을 중심으로 노봉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되, 필요에 따라 『고문서집성』 72에 수록되어 있는 고문서 자료와 배향인물의 문집 등을 참고하였다.

5) 창주서원은 풍천 노씨인 노진(盧禛)을 배향한 서원으로 1579년(선조12)에 건립되었으며, 영

남원의 삭녕 최씨는 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 顯祖)의 후손으로, 15세기 후반 최항의 손자 최수웅(崔秀雄, 入鄕祖)[6]이 서울에 살다가 처가인 남원 둔덕리(屯德里)에 내려오면서 정착하였다. 이후 16세기 후반 최상중이 현달하였고, 아들인 최연(崔𥙷)과 최온, 손자인 최휘지와 최유지(崔攸之)는 모두 문과에 합격하여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또한 최연의 손자인 최시옹(崔是翁)과 최계옹(崔啓翁) 및 최휘지의 사위인 이문재(李文載, 李尙馨의 子)는 향선생(鄕先生)·향헌(鄕憲)·부헌(副憲)으로서 남원의 사족지배 질서를 이끌었던 인물로, 여기에 대해서는 향안(鄕案)과 읍지를 통해 알 수 있다.[7]

17세기 초에 남원의 사족들은 향촌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하여 조직체를 만들어 자치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향안」에 입록(入錄) 자격이 매우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삭녕 최씨는 이 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8] 또 남원의 읍지인 『용성지(龍城誌)』를 보면 남원 출신 명현(名賢)이 총 49명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삭녕 최씨는 5명이 수록되었다.[9] 이를 통해 삭녕 최씨가

천서원은 순흥 안씨인 안처순(安處順) 등을 배향한 서원으로 1619년(광해군 11)에 건립되었다. 노봉서원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삭녕 최씨 후손의 서원 건립 논의와 향촌 사족들의 공론에 힘입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6) 최수웅에 대해서는 『용성지』 인물 '우거조(寓居條)'에 실려 있다. 崔秀雄朔寧人 領義政號太虛亭恒之孫 參議燐之子 贈左通禮 始居屯德(『용성지』 권5, 「인물」 '우거').

7) 김현영, 앞의 책, p.81.

8) 송준호, 앞의 책, p.318. 당시 1590년대부터 1700년에 이르는 약 1세기 향안 명단에서 삭녕 최씨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지만, 남원지역에서 대표적인 사족으로 꼽히는 이유는 향헌(鄕憲), 부헌(副憲) 등 풍헌(風憲, 면의 장)의 직임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다. 풍헌의 통계를 향안의 통계와 비교해 보면, 향안의 주요 성씨라 하더라도 그들이 풍헌 조직을 주도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40년부터 1706년까지 향헌, 부헌의 명단을 분석해 보면 삭녕 최씨, 전주 이씨, 부안 김씨 등의 순인데, 이것이 향안보다는 더 정확하게 남원의 사족적 집단을 드러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김현영, 『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2, 1989, 한국사연구회, p.163 표 참조).

9) 『용성지』는 남원 읍지로, 용성(龍城)은 남원의 별호(別號)이다. 『용성지』에 따르면 명현이 49명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삭녕 최씨가 5명으로 제일 많고, 부안 김씨·전주 이씨·남양 방씨·창원 정씨가 각 4명, 흥성 장씨·광주 김씨가 3명, 순흥 안씨·풍천 노씨·장연 변씨·문화 유씨·광주 이씨가 2명 순이고, 남양 홍씨· 해주 오씨 등 기타 성씨가 12명이다(남원문화원, 『용성지』, 1995).

남원을 대표하는 가문의 하나로서 지역 내 사족지배 질서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노봉서원은 이러한 삭녕 최씨 가문의 성장과 발전 과정 속에서 건립된 산물로 보인다.

노봉서원은 삭녕 최씨 후손들이 선조인 최상중을 제향할 목적으로 사우를 건립한 데서 출발하였으며, 이어 향촌 사족과 논의하여 향현 홍순복과 오정길을 추향(追享)하여 1649년(인조 27) 노봉서원을 건립하였고,[10] 이후 최상중의 아들인 최온(崔蘊)이 1661년(현종 2)에, 손자인 최휘지(崔徽之)가 1694년(숙종 20)에 추향됨으로써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삭녕 최씨 가문과 남원 주요 사족들이 주도하여[11] 세운 노봉서원이 향촌사회에서 갖는 위상 또한 컸다. 이 점은 1649년 노봉서원 건립 초기에 전라도 관찰사가 노봉서원에 준 '노비절급첩(奴婢折給帖)'을 통해 알 수 있다.[12] 이 문서는 노봉서원에 사환노비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관찰사가 노봉서원 집강(執綱)에게 내려준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 노봉서원의 건립에 대해서는 기존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김현영, 앞의 책, p.129).; 한문종, 앞의 논문, p.168에서 노봉서원의 건립집단을 '사손(祀孫) 및 향유림'이라고 밝힌 것과도 상통한다. 한편 최시옹(崔是翁)의 시문집인 『동강선생유고(東岡先生遺稿)』에 따르면, "(최상중은)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며, 벼슬에 나아가기를 어렵게 여기고, 물러나기를 쉽게 여겼다. 세상을 떠나자,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그를 제향하였다."라고 나와있다(『동강선생유고』 권6, 종조폄재선생행장(從祖砭齋先生行狀)).

11) 「노봉서원상량문(露峯書院上樑文)」은 1648년(인조 26)에 황위(黃暐)가 작성한 것으로, 노봉서원의 배향인물 소개와 서원의 건립계기가 실려 있다. 상량문 상단부에 당시 남원 부사를 지냈던 인물이 송흥주임을 두주로 기재하고, 그의 행적과 공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서원 건립 당시 남원 부사 송흥주의 도움을 받았음을 의미한다(『노봉서원유현록』 권2, 「노봉서원상량문」). 송흥주의 가계와 행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경택, 「17세기 전반 전주지역 사족의 정치·사회적 동향」, 『한국학논총』 37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p.179~18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72 남원, 구례 삭녕 최씨편(1), 2004, p.349.

<사진 1> 노비절급첩 (출전: 한국학자료센터『고문서집성』72 DB)

관찰사 겸 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가 절급하는 일.

본 서원에서 노비로 부릴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므로 화순현(和順縣)에 살고 있는 공동주(孔東周)와 박상로(朴商輅)·천보인(千甫仁) 등이 서로 송사하였으나 양쪽에 해당되지 않아 속공된 노비 중에 광주에 사는 계집종 가지개(加之介) 나이 47세 및 가지개의 첫째 계집종 등화(等化) 나이 20세, 둘째 계집종 소을개(所乙介) 8세, 사내종 금이(金伊) 44세, 금이가 양인 처와 함께 난 첫째 계집종 승옥(勝玉) 나이 19세, 둘째 사내종 승업(勝業) 14세, 셋째 계집종 분향(分香) 12세, 계집종 건리(件里) 41세, 건리의 첫째 계집종 금추(今秋) 3세 등 9명을 훗날 이들의 소생 노비까지 아울러 영원토록 절급하며, 본 서원은 사람을 보내어 즉시 일일이 잡아서 줄 일이다. 거주하고 있는 광주목(光州牧)에서 관문을 발급하여 분부하므로 즉시 사람을 보내 붙잡아오고 각별히 보호하면서 부려서 도망가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다.[13]

즉 도내 화순현의 노비소송으로 속공(屬公)된 노비 중에 광주목에 거주하고 있는 9명을 절급하니, 잘 돌보아서 도망가는 폐단이 없게 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당시 남원 내 노봉서원 건립 주도 세력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을 짐작케 한다.

당시 관찰사가 송사 중에 속공된 노비를 서원에 절급한 것은 학문을 높이고 학교를 흥기시키며, 인재를 양육한다는 당시 국가 차원에서 서원을 보호하였던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또 서원 건립에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관아에서는 재지사족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어 향촌 사회를 다스리고자 한 정책의 일환인 반면, 서원의 입장에서도 남원 내 서원 건립의 당위성 내지 서원의 영향력을 인증 받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노봉서원은 삭녕 최씨 가문을 비롯하여 남원의 주요 성씨 가문 등의 여론에 따라 건립된 만큼 향촌 사회 내에서 갖는 위상과 영향력이 컸다. 아울러 삭녕 최씨 가문의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후 사액서원으로서의 발전과 운영에도 큰 기반이 되었다.

2) 노봉서원의 청액(請額) 과정 및 사액

『전북원우록』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사액서원은 총 15개소이다. 그 중에서도 남원에 소재한 사액 서원과 사우는 창주서원(滄州書院), 영천서원(寧川書院), 노봉서원(露峯書院), 충렬사(忠烈祠)로 총 4곳이다. 사액서원의 대부분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중반에 세워진 것으로, 배향인물도 대부분

13) 觀察使兼巡察使爲折給事 本院奴婢使喚不足是如爲乎等以 和順縣居孔東周朴商輅千甫仁等相訟 兩邊不當屬公奴婢中 光州居婢加之介年四十七 及同婢一所生婢等化年二十 二所生婢所乙介年八 奴金伊年四十四 同奴良妻幷産一所生婢勝玉年十九 二所生奴勝業年十四 三所生婢分香年十二 婢件里年四十一 同婢一所生婢今秋年三等九口 後所生 幷以永永折給爲旀 送本院差人 卽時一一捉給事 所居光州牧良中 發關分付爲去乎 卽爲送人捉來 各別護恤使喚 俾無逃散之弊向事 고문서의 탈초는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김봉곤·김아네스 편, 『南原露峯書院古文書』, 디자인흐름, 2010, p.279를 참고하였다. 탈초본 안에 '不過'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를 살펴보면 '不足'이며, '加勿介' 역시 '加之介'이므로 오류를 바로잡았다.

남원의 대표적인 사족이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남원의 사액 서원·사우

명칭	배 향 인 물	창건/사액
창주서원	노진(盧禛)	1579년/1600년
영천서원	안처순(安處順)·정환(丁煥)·정황(丁熿)·이대유(李大甫)	1619년/1689년
노봉서원	홍순복·최상중·오정길·최온·최휘지	1649년/1697년
충렬사	정기원(鄭期遠)·이복남(李福男) 등	1612년/1653년

출전:『전북원우록』과『용성지』

초기 서원의 청액 과정은 서원의 유생이나 서원 소재지 지방관의 요청을 받아 감사가 사액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 사액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나 17세기 후반 이후 서원이 향촌사회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청액 과정과 사액 기준도 완화되었다.

지방 서원으로서 사액되기 위해서는 중앙관료와 중앙정계에 대한 사전 준비와 분위기 파악이 전제되며, 배향인물의 문인과 자손이 정계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절대적이었다. 사액서원으로의 발전은 곧 국가의 공인을 받는 것과 동시에 서원 운영에 안정적인 재정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서원들은 사액을 요청하는 데 막대한 물력을 소비하였는데, 그 자금의 대부분은 청액 논의 자금, 상경 유생의 노자(路資), 청탁 교섭 자금 등으로 쓰였다.[14]

노봉서원의 청액 역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격화되었던 시기였는데, 삭녕 최씨는 소론 가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최휘지, 최유지는 윤증(尹拯), 이경석(李景奭), 박세채(朴世采) 등과 교분이 깊었으며, 혼인관계로 윤증 가문과 인연을

14) 이수환, 앞의 책, p.37.

맺기도 하였다.[15] 이러한 노력은 남원에서의 삭녕 최씨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사족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로 이어졌고, 소론이 정권을 잡은 1694년 이후 최휘지의 추배와 함께 사액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노봉서원의 사액 요청 경위는 1696년(숙종 22) 9월 15일 남원 교룡산성(蛟龍山城)의 절[16]에서 전라도 각지의 유생들이 모여 청액소를 짓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8일 전 장의(掌議) 김서응(金瑞凝)과 생원(生員) 최여천(崔與天) 등이 청액소를 가지고 상경하여 서울 새문[新門] 밖에 머물다가 11월 1일에 예조(禮曹)에 올렸다.[17]

윤유(尹揄)가 지은 노봉서원의 「서원청액소」는 내용상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된다. 앞부분에서는 서원과 사우에 편액을 내리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급선무임을 밝혔고, 중간부분에서는 배향인물인 홍순복, 최상중, 오정길, 최온, 최휘지의 행적을 학문・충의・효행 등의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이들이 남원 지방의 존경과 흠모를 받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끝부분에서는 남원에 이러한 인물이 있음에도, 조정에 이러한 행적을 알리지 못하여 아직까지 현호(顯號)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사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숙종은 "상소를 잘 살펴보았다. 상소한 내용은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고 비답을 내려 예조에 사액에 대한 검토 및 보고를 올리게 하였다.[18] 노봉서원의 청액소는 예조의 심의를 거쳐 이듬해인

15) 김봉곤, 「지리산권(남원)사족 삭녕최씨 가계기록과 통혼권」, 『고문서연구』 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p.155

16) 이 절은 오늘날의 선국사(善國寺)를 가리킨다. 산성 내에 있다고 '산성절'이라 부르기도 하며, 용천(龍泉)이 있다고 하여 '용천사'라고 하였다(남원문화원, 『용성지』, 1995, p.161~162 참조).

17) 당시 남원 유생들이 모여서 청액소를 지어 상소하기까지의 절차가 「서원청액소」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다. 丙子九月十五日 本道多士 會議于南原蛟龍山城寺 定請額疏事 十月初八日 自德里發疏行 金瑞凝崔與天同行 寓于京城新門外 十一月初一日上疏 卽下該曹(『노봉서원유현록』 권1, 「서원청액소」).

1697년(숙종 23) 3월 17일 우승지 김세익(金世翊)에 의해 예조의 회계가 숙종에게 보고되었고 이에 특별히 사액하라고 계하(啓下)하였다. 『서원등록(書院謄錄)』에 따르면 예조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대해 판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교서와 사액명은 예문관(藝文館)에서 짓도록 하였으며, 상소의 원본도 예문관으로 옮겨졌다.[19]

노봉서원은 1697년에 사액을 받으면서 봄가을로 제수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호(復戶) 3결[20]과 유생 20명, 보노(保奴) 20명, 접인(接人) 40호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1697년 5월 28일에는 사액서원 고유제(告由祭)가 진행되었다. 전날인 27일 노봉서원의 재임(齋任)인 생원 김서응이 남원부(南原府)에 들어가 제물을 받아왔고, 28일 아침에는 서원에 고유하고 제수 음식을 차려 제례를 거행하였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 특별히 제관(祭官)으로 예조좌랑(禮曹佐郞) 송만(宋墁)을 파견했다. 고유제에는 운봉(雲峰), 구례(求禮), 옥과(玉果) 현감이 참석하였고, 그 이하 진사, 생원, 유학 등이 각각 집례(執禮)와 봉액(奉額) 등을 맡았다.

15세기 후반 삭녕 최씨는 남원에 입거한 이래 최상중을 비롯한 자손들이

---

18) 「예조회계」를 살펴보면 서원에 배향된 다섯 인물의 성품, 학문, 효행 등에 대해 청액소의 내용을 토대로 간단히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생이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제기를 갖추어 받든 지가 지금 여러 해 되었으니 한 지역의 공론과 많은 선비들이 받들어 모시는 정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존중하는 도리에 있어 특별히 편액을 내려 후학들의 본보기로 삼고 한 지역에서 스승을 받드는 정성을 위로하심 마땅할 듯합니다. 하지만 사액의 일은 중요한 전례(典禮)라 신들의 예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결단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성상께서 결재하심이 어떠합니까." 儒生之創建祠宇 俎豆崇奉者今已積有年所 則一方公共之論 多士尊奉之誠 於此可見 其在聖朝崇儒重道之道 似當特許宣額以爲後學矜式之地 且慰一方尊師之誠是白乎矣 恩額重典 臣曹不敢擅便 上裁何如(『노봉서원유현록』 권1, 「예조회계」).

19) 康熙三十六年三月十七日 右承旨臣金世翊次知啓 特爲賜額爲良如敎 曹啓目粘連判下是白有亦 敎書及額號 令藝文館製出何如 啓依允 原疏移送藝文館(민창문화사, 『서원등록』 상, 1990, p.673).

20) 사액서원의 면세전은 인조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어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 명문화되었다. 『속대전』 호전조(戶典條)에 따르면, 사액서원의 경우 3결을 지급하며,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은 면세전을 갖지 못한다. 서원의 유생 모집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숙종실록』 54권, 39년(1713) 9월 25일(기사)에 보인다.

현달하여 대표적인 사족으로 입지를 굳혀갔고, 그 산물로 건립된 노봉서원의 청액과 사액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루어졌다.[21] 삭녕 최씨 가문이 남원에서 입지가 탄탄하고, 중앙 정계에 이경석, 신완 같은 확실한 정치세력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노봉서원은 청액소를 올린 지 다음해 5월에 곧바로 사액될 수 있었다.

2. 노봉서원 배향인물 분석

노봉서원이 처음 건립될 당시 배향된 인물은 주벽인 홍순복을 비롯하여 최상중과 오정길 총 3인이었다. 홍순복의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호는 고암(顧菴)으로, 대사성을 지낸 김식(金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홍순복은 기묘사화 때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조광조와 김식 등을 변호하려다 죽임을 당한 인물로, 1545년(인종 1)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22]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봉서원은 삭녕 최씨가 주도적으로 건립·운영한 서원이며 주벽인 홍순복의 후손이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크게 간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노봉서원이 훼철되고 난 뒤 노봉서원 재산 분배 원칙을 정한 「노봉토재집물분집완약문(露峯土財什物分執完約文)」이나, 재산을 나눈 기록인 「노봉서원답고집물분거록(露峯沓庫什物分去錄)」에 남양 홍씨 가문을 제외한 삭녕 최씨가, 해주 오씨가만 참여하였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대체로 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주벽이나 배향으로 구분되며 이들 사이에

---

21) 당시 집권세력과 연결된 정치적 비중이 있었던 서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원 사액은 한두 번의 청액으로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수차에 걸쳐 청액해도 사액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이수환, 앞의 책, p.55).

22) 실록 등에는 홍순복의 신원과 영의정에 추증된 일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인종실록』에서 "조광조 등의 벼슬을 일체 전일의 중의(衆議)처럼 회복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현량과도 전에 아뢴 대로 그 과를 회복하여 거두어 등용하도록 하라."는 기사를 살펴볼 때 홍순복의 신원과 추증 또한 이때를 전후로 이루어졌을 것이다(『인종실록』 2권, 1년(1545) 6월 29일).

위차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홍순복이 기묘사화에 연루되기 전에 남원 향촌사회에서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였으며, 사후 그를 기묘명현으로서 추앙받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삭녕 최씨가에서 주도적으로 건립한 서원에 홍순복을 주벽으로 삼음으로써 서원의 건립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는 짐작도 가능하다.

최상중의 본관은 삭녕(朔寧)이며 호는 미능재(未能齋)이다. 유희춘(柳希春)의 문인으로 1576년(선조 9) 진사시에 입격하고, 1589년 증광 별시(增廣別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23]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원수 권율(權慄)의 종사관이 되어 보필하였다.[24]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최상중은 호남과 영남에서 쌀을 싣고 다니며 굶주린 자들을 구휼하였고 삼태기와 삽 등을 가지고 다니며 길가에 뒹구는 시신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공로로 뒤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2등에 봉해졌다.[25] 그 뒤 검열(檢閱)·헌납(獻納)·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사간(司諫)·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등을 역임하였으며, 1602년(선조 35) 사간 직을 끝으로 관직을 그만두고[26] 고향인 남원으로 돌아왔다. 사후 도승지(都承旨)에 추증되었다가 아들 최연(崔荐)의 공로로 대사헌(大司憲)에 가증(加贈)되었다.

---

23) 최상중은 1589년(선조 22), 즉 38세 되던 해 실시된 증광 별시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 해 동향 출신 장경세(張經世) 역시 급제하여 두터운 우정을 나누었으며 사돈관계를 맺기도 하였다(송준호·송만오 편저, 『朝鮮時代 文科白書(上)』, 삼우반, 2008, p.317~319).

24) 이에 대해 『남원지』에서는 "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켜 권율장군의 운량장(運糧將)으로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 초유사(招諭使)의 직함을 띠어 또한 공적이 매우 많았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록』 등의 관찬사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남원지』, 종합협동연구사, 1972, p.301); 壬辰爲倡義將 丁酉拜招諭使 元帥權公慄以先生才兼文武 啓請 爲從事者再度 載筆戎幕 前後凡五六年 軍機無漏 幕謀居多 幸州之役 勤勞尤著 擢拜翰林 出於天褒功居一等 名振當世(『노봉서원유현록』 권1, 「미능재최선생행적」).

25) 당시 장령이었던 최상중은 1605년 선무원종공신 2등에 봉해졌다(『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 p.92). 선무원종공신 9천 60명을 계하한 전지는 『선조실록』 186권, 38년(1605) 4월 16일(경신)조에 보인다.

26) 『선조실록』 47권, 27년(1594) 1월 18일(정유); 『선조실록』 144권, 34년(1601) 12월 30일(계사).

오정길의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호는 해서(海西)이다. 검교군기감소감(檢校軍器監小監) 오종인(吳宗寅)의 후손이자, 복재(復齋) 오수성(吳遂性)의 아들이다. 오정길은 1591년(선조 24) 생원시(生員試)에 입격하고 1603년(선조 36) 식년시 병과(丙科) 23위로 급제하여[27] 교서관 정자에 임명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남원으로 내려왔다. 그 뒤 더욱 학문에 전념하여 유팽로(柳彭老)와 양시진(楊時晉), 방원정(房元井)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오정길은 도내에서 여러 차례 천거를 받을 정도로 덕행과 학행으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었으며, 최온의 형 최연과 과거에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최온은 최상중의 아들이며, 최연의 아우이다. 그는 1609년에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반란 때, 최온은 형 최연과 함께 직접 격문(檄文)을 작성하여 도내에 두루 돌리고 남원 율장[栗林]에서 의병을 규합하였다. 군대를 재촉하여 서쪽으로 향하던 중 이괄이 처형되어 난리가 평정됨을 듣고 의병을 해산했다.[28]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을 때에도 최온은 이흥발(李興浡) 등 몇 사람과 함께 의병을 규합하여 여산(礪山)에서 재회(齋會)를 갖고 청주(淸州)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강화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최온은 효종의 사부・순창 현감(淳昌縣監)・비안 현감(比安縣監)・사업(司業)・장령(掌令)・승지(承旨) 등을 역임하였다.[29] 1649년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노봉서원에 자신의 땅을 기증하여 서원을 운영하는 데 재정적으로 큰 공헌을 했다.[30]

---

27) 오정길은 1603년(선조 36)에 실시된 식년시에서 병과에 급제하였다. 동향 출신 최상중의 아들 최연(崔符) 역시 1603년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같은 해 식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송준호・송만오 편저, 앞의 책, p.355~357).

28) 是年 春逆适叛 先生與仲兄判書公 手草檄文 遍諭道內 糾合義旅于南原栗場 趣兵西行 聞巨魁伏法 王師解嚴之報 罷義兵還歸(『노봉서원유현록』 권1, 「펌재최선생행적(砭齋崔先生行蹟)」).

29) 실록에서는 최온에 대해 "남원 사람으로 기국과 도량이 맑고 쾌활하여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평하였다(『인조실록』 32권, 14년(1636) 6월 23일(병신)).

30) 『노봉토재집물분집완약문』을 살펴보면, 최온이 서원에 토지를 기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後山本是砭齋先生立案之地 而且其宗孫方守居院址 故還付宗孫(『남원노봉서원고문서』 「노

1658년(효종 9) 최온이 죽자, 효종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최온은 바로 지난날 나를 가르친 스승이었는데, 지금 그의 부음을 들으니 내 마음이 몹시 놀랍고 슬프다. 본도[全羅道]로 하여금 장례용품과 조묘군(造墓軍)을 제급(題給)하게 하라. 그리고 예조로 하여금 2품관 의례에 따라 특별히 제사를 내려서 나의 뜻을 표하게 하라."[31]

정3품이었던 승지 최온을 2품관의 예에 따라 특별히 제사(祭詞)를 내리게 하였는데, 당시 제교(製敎)였던 이원규(李元圭)가 지은 제문의 전문이 『노봉서원유현록』에 실려 있다.

최온은 당시 남원에서 명망 있었던 장경세(張經世)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사별하였고, 유호(柳顥)의 둘째딸과 혼인하였다. 그러나 후사가 없어 최연의 둘째아들인 최유지(崔攸之)를 입양하였다.[32] 최온이 죽은 다음해 고을의 선비들이 상의하여 1661년(현종 2)에 추향하였다.[33]

최휘지는 최상중의 손자이자 성만(星灣) 최연의 아들로, 호는 오주(鰲洲)[34]이다. 1624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뜻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였다.[35] 1630년(인조 8)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금오랑(金吾郎)에 제

봉토재집물분집완약문」 p.296 탈초본 참조). 탈초본에 '而此其宗孫'의 '此'는 '且'이므로 바로잡았다.

31) 『효종실록』 21권, 10년(1659) 1월 24일(병진).

32) 取仲氏判書公之次子司諫公爲後 司諫公諱攸之(『동강선생유고』 권6, 종조폄재선생행장). 최유지는 1630년(인조 8)에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1646년(인조 24)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삼사(三司)의 관직과 집의, 사간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33) 『노봉서원유현록』에 최온을 서원에 추향할 때 올렸던 상소인 「폄재최선생서원철향시소(砭齋崔先生書院腏享時疏)」가 수록되어 있다.

34) 夙愛鳳城鰲山山水之勝 且便於展墓 縡得竹屋數間 揭來徜徉 仍自號曰 鰲洲(『노봉서원유현록』 권1, 「오주최선생행적(鰲洲崔先生行蹟)」).

35) 逮仁祖改玉 始中甲子進士 自是絶意進取 唯專心問學焉(『노봉서원유현록』 권1, 「오주최선생행적」).

수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낙향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계부(季父) 최온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청주에 이르러 이미 강화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며 돌아왔다.[36] 최휘지는 병자년 이후 누차 관직을 제수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56년(효종 7)에 삼계(三溪) 단구(丹丘) 위에 대를 쌓고 구로회(九老會)를 만들어 동생 최유지 등과 함께 시문을 읊기도 하였다.[37]

1659년(효종 10) 임금이 청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을 뜻을 품고 인재를 두루 초빙했을 당시 묘당(廟堂)에서 서로들 최휘지를 천거하여 마침내 공조 좌랑(工曹佐郎)에 발탁되었으나, 재직한지 20일 만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38] 그 후 1669년에 죽고, 1694년(숙종 2)에 노봉서원에 추향되었다. 당대의 명망가였던 문곡 김수항(金壽恒)이 최휘지의 묘갈명을, 박세채(朴世采)가 묘지명(墓誌銘)을 지었다.[39]

최휘지의 첫째 부인은 전주 이씨 이유간(李惟侃)의 딸이며, 둘째 부인은 남원 양씨 양준우(梁俊遇)의 딸로 두 가문 모두 남원의 주요 사족이었다.[40]

---

36) 及丙子之難 判書公 隨駕入南漢 府君在家聞變 不勝忠憤 從承旨公 共謀倡義糾旅 至淸州聞講和 痛哭而罷(『동강선생유고』 권6, 선고오주부군가장). 하지만 김수항이 쓴 최휘지의 묘갈명에는 병자호란 당시 최휘지의 의병활동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문곡집(文谷集)』 권18, 익위최공묘갈명(翊衛崔公墓碣銘)).

37) 구로회는 당시 17세기 초 남원 둔덕방에 살던 60세 이상의 노인 9명이 모여 만든 계회(契會)이다. 구성원은 삭녕 최씨인 최휘지·최유지, 흥성 장씨인 장제(張晭)·장서(張曙)·장선(張璇), 청주 한씨인 한유(韓瑜)·한빈(韓賓), 그리고 진주 하씨 하득도(河得道)·하만리(河萬里) 등이다. 관련 내용은 『용성지』의 「단구구로기(丹丘九老記)」와 『남원지』의 「단구구로회서(丹丘九老會序)」에 자세히 나와 있다(남원문화원, 『용성지』, 1995; 『증보판 남원지』, 종합협동연구사, 1972).
及歸德里 築臺於三溪丹丘之上 與季司諫公 約同里士友 爲九老會(『노봉서원유현록』 권1, 「鰲洲崔先生行蹟」);後與司諫公 約同里老人 爲九老會 良辰美景 詠歌爲樂 鄕里艷之(『南溪集』 권79, 墓誌銘－翊衛司翊衛崔公墓誌銘).

38) 丙子以後 屢有除命 而皆不就 孝宗己亥 上方有復雪之志 旁招俊乂 廟堂儒賢 交薦之擢 拜工曹佐郎……在職兩旬 移疾旋歸(『노봉서원유현록』 권1, 「오주최선생행적」).

39) 이에 대한 전문은 『문곡집』 권18, 익위최공묘갈명; 『남계집(南溪集)』 권79, 익위사익위최공묘지명(翊衛司翊衛崔公墓誌銘)에 보인다.

영의정을 지낸 이경석(李景奭), 호조 판서를 지낸 이경직(李景稷)과는 처남 매부 사이이며, 이유간은 사위에게 대가(代加)하여 품계를 높여주었다.

이상 노봉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용성지』의 명현조(名賢條)는 물론, 『향안』에 입록된 인물로서 생전에 남원 내 향촌 사회 운영에 큰 공헌을 하였다. 노봉서원은 건립 당시 홍순복·최상중·오정길을 배향하였고 최온을 1661년에, 최휘지를 1694년에 추향하였는데 이는 당시 서원이 문중화 되던 시대상황과도 상통한다. 최온과 최휘지는 노봉서원의 원장직을 맡아 건립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특히 최온은 땅을 서원에 기증하여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건립 초기 다소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삭녕 최씨 문중은 원장직을 연임하여 서원 운영에 기틀을 다졌고, 이후 사액서원으로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Ⅲ. 노봉서원의 운영

1. 노봉서원 「장이안」

「노봉서원장이안(露峯書院長貳案)」은 역대 원장(院長)과 장의(掌議), 유사(有司)의 명단이 기록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건립당시부터 서원의 훼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인물이 맡아서 운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41] 노봉서원의 원임은 원장·장의·유사·색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40) 최휘지의 첫째 부인은 3남 2녀를 두었고, 둘째 부인은 2남 1녀를 두었는데, 최시옹과 최계옹은 둘째 부인 소생으로 당시 남원 향촌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崔仁九, 『朔寧崔氏世譜卷之丙編上－通禮公派』, 朔寧崔氏大宗親睦會中央總部本, 1957, p.4~5).

41) 「노봉서원장이안」은 1649년 건립 때부터 1871년 훼철 때까지 원장·장의·유사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로, 모두 90여 면에 걸쳐 기록되었다. 『고문서집성』 72를 살펴보면 원장·장의·유사 등의 명단이 「서원치임」에 수록되어 있는데, 총 24면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 「노

종신직인 원장을 제외한 이들의 임기는 약 2년이었다. 본 절에서는 「심원록」 분석으로도 성관을 뚜렷하게 밝힐 수 없었던 유사·색장직을 제외하고 역대 원장·장의직을 지낸 인물과 성관 등을 표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서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살펴보고자 한다.[42]

「장이안」은 1649년부터 1651년까지 원장을 지낸 전 좌승지(前左承旨) 최연(崔荏)부터 1757년 원장을 지낸 생원 노세식(盧世植)과 1700년대 후반 원장직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허석(許奭)까지 기록되어 있다.

<표 2> 노봉서원 원장 명단

순	성명	본관	직역	임기	생몰년
1	崔荏	朔寧	전 좌승지	1649~1651	1576~1651
2	李惟馨	全州	전 도사	1652~1656	1586~
3	崔薀	朔寧	전 승지	1656~1658	1583~1659
4	崔徽之	朔寧	전 좌랑	1660~1669	1598~1669
5	柳東淵	文化	전 감역	1674~1681	1613~1681
6	盧亨望	豊川	생원	1680년대 추정	1613~ (외조부 최상중)
7	李文規	全州	전 참봉	1680년대 추정	1617~1688
8	金元白	慶州	호군	1689~1689	
9	李文英	全州	유학	1689~1705	
10	崔是翁	朔寧	전 지평	1700년대 전반 추정	1646~1730

봉서원장이안」과 달리 장의·유사를 비롯하여 색장직(色掌職) 명단까지 기재 되어 있으나 원장직은 1702년 최계옹(崔啓翁) 단 한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다. 「노봉서원장이안」과 「서원치임」은 모두 필사본으로 직임자 이름과 교체 시기가 거의 일치 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서원치임」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노봉서원장이안」을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42) 「장이안」에는 원임의 성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가문들이 주로 간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본 절에서는 「심원록」을 바탕으로 서원의 원장직과 장의직을 지낸 인물의 성관을 재구성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11	崔昌基	朔寧	통덕랑	1700년대 전반 추정	1665~1743
12	李潤華	全州	유학	1700년대 전반 추정	
13	盧世植	豊川	생원	1757~?	1686~
14	許 瀷	陽川	진사	1700년대 후반 추정	1693~

출전 : 「남원노봉서원장이안」

<표 2>를 보면 1649년부터 1700년대 전후로 원장을 지낸 자는 총 14명이며, 그 중 삭녕 최씨는 5명이다. 서원 건립 초기부터 약 20여 년간 삭녕 최씨 가문에서 원장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삭녕 최씨가 서원 운영에 초석을 닦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유형은 이엽(李曄)의 아들로, 최연과 최온의 형인 최보(崔葆)의 처와 남매지간이다. 또 이유형과 사촌지간인 이상형(李尙馨)의 아들, 이문재(李文載)는 최휘지의 사위이다. 유동연과 노형망의 뒤를 이어 원장이 된 이문규 역시 이엽의 손자이다. 또한 유동연은 유호(柳灝)의 셋째 아들로 최온이 그 누이와 혼인함으로써 처남 매부지간이 된다. 노세식은 최휘지의 외증손으로 노형명(盧亨命)의 아들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삭녕 최씨는 남원 대표 사족 몇 가문에 한하여 혼인 관계가 중첩되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징이었다.[43]

삭녕 최씨는 남원에서 전주 이씨, 풍천 노씨, 남원 윤씨, 남원 양씨 등 남원의 대표 사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가며 사족망을 유지, 발전시켜왔고 이 같은 양상은 노봉서원의 원장 명단에도 나타난다. 서원의 원장 역임자가 대부분 삭녕 최씨 가문과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서원의 건립 주체 또한 삭녕 최씨가 주를 이루었으며, 서원 건립에 뜻을 함께했던 향촌 유림들 역시 이 배향인물들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송준호, 앞의 책, p.298.

역대 원장의 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원의 건립 초기에는 승정원 정3품 당상직인 좌승지, 종 5품의 도사 등 관직을 역임한 인물이 원장을 맡았으며, 후대로 내려가면서 생원·진사 등이 원장 직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후대로 내려가면서 신분제 변동, 서원의 남설 등에 따라 초기에 비하여 원임 선발 규제가 완화되어 갔으며, 서원의 성향이 점차 문중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자료라 하겠다.

서원이 사립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원장의 선출은 서원 안의 유림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장이 한번 선출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종신하였으며, 서원 내 운영 사항과 관련해 감독·자문 역할을 하였다. 노봉서원의 「장이안」을 살펴보면 원장의 교체시기와 사망연대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원장의 명단과 교체시기가 누락된 곳이 보이며, 1800년대 이후에는 기록된 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 기존연구에서는 후대로 갈수록 원장 선출 역시 서원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추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44]

다음으로 노봉서원의 장의를 살펴보자. 장의는 원장직에 비해 원중(院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재임기간은 보통 2년이었다. 노봉서원의 「장의안」에는 1649년 여름부터 1650년 가을까지 장의를 맡은 이유형(李惟馨)부터 1870년 여름에 교체된 윤태희(尹泰希)까지 총 96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성관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44) 이수환은 필암서원의 원장직을 분석하면서 임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거나 연대상 중간에 기록이 없는 경우를 들어 원장직이 오랜 기간 공백인 것은 서원의 현실이해 관계에 따라 추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이수환, 앞의 책, p.125~126).

<표 3> 노봉서원 장의직 성관별 배출 분포

순	성관	직임자수	순	성관	직임자 수
1	전주 이(全州李)	20	9	안동 김(安東金)	1
2	삭녕 최(朔寧崔)	11		순흥 안(順興安)	1
3	청주 한(淸州韓)	9		광주 이(光州李)	1
4	흥성 장(興城張)	8		연안 김(延安金)	1
5	남원 윤(南原尹)	6		진주 소(晉州蘇)	1
6	문화 류(文化柳)	4		금성 진(錦城陳)	1
	전주 최(全州崔)	4		경주 김(慶州金)	1
7	부안 김(扶安金)	3		월성 김(月城金)	1
	진주 하(晉州河)	3		합천 이(陜川李)	1
	순천 김(順天金)	3		헌산 김(巘山金)	1
8	남원 양(南原梁)	2		파평 윤(坡平尹)	1
	풍천 노(豊川盧)	2		양천 허(陽川許)	1
	남양 방(南陽房)	2		남원 양(南原楊)	1
	경주 정(慶州鄭)	2		서산 류(瑞山柳)	1
	화순 최(和順崔)	2			
	미상(未詳)	2			
합 계					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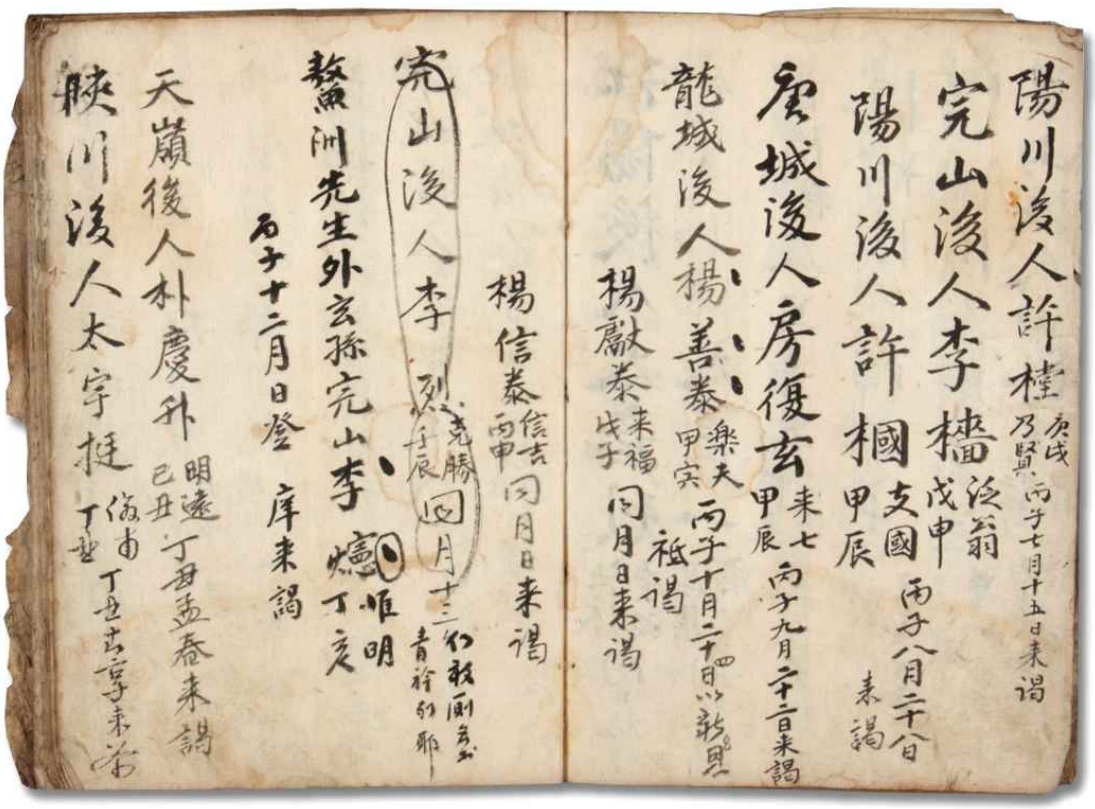
출전 : 「남원노봉서원장이안」

노봉서원의 직임자를 성씨별로 분석하면 전주 이씨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삭녕 최씨, 청주 한씨, 흥성 장씨, 남원 윤씨 등의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남원의 유력 사족으로서 삭녕 최씨와 혼인관계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은 가문이다. 조선시대 서원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남설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문중화 경향을 보였다. 노봉서원 역시 문중서원으로써 건립과 운영에 삭녕 최씨가문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장이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원 대다수의 사족들이 원임으로서 운영에 참여했다는 점은 노봉서원이 남

원 향촌사회 내에서 엄연히 서원으로서 향촌 여론의 구심점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2. 노봉서원 「심원록」

「심원록」은 서원을 방문한 사람이 남긴 일종의 방명록으로 '「봉심록(奉審錄)」' 또는 '「시도기(時到記)」'라고도 한다. 노봉서원의 「심원록」은 총 3권으로 제1권은 서원이 건립된 1649년부터 1810년까지, 제2권은 1703년부터 1732년까지, 제3권은 1794년부터 서원이 훼철되는 1871년까지 기록되어 있다. 「심원록」에 쓰여진 방문자의 기재사항은 일반적으로 본관과 성명, 자, 방문한 해의 간지와 월일이며 아래에 간단히 방문사유를 기록하였다. 또한 과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름 옆에 방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사진 2> 「심원록」의 기재양식 (출전 : 한국학자료센터 『고문서집성』 72 DB)

「심원록」은 자료의 특성상 방문자마다 서체, 기재양식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별지를 붙여 이전 방문자 위에 덮어씌우거나 칼로 방문자명을 오리거나 혹은 붓으로 지워 시간의 선후관계가 일정치 않다. 게다가 노봉서원의 「심원록」은 간간이 누락된 해도 있다. 그러나 서원이 향촌 여론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심원록」의 분석은 당시 노봉서원의 위상과 교류 인사의 성격을 조망해 보는 데 좋은 자료이다.

「심원록」에 기재된 1258명 중 최다방문자를 성씨별로 조사해보면 <표 4>와 같다. 총 1258명의 방문자와 198개의 성관 중에 편의상 연대를 왕대별로 끊어 정리하되 최다 방문자 순(중복방문포함)으로 10위까지 추려 정리한 것이다.

<표 4> 노봉서원 방문자 성관별 분석

순	성관	효종 1649 1659	현종 1659 1674	숙종 1674 1720	경종 1720 1724	영조 1724 1776	정조 1776 1800	순조 1800 1834	헌종 1834 1849	철종 1849 1863	고종 1863 1871	계
1	삭녕 최	0	0	14	3	19	14	20	0	4	1	75
2	전주 이	1	2	23	4	22	8	10	1	1	2	74
	남원 梁	1	8	42	3	11	3	4	0	1	1	74
3	해주 오	0	0	10	3	23	10	5	5	8	0	64
4	진주 소	0	2	43	0	8	2	2	1	1	1	60
5	흥성 장	0	5	26	1	14	3	4	1	0	0	54
6	남원 윤	0	1	14	1	22	4	2	2	0	0	46
7	전주 최	0	3	16	2	10	4	7	0	0	0	42
8	청주 한	0	2	11	1	15	2	5	0	1	0	37
9	순흥 안	0	0	12	0	10	1	9	0	1	0	33
10	남원 楊	7	3	5	0	4	0	7	1	0	0	27
	계	9	26	216	18	158	51	75	11	17	5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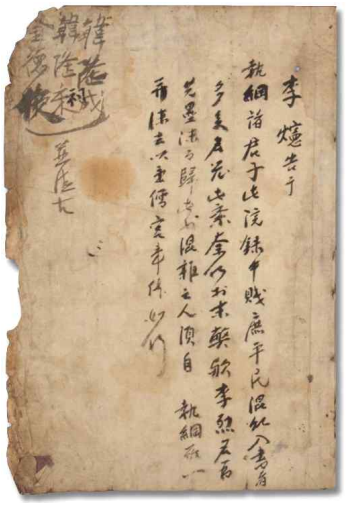
출전 : 「노봉서원 심원록」

최다 방문자 수는 성씨별로 삭녕 최씨, 전주 이씨, 남원 양씨, 해주 오씨, 진주 소씨 등의 순이다. 특히 집권층의 교체가 빈번하고 서원이 발전하여 사액되는 시기인 숙종 대에 서원 방문자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향된 인물의 가문을 살펴보면 삭녕 최씨와 해주 오씨가 꾸준히 방문한 것과 대조적으로 남양 홍씨 방문자 수는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홍순복의 자손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그나마 남원에 살던 외손 몇 명도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기록과도 관련 있다.45)

방문자의 방문 사유는 춘추향사 때 방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배향인물의 후손들이 제향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또 과거에 합격하여 찾아오는 사람도 약 132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합격 직후 서원에 와서 예를 올렸다.

한편 「심원록」 안에는 방명록 작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1756년에 방문한 최휘지의 외손 이헌(李火憲)이 노봉서원 집강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이헌은 자신보다 먼저 다녀간 이열(李烈)의 이름을 지우기를 요청하였는데, 위에 제시한 <사진 2>는 이 기록에 관련된 부분이다.

> 이헌이 집강 여러 분에게 고하노라.
>
> 이 노봉서원의 「심원록」 안에 천인·서인·평민이 뒤섞여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많아 이에 명분이 문란하게 되었으니 그 폐단을 어찌할 것인가.
>
> 이열이라는 이름은 우선 먹으로 지워버리고 이 「심원록」에 기재된 섞여 들어간 사람들을 모름지기 집강소에서 일체 모두 지워 서원의 체통을 중히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46)



<사진 3> 방문자삭제 요청기록
(출전 : 한국학자료센터
『고문서집성』 72DB)

45) 先生娶南原人金鐺女 仍居於同里 而有二子 皆無嗣 只有外孫數人 亦散居他邑 大賢後寥寥至此 吁可惜也(『노봉서원유현록』 권1, 「고암홍선생행적(顧菴洪先生行蹟)」).

46) 李火憲告于執綱諸君子 此院錄中 賤庶平民 混記入書者多矣 名器此紊奈何於末弊歟 李烈名爲

이 문서는 이미 「심원록」에 기재된 자의 이름을 지우도록 하고 이로 말미암아 천인・서인・평민이 섞여있는 경우도 일체 다 없애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헌은 서원 방문자의 명부가 엄밀한지 여부에 따라 서원의 체통과 기강이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는 그 당시 「심원록」이 단순한 방문인을 기록한 장부가 아니라 유생 명부인 '「청금록(靑衿錄)」'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한 <사진 2>를 자세히 보면 이열의 이름과 자, 생년, 방문한 날이 기록된 바로 밑에 "어찌 감히 청금의 반열에 이름을 낄 수 있겠는가.[何敢厠名於靑衿列耶]"라고 추기(追記)한 부분이 보인다. 「심원록」은 곧 유생 명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간간이 방문한 자의 성명을 추기 또는 삭제, 또는 종이를 덧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심지어 칼로 오려내는 등의 훼손이 보이는 것이다. 이는 「심원록」에 기입되기 마땅하지 않은 자를 가려 기재함으로써 서원 출입 인사들과의 결속을 다져갔고, 남원 향촌사회에서 서원의 위상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보여준다.

3. 고문서를 통해 본 운영의 일면

『남원노봉서원고문서』에는 소지(所志) 23점, 품목(稟目) 23점, 전령(傳令) 2점, 고목(告目) 1점, 서목(書目) 29점, 절급첩(折給牒) 1점, 완문(完文) 14점, 명문 10점으로 총 103개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소지는 보통 관부에 올리는 소장・청원서 등의 형식으로, 대부분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이다.[47] 노봉서원에서 올린 소지는 서

先墨沫而歸 此於混雜之人 須自執綱所 一并抹去 而重儒宮事體 如何(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72, 「노봉서원심원록」, p.725).

47)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p.306.

원의 접인(接人)들에게 부과한 잡역을 면제시켜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1771년에 올린 소지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830년대 전후에 올린 문서이다.

『남원노봉서원고문서』에 수록된 소지와 품목 대부분은 서원의 접인(接人)에 대해 잡역을 면제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접인은 국가에서 사액서원에 대해 수복(守僕)·고직(庫直)·제물고직(祭物庫直) 등 세금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 호(戶)이다. 이들은 서원에 입록됨으로써 나라의 제잡역을 면제받았으며, 서원 내 각종 잡역을 담당하거나 일정량의 돈이나 현물 등을 납부하였다.[48] 따라서 이들의 잡역 여부는 바로 서원의 경제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서원의 남설에 따라 서원의 영향력이 줄어들던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오면 접인에게도 첩역(疊役)을 부과하여 춘추향제를 지내지 못하는 등 서원의 관리와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서원의 접인 등 원속의 첩역 면제 등의 청원서에 대해 관아에서는 대부분 대정(代定)하게 하고 곡절을 조사하여 처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830년대를 전후로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관아에 주기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보면 접인의 환속(還屬)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령, 고목, 서목은 주로 노봉서원의 향사에 관련된 제수품 지급, 서원의 중건에 필요한 재목 확보에 대한 관아의 협조를 요청한 문서가 대부분이다. 이는 서원 운영에 소비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방관아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서원 경제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원 측에서 첩역 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나 해당 지방관에게 소지 등을 올려 요청하였기에 서원과 관(官)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는 서원의 경제적인 기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완문은 남원 부사가 노봉서원 측에 권리를 인정해준 문서로, 노봉서원이

48) 이수환, 앞의 책, p.190.

사액서원으로서 얻은 특권, 즉 원속들에 대한 잡역 면제에 대해 규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노봉서원이 서원 인근 촌을 점유하여 지방관의 승인을 받아 '서원촌'으로 소속시켰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체로 서원촌에 소속이 되면 이들 촌은 군역, 잡역의 면제를 받았으며 그 대신 서원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담당하였다.[49]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는 온갖 잡역과 환곡의 폐단이 심했기 때문에 제역촌의 성격을 띠는 서원촌은 서원과 서원촌민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확산되어 갔다. 완문은 바로 서원촌의 권리를 인준하는 문서로, 서원촌은 서원전과 원속 등과 더불어 노봉서원의 또 다른 경제적인 기반 역할을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남원노봉서원고문서』에 수록된 고문서는 대부분 첩역·중수·제수품 지급·권리규정 등의 내용이 실려 있어 서원 운영의 전반에 대해 살필 수 있다. 19세기 전후로 작성된 것이 주를 이루며, 그 내용도 잡역 면제 등 서원의 경제적 이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당시 서원이 교육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서원이 점차 재지사족, 특히 문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노봉서원은 1871년에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는데 바로 그 이듬해인 1872년 11월 18일에 재산 분배 문서인 「노봉답고집물분거록(露峯畓庫什物分去錄)」을 작성했고, 21일에 배향인물의 후손인 삭녕 최씨와 해주 오씨가에서 서원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 문제로 회합하여 「노봉토재집물분집완약문(露峯土財什物分執完約文)」을 작성했다.

「노봉답고집물분거록」을 살펴보면 속공된 토지 이외에 나머지 땅을 네 등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배향된 다섯 명의 후손 중 서원 운영에 간여하지 않은 홍순복의 후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명의 후손들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실제 삭녕 최씨 가문과 해주 오씨 가문 간의 재산은 3:1의 원칙에

49)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p.465.

따라 분급되었다.

「노봉토재집물분집완약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후산(後山)은 본래 폄재 최온이 입안한 땅이며, 또 그의 종손이 서원의 터를 지키며 살고 있으므로 종손에게 돌려주되, 오래 기른 큰 나무는 벨 것을 허락하지 말고 뒷날을 기다리고, 콩밭[太田]도 역시 입안한 땅이므로 종손에게 돌려주고 또한 훗날을 기다린다. 만약 만일의 일[서원 복원]이 있으면 산과 토지는 원중(院中)에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수기(手記)를 받아 뒷날 상고에 증빙으로 삼을 일이다.
1. 안산(案山) 한 기슭은 일찍이 두 집안에서 각각 10냥 씩 돈을 걷어 산 땅이므로 반으로 나누어 차지하고 각자 큰 나무를 오래 돌보며 뒷날을 기다릴 일이다.
1. 다섯 분의 제기와 서책, 문권(文券)은 모두 궤짝에다 넣어 선동(仙洞) 노유암(露濡菴; 露濡齋)에 보관하니 두 집안 자손들은 절대 사사로이 열어보지 말 일이다.
1. 토지와 재산을 넷으로 나누어 맡게 되었으니 각자 그 몫을 지켜 뒷날을 기다린다.[50]

서원의 후산은 폄재 최온의 종손에게 주며, 안산은 삭녕 최씨와 해주 오씨 두 가문에서 나누어 갖고 제기·서책 등은 삭녕 최씨의 재실인 노유암에 보

---

50) 一. 後山 本是砭齋先生立案之地 而且其宗孫方守居院址 故還付宗孫是矣 長養大松 則勿許斫伐 以竢後日是遣 太田亦立案之地 故還付宗孫 亦竢後日 若有萬一之事 則山與田 還納院中之意 捧手記 以藉後考事
一. 案山一麓 曾是兩家 各十兩式收錢 買得之地 故半分差知 各自長養大松 以待後日事
一. 五先生祭器及書冊文券 併爲櫃藏於仙洞露濡菴 則兩家子孫 切勿私自開坼事
一. 土與財 旣是四分差知 則各守其條 以竢後日是齊(『남원노봉서원고문서』, 「노봉토재집물분집완약문」, p.296 탈초본 참조). 탈초본 안에 '半分差則'의 '則'은 '知'이며, '以竢後日事'의 '竢'는 '待'이므로 바로잡았다.

관하며 토지와 재산을 4등분으로 나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만약 서원이 복원되면 두 집안에서 나눠 가진 토지와 문서는 서원으로 환속시킬 것을 수기로 받아 후대의 증빙자료로 삼았다. 서원이 훼철된 이후 삭녕 최씨와 해주 오씨가(家)에서 서원의 재산을 나눴다는 것은 서원 운영의 전반을 두 가문에서 주도함으로써 노봉서원이 '문중 서원'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Ⅳ. 맺음말

남원 노봉서원은 17세기 중엽 향촌 사족들과 삭녕 최씨 문중이 중심이 되어 건립되었다. 이후 삭녕 최씨 가문이 성장세에 따라 남원에서 여론지지 기반이 탄탄해지자 1696년에는 서원의 사액을 요청하였고 다음해인 1697년에 무난하게 사액 받았다. 사액서원이 되면서 면세전·제수품·원속 등의 대부분을 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등 서원의 재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장이안」·「심원록」 등 운영에 관련된 고문서 분석을 통해 노봉서원은 삭녕 최씨 문중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였으며, 남원의 핵심 사족들도 서원의 원임으로서 서원 운영에 대거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7~18세기를 지나 후대로 갈수록 서원의 갖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서원 철폐령이 내려져 1871년 노봉서원도 결국 훼철되었다.

전북지역 서원연구는『전북원우록』등을 분석하여 서원의 개괄을 다룬 논문 등이 두어편 있는 정도로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전북지역 서원사례를 다룬 첫 연구이자, 남원 향촌 내에서 서원의 역할을 밝히기 위한 초석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봉서원의 건립과 운영이라는 그 자체에만 주목하여 향촌 사회 내에서 노봉서원의 역할이나 의의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남원 내 서원의 역할과 의의를 살피기 위해서는 주요서원 비교연구와 사족 관계망 분석을 등을 통해 삭녕 최씨 가문의 동향 내지 위상이 보다 정치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東國輿地誌』『書院謄錄』『朔寧崔氏世譜』『續大典』『承政院日記』『燃藜室記述』『龍城誌』『全北院宇錄』『朝鮮王朝實錄』『고문서집성』72

김봉곤・김아네스,『南原露峯書院古文書』, 디자인흐름, 2010.

金鉉榮,『朝鮮時代의 兩班과 鄕村社會』, 集文堂, 1999.

宋俊浩,『조선사회사연구』, 一潮閣, 1987.

윤희면,『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李樹煥,『朝鮮後期書院硏究』, 一潮閣, 2001.

이해준,『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경인문화사, 2008.

鄭萬祚,『朝鮮時代書院硏究』, 集文堂, 1997.

최승희,『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고석규,「조선 서원・사우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역사문화연구』,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1987.

김봉곤,「15, 16세기 지리산권(남원・함양) 사족의 혼인관계와 정치・사회적 결속」,『역사학연구』49, 호남사학회, 2013.

_____,「지리산권(남원)사족 삭녕최씨 가계기록과 통혼권」,『고문서연구』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宋俊浩・全炅穆,「南原都護府 屯德坊의 歷史에 관한 現存 資料」,『전라문화연구』5, 전주향토연구회, 1991.

오경택,「조선중기 全州地域 士族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윤희면,「朝鮮 後期 兩班士族의 鄕村支配」,『호남문화연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7.

_____,「朝鮮時代 書院 院任 硏究」,『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회, 1993.

한문종,「全北 地方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考」,『전라문화논총』3집,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89.

_____,「전북지방의 서원・사우의 복설 운동」,『전라문화논총』5집,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2.

안승준,「南原・求禮 朔寧崔氏家와 所藏 古文書에 대하여」,『고문서집성』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o-bong seowon

Kang, ji hye*

Nobongseowon which is the remains of Sak-nyeong Choi families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the their family development had great fame and effect in the community when it was built in 1649. In 1697, it was provided Saaek(賜額), Offering goods needed for ancestral rites in spring and fall, and special exemption 3, Confucian scholar 20, Bono 20, Jeopin 40.

When it was first built, Nobongseowon was used to worship Hong sun-bok, Choe sangjung and Oh jeong gil who are Joobyeok and it added Choe-on in 1661 and Choe hwi-ji in 1694. Especially, the Choe-on and Choe hwi-ji were the people who played a pivotal role of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eowon.

Looking at the「Jangyian」of the Nobong seowon, the people who had been director, Jangyui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amilies of Sak-nyeong Choi and most of them are from the families of leading Sajok in Namwon.

「Simwonrok」is the recording written by visitors of seowon and it was recognized as the 'Cheonggeumrok' of Confucian scholar-list at the moment.

---

* Jeon-ju University the doctor's course in history

In the case of Nobongs eowon, it has been visited by 1258 visitors for 222 years and Sak-nyeong Choi, Jeon-ju Lee, Nam-won Yang, Hae-ju Oh, and jin-ju So are the visiting orders from the largest.

The best number of visitors was the era of suk-jong which had a lot of changes of government and the time when the seowon was being developed and sa-aek. Most of the possession and item have the documents of the requests for exemption of odd jobs about Jeopin.

Most of the messenger, Go-mok, Seo-mok have the requesting documents for cooperation, which are the documents of the distributing for ancestral rites of Nobong seowon and securement of lumber needed for rebuilding of the seowon.

Wanmun is the document of permission from leader of Namwon to Nobong seowon for the odd-jobs exemption of member.

Most of the ancient documents related to Nobongseowon have contents about Role obligations · rebuilding · providing Offering goods · right rule and easily examined throughout the management of seowon.

Most of them were written around 19 century, the contents are mostly about the economic profit of seowon like odd-jobs exemption.

After the 17~18 century, seowon's were followed by various evils so Nobong seowon was finally removed by order of government.

Concrete details about the removal was found in 「No-bong dapgojipmulbungeo rok」, 「No-bong tojaejipmulbunjip wanyak-mun」 and it said that their property and house were distributed to Sak-nyeong Choi and Hae-ju Oh families in the proportion of three to one.

Nobong seowon was the sa-aek seowon which practically has the central operating body by the Sak-nyeong Choi family and strong Sajok of Namwon who are executive of seowonplayed the key role of lecture

hall or popular opinion of region by participating in management of seowon.

Key words : Namwon, Jeonbuk-wonwoo rok, Nobongseowon, Sak-nyeong Choi families, sa-aek seowon

淸末 서원 교학과 운영의 正體

- 湖南省 嶽麓書院을 중심으로 -

이영란*

Ⅰ.머리말
Ⅱ. 改章前 악록서원의 교학과 경영
Ⅲ. 1896년 악록서원의 改章
Ⅳ. 改章後 악록서원의 신교육체제
Ⅴ. 맺음말

<국문요약>

19세기 말 근대라는 과제 속에 호남성의 지식인들 사이에 중시되는 개혁 부분은 교육개혁이었다. 특히 서원이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보다 교육개혁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였다. 무술변법시기 호남성 지식인들은 서양의 교학방식이 아닌 서원의 학술적 성격으로 복귀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호남성 개혁에 주목하여 장정 개정을 하고자 했던 호남성 서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남성을 대표하는 嶽麓書院을 사례로 이들의 개혁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개장이전의 악록서원은 학생 가운데서 우수한 학생을 선출하여 齋長으로 삼아 교육을 주관하게 하는 담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재장을 중심으로 한 자유스러운 강학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악록서원 측의 의지는 호상학의 경세치용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원의 장서 기능은 경학 이외에도 다른 학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쉽게 학술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다만 여전히 실용적 학문을 위주로 하는 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사

1896년 改章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악록서원에서는 여전히 전통서원 학술연구와 교학방식을 유지·계승하여 호남성 출신의 원장이 主講하면서 제자들에게 호상학의 경세치용 사상을 보급하여 중국근대 인물을 배출하고자 하였다. 改章한 이후에는 각과에 학장제를 도입하여 학장과 재장 모두 실용학문을 익힌 인재가 채용되어 전문교육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특징을 갖는다. 즉 학생과 스승의 관계, 자유로운 토론, 학생의 品德 등의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는 교학방법을 유지하였다. 반면 악록서원에서도 算學과 譯學 등 실용 학문의 교과 과정 편성과 함께 譯學 교습을 초빙하는 전문교사제를 도입하여 산학과 역학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호남성 지식인들은 서원에 뿌리를 두고 교과 과정과 운영방식을 개편함으로써 인재가 양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원 개혁에 앞장섰다. 이러한 목표들은 호남성의 省城書院인 악록서원에도 영향을 주어 개장의 실제 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호남성 지식인들은 서원에 뿌리를 두고 교과 과정과 운영방식을 개편함으로써 인재가 양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원 개혁에 앞장섰다.

주제어 : 청말, 중국서원, 호남성, 악록서원, 원장, 자유토론, 실용학문, 전문교사

Ⅰ. 머리말

19세기 말 근대라는 과제 속에 호남성의 지식인들 사이에 중시되는 개혁 부분은 교육개혁이었다. 특히 서원이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보다 교육개혁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였다.

전근대 시기 호남성의 지식인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호상학파가 경학 연구를 위해 실시하였던 교학방식인 강학과 학술연구는 중요한 서원의 교육방식이었는데, 무술변법시기 호남성 지식인들은 서양의 교학방식이 아닌 서원의 학술적 성격으로 복귀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호남성 지식인들은 서원의 체제변화와 교육내용을 재정립함으로써 중국의 근대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즉 그들은 교육개혁의 근본적 사상의 뿌리를 호상학에 두고 경전 연구의 교학방식을 재정립하여 근대교육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1896년 각 省의 서원을 정돈하여 인재를 육성하자는 논의가 제기되면서[1] 호남성의 지식인들도 서원 개혁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興學의 초점은 서원 폐단을 살피어 서원을 정돈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고 보고 서원개혁을 통한 교육체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호남성 교육의 근간이 되는 서원의 장정을 개정하여 중국의 근대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호남성 지식인들의 움직임은 호남성 교육개혁의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호남성의 省城書院인 악록서원 원장 왕선겸은 서원 폐단을 시정하고 改章하여 서원 개혁의 선두에 나섰다. 그는 1897년 禮部의 각 조항을 살펴서 실사구시의 견지에 따라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도록 장정을 개정하였다.[2]

본고는 기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3]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호남성 개혁에 주목하여 1896년 말 장정 개정을 하고자 했던 호남성 서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호남성을 대표하는 嶽麓書院을 사례로 이들의 개혁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악록서원 개장 이전을 대상으로 원장들의 교학 방침과 조직, 교과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2장에서는 악록서원의 개장방향과 보충 그리고 전통 서원의 기능 가운데 장서의 기능이 유지되면서 악록서원의 새로운 교육 개편을 위한 도서를 제공하였던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3장에서는 각각 개장 후 새롭게 배우는 학습내용과 교학의 방침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禮部議覆整頓各省書院摺」(光緒22年11月), 『皇朝經世文新編』 第6冊 學校 上, 『學制史料』 下, pp.157~158. 1896년에 山西巡撫 胡聘之, 刑部侍郎 李端棻, 總理衙門, 翰林院侍講學士 秦綬章 등이 각 성 서원을 정돈할 것을 주청하였다.

2) 「嶽麓書院院長王先謙月課改章手諭」, 『湘學新報』第9冊, 1897년 7월 10일(光緒 23).

3) 拙稿, 「戊戌變法時期 湖南省의 新式書院－嶽麓書院院과 時務學堂을 중심으로」, 『明淸史硏究』 第31輯, 2009, pp.213~215.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교육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의 유교문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서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국내외 서원연구 경향을 정리하였다.

Ⅱ. 改章前 악록서원의 교학과 경영

1. 원장들의 교학방침

송대이래 朱熹, 張栻, 王守仁 등이 강학하였던 악록서원은 많은 인재들이 수학하였던 서원이다. 중국의 제일서원을 손꼽히는 악록서원은 그 관리와 학습내용에서 호남성뿐 아니라 중국의 전근대시대 서원의 학풍을 대표하는 기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근대 서원학풍은 서원을 담당하는 원장들의 개인적인 지침과 관리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재임하는 원장별로 당시의 서원을 방침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개장 이전 악록서원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강의 임무를 맡은 사람을 院長(山長)이라 한다. 唐宋代 이후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학식이 풍부한 대학자나 유명한 스승이 원장을 담당하였으나, 明代 이후 청대에 들어 팔고문이 발달하면서 원장의 학문 또한 이전과 같지 않았고, 때문에 서원의 위상 또한 원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원에서는 학술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학자가 원장이 되어 자신의 사상과 학파를 보급하고자 하면서 서원을 유지・경영하였기에 서원 경영에서 무엇보다 원장의 역할은 중시되었다. 서원의 주지자인 원장은 '館師' '掌教' '山長' 등으로 불리다가, 건륭중기인 1765년에 '院長'이라는 명칭을 공식으로 한다는 詔諭가 내려지면서 습관상 불리던 산장 대신에 원장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4)]

악록서원에서도 원장 1인이 서원 관리체제를 주지하는 시스템인 院長制에 따라 원장이 서원을 총괄하고, 교학과 행정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되어

---

4)『欽定大清會典事例』卷三百九十五 禮部, 學校 各省書院 乾隆 30年 諭旨, "各省書院延師訓課 向有山長之稱名義殊爲未協 既曰書院 則主講席者自應稱爲院長."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청초인 1652년에 악록서원을 복원하여 다시 신정기(1903년)에 학당으로 개편되기까지 약 250여 년 간, 악록서원을 주지한 원장은 38명이었다.[5]

《嶽麓書院學規》18條를 제정하였던 왕문청이 악록서원 원장으로 부임한 1748년(乾隆 13)을 분기로 대부분의 원장이 진사출신이었던 점에서 악록서원의 위상이 전과는 다르게 매우 중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호남성의 진사출신 이상이 악록서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는 사실은 서원이 관학을 대체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건륭 년간인 1741년 사고전서를 편찬하기 위해 천하의 서적들을 모으고자 하였던 국가적 시책을 고려한다면, 송대 설립이후 서적보관을 중요한 기능으로 하였던 서원의 역할이 적극 평가되면서, 특히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악록서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악록서원 원장들 중 王文清,[6] 歐陽厚均, 丁善慶, 王先謙 등은 호남성 출신의 저명한 학자로 장기간 악록서원을 주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악록서원의 교학방침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악록서원이 복원된 이후 첫 호남출신의 진사로 악록서원에 부임한 원장 王文清은 經史의 학습방법과 태도를 강조하였다.

왕문청은 매일 경서와 강목을 학습하고, 시무와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면서 또한 고문시부를 함께 읽고, 읽은 바를 글로 옮겨 쓴다는 학습지침을 서원 학생들에게 강조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學規 자체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학습내용의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시부와 경서를 위주로 하여 글을 작성하는 문장연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학습방법을 강구하여 학생

---

5) 拙稿, 위의 글, p.217, 238, 악록서원 역대 원장(1652~1903)의 명단.

6) 『湖南省志』人物志, 上冊 (1), pp.187~188, 왕문청의 호는 九溪(1688~1779; 寧鄕縣), 1748년에 악록서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서원의 규약과 학풍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그는 「讀經六法」 正義, 通義, 餘義, 疑義, 異義, 辨義와 「讀史六法」 記事實, 玩書法, 原治亂, 考時勢, 論心術, 取議論을 저술하여 독서방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들에게 연습시키고자하는 원장의 의지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덕,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행과 덕행을 규정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와 성현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근검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등 유교적 덕목으로 학생들의 일반생활에 대한 규범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7)]

또한《王九溪先生學箴》九首(1964년)에서 "학문은 孝悌를 우선으로 하고 古人을 추앙해야한다. 학문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용감함도 겸손함도 갖추어야 한다. 선비는 지조가 있어야 한다. 벗을 가리어 택해야 한다. ……" 등 학문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9가지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학습방법과 생활규범 그리고 학문하는 이가 경계 내용이 왕문청에 의해 처음 창도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가 특별히《왕구계선생학규》혹은《왕구계선생학잠》등을 지어 강조한 것을 보면, 이 같은 학습방법과 생활규범이 청조중기 무렵의 악록서원을 비롯한 호남성 서원들에서의 일반적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호남 淸泉출신의 진사 丁善慶[8)]은 1846년에서 1868년까지 23년간 원장을 역임하면서 주강하였다. 그가 원장으로 재임하였던 시기는 청조가 태평천국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태평천국군이 1851년 금천에서 봉기하고 호남성을 위협하여 1852년 장사를 공격하자 정선경은 학생들에게 火器를 학습시켜 훈련에 참가하도록 조치하는 등 호상학의 경세적 측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임기 중에 악록서원의 齋舍와 房舍 등을 재건하였고, 임기말년인 1867년에는『續修嶽麓書院志』를 纂輯하였다. 원래 악록서원지는 강희 26년인 1687년에 趙寧이라는 사람이 諸生들과 함께 자료를 모아『長沙府嶽麓志』를 纂修한 것이 전해져 왔는데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난 탓에 빠진 내용이 많아 정선경에 의해 새롭게 찬수된 것이『續修嶽麓書院志』였다.『속수악록서원

7)《王九溪先生學規》18조(1748년), 拙稿, 위의 글, pp.222~223.
8)『湖南省志』人物志, 上冊 (2), pp.271~272, 정선경(1790~1869; 淸泉)

지』에는 악록서원의 현상뿐 아니라 年表, 廟祀, 田額, 規條와 藝文, 書籍 등이 기록되어 개장이전 악록서원의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다. 『속수악록서원지』에 학생들의 교학방침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정선경이 스스로 수집하였던 도서를 藏書樓에 배치하였었는데, 장서의 수가 무려 14,130권에 이른다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상을 접하게 하려는 악록서원 원장의 학습 방법을 읽을 수 있다. 그의 대표적 학생으로는 태평천국 시기에 활약하였던 曾國荃과 劉長佑 등이 있다.

한편 1838년에 악록서원에서 수학하고 원장으로 부임한 인물로는 장사 출신의 진사 周玉麒[9]를 들 수 있다. 그는 1858년 城南, 求忠書院에서 3년동안 주지한 후 1868년에서 1875년까지 8년간 악록서원 원장으로 주강하였다. 이 때 그는 학생들이 작성한 課藝 200여 편을 모아 『嶽麓書院課藝』를 편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와 같은 장사 출신의 진사로 마지막 원장인 王先謙[10]은 1894년부터 1903년까지 10여 년 동안 서원을 주지하여 악록서원 개혁과 전통계승을 주도하였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서원의 개혁 내용은 Ⅱ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원장들의 교학지침을 살펴볼 때, 비록 서원이 과거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전락하였다고 할지라도, 악록서원에서는 원장들을 중심으로 경사위주의 강학, 원장 스스로의 저작을 통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전달, 그리고 실용적인 학문을 강구하고자 원장의 노력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방침을 바탕으로 서원교육에서는 원장과 제자가 함께 경세치용적 학술연구와 더불어 강학을 통한 토론을 중심으로 호상학의 학풍을 전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술변법시기 악록서원의 원장이었던 왕선겸은 악록서원을

9) 『湖南省志』人物志, 上冊 (2), p.336, 주옥기(1804~1875; 長沙)

10) 『湖南省志』人物志, 上冊 (2), pp. 513~515; 『戊戌變法人物傳稿』 上, pp.597~601, 왕선겸(1842~1917; 長沙)은 악록서원 원장이 되기 전에 1891년(光緒17; 50세)에 思賢講舍의 主講者이었고, 또한 城南書院에서 1893년(光緒19; 52세)에 강학을 하였다.

중심으로 세력형성을 하여, 지방 관료 그리고 개혁세력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2. 조직과 교과 과정

왕문청 원장은《王九溪先生學規》혹은《王九溪先生學箴》에서 학습지침을 정립하여 서원의 교육방침으로 학생들에게 강조하였다. 또한 정선경 원장은『續修嶽麓書院志』찬수작업으로 악록서원의 위상을 세움으로써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장의 교학에 대한 방침은 그가 서원에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학습과 운영 전반에 깊게 작용하였다. 서원에서 여러 교관에 비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서원 조직을 중심으로 한 경영과 학생들의 관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개장 전 서원의 교학과 운영의 특징을 밝히는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기 때문이다.

왕문청의 재임기간이었던 1765년, 서원에서는 조직상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1765년 산장이라는 명칭은 건륭의 공식적인 유지에 따라 원장으로 바뀌게 된다.[11] 乾隆 28년인 1763년 악록서원 조직은 산장 직속에 董理書院教官이 교학과 학생관리 및 그 외 잡역관리(역도참판, 학서는 도서관리, 각재 화부, 문부, 당부는 잡역관리)를 관리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태평천국을 진압한 이후 1868년에 악록서원 원장 정선경은 호상학의 경세치용에 따라 악록서원을 정돈하였다. 먼저 동리서원교관을 監院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재정을 관장하는 首士와 수업을 담당하는 齋長으로 업

11) 拙稿, 위의 글, p.218 <그림 2> 악록서원의 조직구성에서 同治 7년(1868년)의 조직구성, p.230 <그림 3> 光緖년간 악록서원의 조직구성에서 山長을 院長으로 명칭을 변경 수정해야 한다.

무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12] 정선경은 태평천국 시기 학생들을 동원하여 서원을 사수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續修嶽麓書院志』로 악록서원의 중요성을 정리해 내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악록서원마저 과거를 준비하는 세태로 흘러 자유강학이 규제되고 있음을 한탄하며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에도 반대하였다.[13] 아무튼 이 무렵 학생 가운데서 우수한 학생을 선출하여 齋長으로 삼아 교육을 주관하게 하는 담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재장을 중심으로 한 자유스러운 강학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악록서원 측의 의지는 호상학의 경세치용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장과 監院의 바로 아래 학생을 대표하는 齋長을 뽑아 그로 하여금 교육을 주관하게 하는 강학의 분위기는 왕문청의 시기에 비해 상당히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경서 해석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치적 강학과 토론을 지향하는 악록서원의 특색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무엇보다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을 주관하게 하는 이러한 조직구성은 재장이 되는 학생의 자질과 교육적 수준이 상당히 평가를 받는 우수한 학생의 존재를 서원자체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재장까지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의 존재는 상호간의 자유강학을 통해 학습을 진작시킬 수 있는 통로로 서원이 더욱 주목받게 되는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원의 원장 그리고 재장을 중심으로 한 교학방식은 학생들의 선발과 대우도 좋아졌을 것이다.[14] 평가 기준은 덕행과 학업 성적이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면 왕문청이 《王九溪先生學規》와 《王九溪先生學箴》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학습방향과 생활지침도 우수학생의 기준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

12) 楊布生, 『嶽麓書院山長考』,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6, pp.217~219.
13) 『皇朝續文獻通考』 卷232, 兵考 31, p.9776.
14) 拙稿, 위의 글, p.219, 학생의 선발과 대우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포함하여 서원의 운영에는 적지않은 재정규모가 필요하다.[15] 서원의 수입원은 다양하였는데[16] 악록서원 재정은 여전히 學田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학전은 公田과 개인의 기부에 의해 서원의 소유로 된 전답, 택지, 연못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서원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개장된 이후에도 서원은 각 성에서 징수된 세금에서의 원조와 기부금을 받아 경비를 충당하였고, 재정 지출은 원장의 월급과 학생들의 생활비, 교육 경비, 서적구입과 제사 비용, 행정비로 사용하였다. 서원의 경제적 자립문제는 서원의 자유로운 학술 연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관에 예속되었던 서원의 재정은 서원의 학술 연구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다만 원장들이 학생들의 장학금에 많은 비용을 할당함으로써 학생들이 모여 수학할 수 있는 공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악록서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四書五經과 서원 大師의 연구 성과물을 주요 교재로 학습하였다. 그 외 유학자들의 강의와 어록 注疏를 부교재로 하여 小學과 大學과정을 거쳐야 했다.[17] 악록서원의 교수방식은 청대 서원의 일반적 교수방식인 分年法과 自學法, 그리고 講會法[18]을 적절히 이용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는 교수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따라서 청대의 서원이 과거위주의 학습으로 흐르더라도 항상 토론과 강학을

15) 「長沙嶽麓書院續志－附錄 書院舊規」(同治 6; 1867년), 趙所生, 薛正興 主編, 『中國歷代書院志』 4冊, 江蘇教育出版社, 1995, pp.433~434; 鄧洪波 외3, 『嶽麓書院史略』, 嶽麓書社, 1986, pp.134~135; 황혜, 『청대 악록서원 교육제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p.31, 40, 51.

16) 「長沙嶽麓書院續志」 田額(同治6; 1867년), 『中國歷代書院志』 4冊, p.421~422.

17) 拙稿, 위의 글, p.219.

18) 陳元暉 外, 『中國古代的書院制度』, 上海教育出版社, 1981, pp.141~143; 『中國書院資料』 中, pp.1575~1576, 악록서원 원장 李文炤(1717년(康熙 56))가 제정한 「嶽麓書院學規」에 학생들은 매일 강당에 나아가 경서를 통달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 변론하고 불분명한 것이 있으면 반복하여 밝히도록 한다. 그래도 깨우쳐지지 않으면 차기에 기록하여 원장에게 그 해답을 구하여 마음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위주로 하는 자유강학은 서원을 통해서 면면히 이어질 수 있었고, 특히 과거위주의 학습을 반대하는 원장들에 서원이 유지되는 경우, 자유강학의 학풍은 관학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시되었다. 악록서원 역시 과거준비에 게을리 할 수는 없었고, 다만 다른 서원들에 비해 과거위주의 토론과 자유강학을 지향하고자 하는 학습법이 특색을 보인다.

청대 대부분의 서원이 과거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이 되었던 것처럼 악록서원조차 관학화되면서 과거시험을 위한 서원으로 전락해갔다.[19] 그러나 악록서원에서 王文清, 丁善慶, 王先謙 등과 같은 자유강학과 학술연구, 간행사업을 중시하는 원장들에 의해 자유강학의 전통과 학습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악록서원의 원장들은 비록 전면적으로 과거를 부정하지는 못하였지만, 호남성의 호상학적 전통이 악록서원의 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관계로 발전해 가는데 이 부분은 다음 Ⅲ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Ⅲ. 1896년 악록서원의 改章

1. 改章의 방향과 목표

왕선겸은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1894년에 악록서원에 부임하였다. 부임 후 곧 청일전쟁 패배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주창하기 시작하던 당시 교육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

19) 片山兵衛는 「近世中國の書院について－西南部地域を中心にして」(『日本の教育私學』 教育史學會紀要 第18集, 講談社, pp.71~72)에서 중국의 서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청조의 간섭결과 서원 본래의 자유로운 정신을 위축시켜 서원교육이 형식화되어 침체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다. 1896년 말 그는 호남성 제일의 서원을 고쳐 새로운 방식으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욕을 펼치고 서원개장을 실행하였다.

왕선겸이 시행하고자 하는 악록서원의 개장 방향은 시무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원의 교학방식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악록서원의 개장 항목 가운데 외국어 교육 과정을 세심하게 규정하고, 「譯學會章程」에서 時務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악록서원 안에서 언어 분야를 중요 과목으로 다루었다.[20] 다만 그는 개장하기 이전 德育을 병행하여 스승과 제자 간의 자유강학의 공간으로서 학술연구를 하였던 특히 호남성 서원의 호상학적 학맥 전통에 의거한 교육 방침을 강조하였다. 그는「嶽麓書院新定譯學會課程」[21]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엄격함을 강조하며 스승에 대한 예우와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행에 관하여 규정을 빠뜨리지 않았다. 스승과 학생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 장정 안에는 전통 서원에서 사제지간의 관계를 기초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였던 것처럼 악록서원이 새롭게 개장된 이후에 새로운 지식체계의 학풍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 전수될 것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사제의 관계를 재차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서원에서의 학맥전통을 계승하는 기본 방향과 함께 그는 여러 학생들에게

> "……예로부터 학문의 길은 먼저 사특한 의견들을 제거하고 나서야 비로소 靈明한 마음을 열 수 있다. 중국학인은 종종 사견으로 가려서 詞章을 말하는 자는 考據가 性靈을 해친다고 말하고 훈고를 강학하는 자는 文人을 비루하다고 가볍게 여기고 理學이 흥한 즉 朱陸이 다투고 고증학이 흥하면 漢宋이 다투고 지구가 통한 즉 중국의 학문과 서양의 학문이 또한 다툰다. 학문하면

20) 언어교육의 시도와 개장 장정에 나타나는 교수법과 학습방법에 관한 내용은 Ⅳ장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이다.

21) 「嶽麓書院新定譯學會課程」, 『湘學新報』, pp.267~270, 拙稿, 위의 글, p.223.

서 몸소 쓴맛 단맛을 경험한 사람이 변론하거나 절충하는 것을 학설이라 하였다. 경박하고 천박한 자도 말을 표절하여 나에게 침을 뱉고 멋대로 떠들면서 실학에 힘쓰는 것을 막고자하니 아침 내내 논쟁만하였다. 보통사람은 무지하고 미혹한 바가 있고 지사들은 방해를 받아 모두 성취하기가 어려우니 매우 크게 탄식할 만하다. 천하에 사람을 이끌어 주는 데 학문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잘못 이끄는 사람은 있어도, 학문을 하여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나는 늙어 시무에 깨우침이 없어 오직 스스로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으로 사람들 앞에 학문으로 결코 나갈 수 없으니 여러 학생은 넓고 치밀하게 익혀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반복하고, 학습이 향상되면 세상의 요구를 주지해서 유용한 인재가 되어, 撫部院에서 성심으로 베푼 은혜와 원장의 작은 성의를 저버리지 말아야 넓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22)

라 하여 실용적인 학문을 다양하고 넓게 익혀 학업에 힘쓰기를 당부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학문을 주도할 세력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시무에 밝아야 하고, 또 경세치용적 실학이 중요한 세상의 이치임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상비판과 자아성찰, 그리고 후세들에 대한 실학 실현의 기대가 바로 인재양성의 산실인 악록서원의 개장으로 이어지면서 악록서원은 원장 왕선겸의 의도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2. 실용전문도서의 확충

서원은 본래 장서보관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악록서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개장 전 서원에서 보관하는 책은 주로 經史百家의 책이었고, 개장이후에는 전통서적과 함께 洋務, 新學, 時務, 西學 등의 책도 함께 보관

22)「嶽麓書院院長王先謙月課改章手諭」光緒 23년(1897.7.10.),『中國書院史資料』下冊, pp.2015~2016; 朱有瓛,『中國近代學制史料』第1輯 下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6, pp.431~432.

하였다. 특히 개항이후 서양과 관계가 밀접해지는 시기인 1846년에서 68년까지 악록서원의 원장으로 있었던 丁善慶은 새로운 신사조의 책에 대한 애착을 보이며 장서 수집에 적극적이었음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이다. 결국 이 무렵부터 이전과는 다른 장서를 보관하기 시작하지만 대대적인 외국서적의 수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일본, 안남 외의 많은 서양인 저작의 책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대 중국에서 번역서적의 발달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지만, 일단 서원의 장서 변화자체는 서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양의 책을 접하게 되면서 독서의 범위가 확대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악록서원에서 배치된 장서 대부분은 여러 방법으로 서적을 구매하여 소장한 것이었다. 황제로부터의 賜書를 포함하여 지방 관아에서의 구입과 서원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 이외에도 사회적 인사의 기부와 서원 자체에서 간행한 도서도 상당하였다. 이처럼 기부를 받아 근대전문지식의 서적이 장서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서원의 경비 중 충당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서원이 자체적으로 간행도서는 『嶽麓志』, 『嶽麓書院志』, 『嶽麓課藝』, 『嶽麓詩文鈔』가 있다. 그리고 서양 관련 과목인 서양 도서도 적지 않았다. 아래 <표 1>은 당시 악록서원에서 어떠한 서적을 기부받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상보』 제61~70호에 실린 서적이다.

1898년에 觀察使 蔡德鈞, 觀察使 劉麒祥, 庶常 熊希齡이 함께 기부하였던 서적은 주로 수학, 과학 그리고 부국강병관련서적 등으로 약 120種 400여冊에 달한다. 수학 관련 서적으로 『數學理』, 『數理精蘊』,[23] 『弦切對數表』, 과학관련 서적에 『化學考資』, 『電學』(electricity), 『聲學』(acoustics), 『光學』(optics), 『煉石篇』, 『談天』(원명이 『天文學綱要』)과 醫學書인 『類症活人書』 그리고 부국강병과 관련하여 『東方時局論略』, 『保富述要』, 『工程致富』, 『井

23) 강희제 때 편찬한 수리정온은 1713~1722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초등수학백과전서로서 上篇 5卷과 下篇 40卷, 數學表 4種 8卷으로 청대 산학 진흥의 주요한 표지이다.

礦工程』, 『美國水師考』, 『海軍調度要言』, 『兵船氣械』, 『航海要術』(地學書) 등이 중국내에서 번역 출판되면서 지식인들의 주목하자, 그들도 악록서원의 장서루에 기부하였다. 무술변법전후 이러한 기부로 악록서원의 근대 전문서적 관련의 장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이는 곧 서원의 학생들과 호남성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악록서원의 장서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악록서원에 기부된 서적들[24)]

게재호수	서적명	분량	서적명	분량	게재호수	서적명	분량	서적명	분량
湘報 第61號	製火藥法	1冊	化學鑑原續編	6冊	湘報 第65號	測候叢談	2本	平遠地球圖	1副
	地學淺釋	8冊	金石識別附表	6冊		化學補編	6本	臨陣管見	4冊
	化學鑑原	4冊	四裔編年表	4冊		電學鍍金	1本	寶藏興焉	16冊
	御風要術	2冊	鐵路記要	1冊		水雷秘要	6本	格致小引	1冊
	防海新論	6冊	海道圖說	10冊		兵船汽機	8本	西藥大成	16冊
	汽機發軔	4冊	水師操練	3冊		航海章程	1本	鍊銅要言	1冊
	輪船布陣	2冊	交食引蒙	1冊		三角數理	6本	西藝知新	6冊
	攻守礮法	1冊	繪地法原	1冊		水師章程	16本	西藝知新續刻	8冊
	微積溯原	6冊	礮準心法	2冊		水師保身法	1本	列國藏計政要	6冊
	航海簡法	2冊	石印八省沿海全圖	79張		行軍鐵路工程	1本	英俄印度交涉書	1冊
	纏離引蒙	2冊	器象顯眞	3冊				開地道轟藥法	2冊
	運規約指	1冊	各國交涉公法論	16冊	湘報 第69號	保富述要	2冊	鑄錢工藝	2冊
	恒星圖表	1冊	克虜伯礮說	2冊		礮乘新法	6冊	船塢論畧	1冊
	開煤要法	2冊	克虜伯礮藥彈造法	3冊		西藥表	1冊	東方時局論畧	1冊
	汽機必以	6冊	化學分原	2冊		汽機表	1冊	英國水師考	2冊

24) 「蔡觀察德鈞劉觀察麒祥熊庶常希齡同捐入」, 『湘報』, p.532; 蔡德鈞과 熊希齡은 1897년 봄에 湖南內河輪船을 설립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이후 시무학당 설립에도 동참하였다. 劉麒祥은 호남 湘鄕사람으로 상해에서 강남제조국 總辦에 부임하여 활동하였다.

	汽機新制	2冊	行軍測繪	2冊		化學表	1冊	行船免衝章程	1冊
	算式集要	2冊	治金錄	2冊	湘報 第70號	臨陣傷科	4冊	鍊石編	2冊
	海塘輯要	2冊	測地繪圖	4冊		工程致富	8冊	營工要覽	2冊
湘報 第65號	談天	4冊	代數術	6冊		九數外錄	1冊	子藥準則	1冊
	兵船礮法	3冊	光學	2冊		公法總論	1冊	對數表	4冊
	數學理	4冊	爆藥記要	1冊		八線簡表	1冊	鉄甲叢談	2冊
	電學	6冊	東方交涉記	2冊		算法統宗	4冊	疇人傳	12冊
	代數難題	6冊	電學綱目	1冊		前敵須知	5冊	美國水師考	1冊
	行海要術	3冊	內科理法	12冊		勾股六術	1冊	英國水師考	1冊
	化學考質	6冊	銀礦指南	1冊		礮法畫譜	1冊	附開方表	1冊
	電氣度線	1冊	化學求數	14冊		佐治芻言	3冊	數理精蘊	3冊
	藝器記珠	1冊	考工記要	8冊		算學啓蒙	2冊	衍元要義	1冊
	聲學	2冊	儒門醫學	4冊		董方立遺書	1冊	海軍調度要言	2冊
	井礦工程	2冊	格致啓蒙	4冊		弦切對數表	1冊	英國水師律例	2冊
	營城揭要	2冊	營壘圖說	1冊		類症活人書	4冊		

악록서원의 서적 기부에는 蔡德鈞, 劉麒祥, 熊希齡이 참여하였다. 그들이 기부한 서적은 주로 수학이론서, 의학, 과학 등의 여러 지식 관련 서적 외에도 『東方交涉記』는 외교 및 지리에 관한 서적으로 새로운 서양각국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지식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 청말 수학가인 丁取忠이 자신의 수학연구저서인 『度里表』, 『數學拾遺』의 저서 외에도 21종 수학서적인 『算學總書』를 함께 기부하였다. 실용 서적이외에도 曾國荃은 왕부지의 58종 저작을 수집한 『王船山遺書』를 기부하였다.[25]

악록서원의 장서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은 보다 깊은 수준의 학술연구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원의 학술 수준도 높아지기

25) 陳谷嘉・鄧洪波 主編, 『中國書院制度研究』, 浙江教育出版社, 1996, pp.181~184.

시작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서원의 藏書屢에 소장된 책은 서원의 학술 연구를 한층 심도 있게 하였다. 서원에서는 장서 기능을 유지하여 중국 전통 서적뿐 만아니라 서양의 여러 도서를 구매하여 소장하는 여러 지식인이 읽을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적 기능으로 확대되었다.[26] 서원의 장서 기능은 경학 이외에도 다른 학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쉽게 학술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다만 여전히 실용적 학문을 위주로 하는 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Ⅳ. 改章 後 악록서원의 신교육체제

1. 專門敎師의 설치

악록서원 역시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기관이었지만, 악록서원 원장 가운데 몇몇은 실용적인 학문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1868년에는 원장 정선경은 우수한 학생을 선출하여 齋長으로 삼아 교육을 주관하게 하는 서원의 자유 강학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무술변법시기 악록서원의 원장이었던 왕선겸 역시 서원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는 八股文 위주의 서원 교육은 인재배출이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자유로운 강학과 학술 연구를 위해 악록서원의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27] 악록서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장 아래에 각 과목에 학장을 설치하여

---

26) 拙稿, 위의 글, p.226, 많은 책을 구매 소장하였던 전통 서원의 藏書 기능을 답습한 서원의 장서는 일반적으로 서원의 師生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그 성격이 공공도서관의 성격으로 바뀌었고 서가 안에는 열람 장소도 개설되어 편의가 제공되었다. 서원의 장서는 각 서원이 제정한 도서 관리제도와 도서 대차제도 등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을 보면 근대 도서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7) 拙稿, 위의 글, p.230. <그림3> 光緖년간 악록서원의 조직구성, 鄧洪波 외3, 『嶽麓書院史略』,

그들로 하여금 교과를 담당하는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조직체계를 제안하여 전문 강의가 가능한 자를 초빙하는 방향으로 악록서원을 개장하였다. 개장 이전 악록서원의 조직구조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원장 직속에서 齋長을 관리하는 學長의 존재이다. 여기에서 학장은 다른 지도교사 이상 전문적인 학문을 강학하고 지도도 함께 하는 전문교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무술변법 이후 악록서원은 經學, 史學(輿地), 掌故學, 譯學, 算學 5科에 각각 學長 1인을 초빙하여 원장에 직속배치하고 학장을 두어 각 과목에 전문적인 교육을 주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가운데 선발하였던 재장에서 더 나아가 학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전문화된 교사제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특히 5과목 중에 역학과 산학은 이전에는 접해 보지 않은 새로운 학문이었기 때문에 개장 이후는 악록서원에서는 재장을 두고 각 실용학문의 보급에 목표를 두었던 점을 보충하여 신학문 학습에의 의지가 강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악록서원 측은 譯學, 算學 등의 실용 과목을 배치하여 전문화를 꾀하였는데, 다만 신설된 과목은 학생 모두가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은 아니었고, 선택과목으로 권장되었다. 그리고 算學을 학습하여 통달한 학생에게는 齋長이라는 직책을 주었다.

그런데 1868년 원장 정선경은 악록서원의 조직 개편에서 감원 직속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首士와 수업을 관리하는 齋長을 설치하고, 우수한 학생을 齋長으로 삼아 학생들의 자유강학을 주도하게 하는 시도를 실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에서의 업무와 수업은 모두 원장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지만, 改章한 이후에는 각과에 학장제를 도입하여 학장과 재장 모두 실용학문을 익힌 인재가 채용되어 전문교육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특징을 갖는다.

嶽麓書社, 1986, pp.118~122; 朱漢民, 『嶽麓書院的歷史與傳統』, 湖南大學出版社, 1996, p.44.

원장을 중심으로 한 서원의 교학체제가 개장이후는 전문교사제로 변화하게 되는데, 서원의 전문교사제도는 전문 지식을 전수한다는 교육적 방법론에서 호남성 지식인의 배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악록서원은 호상학의 학맥을 통해 사제지간의 학술을 연계하는 사상적 무대가 되었는데, 전문교사 또한 실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서원 원장에 의해 적극적으로 악록서원에 도입됨으로써 호남성의 인재를 배출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실용학문으로서의 교과 과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록서원의 교과 과정 안에는 전통과목인 經學, 史學・輿地, 掌故 세 과목이외에 算學, 譯學의 실용적인 두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총 5분야에 관한 전문 학습이 가능한 체제였다. 전자인 세 과는 전통적 經, 史, 掌故의 학문을 익히도록 한 것으로 원장이 직접 전 과정을 강학하였다. 산학은 과정 중의 학생 중 과목을 가장 잘 이해하고 통달한 자를 齋長으로 삼아 학습하게 하였고, 역학은 외부에서 선생을 초빙해 학습시켰다.

새롭게 설치된 역학과 산학 과정은 3년 과정이었는데, 산학은 60명의 학생을 그리고 역학은 40명의 학생을 정원으로 삼았다. 악록서원에서는 입학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원한 후 산학과 역학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28] 이렇게 악록서원에서는 이전부터의 서원에서 실시한 학습방법론에 근거하여 경학을 학습하게 하고

28) 「嶽麓書院院長王先謙月課改章手諭」(1897년(光緒 23)), 『中國近代學制史料』 第1輯 下冊, p.432; 구범진, 「清 嘉慶~道光初 兩淮鹽商 沒落의 原因」, 『東洋史學研究』 제107집, 2009, p.225, 은가 폭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출납에서 은과 전의 병용을 주장하였고 그 시점은 1844년(道光24) 이후였다. 일반적으로 1串文은 1兩, 1兩은 1,000文(錢)으로 환산한다. 은가 등귀로 은의 단위인 냥으로 환산하지 않고 일반 동전으로 환산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신학문 특히 역학과 산학과 같은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도록 권장하였다. 이렇게 악록서원에서 산학과 역학의 실용학문을 지원하는 학생에게 지원금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신학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에서의 譯學 즉 외국어 교육은 무술변법시기에 강조되어 실제로 湘鄉 東山精舍에서 1896년에 처음 장정을 규정하여 실시를 도모하였지만 경비부족이 원인이 되어 실제 외국어 교육으로 까지 진행시키지는 못하였다.[29]

그에 비하면 외국어과목이 개설되었던 악록서원은 비교적 구체적인 지원과 학습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湘學新報』에 게재되어 있어 외국어과목에 대해 단계별로 학습하는 과정을 살펴보기에 매우 유용하다. 기사 내용을 통해서 역학과정에서 학습하는 외국어는 영어와 프랑스임을 알 수 있다.[30]

『湘學新報』에서 소개된 악록서원의 영어와 불어 학습과정에 따르면 역학과정은 3년 에 걸치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학습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다. 전체적으로 영어 문법과 회화에 불어의 글쓰기 위주의 수업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학습과정 자체는 상당히 체계적이다. 영어는 특히 영문법과 회화를 나누어 교육시키되 무엇보다 영문을 중시하여 매학기 영문 관련의 서적을 필독하면서 작문 등 글쓰기를 연습한 후 4학기부터는 번역을 포함한 글쓰기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譯學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배운 과정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 시험을 보아야 할을 뿐만 아니라, 반마다 大考와 小考를 50일 간격으로 시험을 보아 대고에서는 50%, 소고에서는 25%만을 합격시켰고, 공부시간은 시작 학기에는 매일 오전 3시간, 그 이후 학기부터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모두 6시간으로 규정하였다.[31] 자체 시험을 통해 까다롭고 엄격한 과정을 학습하게 하고

---

29) 「湘鄉東山精舍章程」(1896년(光緖 21)), 『中國書院史資料』下冊, p.2205.
30) 拙稿, 위의 글, pp.233~234.
31) 「嶽麓書院新定譯學會課程」, 『湘學新報』, pp.267~268; 考試, 時候.

또 공부시간도 지정하여 외국어 습득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적절한 시험과 시간을 배정하고자 하는 세밀함을 읽을 수 있다.

아무튼 엄격한 학생의 학습 관리를 통해 먼저 한반을 만들어 다음해 상반기에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질과 학문의 우열을 구분하여 학업이 우수한 자를 頭班 그렇지 못하고 우열하거나 새로 입학한 학생들은 二班으로 하였다.[32] 우열을 가리는 과정 역시 경쟁으로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습득시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서원 측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업시간에 사제 간의 문답에도 모두 영어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수업 이외 시간에 서로 만나면 영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조차 영어 사용에 힘쓰고자 하는 노력도 보여 진다.

정원이 40명이었던 역학과정에서 새로 입학한 학생은 2개월 후 읽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처리하고 퇴출시켜 버리되 새로운 학생은 수시로 모집할 수가 있었다. 40명의 정원 외에 1명은 추가 입학도 가능하였다.[33]

또 이 장정에서는 이후의 모집계획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새로 입학모집의 예정에 관해서는 영문학습이 선행된 학생들만 입학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당시의 입학에 필요한 영문법의 수준을 알기는 힘들지만, 청일전쟁이후인 1895년 同文館내에 東文(일본어)館을 개설해 두고 일본에 학습에 힘을 쏟던 사회적 분위기[34]와는 달리 영어와 불어위주의 외국어 학습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이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다만 당시 이러한 외국어 학습을 통해 졸업한 학생들의 정확한 숫자와 졸업 후의 진로 등에 관해 상세하게 남아 있지 않아 악록서원의 역학과정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개장 후 새로운 제정한 역학 과정에 대한 계획안은 서원측에

32) 「嶽麓書院新定譯學會課程」, 『湘學新報』, p.268; 班數, p.269; 額數.
33) 「嶽麓書院新定譯學會課程」, 『湘學新報』, p.269; 額數, 黜退.
34) 劉建雲, 『中國人の日本學習史－清末の東文學堂』, 東京 : 學術出版會, 2005, pp.79~84.

서 외국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교육에 대한 강건한 의지는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무술변법시기 개장이후 악록서원은 算學과 譯學을 교과 과정에 설치하여 學長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화된 지도교사를 채용하였고, 또 산학과 역학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악록서원이 개장 후에도 기존 서원의 조직, 학습내용, 학생모집, 재정 등에서 기존의 서원 운영방법을 따르고 있다. 다만 일찌감치 치용의 실학을 주장하면서 개혁에 앞장선 악록서원의 전문교사제 즉 학장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실용학문을 학습할 수 있는 학과를 설립하여 서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악록서원의 개장 이전과 이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악록서원도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관학화되어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1840년대 이후 서원의 전통학술방식을 계승하기 위한 원장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악록서원 원장 가운데 王文清, 丁善慶, 周玉麒, 王先謙 등은 제자들에게 강학활동, 학술연구 그리고 간행사업을 추진하여 서원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서원에서의 실용학문을 강구하였다. 정선경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성 악록서원 원장들의 끊임없는 변화의 추구와 학습의지는 그때그때 마다 악록서원 자체의 개편을 동반하면서, 악록서원은 지도교사제(齋長)를 도입하여 다양한 서적을 학생들에게 읽히며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1896년 改章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악록서원에서는 여전히 전통서원 학술연구와 교학방식을 유지・계승하여 호남성 출신의 원장이 主講하면서 제자들에게 호상학의 경세치용 사상을 보급하여 중국근대 인물을 배출하고자 하

였다. 즉 학생과 스승의 관계, 자유로운 토론, 학생의 品德 등의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는 교학방법을 유지하였다. 반면 악록서원에서도 算學과 譯學 등 실용 학문의 교과 과정 편성과 함께 譯學 교습을 초빙하는 전문교사제를 도입하여 산학과 역학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호남성 지식인들은 서원에 뿌리를 두고 교과 과정과 운영방식을 개편함으로써 인재가 양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원 개혁에 앞장섰다. 이러한 목표들은 호남성의 省城書院인 악록서원에도 영향을 주어 개장의 실제 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1896년 말 악록서원의 원장 왕선겸은 과거를 준비하는 서원 원장이었지만, 서원의 개장에 앞장섰다. 이렇게 호상학의 학풍에 기반을 두고 실용을 목표로 한 악록서원에서 서원 원장은 교육 개혁을 단행하였다.

서양의 여러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여겼던 그들은 바로 호남성 서원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악록서원에서는 호남성의 호상학적 전통에 근거한 경세치용적 학풍을 최대한 활용하여 완만하지만 근대적 인물 배출을 위한 교육 개혁을 서원에서 시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湘報》報館編,『湘報』全2冊, 中國近代期刊彙刊 第2集, 中華書局, 2006.
『淸朝續文獻通考』卷232, 浙江古籍出版社, 2000.
『欽定大淸會典事例』, 光緖 25년 刻本, 卷三百九十五 禮部, 新文豊出版公司 印行, 1976.
譚嗣同, 唐才常, 熊希齡 編,『湘學新報』全4冊, 淸末民初報刊叢編之一, 臺北 : 華文書局, 1966.
麥仲華,『皇朝經世文新編』第6冊, 近代中國史料叢刊 第78輯 771, 臺北 : 文海出版社, 1972.
趙所生・薛正興 主編,『中國歷代書院志』4冊, 江蘇敎育出版社, 1995.
朱有瓛,『中國近代學制史料』第1輯 下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6.
陳谷嘉・鄧洪波 主編,『中國書院資料』上, 中, 下, 浙江敎育出版社, 1998.
湯志鈞,『戊戌變法人物傳稿』上, 中華書局, 1982.
湖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湖南省志』第30卷 人物志 上冊 (1)(2)(3), 湖南出版社, 1982.
鄧洪波 외3,『嶽麓書院史略』, 嶽麓書社, 1986.
楊布生,『嶽麓書院山長考』,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6.
朱漢民,『嶽麓書院的歷史與傳統』, 湖南大學出版社, 1996.
陳谷嘉・鄧洪波 主編,『中國書院制度硏究』, 浙江敎育出版社, 1996.
陳元暉 外,『中國古代的書院制度』, 上海敎育出版社, 1981.
劉建雲,『中國人の日本學習史－淸末の東文學堂』, 東京 : 學術出版會, 2005.

구범진,「淸 嘉慶~道光初 兩淮鹽商 沒落의 原因」,『東洋史學硏究』제107집, 2009.
이영란,「戊戌變法時期 湖南省의 新式書院－嶽麓書院院과 時務學堂을 중심으로」,『明淸史硏究』第31輯, 2009.
丁洛贊,「청대 악록서원의 교육과정 변천」,『동아인문학』Vol.21, 2012.
황 혜,『청대 악록서원 교육제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片山兵衛는「近世中國の書院について－西南部地域を中心にして」,『日本の敎育私學』敎育史學會紀要 第18集, 講談社.

清末书院教学以及运营本质

－以湖南省岳麓书院为中心－

李暎兰*

在19世纪末被称为中国近代的课题中，湖南知识人所重视的改革中的一部分便是教育改革。特别是书院所处的位相占据了所有教育改革中最重要的位置。戊戌变法时期湖南省知识人们也主张恢复非西洋教育方式的书院所具有的学术性格，并要求解决自身的时代问题。

提倡中国近代化进程中湖南省改革改制章程的湖南省书院为中心进行研究。把代表湖南省的岳麓书院作为事例来分析改革方向。

改章前岳麓书院在这一时期将优秀学生选举为斋长主管教育，实行大胆的组织改编，创造以斋长为中心的自由讲学氛围，看出了岳麓书院方面的意志。这些举动在湖湘学的经世致用中可以找到。书院的藏书机能向除经学以外的其他学问领域感兴趣的各位研究者提供了可以轻松进行学术研究的机会。只是仍然以实用学问书籍为主这一点有一定的限制性。

1896年选择改章方法的岳麓书院仍然保持并继承着传统书院学术研究和教学方式，湖南省出身的院长既是主讲，又向弟子们普及湖湘学经世致用的思想，欲培养中国近代的人物。但是改章以后，在各科投入学长制，学长和斋长应该是熟悉所有实用学问的人才，并且他们在专门教育中起到中坚作用，

* 朝鲜大学校 基础教育大学 讲师

这几点成为其最大特征。即维持着强调学生和老师的关系，自由讨论，学生的品德等儒教道德的教学方法。相反岳麓书院也安排了算学和译学等实用学问教科课程，导入招聘译学教习专门教师制度，采取分阶段学习算学和译学的教学方式。

湖南省知识人以书院为根本，改变教科课程和运营方式，怀着培养人才的信念，带头进行书院改革。这些目标对湖南省省城书院岳麓书院以及改章的实质内容也产生了不小的影响。湖南省知识人以书院为根本，改变教科课程和运营方式，怀着培养人才的信念，带头进行书院改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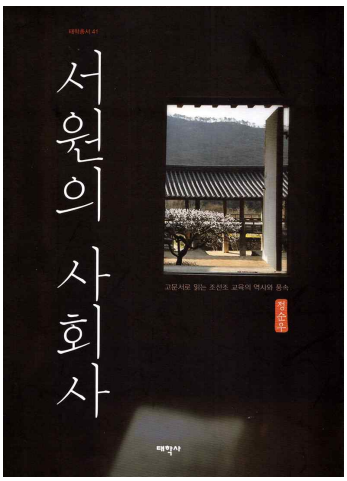
关键词：清末，中国书院，湖南省，岳麓书院，院长，自由讨论，实用学问，专门教师

[서평]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342면

이해준(공주대 사학과)



2013년 6월 발간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순우 교수의 새로운 저서 『서원의 사회사 – 고문서로 읽는 조선조 교육의 역사와 풍속』은 지난 2013년 3월에 펴낸 『서당의 사회사』와 짝을 이루는 대표저서이다. 저자는 조선후기 교육사와 지성사 분야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로 그 대표적 명망을 지녔다. 특히 한학의 기본 소양과 가문연구의 전통을 이어서 조선조 선비들의 사유 방식과 삶의 태도를 다양한 시선으로 헤아려 보고, 그 현재적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연구자로 정평을 얻고 있다.

서원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이후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고, 특히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중에서도 서원의 형성과정과 사림세력의 동향, 서원의 정치적 환경 등에 관한 폭 넓은 논의를 통하여 한 단계 심화시킨 정만조(『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의 연구를 시작으로 서원의 조직체계, 운영방식, 경제력 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심화시킨 이수환(『조선후기서원연구』, 일조각, 2001), 윤희면(『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등의 연구는 서원에 관한 안정된 이해의 틀을 구축해 주

었다. 그리고 이해준(『조선시대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의 문중서원 연구는 중국서원과 구별되는 조선조 서원의 특징을 밝혀 주는 주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들 역사학계의 논의 이외에도 서원교육에 관한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정순목(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 1979)의 연구와, 서원건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조선 문화의 특징을 읽어 낸 이상해(『서원』, 열화당, 2004), 김봉렬(『서원건축』, 대원사, 1999) 등의 연구도 매우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교육사학자로서 저자는 아쉬움이 없지 않음을 토로한다. 즉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들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서원연구가 좀 더 외연을 넓히고, 논의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던지는 이 화두와 중요한 관점들은 앞으로 교육사나 서원연구자들에게 계속될 문답이 아닐까 싶다.

1. 저서의 내용목차

머리말

제1부 고문서로 본 서원의 역사
제1장 서원의 탄생
1. 소수서원의 창설 과정과 그 성격
2. <심도>를 통해서 본 주세붕의 서원관
3. 남계서원의 사액과 그 성격
제2장 서원의 일상, 서원의 풍경
1. 서당, 서원의 일상과 풍경
2. 병산서원의 일상과 재정 운영
3. 서원의 건립과 문중 연대
4. 고성 지역 한 서재훈장의 농촌생활

제2부 고문서를 통해서 본 교육과 사회변동
제3장 신분과 교육
1. 국가와 교화
2. 영남 지역 교생의 신분적 특성
제4장 신분제의 갈등과 서원
1. 신분제의 갈등과 경주 장산서원
2. 서원의 역할 변화와 경주 용산서원
제5장 조선 후기 양사재의 성격과 교육활동
1. 양사재의 성격문제
2. 양사재와 양인층의 동향
3. 양사재의 거접의식과 교육활동
제6장 서원·향교 운영과 대민지배방식
1. 16세기 서원·향교와 촌민의 역역
2. 17, 18세기 서원과 촌민의 역역

제3부 학교의 제향공간과 교육문화
제7장 서원의 향사와 의례 문화
1. 서원 향사와 위계적 질서
2. 역천서원의 향사의례와 향권
3. 모리재의 의례와 정치권력
제8장 조선 후기 학교의 영건 의례와 그 의미
1. 서원의 영건 과정과 의례
2. 향교의 영건 과정과 의례

결어
참고문헌

2. 고문서로 본 서원의 역사

제1부 고문서로 본 서원의 역사에서 저자는 서원의 탄생과 서원의 일상, 서원의 풍경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창설 초기 서원이 사림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다.

소수서원의 경우 단순한 사학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공증과 감독을 받는 관학적 요소도 함께 갖추었는데, 이는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세울 때의 모델이 바로 송대 서원으로 관학과 사학의 절충 형태, 이른바 '官學書院'의 형식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초기 백운동서원의 설립과정에서는 이 서원을 '國庠'으로 지칭하는 용례가 자주 발견된다. 주세붕에 따르면 國庠이란 용례는 주자의 <白鹿洞賦>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 뜻은 이 서원이 조정의 각별한 지원과 관리를 받자 '국상'이라는 호칭이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당시 향교나 성균관 같은 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에서 강학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훈구세력이나 사림세력이나 공히 마찬가지였다. 남곤 등의 공신세력들로도 송대의 제도를 모방하여 유현들에 대한 사묘를 건립하되, 이를 국가가 사후 통제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314면)라 하여 조선사회에서 서원의 출현이 사실상 훈구세력과 새로운 사림세력의 상호 이해가 합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세붕의 서원 창설에 관한 구상이 초기에 지역의 사림세력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 왔던 사실도 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며, 그럼에도 서원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관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퇴계 이황이었다고 한다.

즉 퇴계가 가장 강조한 것은 국왕을 포함한 관료층의 서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었으며, 그는 백록동서원을 '國庠'이라고 하였던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그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

라 소수서원은 사실상 관아에서 서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물자를 충당하고, 최종적으로 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관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수서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학과 관학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소수서원에 이어 건립된 남계서원과 임고서원의 사례를 분석하고, 서원은 비로소 이 단계에 이르러 중국 송대 서원의 특징인 관학과 사학의 절충 형태, 이른바 '官學書院'의 형식을 탈피하고 상당 부분 조선조 서원의 고유한 모습을 보여 주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들 두 서원의 설립과 사액은 주자에 의해 강조된 또 다른 측면, 즉 사학 고유의 도학적 이념의 전통이 사림세력들에 의해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서원의 일상과 풍경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서원들이 통문을 통하여 상호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사림들은 서원을 통해 그들의 존립을 위한 상호보험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영향력이 광범하게 외부에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원은 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으며 서원은 백성들이 지닌 가중한 부세와 극심한 가난, 이로 인한 고통을 관에 호소하고 民會를 주도하면서 평민들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보호자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의 영향력도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급격히 퇴조함을 도산서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병산서원의 學規를 분석하여 교육활동과 일상생활은 어땠으며, 가장 중요시하던 제향에 필요한 비용이나 재정, 그 시행과정이나 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나를 분석하는가 하면, 서원을 통해 어떻게 문중연대가 실현되는지를 살핀다. 저자는 병호시비의 한 축인 호파의 자료인 『臨川書堂重建日記』와 『陶淵日記』를 분석하고, 陶淵書院의 향사 참여층과 1,8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봉안제 분석을 통해 향촌 내 자파 세력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여러 문중들 간의 결속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음을 주목하고 있다.

3. 고문서를 통해서 본 서원 교육과 사회변동

제2부 고문서를 통해서 본 교육과 사회변동에서는 고문서를 통해 조선조의 서원교육과 사회변동이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살피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교육의 역사와 풍속」이라는 주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 주지하듯이 서원에는 통문, 소지, 품목, 완문, 절목과 같은 관과 왕래한 공문서와 서원의 각종 교육과 운영에 관련된 성책고문서들이 남아 있다. 이들 다양하고 풍부한 양의 고문서 자료를 통해 조선조 교육과 서원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서원별 미시사적 연구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서원은 단순히 강학기능만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림공론을 모으는 정치기구, 부세와 군역의 문제를 아우르는 경제단위, 그리고 제향기능과 각종 의례를 집행하는 일종의 종교 기능까지를 포괄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화형식이었다

저자는 이런 모습을 경주 장산서원과 용산서원, 그리고 충렬서원 자료를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장산서원은 18~19세기 영남지역의 노론계와 노론 정부의 도움, 그리고 경주부윤의 지원 하에 설립 운영된 서원이다. 이 장산서원의 유생안을 분석한 결과 다른 서원과 달리 대부분 양인 혹은 군역에 차출당한 자라는 점을 밝힘으로서 종래 교화의 객체로 인식되던 평민층이 교육기관에 차츰 편입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또한 경주지역 龍山書院의 경우를 예시로 武班과 서족 출신들이 서원에 주향이 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18세기 중엽 이후 이 서원이 거접을 비롯한 다양한 흥학책을 통하여 서원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家格을 유지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원이나 향교가 어떻게 力役에 일반 평민들을 동원하였는지를 추적하여 충렬서원의 경우에서 보듯 17세기 후반기부터 수당을 주고 역부를 고용하는 고립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밝히고 있다.

4. 서원의 제향공간과 교육문화

제3부 학교의 제향공간과 교육문화에서는 제향공간으로서 서원의 가능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역천서원의 제의와 도산서원의 중건일기를 통해 서원향사와 의례 문화, 영건 의례와 그 의미를 다루고 있다.

안의지역 嶧川書院과 초계정씨의 사례를 통해서 저자는 사족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원 제향기능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이는 서원의 제향의례와 위차 문제를 통해 가문 간의 위계를 확보하려는 기도였고, 또한 초계정씨 일문의 某里齋 의례활동을 통해 중앙정계의 핵심적인 노론세력과 제휴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까지 수반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저자는 사족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례 절차와 참례 자격 등을 통해 서원의 제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도산서원의 『영건일기』를 통하여 開基告祀에서부터 마지막 奉安禮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각종의 工役에는 다양한 의례절차가 담겨 있음을 살피고 있다. 도산서원의 영건일기를 보면 중건과정의 모든 공역이 의례를 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 이러한 의례들을 통하여 서원은 향중에서의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고, 사림들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5. 종합적인 서원교육사 연구를 기대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 책에서 거론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바로 서원 연구과정에서 저자가 생각하는 한국교육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다.

서원교육의 실상과 서원문화의 특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조선조 사족문화의 존재 형태와 그 성격에 대한 보다 폭 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 서원을

통해 성리학적 세계관이 어떻게 조선사회에 뿌리내려 변용되고, 확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교육사에서 서원에 관한 연구가 부진한 이유를 저자는 개항이후 신교육이 이 땅에 자리 잡은 이후 서원이 봉건성과 전근대성이라는 멍에를 둘러쓴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순목의『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의 선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개화되지 못하고 오랜 휴면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사적 연구관점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서원교육에 관한 (1) 인문학적 접근, (2) 사회경제적 접근, (3)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 교수방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바로 그것인 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하면서 간략하고 미흡한 서평을 마치고자 한다.

한국의 서원은 교육사적 관심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서원교육에 관한 인문학적 접근이다. 조선시대 서원이 추구했던 목표와 그 교육철학의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호학파나 퇴계학파와 같은 다양한 학파에 따라 그들의 교육내용과 사상적 지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조선시대 지성사의 흐름과 각 학파의 道統상 계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지식의 지형도에 관한 교육사 나름의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서원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이다. 서원 교육이 과연 어떠한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서 생성, 발전, 변화, 소멸의 과정을 거쳤는지 구명하는 것이다. 물론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을 포함한 인접 분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원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교육도 특유의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서원을 떠받들고 있던 경제적 토대, 신분제적 특성, 종법적 질서 등은 모두 서원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들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토 없이 서원교육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에만 치중

한다면 그것은 자칫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은 교육학자들의 고유한 소임인 서원의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 교수방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조선시대 서원과 서당 혹은 향교에서 사용한 모든 교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서지학과 문헌학을 전공한 학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으나, 교육사 분야에서도 집중적인 조사 작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서원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승으로서의 師長, 혹은 山長에 대해 인접 국가와 비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저서 312~313면)

6. 저자의 주장, 그리고 남은 과제

『서원의 사회사』라는 책제에서 느껴지듯, 저자는 이상의 논의 전개를 통하여 서원을 단순한 교육과 강학의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그 외연과 변천사, 그리고 '서원이란 과연 어떤 성격의 학교였는가'하는 점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나 싶다. 저자가 가장 먼저 한국 서원이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탓일 것이다.

조선조 대부분의 서원은 동일한 성리학적 세계관, 좁게는 주자학적 세계관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정통성과 기본 특징을 지녔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주자를 제향하는 서원에 양명학자, 심지어는 도가적 인물이나 음양가의 인물을 함께 배향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향인의 수도 매우 많다. 한편 일본의 서원에서 보이는 불교와 서양학과의 교류는 조선의 서원과 그 류가 전혀 다르다. 예컨대 불교 사원에서 주자학을 강론하기도 하고, 주자학과 神道의 결합을 적극 장려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개항기에는 서양 의학과 蘭學을 받아들이는 곳도 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서원은 단순한 교육 강학의 기능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문화적 기능을 포괄하는 사족들의 활동 거점이기도 하였다. 특히 학문적 스승을 받들고 학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서원은 제향기능은 그 어느 것보다 강화시켰다. 중국의 서원 연구자들이 한국서원의 과도한 제향기능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특성 때문이며, 위차시비나, 제향자의 선정이 바로 당쟁의 화근이자 유학적 차등의식의 뿌리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도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자는 한국의 전통교육을 관학과 사학으로 양분하고, 이들 양자를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경향이다. 그리하여 관학의 상징인 향교는 국가 주도의 교육기구로, 사학인 서원은 사림들의 독자적인 운영체제가 작동되는 공간으로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이러한 경향은 조선교육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며, 서원의 경우도 사학 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공증과 감독을 받는 관학적 요소를 함께 갖추었음을 소수서원의 건립사례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다. 중국 송대 서원의 특징인 관학과 사학의 절충 형태, 이른바 '관사합판(官私合辦)'의 형식이 초기 한국 서원에서도 보인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조선조 서원의 가장 큰 특징인 제향 기능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논의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서원의 제향 기능은 서원문화 중에서 가장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제향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종 제사와 의례는 향촌 사회 내부 서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설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 혹은 기호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향사의식과 각종 제의를 통해 서원 교육은 예의 세계로 편입되고, 동시에 사림집단은 예학적 질서 속에서 공동체적 일체감을 지닐 수 있었다고 본다. 또 서원에서 행해지는 제향과 각종 제의에는 단순히 道統 의식이나 學統 의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매우 복합적인 문화적 코드가 잠복되어 있다. 향사 의식을 통하여 서원은 여러 흩어진 유학적 의미체계와 상징체계를 묶어 주는 결절점이자 특권적 기표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끝으로 저자는 조선조 서원교육과 사회변동이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교육사(서원)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원 사료에 대한 이해와 연구 축적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교육사연구자들이 대부분 역사학계의 연구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한다. 그럴 경우 교육적 맥락에서 서원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러한 분절적이고 단편적 시론에 그친 연구를 극복하는데 이 책이 이 같은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할, 본격적인 교육사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도 인정하고 있듯이 또 하나 이 책에서 이루어내지 못한 아쉬움은 서원교육의 구체적 내용, 교육과 강학활동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서원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부면의 논의가 아쉬움으로 남게 된 것이다. 도산서원의 사례를 통해 강학활동을 다룬 저자의 「퇴계의 강학활동과 도산강회」(『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가 있기는 하나 저자의 폭넓은 식견과 안목에서 이 부면의 노작이 기대된다. 이 책이 서원강학과 강회, 그리고 거접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룰 새로운 저작의 출현을 앞당기는 예고편이기를 바란다.

휘보

활동보고

제2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주제 :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일시 : 2012. 4. 18. 14:00~18:00

공동주최 :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주제발표 및 토론>

_이수환 :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_김덕현 : 서원기문 및 금석·석각 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_옥영정 : 서원자료의 보존관리, 활용방향

_이해준 : 서원별 교육, 홍보자료의 편찬방향

<토론> 정순우, 김희태, 서정문, 권진호, 서병패, 강문식, 박성진, 박석홍

<자료> 세계유산 등재 9개 서원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제4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주제 : 『서원 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일시 : 2012. 11. 9. 10:00~17:00

공동주최 :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장소 : 충남 논산 돈암서원, 청소년수련관

<주제발표 및 토론>
_김덕현 : 서원 당호 현판의 교학적 의미
_이해준 : 서원 현판류(기문) 자료의 기록문화적 가치
_권진호 : 서원 현판류(제영) 자료의 문화사적 가치
<토론> 정우락, 이수환, 김문준
<자료> 세계유산 등재 9개 서원 현판자료 조사보고

제5차 서원 전문가 워크숍
주제 : 『세계유산 등재대상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일시 : 2013. 3. 15. 10:00~16:30
공동주최 :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주제발표>
_9개 서원의 보존 관리 현황(해당지자체 담당자 발표)
_이왕기 : 세계유산 등재대상 서원의 건축 및 시설물 보존관리의 당면과제
_최종회 : 세계유산 등재대상 서원의 주변환경 및 경관 보존관리의 당면과제
_박소현 : 세계유산 등재대상 서원의 통합관리 보존체계의 점검 및 실행과제

서원 전국학술회의
주제 : 『한국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일시 : 2013. 4. 18~4. 19
공동주최 : 한국서원학회,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장소 : 장성 필암서원(문화예술회관)
<발제> 연구(교육), 제향, 운영관리, 활용의 4개 분과로 나누어 기조발제를 하고 서원관련자의 자유 토론 후 종합 정리

2013년 도동서원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주제 : 『道, 東에서 꽃피다』

일시 : 2013. 10. 15. 13:00~17:30

장소 : 달성문화예술회관

주최 :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발제>

_정만조 : 한국서원의 발자취와 나아갈 길

_이수환 : 도동서원의 연혁

_김덕현 : 한훤당의 寒水照月과 한강의 中正仁義

_정순우 : 도동서원의 교육활동과 사족의 동향

_이상해 : 도동서원과 조선시대 서원건축

_최순권 :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_이병훈 : 도동서원 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한・중서원국제학술회의

주제 : 『동아시아 서원의 교육환경과 기록문화』

일시 : 2013. 11. 29~11. 30

공동주최 : 한국서원학회, 중국 악록서원, 한국국학진흥원

장소 : 한국국학진흥원, 달성 도동서원, 장성 필암서원

<학술회의 발제>

_김덕현(경상대) : 한국 서원의 경관구조와 교육환경

_朱汉民(湖南大学岳麓书院) : 書院與湘學學統

_이해준(공주대) : 필암서원의 기록문화

_徐勇(北京师范大学教育学院) : 东佳书堂小考

_李宁宁(九江学院庐山文化研究中心) : 从白鹿洞书院的环境看儒生的身隐与心隐

_張勁松(南昌师范学院) : 明李龄《宫詹遗稿》误收的两篇白鹿洞书院文稿

_최연숙(한국국학진흥원) : 도산서원의 고문서와 기록유산적 가치
_邓洪波(湖南大学岳麓书院) : 元代湖南书院的规模与规制
_肖永明 郑明星(湖南大学岳麓书院) : 融合与互动 : 书院文化空间中的大传统与小传统
_李晓宇(四川大学) : "蜀学"与"官学" – 19世纪中后期四川书院的传统与现实
<종합토론> 사회 정순우
<토론> 정연상(안동대),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정진영(안동대), 정순우(한중연), 이수환(영남대), 임노직(한국국학진흥원), 조준호(실학박물관), 이왕기(목원대), 이상해(성균관대), 황병기(국학진흥원)
서원답사(11월 30일) 달성 도동서원, 장성 필암서원

韓國書院學會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발굴·정보교환·토론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

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 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書院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평의원회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부회장(1인)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평의원(50인 이내) :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5. 이사(20인 이내) :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하며, 학회지 외 기타 출판물을 편집한다.
7. 자문위원(무정수) : 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 :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평의원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절 총회

제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평의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평의원의 인준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19조(구성과 소집) 평의원회는 50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평의원의 선출은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평의원회는 의장이나 1/3인 이상 평의원의 요구로 소집한다. 모든 사항은 과반수 의원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능) 평의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학회의 사업 방향이나 중요 업무를 심의 결정
2.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행 세칙이나 규정의 제정
3. 총회에 부의할 중요 안건의 심의

제3절 이사회

제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2조(기능)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제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 : 학회 조직, 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 : 연구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

진

3. 재무이사 : 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 : 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제25조(구성과 소집) 평의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출판)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6조(기능)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여기에 게재할 논문과 저작물을 심사한다.

제27조(저작물 심사)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28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9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30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제31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32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받을 수 있다.

제33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전일까지로 한다.

제35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평의원회에 보고하 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의 조성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편집규정

2011년 11월 1일 제정

제1조 이 규정은 韓國書院學會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學報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① 硏究論文

② 批評論文(說林, 論壇 등을 포함)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투고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은 전문가 3인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제6조(編輯委員會) 학보의 편집과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編輯委員會를 둔다.

① 編輯委員은 학회 이사로서, 전공분야에 업적이 인정되는 자를 會長이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② 編輯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맡으며, 편집이사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

고, 편집간사는 보조한다.

④ 編輯委員會는 위원 ⅔ 이상의 출석으로 成會하며,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編輯委員會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1,2월과 7,8월은 제외한다.

⑥ 編輯委員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編輯委員會 의결사항) 編輯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②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③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編輯諮問委員會의 설치와 기능) 學報의 수준 제고를 위해 編輯諮問委員會를 둔다.

① 編輯諮問委員은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회장이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編輯諮問委員은 20명 내외로 한다.

③ 編輯諮問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⑤ 旣 刊行된 학보의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제9조(논문 심사)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① 審査委員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編輯委員도 審査委員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②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審査委員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논문 심사 절차)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

재(A), 수정후게재(B), 재심의(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 : 게재

(A,B,B) (B,B,B) : 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 : 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 : 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 : 게재불가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에는 저자의 영문이름과 소속 및 지위 등을 명시한다.

④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

제12조(게재료 청구) 학회는 투고 논문이 학보에 게재가 결정되면 투고자에 대해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한다.

제13조(知的財産權) 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知的財産權은 학회에 귀속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15조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방침

본 학회의 편집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원칙

1) 투고 희망자는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흔글로 작성된 논문 파일(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주제어 5개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2) 원고분량은 연구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비평논문은 100매를 기준으로 한다.

3) 본 연구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구미 어문을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달기로 한다.

4) 본문 안에서 사료를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의 본문 중에 저자의 이름 밑에 붙이는 존칭은 일체 생략한다.

6) 논문 작성시 『조선왕조실록』 원문의 각주는 되도록 피한다.

7) 장제목은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Ⅰ, Ⅱ, Ⅲ……)로, 절 제목은 1. 2. 3의 형식으로, 항 제목은 1) 2) 3)의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8) 연대 표기는 서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괄호하여 왕대를 부기한다.

보기) 1727년(영조 3)

2. 문헌이용

1) 인용방법은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책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 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호수, 출판연도, 쪽수의 순서로 적는다.

2) 책명과 학술지명은 『 』로 표시하고, 논문제목은 「 」로 표시한다. 구미문헌의 경우 책명과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제목은 " "로 표시한다.

3) 쪽수를 표시할 때에는 'p.'으로 표시한다.

4) 韓國 古典의 경우는 책명, 권수, 몇년, 몇월로 적는다.

5) 학술지나 저서의 권수, 호수, 집수, 통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6) 쪽수는 권, 호, 집의 숫자 다음에 쉼표(,)를 찍고, 이어서 쓰되 여러 쪽이 계속 인용될 때는 시작하는 쪽수와 끝나는 쪽수 사이에 물결표(~)를 쓴다.

7) 문장 내용 중 강조는 ' ' 표시하고 인용문일 경우는 " "로 표시한다.

8) 앞에 인용한 문항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의 책, 앞의 논문, 위의 책, 위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구미문헌의 경우는 Ibid., op.cit를 사용한다.

9)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학계의 관행을 따른다.

보기) 『文宗實錄』 권10, 문종 원년(1451) 10월 6일(신미).

李滉, 『退溪全書』 卷9, 上沈方伯.

李海濬,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21, 1991, p.58 참조.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硏究』 집문당, 1997.

李海濬, 앞의 논문, 1991.

鄭萬祚, 앞의 책, 1997.

3. 참고문헌 작성 및 표기방식

1) 참고문헌은 원칙적으로 본문에서 인용한 저서와 논문으로 한정한다.
2) 단행본, 일반논문 순서로 작성하며, 학위논문은 일반논문에 포함시킨다.
3) 단행본과 일반논문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 줄 줄바꿈으로 나눈다.
4) 각 논저의 작성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저작과 외국어 저작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5) 배열순서는 한국어 논저의 경우 저자 가나다순으로 하고, 일본인, 중국인의 이름은 한자의 한국식 발음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한다.

4. 기타

1) 각주 속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경우, 인용문을 겹따옴표(“ ”)로 묶어주고, 전거는 그 뒤에 부기한다.

보기) “待敎朴文秀上疏 略曰 前正言羅學川疏有曰 辛丑以後 公道尤喪 大小榜眼 都是形勢 滿朝靑紫 不受人指點者幾人 臣卽癸卯榜也.” [『英祖實錄』 권2, 영조 즉위년(1724) 12월 6일 (을해)]

2) 표의 번호와 제목은 표의 위에,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의 아래에 표시하고, 각각 출전을 표시한다.

보기) <표 1> 조선시대 과거합격자의 차이(출전 : 『국조문과방목』)
<그림 1> 윤두서의 자화상(출전 : 홍길동, 『한국인의 자화상』, 민창사, 2011)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韓國書院學會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연구윤리위원은 편집이사와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제5조(심의 및 판정) 표절 및 중복게재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 조치를 행한다.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임원명단(임원)◆

고　　문 : 정만조(국민대)
회　　장 : 이해준(공주대)
부 회 장 : 정순우(한중연) 심경호(고려대), 김봉렬(종합예술대학)
감　　사 : 김인걸(서울대), 권오영(한중연)
총무이사 : 조준호(실학박물관)
재무이사 : 김명숙(동덕여대)
연구이사 : 심경호(고려대), 김봉렬(종합예술대학), 신차균(국민대),
지두환(국민대), 이수환(영남대) 옥영정(한중연),
최영진(성균관대)
기획이사 : 박종배(동국대) 이근호(국민대)
출판이사 : 김학수(한중연) 김자운(한중연)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규대(강릉대) / 전라・제주 윤희면(전남대)
/ 경상 정진영(안동대)
간　　사 : 정현정(공주대)

◆편집위원◆

심경호(고려대), 김봉렬(종합예술대학), 신차균(국민대), 지두환(국민대),
이수환(영남대),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최영진(성균관대),
박종배(동국대), 이근호(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이사 :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김자운(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간사 : 정현정(공주대)

제2호 값 10,000 원

2013년 12월 20일 印刷
2013년 12월 27일 發行
발행인 이해준
발행처 한국서원학회
발간처 민속원

314-701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신관동 182)
이해준 교수 연구실 ☎ 041) 850-8417
학회비 :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입계좌
농협 302-0211-1592-21, 이해준(한국서원학회)